박사학위논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유 범

2001년 7월 일

이 논문은 2001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박영순교수지도
박사학위논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7월 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유 범

김유범의 문학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01년 6월 일

위원장 박 영 순

위 원 성 광 수

위 원 정 광

위 원 金 武 林

위 원 김 성 규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2. 연구의 방법 3
3. 선행 연구 검토와 문제 제기 7

Ⅱ. 배경론 13
1. 형태소 · 형태 · 이형태 13
2.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18
3. 이형태의 유형 24

Ⅲ.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35
1. 이형태 목록의 작성 35
1.1. 조사 37
1.2. 어미 56
2. 이형태교체의 조건 81
2.1.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 81
2.1.1. 음운론적 조건 81
2.1.2. 형태론적 조건 88
2.1.3. 통사론적 조건 96
2.2. 문법형태소에 따른 이형태교체의 조건 99
2.3. 요약 123

3. 이형태교체의 내용 162
3.1. 이형태교체 내용의 유형 162
3.1.1.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 162
3.1.2.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 164
3.2. 문법형태소에 따른 이형태교체의 내용 166
3.3. 요약 193

Ⅳ. 형태 · 음운론적 쟁점에 대한 논의 217
1. 매개모음 첨가의 형태음운론적 해석 217
1.1. 매개모음 관련 현상에 대한 가능한 해석 방안의 검토 218
1.2. 자음의 강도를 이용한 매개모음 첨가의 음운론적 해석 221
2. 'ㄱ'탈락과 이형태교체 227
2.1. 'ㄱ'의 탈락인가, 약화인가? 227
2.2. 형태음운현상으로서의 'ㄱ'탈락 231
3.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의 이형태 235
3.1. '-샤(-)'는 과연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인가? 235
3.2. '오'계 어미의 '아'형 이형태 설정 가능성 237
4.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교체 247
4.1.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의 역사 247
4.2. 'ㄷ>ㄹ' 변화의 음운론과 형태론 260
4.3.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의 의미 266

Ⅴ. 결 론 275
참 고 문 헌 285
Abstract 29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논문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성들을 귀납함으로써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국어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형태소는 문법 체계에서 그것이 소리라는 형식과 함께 의미나 기능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이중적 표현(double articulation)'을 보여주는 제일선에 위치하고 있다(Spencer 1991). 다시 말해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는 의미의 차이를 구별해주는 음운들이 결합해 의미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결합적 요구에 의한 형태적 변화에 민감하고, 내용적으로는 의미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기본적 대상이 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것의 형식과 내용, 양 측면 모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형태소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형태소의 기능을 살피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소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어떠한 음운론적 실현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형태소의 이러한 측면은 전통적으로 '교체' 또는 '이형태교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고 언어학의 두 하위 분야인 형태론과 음운론의 관심이 한데 모이는 연구 대상이 되었다.

형태소의 형식이 변화하는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소리의 변화이므로 그것이 단지 음운론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한 형태소가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형식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형태론의 영역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소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될 때에는 음운 결

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운현상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상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형태론적 제약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될 때 나타나는 형태론과 음운론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문법형태소란 구체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법형태소의 범위를 한정시킨 것은 문법형태소들 중 조사와 어미의 경우는 문법형태소의 두 축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고, 각각 곡용과 활용이라는 나름대로의 범주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음운론적 과정들이 반영된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수는 모두 148개이다. 여기에는 격조사 21개, 보조사 22개, 종결어미 29개, 연결어미 58개, 전성어미 8개, 선어말어미 1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충분히 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15세기 문헌자료들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들에 대한 분석 태도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명확한 분석 태도를 취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국어의 문헌자료들은 정연한 표기법에 의해 당시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대부분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지 이형태들의 유형을 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형태론적 또는 음운론적 관심에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을 대상으로 개별 형태소의 기능 및 형태에 관한 고찰은 있었지만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체계 전체를 조망하여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지닌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성들을 이형태들의 체계라는 전체적 시각에서 살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에 어떠한 음운론적 과정과 형태론적 과정이 투영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보이는 교체의 조건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음운론적, 형태론적 과정들은 이형태 계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으로 나뉘어진다.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 대한 이러한 관찰은 이를 통해 15세기 국어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음운론적, 형태론적 사실들을 귀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 대해서는 주로 형태론적 차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음운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와 그렇지 않은 이형태가 표기상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15세기의 표기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당시의 음운 목록에 대한 고려와도 관련되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문제들 중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개모음 관련 이형태, 'ㄱ'탈락에 의한 이형태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그리고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와 관련된 문제들이 별도로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가 어떠한 교체 조건과 교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5세기의 각 문법형태소들에 어떠한 이형태들이 존재했는지를 파악하여 이형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이형태들에 투영된 형태론적, 음운론적 현상들과 구성 원리들을 귀납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 된다.

한 예로 15세기 국어의 격조사 {-과}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과', '-와$_1$', '-와$_2$'를 그 이형태로 갖는데, '-과'와 '-와$_1$'의 경우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고, '-와$_2$'의 경우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에 실현되는 이형태가 된다.[1)]

여기서 우리는 두 이형태 '-과'와 '-와$_1$'의 선택이 그 교체의 조건은 음운론적인 것이지만 교체의 내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인 '-과'와 '-와$_1$'이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형태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와$_2$'의 실현은 'ㄹ' 뒤라는 음운론적 교체 조건 아래서 이형태 '-과'로부터 'ㄱ'가 탈락되는 교체 내용을 가지므로 이 때의 교체 내용은 음운론적인 것이 된다.

또 하나의 예로 15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다}는 일반적으로 그 이형태가 '-다'로 실현되지만 계사를 비롯해 선어말어미 {-리-}, {-니-}, {-더-}, {-오-} 뒤에서는 '-라'로 실현된다. 이 때 이형태 '-라'의 실현은 특정 형태소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이라는 형태론적 교체 조건 아래서 'ㄷ>ㄹ'의 변화라는 통시적인 음운변화를 교체 내용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그것이 보이는 이형태들의 교체 조건과 교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국어의 음운론적 특성과 형태론적 특성을 귀납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문헌자료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형태 계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15세기 이전 국어에서 해당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구결, 향찰, 이두와 같은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들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자표기들의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15세기 공시적으로 관찰되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언어가 보이는 모습은 전시대로부터 비롯된 변화의 결과라는 언어학적 상식은 본 연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1) 격조사 {-과}의 이형태 '와$_1$'과 '와$_2$'는 각각 '부텨와', '믈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두 이형태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은 16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ㄱ'탈락현상의 소멸을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2.2.를 참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먼저 형태소와 형태, 이형태의 개념을 짚어보고 이형태의 특성을 통해 이형태가 형성되는 음운론적 원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를 밝히는 작업은 실제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그리고 이형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형태의 결정 방식과 교체 조건, 교체 내용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목록을 작성하며 그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주로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목록을 바탕으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내용의 교체를 보이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이형태교체의 유형들을 체계화시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 때 각 문법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를 그 조건과 내용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투영되어 있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성들을 밝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문제들 중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선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매개모음의 첨가와 'ㄱ'탈락,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들의 이형태 문제, 그리고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교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다. 특히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형태의 통시적 형성과 관련해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서 15세기에 'ㄷ'형과 'ㄹ'형의 이형태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소들을 국어사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를 진행하며 사용하게 되는 부호 및 문헌자료들의 약호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호[2)]

/ /: 음운 표시	[ ]: 음성 표시	{ }: 형태소 표시	❙ ❙: 형태 표시
L: 평성 표시	H: 거성 표시	R: 상성 표시	AM: Allomorph

2) 음운과 음성, 형태소와 형태의 구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 '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문헌자료 약호3)

약 호	자료명	연 도
<화소>	華嚴經疏 卷35	12세기 초
<화엄>	新譯華嚴經 卷14	12세기 후반
<금광>	合部金光明經 卷3	13세기 중엽
<구인>	舊譯仁王經 上卷(2, 3, 11, 14, 15張)	13세기 중엽
<유가>	瑜伽師地論 卷20	13세기 후반
<능엄-안>	安東本 楞嚴經(=朴東燮本 楞嚴經)	13세기 후반
<훈해>	訓民正音解例	1446년
<용가>	龍飛御天歌	1447년
<석상>	釋譜詳節	1447년
<월곡>	月印千江之曲(상)	1447년
<훈언>	訓民正音諺解	1447년경
<월석>	月印釋譜	1459년
<능엄>	楞嚴經諺解	1462년
<법화>	法華經諺解	1463년
<선영>	禪宗永嘉集諺解	1464년
<오대>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금강>	金剛經諺解	1464년
<반야>	般若心經諺解	1464년
<원각>	圓覺經諺解	1465년
<구급>	救急方諺解	1466년
<몽법>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1467년
<목우>	牧牛子修心訣	1467년
<두시-초>	杜詩諺解(초간본)	1481년
<삼강-초>	三綱行實圖(초간본)	1481년
<금삼>	金剛經三家解	1482년
<남명>	南明泉繼頌諺解	1482년
<구간>	救急簡易方	1489년
<육법>	六祖法寶壇經諺解	1496년
<번노>	飜譯老乞大	1517년경
<선가>	禪家龜鑑	1569년
<내훈-봉>	內訓(봉좌문고본)	1573년
<야운>	野雲自警	1577년
<소언>	小學諺解	1588년
<두시-중>	杜詩諺解(중간본)	1632년

3) 아래 표에서 '연도'는 구결 자료의 경우 토의 기입 연도를, 언해 자료는 간행 및 필사 연도를 나타낸다.

3. 선행 연구 검토와 문제 제기

그 동안 중세국어 연구자들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에 관한 많은 관심들을 보여왔다. 음운론적으로는 모음조화를 비롯한 몇몇 음운현상들이 논의되었고 형태론적으로는 각 형태소들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동시에 몇몇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그 출현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15세기 이전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의 잇따른 발굴로 15세기의 문법형태소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관해 국어 문법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그 동안의 연구들 중 이형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을 연구의 유형 및 대상을 기준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세국어 문법 전반을 다루면서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劉昌惇(1961 · 1964), 李崇寧(1961/81), 安秉禧(1967), 허웅(1975), 고영근(1987/97), 安秉禧 · 李珖鎬(1990) 등을 들 수 있다.

劉昌惇(1961 · 1964)는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변해온 국어사를 연구한 것으로 크게 음운사(音韻史)를 다룬 부분과 형태사(形態史)를 다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劉昌惇(1964)에서는 劉昌惇(1961)에서 소략했던 형태사 부분이 크게 보강되었다. 제2절의 토와 제3절의 어미에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목록과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고, 간단하긴 하지만 각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에 대한 연구에 훌륭한 지침서가 된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가 갖는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점으로 각 문법형태소들이 어떠한 형태들로 나타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각 형태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체계적인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李崇寧(1961/81)은 중세국어의 형태편에서 명사와 동사를 다루면서 각각 조사와 어미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많은 예문의 제시보다는 이들 형태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에 초점을 두었다. 개별 형태소의 기능 및 의미의 파악과 함께 이형태들의 음운론적 분포 환경의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이 주목된다. 특히 각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조건에

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도표로 작성해 보여준 점이 눈에 띄는데, 이 작업이 형태소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문법형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安秉禧(1967)은 고대국어부터 중세국어에 이르기까지 국어 문법의 변천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핀 국어 문법사 분야의 선도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후기중세국어의 문법에 대해서는 크게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뉘어 그 특징들이 서술되었는데, 형태론적 특징은 각 형태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다. 그 중 활용어미를 설명한 곳에서는 교체의 일반적 유형을 i)모음조화에 의한 교체, ii)매개모음 연결여부에 의한 교체, iii)'ㄱ'와 'ㅇ'(휴지)의 교체로 구분한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일단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 전체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논의는 아니지만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선구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15세기 국어의 활용어미에서 나타나는 이형태교체 양상은 安秉禧(1967)에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여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만으로는 15세기 국어 활용어미의 이형태교체 양상을 일반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웅(1975)는 15세기 문헌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적인 용례들을 중심으로 각 문법형태소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특히 풍부하게 제시된 용례들은 각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과 그것들이 분포하는 환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것은 비단 문법형태소뿐 아니라 15세기 국어의 형태론 전반을 연구하는 데 튼튼한 초석이 되는 기념비적인 연구이다. 비록 이러한 훌륭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점은 이 역시 전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영근(1987/97)에서는 중세국어 조사의 이형태들이 갖는 형식상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조사들을 체언의 끝소리의 종류와 체언의 모음의 종류라는 두 가지 조건의 제약을 받는 조사들과 이 둘 중 한 가지 제약만을 받는 조사들, 그리고 특정한 소리 아래서 첫소리 'ㄱ'가 떨어지는 조사들로 분류하여 그 특징이 간단히 서술되었다. 이 역시 15세기 국어의 조사에 한정된 분류이긴 하지만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체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安秉禧(1967)에서 15세기 국어의 활용어미

만을 대상으로 이형태교체 양상을 일반화시키려 했던 것을 보충해 고영근(1987/97)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조사가 보이는 이형태교체 양상을 일반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문법형태소 전체를 대상으로 교체의 양상이 세밀하게 기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安秉禧·李珖鎬(1990)은 먼저 형태소와 형태소의 교체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밝히고 '곡용과 활용'을 독립된 하나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뒤이어 중세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보이는 특징들이 각 형태소별로 서술되어 있는데, 그 분포와 이형태에 따라 예문들이 제시되고 그 기능이 설명되었다. 이형태와 교체에 대한 설명에서 그 유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측면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예를 인용한 것일 뿐 자료를 중심으로 중세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체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중세국어의 문법 전반을 다루면서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을 논한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문법형태소의 형태와 기능을 살피는 데는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형태 체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개별 언어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교체의 조건과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내지 못한 점이 기존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김영욱(1995)는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를 대상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형태들이 지닌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문법형태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등 문법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음성형식과 기능의 대응양상을 형태와 형태소의 대응양상에 의해 설명하고 형태실현의 과정에 따라 문법형태들을 '단일형태', '화합형태', '이형태', '영형태', '공형태'로 분류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형태소와 형태의 개념을 음성형식의 유무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형태소가 기능만을 지닌 단위가 되어 의미의 최소 단위와 구별되지 않고, 과연 영형태는 이형태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공형태의 설정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문법형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이므로 이형태와 관련된 음운론적인 문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문법형태소의 유형별 또는 개별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4] 이것은 상당량의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중 이형태 문제를 살피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몇몇 연구들만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세기 국어의 격조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洪允杓(1969)를, 보조사의 연구로는 김진형(1995)를 들 수 있다. 전자는 15세기 국어의 격에 대한 형태론적, 통사론적 연구로 격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기능에 관심을 두었지만 각각의 격을 담당하는 문법형태들의 목록이 참고가 된다. 후자는 중세국어의 보조사 목록의 설정을 목표로 보조사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고 보조사를 서로 그 경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의존명사나 접미사, 격조사 등과 같은 다른 문법 범주와 구별하고자 하였다. 나름대로 중세국어 보조사의 최종 목록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일관된 기준에 의한 확실한 목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밖에 成光秀(1998)에서는 간단하긴 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 서로 다른 격을 나타내는 데 쓰였던 조사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를 비롯해 각 이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조건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개별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호격 및 감탄조사에 대해서는 이필영(1986)과 박영준(1999)를, 보조사 '-으란'에 대해서는 鄭然粲(1984)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鄭然粲(1984)에서는 '-으란'을 대격과 주제격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제격(對題格)'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한 李賢熙(1995b)는 '-ᅀᅡ'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 그 동안 문제로 남아 있던 '-ᅀᅡ'의 의미와 분포, 그리고 그 문법적 특성의 규명에 이바지하였다.

다음으로 15세기 국어의 어미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종결어미와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고려시대 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를 살피고,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를 각각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 살핀 장윤희(1998)이

4) 중세국어의 개별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의 정리는 홍종선(1992)를 참조할 수 있다.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형태소의 분석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는 내용이 많다.

개별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李珖鎬(1983)의 논의는 종결어미 '-다'와 '-라'를 이형태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형태소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安商俊(1974)와 李承旭(1980)의 논의를 바탕으로 거기에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한 논의인데, 종결어미 '-다'와 '-라'가 각각 [-의도]와 [+의도]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고 이들과 통합되는 일련의 선어말어미들도 각각 이러한 자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연 [-의도]와 [+의도]라는 자질이 언급된 형태소들의 의미자질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ㄷ'형 형태와 'ㄹ'형 형태의 대립이 종결어미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더-}나 {-돗-} 등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강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결어미에 대해서는 김송원(1988), 리의도(1989), 권재일(1994), 田炳勇(1995), 황선엽(1995) 등과 최근 연구로 이용(2000a)을 들 수 있다. 특히 田炳勇(1995)와 황선엽(1995)는 연결어미 '-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용(2000a)은 문법사적인 관점에서 15세기 국어의 몇몇 연결어미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15세기 국어 연결어미들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성어미는 관형사형어미와 명사형어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경우 이형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명사형어미 {-옴}의 경우 선어말어미 {-오-}와 관련해 이형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끝으로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의 이형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安秉禧(1963)에서 '-샤(-)'가 모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시-'의 이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지지와 반박의 논의가 뒤따르게 되었다. 허웅(1963), 고영근(1987/97), 安秉禧·李珖鎬(1990) 등이 이를 따르는 논의라면 任洪彬(1980)을 필두로 김종규(1986·1989), 김석득(1992), 임동훈(1992·1994), 이정복(1996) 등은 이에 대한 반박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논의는 '-샤(-)'를 '-시-+-아(-)'의 복합체로 파악하고 '오' 계열의 이형태로 '-아-'를 상

정함으로써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누르샤', '니르샤디', '가샴' 등에 대해 각각 '-시-+-아', '-시-+-아디', '-시-+-암'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5]

이 밖에도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를 직접·간접으로 다룬 무수한 논의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섭렵할 수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까지 기존 연구들을 개관해 보았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 전반을 고려해 이들의 이형태교체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핀 시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형태교체에 대한 관찰은 단지 어떠한 이형태들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형태들을 통해 의미 있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사실들을 귀납해 내는 데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시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 계열은 나름대로 통시적 발달 과정을 겪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이형태 계열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관여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징들이 투영되어 있다. 이를 밝혀내는 작업은 15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음운론적, 형태론적 사실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먼저 '형태소', '형태', '이형태'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제로 이형태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이형태들이 15세기 국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나타나게 되는지 차례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5)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의 이형태 문제에 대한 연구사는 고영근(1997)을 참조할 수 있다.

Ⅱ. 배경론

1. 형태소 · 형태 · 이형태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단위로 우리는 형태소(morpheme)를 생각할 수 있다. '형태소'라는 용어는 폴란드의 언어학자 보드엥(Jan Baudouin de Courtenay, 1845~1929)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음운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로 파악될 수 있다.[6)]

그러나 실제로 형태소의 개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7)]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라는 형태소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사실상 기능적 측면에서 제시된 개념일 뿐, 형태소를 구성하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합당하게 내려진 정의는 아니다. 또한 형태소 자체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실체가 아닌 일종의 규칙이나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들도 찾아볼 수 있다.[8)]

---

6) Bloomfield(1933:162)는 형태소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지적하고 형태소의 의미를 특별히 '의소'(義素 sememe)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한편, 형태소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형태소를 의미나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려는 입장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국어의 형태소 중 주체높임선어말어미를 {주체높임선어말어미}로 나타내는 것은 형태소를 음성 형식은 없이 그 기능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김영욱(1989 · 1995 · 1997b)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형태의 유형을 다룰 때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7) 형태소라는 단위가 갖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서는 金亮鎭(1999:71-78)을 참조할 수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Spencer(1991)를 참조할 수 있다. 형태소를 사물(things)로 보는 관점과 규칙(rules)으로 보는 관점은 어떠한 형태론적 변화에 대해 그 변화가 형태소라는 '사물'이 직접적으로 결합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태론적 전환이라는 일종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스펜서는 음운교체가 일단 형태론화되면(morphologized)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며 이것은 다른 형태론적 또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Spencer(1991)에서 제시된 예들 중 음운론적 실현 자체가 형태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은 사실상 형태론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음운변화의 역사적 흔적을 공시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를 기본적으로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이라는 두 가지 틀을 가진 추상적 사물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틀'이라는 것은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형식인 음운의 결합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로 그 틀에 담길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결정체가 아닌 일종의 불완전한 미결정체의 상태에 있는 요소가 된다. 이 때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이라는 두 틀에 담기게 되는 요소는 그것이 투명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불투명한 요소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결정체와 같은 상태의 요소들을 각각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에 담고 있는 추상적 상태의 형태소는 그것이 실제의 발화 과정에 나타날 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형태'(morph)라고 부를 수 있다. 형태는 형태소가 불완전한 상태로 가지고 있던 두 틀 속의 미결정체적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의미와 음성 형식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결정체적 요소가 결정체로 응고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 때로는 의미나 음성 형식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거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음성 형식 요소와는 다른 음성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9)]

한편, 어떤 하나의 형태소에 대해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형태들을 계열적으로 파악해 이를 '이형태'(allomorph)라고 지칭한다. 이형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구체적 요소로서 실제의 발화에서 해당 형태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된다. 형태의 경우 형태소가 실현된 대상을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 없이 일컬은 것이라면, 이형태는 특정 형태소를 대상으로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실현된 형태를 해당 형태소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칭한 것이다.

한 형태소에 소속되어 서로 계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형태들은 그 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어떤 형태소는 상당히 여러 개의 이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형태소는 단 하나의 이형태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이형태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형태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개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9) 의미가 결여된 대표적인 경우로 이른바 '유일형태소'(='cranberry 형태소')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형태소가 의미의 관점에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형태를 특정 형태소에 국한해 그것이 실현된 형태라고 본다면 그 수가 하나이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한 형태소가 갖는 이형태의 수는 그 형태소가 실현될 때 얼마나 다양한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이 관여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형태소가 지닌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형태론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해당 언어의 공시적 현상은 물론 통시적 현상까지도 귀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러한 이형태들이 그 형태소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서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이형태교체(allomorphic alternation) 또는 교체(alternation)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형태교체에 참여하는 이형태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는 형태들이 언제나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다음 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을 살펴보자.

(1) 가. {-고} : -고, -꼬, -구
　　나. {-ㄹ} : -ㄹ, -을, -를　cf. 날, 나를
　　다. {-어} : -어, -아, -여, -워, -와, -라　cf. 이어(서) [이여(서)], 이라(서)

(1)은 각각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고}와 대격조사 {-ㄹ},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들인데, 이들의 다양한 이형태들 중 일부의 이형태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나 중복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떤 형태가 어느 한 형태소의 이형태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상보적 분포라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1-가)의 '-고'와 '-구', (1-나)의 '-ㄹ'와 '-를', (1-다)의 '-여'와 '-라'는 각각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될 수 없고 각기 다른 형태소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고'와 '-구', '-ㄹ'와 '-를', '-여'와 '-라'는 각각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상보적 분포는 여러 이형태들을 한 형태소로 묶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형태들이 보여주는 분포의 중복은 작게는 부분적인 발음의 변이로부터 크게는 형태의 대체에 이르기까지 주로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가)의 '-고'와 '-구'가 모음 '오'가 '우'로 대치된 발음 변이에 의해 생겨난 분포

의 중복이라면, (1-나)와 (1-다)의 경우는 각각 형태의 증가와 대체에 의해 나타나게 된 분포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나)의 '-ㄹ'와 '-를', (1-다)의 '-여'와 '-라'의 경우에는 각각 '-ㄹ'와 '-라'가 '-를'과 '-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형(古形)이라고 할 수 있는데,[10] 이러한 고형의 잔존이 공시적으로 이형태들의 분포를 중복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형태소와 관련된 문제로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이라는 두 틀 속에 미결정체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이러한 형태소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형태나 이형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표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형태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그 형태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여러 이형태들 중 그 분포가 가장 넓은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잡아 해당 형태소의 표시에 사용한 것이나, 생성음운론에서 비록 추상적이더라도 규칙 적용을 통한 도출이 용이한 대상을 기저형으로 삼아 그 형태소를 표시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민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하나의 형태소가 구체적인 이형태로 실현될 때 그 이형태가 결정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해당 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이형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교체의 조건이 되는 환경과 대상이 되는 이형태 사이에 어떠한 음운론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론적 과정'이며 모든 이형태가 실현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1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공동격조사 {-과}가 자음으로 끝나는 체

---

10) 여기서 연결어미 '-라'가 '-여'보다 고형이라고 한 것은 그 조건이 계사 뒤에 한정된 이야기로 현대국어에서는 '학생이어(서)[이여(서)]'처럼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가 '이'모음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용언들의 어간 뒤에서와 같이 '-여'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추에 의한 평준화가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15세기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라'만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날 계사 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는 상대적으로 '-라'보다 후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5세기 이전의 이두 자료에는 계사 뒤의 연결어미가 이두자 '良'(아)로만 나타나고 있어 본래 계사 뒤에서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가 '-라'가 아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어사에서 계사 뒤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가 '-여 > -라 > -여'의 변천을 겪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사실은 언어 변천의 흥미로운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계사 뒤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교체와 관련된 통시적 변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Ⅳ-4.3.을 참조할 수 있다.

언 뒤에서는 ｛-과｝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와｝를 그 이형태로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이형태교체의 예가 된다.

또 하나의 방식은 해당 형태소의 특정한 이형태로부터 다른 이형태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이것은 교체의 조건과 교체의 대상 사이에 어떠한 음운론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음운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이형태로부터 다른 이형태가 도출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2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연결어미 {-어}가 '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될 때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난 이형태 ｛-여｝로 실현되는 것,[11] 즉 '비(空)- + -어 → 비어[비여]'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이형태교체의 예가 된다.[12]

실제의 이형태교체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형태소 자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는 못한다. 그것은 이형태교체를 일괄적으로 항목과정(Item and Process) 방식에 의해 설명하려 할 경우에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형태소의 표시는 도출이라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되 그 자체가 모든 이형태들을 그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는 절대성을 지닌 표시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형태소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만을 지니면 된다. 본 연구에서

11) 사실상 현대국어에서는 '세어'[세여], '재어'[재여] 등에서와 같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모음 이외의 다른 전설모음인 경우에도 연결어미가 ｛-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설모음 '이, 에, 애'를 발음한 후, 후설모음 '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가 전설 위치에서 후설 위치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 때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두 모음 사이에 활음 또는 과도음이라고 하는 'j'를 첨가하는 것이다. 활음 'j'의 첨가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사이의 이동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발음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서 연결어미 {-어}가 '이'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통합될 때 그것이 이형태 ｛-여｝로 실현되는 것을 '이'모음순행동화라고 부른다면, 엄밀하게 말해 이것은 이 현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특징만을 들어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모음순행동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고, 부분적인 특징을 들어 부른 것이기는 하지만 배치되는 개념을 지닌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설 단모음이 '이'모음 하나인 15세기 국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용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5세기 국어에서 '이'모음순행동화라고 할 때의 '이'모음은 사실상 단모음 'i'뿐만 아니라 활음 'j'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협정적 이해가 필요하다.

12)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Hockett(1954)에서 언급된 항목배열(Item and Arrangement) 방식과 항목과정(Item and Process) 방식에 각각 대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그 형태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Ⅲ-1.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어떤 형태들이 한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미와 기능의 확보, 그리고 서로 상보적인 분포의 형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체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음운론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음운규칙에 의한 음운의 변화를 교체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빚어지는 문제가 있다.

(1) 가. 먹어도(머거도), 먹지도(먹찌도), 먹는(멍는): ｛먹-, 멍-｝[13]
나. 아기도(아기도), 사람도(사람도), 집도(집또): ｛-도, -또｝

(1-가)는 동사 어간 {먹-}의 이형태들로 ｛멍-｝의 경우는 후행하는 비음(여기서는 'ㄴ')에 의해 어간 말음 'ㄱ'가 'ㅇ'으로 비음화된 경우이다. (1-나)는 보조사 {-도}의 이형태들로 ｛-또｝의 경우는 선행하는 폐쇄음(여기서는 'ㅂ')에 의해 초성 'ㄷ'가 'ㄸ'로 경음화된 경우이다.

이형태 ｛멍-｝과 ｛-또｝는 모두 국어의 순수음운규칙인 비음화와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로 인해 형성된 형태들이다. 이 음운규칙들은 분절음적인 조건만 만족되면 그것이 형태소의 내부이든 경계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1)의 '먹는[멍는]'과 '집도[집또]'가 각각 형태소 경계에서 비음화와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일어난 예라면, '양념(<약념)[양념]'과 '깍지[깍찌]'는 형태소 내부에서 각각 비음화와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13) (2-가)의 '먹고[머꼬]'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먹-}의 이형태로 ｛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음운규칙의 적용과 이형태교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음운과 음운의 결합적 환경은 음운규칙의 적용과 이형태교체의 공통적인 환경이 된다. 그렇다면 음운규칙의 적용이 항상 이형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다음의 예들은 이러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2) 가. 끓는다(끌른다): [끌-] + [-른-] + [-다]
먹고(먹꼬/머꼬): [먹-] + [-꼬] / [머-] + [-꼬]
나. 하얗다(하야타): ①[하얗-] + [-다], ②[하야-] + [-타]
주워(拾)(주워): ①[주w-] + [-어], ②[주-] + [-워]
펴서(發)(펴서): ①[ㅍj-] + [-어서], ②[ㅍ-] + [-여서]
줘(與)(줘): [ㅈw-] + [-어]
다. 두어(두워): ①[두-] + [-워], ②[두-] + [w] + [-어]
기어(기여): ①[기-] + [-여], ②[기-] + [j] + [-어]
라. 좋아서(조아서): [조-] + [-아서]
써(써): [ㅆ-] + [-어]

(2-가)에서는 먼저 동사 어간 {끓-}에 선어말어미 {-는-}이 통합되어 선어말어미 {-는-}의 이형태가 [-른-]으로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는 어간 말음 'ㄹ'에 의한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났다. 다음은 동사 어간 {먹-}에 연결어미 {-고}가 통합된 것으로 연결어미는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일어나게 되어 그 형태가 [-꼬]로 나타난 반면, 동사 어간은 종성의 수의적 탈락에 의해 [먹-] 또는 [머-]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형태 [-른-]과 [먹-]/[머-], 그리고 [-꼬]는 각각 형태소 {-는-}과 {먹-}, 그리고 {-고}의 이형태로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머-]의 경우에는 [먹-]과 수의적인 교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형태소 {먹-}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14] 아무튼 (2-가)의 경우에는 음운규칙의 적용과 이형태교체라는 두 관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4) Hockett(1958)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산발적 교체'(sporadic alternation)라고 하여 이형태교체와는 구별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머-]와 [먹-] 둘 사이의 관계만을 두고 이야기하면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형태소 {먹-}이 실현된 형태들이라는 점에서 [머-]도 이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2-나)의 경우에는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먼저 형용사 어간 {하얗-}에 종결어미 {-다}가 통합되어 나타난 [하야타]라는 표면음성형에는 음운 축약의 한 유형인 유기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 표면음성형 [하야타]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에 대해 두 개의 형태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분석의 차이는 형태 분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하야타]에서 어간 {하얗-}의 말음 'ㅎ'가 종결어미 {-다}의 'ㄷ'와 축약된 상태를 형태 분석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분석인 반면, ②는 이를 인정한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워[주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동사 어간 {줍-}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어 [주워]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는 활음 'w'의 처리가 문제된다. 동사 {줍-}은 이른바 'ㅂ'불규칙 용언으로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연결될 때 항상 어간 말음 'ㅂ'는 활음 'w'로 나타나게 된다. 표면음성형 [주워]만을 볼 때 우리는 이에 대한 형태 분석을 ② 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워]의 경우는 (2-다)에서처럼 동사 어간 {두-}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두워]가 원순음화에 따른 활음 'w'의 첨가라는 음운과정을 겪은 것과는 구별된다.[15] [주워]에서의 'w'가 어간의 고유한 요소인 반면, [두워]에서의 'w'는 두 모음 사이에 첨가된 외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2-나)의 '펴서[펴서]'와 (2-다)의 '기어[기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국 (2-나)와 (2-다)로부터 우리는 표면음성형을 가지고 어떤 형태소의 이형태를 분석해 낼 때,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고유 요소와 외래 요소로 구분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고유 요소를 본래의 형태소에 귀속시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워]와 [펴서]에 나타나는 활음 'w'와 'j'를 [두워]와 [기여]에 나타나는 그것과 구별해야 하며, [주워]와 [펴서]의 활음 'w'와 'j'가 각각 어간 '줍-'과 '피-'의 고유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야타]에도 적용되어 여기서 종결어미의 형태는 【-타】가 아니라 【-다】임을 알게 된다. 이 때 [-타]에 들어 있는 'ㅎ'는 어간 '하얗-'의 고유 요소이므

15) 동사 어간 {두-}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경우에는 실제로 [둬~두어~두워]와 같이 활음 첨가와 활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로 [하야타]에 대한 형태 분석은 ①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형태라는 것도 완전히 구체화된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라)는 형용사 어간 {좋-}과 동사 어간 {쓰-}에 각각 연결어미 {-어서}와 {-어}가 통합된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 즉 'ㅎ'와 '으'가 각각 탈락하여 [조아서]와 [써]로 발음된 경우이다. 이 두 경우는 형태소가 이형태로 실현되며 고유 요소를 상실하게 되는 예가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2)를 통해 음운규칙의 적용과 이형태교체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이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귀납해 볼 수 있다.

첫째, 형태라는 것도 완전히 구체화된 단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형태소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하야타], [주워], [펴서] 등과 같은 표면음성형으로부터 각 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형태론적 차원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들의 경우에는 각 음성적 요소들(여기에서는 각각 'ㅎ', 'w', 'j')이 어떤 형태소의 고유 요소인가를 살펴 개별 형태소들의 형태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점들은 형태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완전히 구체화된 요소라고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형태가 완전히 구체화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음운규칙의 적용에 의한 이형태의 성립이 음운론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음성적 수준의 차이는 이형태를 형성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 가. {쌀} + {-로} : /s'al + lo/ → [s'allo] (쌀로)
 나. {귀} + {-로} : /kwi + lo/ → [kwiro] (귀로)

(3)은 서로 다른 음운론적 조건을 가진 명사 뒤에 구격조사 {-로}가 연결된 예들로, (3-가)는 명사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이고 (3-나)는 모음인 경우이다. 이 때 이 예들의 표면음성형은 구격조사 {-로}의 초성에서 음성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ㄹ'음을 보여준다. (3-가)에서의 'ㄹ'가 {쌀}의 종성 'ㄹ'와 겹자음(geminated consonant)을 형성한 설측음(lateral) 'ㄹ(l)'라면, (3-나)에서는 두 모음 사이에 위치한 탄설음(flap) 'ㄹ(ɾ)'로 이 두 'ㄹ'음

은 음성적으로 서로 다른 음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에서 구격조사 {-로}의 이형태는 【-로】로 동일하게 파악된다. 이것은 국어에서 설측음과 탄설음이 변별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형태라는 단위가 음운론적 대립에 기초해 성립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것은 형태가 음성과 같이 완전히 구체화된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 형태소의 이형태는 인접 형태소의 고유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한 예로 현대국어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그 이형태로 【-다, -따】를 가질 수 있는데, '하얗다'[하야타]와 같은 예를 통해 또 하나의 이형태로 【-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먹다'[먹따]에서 종결어미 {-다}가 【-따】를 이형태로 갖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먹따]의 [따]가 어간 말음 'ㄱ'의 불파음화에 따른 성대의 긴장이라는 부수적 조음 효과에 의해 {-다}에서 경음화 된 것임에 비해, [하야타]의 [타]는 'ㅎ+다'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의 'ㅎ'는 어간 '하얗-'의 말음 'ㅎ'이다. 그러므로 [타]에는 어간의 고유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타】를 순수하게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어간의 활음 'w'가 연결어미 {-어}에 결합되어 [워]라는 표면음성형을 만들어내지만 그 형태는 【-어】로 파악되는 '주워(拾)'[주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한 형태소의 이형태 중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생겨나는 제3의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두어[두워]', '기어[기여]'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연결어미 {-어}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여기서 {-어}의 이형태는 각각 활음 'w'와 'j'를 포함한 【-워】와 【-여】가 된다. 이 때 활음 'w'와 'j'는 선행 어간의 고유 요소도 아니고 연결어미 {-어}의 고유 요소도 아닌, 원순모음화와 '이'모음순행동화라는 음운과정에 의해 나타나게 된 제3의 요소이다.

한편, '죽으며[주구며]'와 같은 예는 어간 {죽-}과 어미 {-며}가 결합할 때 들어간 매개모음 '으'가 어간 '죽-'의 원순모음 '우'에 동화되어 동일한 '우'로 변화된 것이다. 이 때 어미 {-며}의 이형태는 【-우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가 제3의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수용된 제3의 요소가 주위의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변화까지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어떤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며 자신의 고유 요소가 상실된 모습의 이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다. '좋아서[조아서]'와 '써[써]'에서 볼 수 있는 어간 {좋-}과 {쓰-}의 이형태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로 이들은 각각 어간의 고유 요소 'ㅎ'와 'ㅡ'가 상실된 【조-】와 【ㅆ-】를 그 이형태로 갖는다.

이와 같은 이형태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형태의 형성과 관련해 음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4)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가. 자요소(自要素)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나. 자요소(自要素)의 상실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다. 타요소(他要素)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본래 각 형태소들이 지닌 음운 결합의 틀 속에 담긴 미결정체적 요소, 즉 형태소 고유의 요소(자요소)가 어떤 변화를 겪어 그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이다. (2-가)와 (2-나)에서 예로 든 '끓는다[끌른다]'의 【끌-】과 【-른】, '먹고[먹꼬/머꼬]'의 【-꼬】, '주워(拾)[주워]'의 【주w-】, '펴서(發)[펴서]'의 【ㅍj-】, '줘(與)[줘]'의 【ㅈw-】 등이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 형성된 이형태들이다.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요소 중 일부가 상실되고 나머지 요소들이 그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로, (2-라)에서 보이는 '좋아서[조아서]'의 【조-】와 '써[써]'의 【ㅆ-】가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적용된 경우는 (2-다) 및 첨가된 매개모음이 어간의 원순모음에 동화되는 '죽으며[주구며]'와 같은 예인데, 여기서 '선택적 수용 및 변화'란 다른 형태소의 고유 요소는 수용하지 않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생겨나는 제3의 요소만을 수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변화까지도 시킨다는 의미로 이 제3의 요소를 자요소와 결합시켜 그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편, 어떠한 이형태에는 두 가지 이상의 원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다.

(5) 놔(놔): [ㄴw-] + [-아]

이것은 동사 어간 {놓-}의 이형태 중 하나인 [ㄴw-]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어간 {놓-}이 연결어미 {-어}와 결합할 때 먼저 {놓-}의 말음 'ㅎ'가 탈락하고 다음으로 모음 '오'가 'w'로 활음화되는 두 가지 과정이 나타난다. 이 때 말음 'ㅎ'가 탈락하는 것은 두 번째 원리인 자요소 상실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고 모음 '오'가 'w'로 활음화되는 것은 첫 번째 원리인 자요소 변화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를 밝히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며 나타나는 이형태교체의 문제를 음운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흥미로운 탐구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3. 이형태의 유형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이라는 두 가지 틀을 가진 형태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형태는 몇몇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이형태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이형태의 결정 방식에 따라 이형태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하나의 형태소가 이형태로 실현될 때 그 이형태가 결정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언급했었다. 하나는 해당 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이형태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해당 형태소의 특정한 이형태로부터 다른 이형태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이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태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현대국어에서 공동격조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과]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와]로 실현될 때, 교체의 조건은 음운론적인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국어의 고유한 형태론적 특성에 의한 것이지 결코 음운론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1차적으로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 이형태 중 그것이 공시적인 음운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여기에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또다른 이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이것은 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현대국어에서 연결어미 {-어}가 '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여】로 실현되는 것은 1차적으로 선택된 이형태 【-어】에 '이'모음순행동화라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형태의 결정 방식은 이형태의 실현 단계에 따라 1차적 이형태와 2차적 이형태로 이형태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 이 때 1차적 이형태는 형태론적 과정을 겪은 이형태라는 특징을, 2차적 이형태는 음운론적 과정을 겪은 이형태라는 특징을 갖는다.16)

(1) 이형태의 결정 방식에 따른 이형태의 유형
┌ 1차적 이형태(형태론적 과정〔선택 과정〕을 겪은 이형태)
└ 2차적 이형태(음운론적 과정〔변이 과정〕을 겪은 이형태)

둘째, 이형태의 교체 조건에 따라 이형태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형태를 교체 조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흔히 '음운론적 이형태', '형태론

---

16) 한편, 15세기 국어의 특이처격조사 【-의】와 【-이】의 경우 이형태의 결정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1차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어떤 하나의 이형태로부터 다른 하나가 모음조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선행 요소의 모음에 따라 두 이형태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모음조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이 이형태 결정의 1차적 단계로 들어와 형태론적 과정에 합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15세기의 특이처격조사가 양성모음형과 음성모음형의 두 이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모음조화라는 음운과정이 이 형태소에 있어서 형태론화(morphologization)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잘 보여주는 예가 15세기 국어의 일반처격조사 【-에】, 【-애】, 【-예】이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모음이나 활음 'ㅣ'일 때 나타나는 이형태가 【-예】 하나라는 것은 두 이형태 【-에】와 【-애】의 선택이 형태론적 과정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만약 두 이형태 【-에】와 【-애】의 선택이 음운론적 과정에 의한 것이라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모음이나 활음 'ㅣ'일 때 나타나는 이형태는 【-예】뿐만 아니라 【*-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는 언제나 【-예】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모음이나 활음 'ㅣ'일 때 1차적으로 이형태 【-에】가 선택됨을 보여주고, 이 【-에】에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난 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이형태 【-예】임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15세기 국어의 일반처격조사에서 【-에】와 【-애】는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 1차적 이형태이고, 【-예】는 1차적 이형태 【-에】에 '이'모음순행동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2차적 이형태가 된다.

적 이형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교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이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란 정확히 말해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음운론적 조건이란 해당 형태소가 놓인 음운론적 환경, 즉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모음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 따위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의해 이형태의 교체가 일어날 때 그 실현된 이형태를 바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고 한다. 현대국어 주격조사의 두 이형태 【-이】와 【-가】는 바로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각각이 실현되므로 이들을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 부를 수 있다.

반면 형태론적 조건이란 해당 형태소와 통합되는 형태소의 형태론적 특성, 즉 선행 요소의 의미 범주나 문법 범주, 그리고 특정 형태소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 따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에 의해 이형태의 교체가 일어날 때 그 실현된 이형태를 바로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고 한다.[17]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께서】의 실현은 이것이 통합되는 선행 체언의 존칭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범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것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 부를 수 있다.

한편, 통사론적 조건이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이형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문법형태소와 결합되는 선행 요소가 서술어에 대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가 목적어가 되는가에 따라 속격조사의 이형태가 결정되는 경우나, 서술어와 호응하는 의문사의 유무 여부에 따라 의문보조사의 이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통사론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2.1.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형태의 교체 조건에 의해 우리는 이형태의 유형을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그리고 통사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7) 여기서 형태론적 조건은 단어의 의미 범주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의미론적(또는 어휘론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의미론적 조건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형태론적 조건 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론적 조건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어의 의미 역시 단어라는 형태론적 단위 안에서 논의되므로 이러한 처리가 용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이형태의 교체 조건에 따른 이형태의 유형
-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 통사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셋째, 이형태의 교체 내용에 따라 이형태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체의 내용이란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형태상의 차이는 음운론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형태론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음운론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교체의 내용은 매개모음이 첨가되었다든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대치되었다든지,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반면 형태론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교체의 내용은 'ㅇ'형 이형태가 'ㄹ'형 이형태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어}가 계사 뒤에서 【-라】로 실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이형태들 사이에 서로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한 예로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어}는 그 이형태로 【-어】, 【-아】, 【-여】, 【-워】, 【-와】, 【-라】를 갖는데, 이들 이형태들을 서로 잘 비교해 보면 이들 사이에 어떠한 교체 내용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어】와 【-아】는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 '에', '애' 등의 전설모음이 아닌 경우 어간 모음의 음양성에 따라 양성모음계 이형태 【-아】와 음성모음계 이형태 【-어】 중 하나가 선택되므로 여기에는 모음조화라는 교체 내용이 존재한다.

반면,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 '에', '애' 등의 전설모음인 경우에는 모음의 음양성에 상관없이 【-여】가 이형태로 실현되므로 여기에는 '이'모음순행동화라는 교체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워】와 【-와】는 '주워(與)[주워]', '보아[보와]'에서처럼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오'나 '우'와 같은 원순모음일 경우 어간 모음의 음양성에 따라 양성모음계 이형태 【-와】와 음성모음계 이형태 【-워】 중 어느 하나로 실현되므로 여기에는 순행적 원순모음화라는 교체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선행 요소가 계사인 경우에는 【-라】가 이형태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다른 이형태들과 비교해 볼 때 'ㅇ'형 이형태가 'ㄹ'형 이형태로 바뀐 것이 교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 【-아】, 【-여】, 【-워】, 【-와】는 음운론적 교체 내용을 갖는 이형태에 해당되고 【-라】는 형태론적 교체 내용을 갖는 이형태에 해당된다.

이처럼 여러 이형태들 사이에 서로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형태들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각 이형태들에 존재하는 교체 내용의 대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모든 이형태들에 대해 이러한 교체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체의 내용도 각 이형태들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훌륭한 정보가 되므로 이것에 의한 이형태의 유형 분류 또한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형태의 교체 내용에 따른 이형태의 유형
- 음운론적 교체 내용을 갖는 이형태
- 형태론적 교체 내용을 갖는 이형태

다음으로 이형태의 유형과 관련해 기존에 언급되고 있는 '영형태', '공형태', '화합형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 먼저 김영욱(1989 · 1995 · 1997b)에서 제시된 형태실현의 과정에 따른 5가지의 형태 분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18]

(4) 가. 단일형태: R(M)--->M′
나. 화합형태: R(M_1+.....Mn)--->M′
다. 이 형 태: R(M)--->M_1′+.....+Mn′
라. 영 형 태: R(M)---> ϕ
마. 공 형 태: R(ϕ)--->M′

이것은 음성형식과 기능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문법형태들을 분류한 것으로 '영형태'와 '공형태'는 음성형식과 기능 사이의 관계가 서로 정반대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된

18) 아래에서 영문 대문자로 표시된 약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R: realization M: morpheme M′: morph

다. 즉, 영형태란 기능은 있으나 음성형식이 없는 형태이고 공형태는 그와 반대로 기능은 없고 음성형식만 있는 형태를 말한다.

(4)와 같은 분류에서는 이형태와 영형태, 그리고 공형태가 모두 일정한 기준에 의해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영형태와 이형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형태가 기능만 있고 음성형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음성형식의 부재 자체가 하나의 형태(M´)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형태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4-다)에서 'M_1´+.....+Mn´'로 표시된 이형태들이 지니는 음성형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한, 결국 영형태를 이형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당위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15세기 국어에서 주격조사나 계사의 이형태로 상정되는 영형태는 본래 모음 '이'가 선행 환경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이, ㅣ, ∅'가 이들 형태소들이 지닌 이형태들의 계열적인 모습으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에서처럼 영형태를 이형태와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어 대립되는 존재로 파악한다면 하나의 형태소가 지닌 이러한 이형태들의 계열적인 모습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공형태와 이형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김영욱(1995)에 따르자면 공형태는 국어 문법형태의 일반적 원리로 제시한 '일대일 대응의 원리'에[19] 어긋나는 것으로 문법형태가 문법 기능을 잃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형태만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 결국 소멸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장윤희(1999)와 시정곤(2000)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장윤희(1999)에서는 공형태의 예로 제시되었던 중세국어 '-니라'의 '니', '-오딕'의 '오', '-올 브터'의 '올'이 사실상 의미가 있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요소이므로 이들을 공형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이와는 다른 예들이 오히려 공형태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공시적 분석에서 통시적 정보의 제공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석은 공

---

19) 일대일 대응의 원리(김영욱 1995)
: 하나의 문법형태는 동일한 문법 층위 내에서 하나의 기능을 지닌다.
이 때 '동일한 문법 층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선어말어미 '-시-'와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즉, 선어말어미 '-시-'는 [일치]의 기능과 [높임]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전자는 형태통사부와, 후자는 통보화용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결국 선어말어미 '-시-'는 서로 다른 문법 층위에서 하나씩의 기능을 가진 경우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적 분석에서 그쳐야 하며, 통시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형태를 설정하기보다 '화석'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장윤희(1999)는 김영욱(1989 · 1995 · 1997b)에서 공형태로 일컬어져 오던 예들을 수정하고 공시적 분석에서 공형태의 개념이 유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시정곤(2000)은 고영근(1987)에서 구조적 양상의 공통성과 의미상의 특수성 외에 또하나의 형태소 분석 기준으로 제시된 음운론적 현현방식(顯現方式)의 특수성이 본래 공형태 설정의 출발점이었음을 지적하고, 그후의 논의들에서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형태소가 공시적인 체계 내에서 설정 가능한 대상임을 상기하며 이런 형태소의 개념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공형태(소)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공시적인 체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장윤희(1999)에서와 같이 '화석'이라는 용어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20]

공형태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형태(소) 설정을 위한 김영욱(1989b · 1995 · 1997b)의 논의 속에서 나타나는 몇몇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형태소란 김영욱(1989b · 1995)에서 제시된 형태소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김영욱(1989b · 1995)에서는 형태소를 음성 형식은 없이 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단위로 설정했는데, 김영욱(1997b)에서 제시된 '공형태소'란 기능이 없고 실현되지 않은 음운론적 정보만을 지닌 존재라고 할 때 이 둘의 개념이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능이 없는 존재를 다시 형태소라 부르는 것은 그의 형태소 정의 및 공형태소 설정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공형태소는 형태소의 층위에서 문법 기능이 없고 실현되지 않은 음운론적 정보만을 지닌 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했는데(김영욱 1997b:188-189), 이것은 형태소와 형태의 개념 정의에 대한 본래의 태도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형태소가 음성 형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21] 이와 같이 형태소가 음성 형식을 위

---

20) 시정곤(2000)에서는 '공형태'가 소멸 가능성을 가진 반면, '화석'은 주로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화석의 종류를 세분할 가능성도 있으나 화석을 정의할 때 현재와 이전의 관계만을 언급한다면 굳이 소멸 가능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21) 실제로 김영욱(1997b:189)에서는 공형태로 설정한 '니'의 공형태소는 'ϕ[ni]'로, '오'의 공형태는 'ϕ[o]'로 표시하였다.

한 음운론적 정보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Ⅱ-1.에서 연구자가 말한 대로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는 기본적으로 '의미의 틀'과 '음운 결합의 틀'이라는 두 가지 틀을 가진 추상적 사물로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형태소란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형식인 음운의 결합이 최초로 만나게 되는 단위라는 것이다.

셋째, 공시적인 대상인 이형태로부터 공형태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4)와 같이 이를 이형태와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어 대립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김영욱(1989b · 1995 · 1997b)에서 공형태의 예로 제시한 중세국어 '-니라'의 '니', '-오딕'의 '오', '-올 브터'의 '올'은 장윤희(1999)의 지적대로 사실상 의미가 있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요소이므로 이들을 공형태로 보는 것은 공시적 체계인 이형태를 기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니'와 '올'은 각각 선어말어미 {-니-}와 대격조사 {-ㄹ}의 이형태이고 '오'는 '딕'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오딕'로부터 공시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단지 이형태 '-오딕'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다. 이와 같이 공형태는 이형태와 대등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 계열적 존재가 아니며 공시적인 이형태 기술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화합형태와 이형태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화합형태란 (4)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김영욱(1989b · 1995)에서는 중세국어의 두 선어말어미 '거'와 '오', '더'와 '오'가 각각 화합된 형태가 '가'와 '다'임을 그 예로 들었다.

(5) 가.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ᄒᆞ가니 너를 恭敬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금강 21b〉
나. 그듸ᄂᆞᆫ 버듨 두듥에 녀거든 나ᄂᆞᆫ 渡頭ㅅ 몰애예 자다라 〈금삼 4:5a〉

(5)의 두 예문에서 문장의 주어가 모두 1인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와 '다'에 각각 인칭법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오-}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와 '다'를 두 개의 형태소가 화합된 형태가 아니라 각각 선어말어미 {-거-}와 {-더-}의 이형태로 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인칭 제약을 교체의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와 '다'를 선어말어미 {-거-}와 {-더-}의 이형태로 보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면 곧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ᄒᆞ다가 내 큰 法 즐기던댄 오로 맛디샤미 <u>오라시리랏다</u>(若我ㅣ 樂大ᄒᆞ던댄 則全付ㅣ 久矣시리랏다) 〈법화 2:232a〉[22]

(6)의 '오라시리랏다'의 '랏'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선어말어미 '-더-'와 '-옷-'이 화합하여 만들어진 형태로 선어말어미 '-더-'와 '-오-'가 결합된 '다'와 동형성(同型性)을 보여준다. 즉, '더+옷→닷'과 '더+오→다'가 서로 대칭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가 인칭 제약에 의해 '더'에서 '다'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선어말어미 '-더-'가 '-오-' 형태를 만나 변화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23]

결국 (5)의 두 예문에서 보이는 '가'와 '다'는 각각 선어말어미 '-거-'와 '-오-', '-더-'와 '-오-'가 화합된 형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합된 형태 '가'와 '다'는 선어말어미 {-거-}와 {-더-}의 이형태가 아닌 두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는 두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예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 내 조ᄒᆞᆫ 힝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ᄅᆞᆯ 求ᄒᆞ노니 죽사릿 因緣은 묻디 몯호려다 〈월석 1:11b〉

위의 예문에서 '求ᄒᆞ노니'의 '노'와 '몯호려다'의 '려'는 각각 두 개의 선어말어미들이 결합된 형태들로 '-ᄂᆞ- + -오-', '-리- + -어-'로 분석될 수 있다. 이 때 '노'는 'ᄂᆞ'의 'ᆞ'와 모음 '오'가 만나 무표모음(default vowel)[24] 'ᆞ'가 탈락된 경우이고, '려'는 '리'의 '이'가 모음 '어'와 만나 활음이 된 경우로 이러한 변화는 모두 음운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22) 이에 대응되는 『月印釋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ᄒᆞ다가 큰 法을 즐기던댄 오로 맛디샤미 오라니라 <월석 13:36b>

23) 선어말어미 {-거-}의 경우에는 '-과라', '-과소라', '-과소이다'에서처럼 선어말어미 '-오-'나 '-옷-'과 만나 '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두 선어말어미 {-거-}와 {-오-}의 화합형태가 어떻게 '가'와 '과' 둘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해명하기 어렵다.

24) 무표모음(default vowel)이란 특정 언어에서 삽입과 탈락이 자유로운 모음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언어에 따라 무표모음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야웰마니어(Yawelmani)의 경우에는 모음 /i/가 음운과정에서 삽입과 탈락이 자유로운 모음임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모음 /u/가 삽입과 탈락이 자유로운 모음으로 기능한다.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ɨ/가, 15세기 국어에서는 양성모음 /ʌ/'ᆞ'와 음성모음 /ɨ/'으'가 무표모음이 된다. 무표모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rchangeli(1984a · b)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7)의 '노'와 '려'는 개별 형태소의 이형태를 음운론적 과정을 통해 석출(析出) 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해체가 불가능한 (5)의 '가'나 '다'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화합형태라 불리는 '가'나 '다'와 구별하여 연구자는 '노'나 '려'와 같은 경우를 '혼합형태'라 부르고자 한다.[25]

이제까지 문법형태소를 중심으로 이형태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영형태', '공형태', '화합형태'라 불리는 형태들의 특징과 이들 형태들이 이형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또한 두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화합형태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유형을 '혼합형태'라고 명명하여 언급하였다.

이형태와 관련된 Ⅱ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형태를 특정 형태소에 소속되어 A라는 조건에 의해, B라는 원리를 지키면서 C라는 내용이 변화하는 형태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A라는 조건은 각각의 이형태들이 실현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이 있다. 이 중 음운론적 조건은 이형태교체 조건들 중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조건으로서 문법형태소 전체의 이형태교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은 특정한 형태소나 문법 범주에 부여되므로 음운론적 조건에 비해 개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음 B라는 원리는 2절에서 살펴보았던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형태교체에 관여하는 형태소가 자신의 고유 요소(자요소)를 변화시키거나 상실하는 원리, 그리고 자요소가 아닌 타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변화시키는 원리가 있다. 이와 같이 B라는 원리는 음운론적 원리를 이야기하며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형태론적 교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언급하기 힘들다.

한편, C라는 내용은 이형태교체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과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이 있다. 전자가 분절음의 첨가, 탈락, 대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후자는 형태의 대체나 중가(重加)를 그 내용으로 한다.

---

25) 화합형태와 혼합형태의 차이는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화합물과 혼합물에 비견될 수 있다.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일정한 비율로 독특한 화학적 결합을 하여 생성된 것임에 비해, 혼합물은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각각의 성질을 지니면서 뒤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화학적 결합이란 화합형태와 혼합형태에 있어서는 비음운론적 결합으로 이해된다.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A라는 조건과 B라는 원리, 그리고 C라는 내용에 대한 탐구는 해당 언어의 음운론 및 형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귀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Ⅲ장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이 지닌 이형태들이 어떠한 체계로 짜여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목록을 작성하고 이형태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과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각 이형태에 어떠한 형성 원리가 적용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도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1. 이형태 목록의 작성

우리는 먼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 즉 조사와 어미의 이형태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형태 목록의 작성은 이형태교체 양상의 검토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작업인데, 여기에는 실제로 어떠한 대상을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작업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15세기 국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찰과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연구자 나름대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여기에 작성된 이형태 목록은 Ⅱ-2.에서 언급되었던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劉昌惇(1961 · 1964), 李崇寧(1961/81), 허웅(1975), 고영근(1987/97), 安秉禧 · 李珖鎬(1990), 김영욱(1995), 장윤희(1998) 등에서 제시된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어 사전과 연구자 나름대로 15세기 문헌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찾아낼 수 있었던 대상들을 망라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이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일일이 대조하여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개별 연구들의 차이가 언급된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이형태들의 실례와 출전을 하나하나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각주를 통해 그 실례와 출전을 보였다.

한편, 형태소의 표시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준수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매개모음이 없는 형태를 형태소의 표시로 사용한다. 이것은 본 연구가 매개모음의 출현을 음운론적 동기에 의해 첨가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면, -으면, -ᄋᆞ면} → {-면}

둘째,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들이 형태론적 중가(重加)에 의해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발달의 질료가 된 형태를 형태소의 표시로 사용한다.

예 [-ㄹ, -을, -옰, -를, -롤] → {-ㄹ}

셋째, 어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역사적으로 구형(舊形)과 신형(新形)의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형태소의 표시로 구형의 이형태를 사용한다.

예 [-사, -ᅀᅡ] → {-사}

넷째, 양성모음형과 음성모음형의 이형태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 요소가 중성모음 '이'를 가질 때 나타나는 이형태 유형을 형태소의 표시에 사용한다. 주로 음성모음형인 경우가 많으나 형태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예 [-의, -ᄋᆡ] → {-의}

다섯째, 형태소의 음운 결합의 틀 속에 담기는 내용이 불투명한 경우, 특히 서로 음상이 상이한 이형태들을 가진 경우에는 대표적인 두 형태 모두를 형태소의 표시에 사용한다.

예 [-의, -ᄋᆡ, -ㅣ, -ㅅ] → {-의/-ㅅ}

한편, 표기와 발음에는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문헌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목록 작성은 1차적으로 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결어미 {-니오/-니아}의 여러 이형태 중 [-니오], [-니아]와 같은 이형태의 경우 실제로는 각각 [니요], [니야]와 같이 '이'모음순행동화를 입은 것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나 표기상으로는 동화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15세기 국어의 경우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실제의 발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이형태의 모습은 표기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표기된 형태가 모두 이형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종결어미 {-ㄹ고/-ㄹ가}의 경우에는 '-ㄹ고, -을고, -ㄹ꼬, -ㅭ고, -ㄹ가, -을가, -ㄹ까, -을까, -올까, -ㅭ가, -읈가, -옰가, -ㄺ가'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이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ㅭ'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표기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표기된 형태들을 통해 볼 때 당시 {-ㄹ고/-ㄹ가}는 [-ㄹ꼬, -을꼬, -ㄹ까, -을까, -올까] 등과 같이

경음화가 일어난 형태들을 이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ㄹ고, -을고, -ㄹ가, -을가'와 같은 경우는 실제의 음성 형식이 아닌 본래의 형태가 표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은 크게 조사와 어미로 나뉘어 제시될 것이다.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조사의 이형태 목록은 다시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뉘어 제시되고 어미의 이형태 목록은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로 하위분류 되어 제시된다.

이형태 목록의 설정과 더불어 해당 형태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형태론적인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형태소에 대해 그 형태소의 설정 배경 및 타당성, 그리고 이형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1. 조사

1.1.1. 격조사

15세기 국어의 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더불어 각 격의 명칭을 무엇이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한 격표지가 다양한 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개별적인 격조사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등 격조사와 관련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형태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격조사의 개념을 엄밀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문장에서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해 주는 조사를 격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이른바 '접속조사'의 경우도 격조사의 범위 안에서 처리된다.

다음의 목록에서는 각 격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명칭을 붙여 놓지 않았지만, 논의 중에는 필요에 따라 '주격'이니 '처격'이니 하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격조사 명칭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격조사 이형태 목록】

{-과} : -과, -와$_1$, -와$_2$

{-두고} : -두고[26]
{-ᄃᆞ려} : -ᄃᆞ려
{-ㄹ} :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라와} : -라와, (-으라와), -ᄋᆞ라와
{-로} : -로, -으로, -ᄋᆞ로, -오로[27]
{-록} : -록,[28] (-으록),[29] (-ᄋᆞ록)
{-론} : -론, (-으론), -ᄋᆞ론[30]
{-롯} : -롯, -으롯, -ᄋᆞ롯
{-아} : -아, -야, -하
{-에} : -에, -애, -예
{-의} : -의, -ᄋᆡ[31]
{-의/-ㅅ} : -의, -ᄋᆡ, -ㅣ, -ㅅ
{-의그에/-ㅅ그에} : -의그에, -ᄋᆡ그에, -의게, -ᄋᆡ게, -ㅣ게, -ㅅ그에, -ᄭᅦ,[32] -ᄭᅴ,[33] -ㅅ거긔
{-의손ᄃᆡ} : -의손ᄃᆡ, -ᄋᆡ손ᄃᆡ, -ㅣ손ᄃᆡ cf. -ㄱ손ᄃᆡ[34]

---

26) {-두고}는 비교격조사로 생각된다.
受苦ᄅᆞᄫᆡ요미 地獄두고 더으니 부텨옷 救ᄒᆞ리실 여희샤 <월석 1:21b>
제 貧엔 사오나ᄫᆞᆫ 웃사ᄅᆞᆷ두고 더은 양 ᄒᆞ야 法 므더니 너기며 사ᄅᆞᆷ 므더니 너길씨 <석상 9:13b-14a>

27) {-오로}는 매개모음 'ᄋᆞ, 으'가 '로'의 'ㅗ' 모음에 의해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입은 형태로 생각된다.
ᄒᆞᆫ녀고론 깃그시고 ᄒᆞᆫ녀고론 두리여 ᄒᆞ더시다 <월석 2:44a-44b>

28) {-록}은 비교격조사로 생각된다.
鄭李ᄂᆞᆫ 時節ㅅ 議論애 빗나니 文章은 다 날록 몬제로다(鄭李光時論文章並我先) <두시-초 20:6>

29) 이와 같이 괄호가 매겨진 이형태는 가능한 이형태이나 실제 문헌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30) {-론}도 비교격조사로 생각된다.
스믈힌 時節에 열힌제론 衰ᄒᆞ며(二十之時에 衰於十歲ᄒᆞ며) <능엄 2:8b>
各別히 勞心호ᄆᆞ론 더으니라(由勝別勞心ᄒᆞ니라) <금삼 4:30b>

31) 허웅(1975:346-347)에서는 처격조사의 한 이형태 후보로 '-ㅣ'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비록 다른 처격조사들과 공통된 요소 'ㅣ'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한자 '州' 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과연 이것을 처격조사 {-에}나 {-의}의 이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짙게 드리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ㅣ'를 처격조사의 이형태로 보는 것을 일단 유보해 두고자 한다.

32) '-ㅅ게'와 같이 'ㅅ'가 떨어져 표기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33) 이 역시 '-ㅅ긔'나 '-ㅅ믜'와 같이 'ㅅ'가 떨어져 표기된 경우가 있다.

34) 이것은 허웅(1975:300)에서 제시된 예로 속격조사를 표기한 'ㄱ'에 '손ᄃᆡ'가 통합된 형태이다.

{-이}: -이, -ㅣ, ∅
{-이라와}: -이라와, -ㅣ라와, -라와
{-이며}: -이며, -ㅣ며, -며
{-이여₁}: -이여, -ㅣ여, -여
{-이여₂}: -이여, (-ㅣ여), -여[35)]
{-ᄒᆞ고}: -ᄒᆞ고

{-과}의 이형태 중에는 [-와₁]과 [-와₂]가 있는데, [-와₁]은 선행 요소가 활음 'ㅣ(j)'를 포함해 모음으로 끝날 때 실현되는 이형태이고 [-와₂]는 선행 요소가 'ㄹ'인 경우에 1차적으로 선택된 [-과]에서 'ㄱ'가 탈락된 이형태이다. 예를 들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인 '너'와 활음 'ㅣ'인 '대(筠)'에 통합될 때에는 [-와₁]로, 'ㄹ'인 '믈(水)'에 통합될 때에는 [-과]에서 'ㄱ'가 탈락된 [-와₂]로 실현된다.

비교격조사 {-라와}와 {-이라와}는 서로 관련된 형태소로 생각되지만 {-이라와}의 경우에는 『杜詩諺解』와 같은 15세기 후반 자료에서 나타나고 {-라와}와는 달리 항상 '이', 'ㅣ'가 동반되므로 이 둘은 15세기 공시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소로 처리한다.[36)]

迦葉尊者ㅣ 雞足山애 가리라 ᄒᆞ야 阿闍世王ㄱ손ᄃᆡ 가니 <석상 24:6a>

한편, '-손ᄃᆡ'의 경우는 '-ㅣ 손ᄃᆡ'가 모음 '이'나 활음 'ㅣ' 뒤에서 속격 'ㅣ' 형태의 탈락에 의해 만들어진 이형태가 아니라 '-의/-ㅅ 손ᄃᆡ'의 구성에서 형태론적으로 속격 형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통해 볼 때 알 수 있는데, 속격 형태의 소멸은 자립적인 요소였던 '손ᄃᆡ'가 문법화에 의해 의존적인 요소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5세기 공시적으로 {-의손ᄃᆡ}와 {-손ᄃᆡ}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형태소로 처리해 둔다.

學ᄋᆞᆫ 비홇씨라 無學ᄋᆞᆫ 다 아라 더 비홀 이리 업슬씨니 學無學ᄋᆞᆫ 當時로 몯다 아라 無學손ᄃᆡ 비호ᄂᆞᆫ 사ᄅᆞ미라 <석상 13:3a>

婆稚ᄂᆞᆫ 얽ᄆᆡ예다 ᄒᆞᆫ 마리니 싸호ᄆᆞᆯ 즐겨 제 軍 알ᄑᆡ 가다가 帝釋손ᄃᆡ ᄆᆡ예ᄂᆞ니라 <석상 13:9b>

35) 15세기 문헌자료들의 용례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ㅣ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자료상의 공백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굴그니여 혀그니여'에서처럼 선행 체언이 '이' 모음으로 끝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지여 바미여'가 축약된 '나져 바며'와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후자는 '-이여 → -여'의 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구어적 특징이 표기에 반영된 예라고 생각된다.

36) 비교격조사 {-이라와}와 {-라와}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杜詩諺解』의 {-이라와}

玉ㅅ갌시라와, ᄆᆞ리라와(泉), 門客이라와, 누니라와, 銀이라와, 고지라와, 새라와, 비 사ᄅᆞ미 쌔미라와, 주머귀라와, 纈이라와, 소오미라와, 누우미라와, 錦이라와, 션비라와, ᄀᆞ올히라와, 머구

{-록}, {-론}, {-롯}도 비교격조사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로' 형태에 각각 말음 'ㄱ', 'ㄴ', 'ㅅ'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비교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때의 '-로'가 구격조사 {-로}와 관련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37)]

{-의그에/-ㅅ그에}와 {-의손ᄃᆡ}의 경우에는 속격조사가 그 구성 요소로 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속격조사와 '그에', '손ᄃᆡ'가 통합된 형태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문장 안에서 여격조사로 기능하므로 15세기 공시적으로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된다. 이들은 이른바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요소들로 {-의그에/-ㅅ그에}는 본래 '속격조사+그어긔'의 구성에서 온 것으로 이해되며 선행 체언의 의미 범주에 따라 속격조사의 형태가 결정된다.[38)] 한편, {-의손ᄃᆡ}는 '속격조사+손ᄃᆡ'의 구성이 문법화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손ᄃᆡ'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39)]

미라와, 두위튜미라와

(나)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의 {-라와}

日月**라와**, 블**라와**, 셰요ᄆᆞ**라와**, ᄇᆞᄅᆞᄆᆞ**라와**

한편, 李崇寧(1981:197)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라와'를 '이라'에 '-과(와)'가 합쳐져 비교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ᄋᆞ라와'의 존재는 {-이라와}와 {-라와}가 서로 다른 형태소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라와'는 '이라'에 '-과(와)'가 합쳐졌다기보다는 비교격조사로 기능하는 두 형태소 '-이'와 '-라와'가 결합된 복합조사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7) 비교격과 관련해 언급될 수 있는 것으로 '-에셔', '-애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셔}를 개별적인 보조사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조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8)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의 15세기 국어 문헌자료들에서는 '그어긔' 형태가 속격조사 뒤에 결합되어 사용된 '-ㅅ그어긔' 또는 '-ᄋᆡ그어긔'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문법화를 일정한 문법적 제약이 일정한 시기 지속되면서 발생한 문법적 변화를 지칭한다고 할 때, '-ㅅ그어긔' 또는 '-ᄋᆡ그어긔' 형태의 부재는 아마도 우연한 공백으로 이해되며 이 형태가 비록 아직 문헌에서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그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이러한 문법화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어긔'는 '그억[그(지시대명사)+억(장소성 파생접미사)]+ -의(특이처격조사)'의 형태론적 구성을 지니고 <NP+처격조사>의 통사적 지위를 갖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긔', '뎌어긔'와 더불어 '그어긔'를 형태·통사론적으로 검토하고 성조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金亮鎭·金裕範(2000)을 참조할 수 있다.

39) '손ᄃᆡ'는 기존에 후치사(安秉禧 1967, 李崇寧 1981) 또는 의존명사(허웅 1975, 高永根 1982)로 간주되었다. '손ᄃᆡ'의 어원과 관련해 洪允杓(1976)에서는 '손(客)+ᄃᆞ(장소표시의 불완전명사)+ᄋᆡ(처격어미)'의 구성으로, 李崇寧(1981:209)에서는 '손ᄃᆡ'의 'ᄃᆡ'를 의존명사로 보았다. 한편, 김영욱(1995)에서는 i)'ᄉᆞ+오+ㄴ+ᄃᆡ', ii)'소+ㄴ+ᄃᆡ', iii)'손+ᄃᆡ'의 세 가지 역사적 분석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 어떤 분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손ᄃᆡ'를 세 번째 분석, 즉 '손+ᄃᆡ'로 파악하고 기원적으로 '손'과 'ᄃᆡ'가 각각 의존명사였던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의존명사와 의존명사의 결합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형태론적 양상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ᄃᆡ'는 李崇寧(1981)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15세기 국어의 장소성 의존명사 'ᄃᆡ[H]'로

한편, 【-이, -ㅣ, ∅】를 이형태로 갖는 형태소 {-이}는 주격조사, 비교격조사, 보격조사 등 다양한 격들의 격표지로 사용되지만 이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모습은 격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하나의 격표지로 나타내었다.

{-이며}에 대해 허웅(1975)와 고영근(1987)에서는 이를 접속조사(연결토씨)로 다루었고 安秉禧·李珖鎬(1990)에서는 보조사로 다루었는데, '-이며'가 체언의 의미 기능이 아닌 체언과 체언의 접속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접속조사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는 달리 李賢熙(1991, 1994a)에서는 계사 구문이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아래의 (1-가)와 같이 '-이며'에 대한 '-이시며'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어나'와 함께 '-이며'도 '-이어든', '-이어늘' 등과 같이 계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 가. 그 구디 蓮모시 ᄃᆞ외야 蓮ㅅ 고지 모ᄆᆞᆯ 바다놀 王이시며 나랏 사ᄅᆞ미 그제ᅀᅡ 疑心 아니ᄒᆞ니라 〈석상 3:37a〉
나. 天人師는 하ᄂᆞᆯ히며 사ᄅᆞᄆᆡ 스ᄉᆞ이시다 ᄒᆞ논 마리라 〈석상 9:3b〉

간주할 수 있는데, '손ᄃᆡ'의 성조가 [RH]인 점을 감안하면 성조론적으로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손'인데, 이를 다음과 같이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의존명사 '𠁼'와 관련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가) 時十 無色界七𠁼1 量 無七1 變ノ1 ㅌ七 大香花乙 雨彡1 厶 <구인 2:14-15>
六方氵七𠁼刀 亦ソ1 復彡 是刂 如丨ソㅌハ二㣺 <구인 3:11-12>
卽彡 於座七 中氵十 十恒沙七 天王ㅣ 十恒沙七 梵王ㅣ 十恒沙七 鬼神王ㅣ 𠃍 至刂 三趣七𠁼ㅣノ今 有七ナ1 ㅣ 無生法忍乙 得ナ㣺 <구인 11:15-16>

(나) 或 復樂ㄱ 二立 第七𠁼乙 與七 共住ソ㐃ソ㣺ノ尸 諸う 是 如支 等ソ1乙 名下 行處障ㅗノ矛丨 <유가 26:14>

(다) 此刂 菩薩1 … 無煩天ㅣ 無熱天ㅣ 善見天ㅣ 善現天ㅣ 色究竟天ㅣノ今う七𠁼今乙 聞ナ㣺 <화소 14:6-15:1>

이 '𠁼'에 대해 白斗鉉(1997a)에서는 그 본자(本字)를 '子'로 추정하고 이를 인성(人性)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본 것에 비해, 南星祐·鄭在永(1998)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잠정적으로 의존명사적인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이 '𠁼'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孫'자를 본자로 하는 구결자로 파악하고 '손ᄃᆡ'의 '손'과 연결되는 의존명사로 파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성조상 상성을 지니게 되는 '손'이 어떤 의미를 지닌 의존명사였는지가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1-나)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이며'는 계사의 활용형으로만 처리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하ᄂᆞᆯ히며 사ᄅᆞᆷ'이 속격 구성의 첫 번째 명사구를 형성하므로 '하ᄂᆞᆯ히며'만을 '사ᄅᆞᆷ'으로부터 분리된 계사 구문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1-가)의 '王이시며 나랏 사ᄅᆞᆷ'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며'에 '-시-'가 개재된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접속조사 '-이며'가 본래 계사의 활용형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시며'의 존재만을 가지고 15세기의 모든 '-이며'를 계사의 활용형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무리한 설명이 될 수 있다.[40] 또한 '녜며 이제며<남명 하:34b>'에 대해 '녜며 이제<법화 2:244b>'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도[41] 15세기에 '-이며'는 계사의 활용형으로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접속조사로서도 기능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이여$_1$}과 {-이여$_2$}는 그 형태와 함께 이형태교체 양상이 동일하지만, 각각 '감탄의 표현'과 '접속'이라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형태소로 구분된다.

1.1.2. 보조사

주로 문장에서 체언의 문법적 기능이 아닌 의미 기능을 표시해 주는 조사들이 보조사라는 범위 안에서 다루어진다.[42]

---

40)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논의를 현대국어의 '-인들', '-인즉'과 같은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들', '-인즉'의 경우 이들을 조사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사에 어미가 통합된 구성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문장에서 이들이 통합된 명사구의 적절한 주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을 계사의 활용형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계사 구문이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인들'에 대해 '-이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1-가)에서 '-이며'에 대해 '-이시며'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선어말어미 '-시-'의 개입은 공시적 차원에서 '-인들'과 '-이며'를 조사로 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들이 계사의 활용형에서 기원했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41) 이 妙境ᄋᆞᆫ 녜며 이제며 쇽졀 업시 제 分明ᄒᆞᆯ시라 <남명 하:34b>
서르 ᄣᅴ며 禪律이 서르 외다 ᄒᆞ야 녜며 이제 마디 아니ᄒᆞᄂᆞ니 <법화 2:244b>

42) 고영근(1987:334)에서는 劉昌惇(1964:243-255)와 허웅(1975:371-387)을 참고하여 중세국어 보조사의 목록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세국어 보조사의 목록과 의미>

【보조사 이형태 목록】

{-ㄱ} : -ㄱ

{-고/-가} : -고, -구,[43] -오, (-우), -가, -아[44]

{-곰$_1$} : -곰

{-곰$_2$} : -곰, -옴$_1$, -옴$_2$

{-곳} : -곳, -옷$_1$, -옷$_2$

{-ᄀᆞ티} : -ᄀᆞ티[45]

{-ㄴ} :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나마} : -나마

{-도} : -도[46]

---

① ᄂᆞᆫ/는/ᄋᆞᆫ/은<대조>, ② 곳/옷, 봇/봇, 만, ᄲᅮᆫ<단독>, ③ 도<역시>, ④브터<시작>, ⑤ (이)ᄃᆞ록/(이)도록<미침>, ⑥ 마다<균일>, ⑦ (이)나/(이)어나<선택>, ⑧ ᅀᅡ<특수>, ⑨ (이)ㄴ들<비특수>, ⑩ (으)란<지적>, ⑪ ㅣ라<감탄>, ⑫ 나마<개산>, ⑬ 곰/옴<여운>, ⑭ 가/아/고/오<의문>, ⑮ 마ᄅᆞᆫ<종결>

여기에는 '셔'와 '다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둘 모두가 어미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목록에서 ⑤ '(이)ᄃᆞ록/(이)도록', ⑨ '(이)ㄴ들', 그리고 ⑦ '(이)어나'의 경우에는 모두 계사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조사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43) 釋迦彌勒이 오히려 ᄂᆞᄆᆡ 죵이라 ᄒᆞ니 ᄂᆞᄆᆞᆫ 누구(釋迦彌勒이 猶是他奴ㅣ라ᄒᆞ니 他ᄂᆞᆫ 是阿誰오) <몽법 20b>

44) 보조사 {-고/-가}에서 '-고'계열과 '-가'계열의 이형태들은 다시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그 이형태가 세분되는데, 선행 체언이 'ㄹ'나 활음 'ㅣ'로 끝날 경우 15세기 공시적 형태음운현상인 'ㄱ'탈락이 일어나 각각 이형태 【-오】와 【-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두 이형태 【-오】와 【-아】의 경우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 모음으로 끝나는 몇몇 체언 뒤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뉘 이 靑蕓 서리옛 器具오 <두시-초 16:18b>
몰 일훔과 라귀 일훔괘 몃 온 가지오 <금삼 4:40a>
죽사리ᄂᆞᆫ 므슷 일로 갈아 ᄒᆞᆫ가지 아니오 <남명 하:42a>

(나) 生가 滅가 同가 異아 生滅이 아니가 同異 아니가 <능엄 3:98a>
네 이제 소리아 아니아 <능엄 4:126b> cf.妄ᄒᆞᆫ 혜욤 아니가 <능엄 10:78a>

이것은 보조사 {-고/-가}에서 'ㄱ'탈락이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모음 '이' 뒤에서도 일어났다고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정연한 규칙성을 보이는 현상이 여기에서만 그 환경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은 합당한 처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아니'에 대해 【-아】와 【-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이 때의 교체가 수의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 '아니'는 '아니오'로만 나타날 뿐 '*아니고'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45) 15세기 국어에서 'ᄀᆞ티'를 보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음운론적 관점에서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인 경우에도 'ᄀᆞ티'에서 'ㄱ'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ᄀᆞ티'의 형태론적 지위를 보조사로 파악하는 것을 재고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Ⅳ-2.2.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란| : -란, -으란, -ᄋᆞ란,[47] -런[48]
|-ㅁ| : -ㅁ
|-마다| : -마다
|-마른| : -마른[49]
|-브터| : -브터[50]
|-ᄆᆞᆺ/-봇| : -ᄆᆞᆺ, -봇, -뽓
|-셔| : -셔
|-사| : -사, -ᅀᅡ[51]
|-이나| : -이나, -ㅣ나, -나[52]

---

46) 허웅(1975:374)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보조사 |-도|가 《한가지임》 외에 《양보》, 《강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李賢熙(1995b:528)에서는 《亦同》과 《양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7) 다음 예들에서 보이는 '-라ᄂᆞᆫ' 형태는 보조사 '-란'에 다시 보조사 '-ᄋᆞᆫ'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바ᄇᆞ란 芸子ㅣ 히니ᄅᆞᆯ ᄀᆞ리ᄡᅳ고 외라ᄂᆞᆫ 水精이 ᄎᆞᆫ ᄃᆞᆺᄒᆞ니ᄅᆞᆯ 시부라(飯抄芸子白瓜嚼水精寒) <두시-초 15:54a>
녯 뫼흐란 白閣을 迷失ᄒᆞ고 ᄀᆞᅀᆞᆶ 믈라ᄂᆞᆫ 皇陂ᄅᆞᆯ 思憶ᄒᆞ노라 (故山迷白閣秋水憶皇陂) <두시-초 16:11a>

48) 글런 ᄆᆞᅀᆞᆷ 슬턴 ᄯᅡᄒᆞᆯ ᄉᆞ랑ᄒᆞ노니 봆비츤 볼 자뱃ᄂᆞᆫ 알ᄑᆡ 기펫더니라(詩憶傷心處春深把臂前) <두시-초 21:13b>

49) 허웅(1975, 1992)에서는 다음과 같이 『內訓』(蓬左文庫本)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마ᄂᆞᆫ'의 경우도 15세기 국어의 보조사로 제시하였으나, 이 봉좌문고본 『內訓』은 1475년(성종6)에 간행된 초간본이 아니라 만력(萬曆) 원년의 내사기(內賜記)를 가진 중간본이므로 이를 완전히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安秉禧(1972)에서는 보조사 '-마ᄂᆞᆫ'과 함께 격음화된 어휘 'ᄑᆞᆯ(臂)'의 존재가 봉좌문고본 『內訓』이 16세기의 간본임을 말해주는 언어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李基文(1987)에서도 봉좌문고본 『內訓』이 선조(宣祖) 6년 말의 중간본임을 밝히고 '古本'이라 이름한 선조 6년 초의 새로운 중간본을 소개한 바 있다.
妾은 엇데 王ᄭᅴ 得寵ᄒᆞ요ᄆᆞᆯ ᄒᆞ오ᅀᅡ 코져 아니ᄒᆞ리잇고마ᄂᆞᆫ 妾은 드로니 <내훈-봉 2상:22b>

50) 大臣이 닐오ᄃᆡ 나다가며브터 嗔心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ᆡ 눈ᄌᆞᅀᆞ와 骨髓왜니이다 <월석 21:215b>

51) 李賢熙(1995b)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15세기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를 '-ᅀᅡ'에서 변화한 것이나 방언형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ᅀᅡ'보다 더 고형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ᅀᅡ'가 16세기 이후에는 '-ᅀᅣ', '-아', '-야' 등으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의 '-야'로 이어져 오게 된 것에 대해 '-ᅀᅡ'는 '-아'로, '-ᅀᅣ'는 '-야'로 변화하여 이 '-아'와 '-야'가 16세기 국어에서 공존하다가 그 뒤 단계에서 '-야'가 '-아'를 밀어내고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52) 허웅(1975:382)에서는 이 |-이나|를 아무 것이나 상관없이 임의로 선택함을 나타내거나 또 많거나 적거나(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어떠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처리하였다. 『月印釋譜』 권19에 나타나는 (가)~(라) 예들의 |-이나|는 《임의의 선택》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곳의 '사ᄅᆞ미나'는 모두 주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가)를 제외하고 『月印釋譜』 권19의 '사ᄅᆞ미나'가 『法華經諺解』 권7에서는 '사ᄅᆞ미'로 언해되어 있으며 원문에도 주격조사 '-이'가 현토되어 있는 사실을

{-이어나}: -이어나, -ㅣ어나, -어나
{-잇든}: -잇든, (-ㅅ든), -ㅅ든
{-ㆁ}: -ㆁ
{-컨마룬}: -컨마룬

위 목록에서 먼저 보조사 {-곰1}과 {-곰2}가 있음이 주목된다. {-곰1}이 《여운》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사라면(허웅 1975, 고영근 1997), {-곰2}는 《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이다. 이 두 보조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소라는 것은 이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양상을 살피면 명백해진다.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가)

[월석] 비록 거믄 ᄇᆞᄅᆞ미 비ᄅᆞᆯ 부러 羅刹鬼國에 ᄠᅥ러디여도 그 中에 ᄒᆞ다가 ᄒᆞᆫ 사ᄅᆞ미나 觀世音菩薩ㅅ 일훔<22a> 일ᄏᆞᄅᆞ리 이시면 이 사ᄅᆞᆷ돌히 다 羅刹難ᄋᆞᆯ 버서나리라 <월석 19:22b>

[법화] 비록 거믄 ᄇᆞᄅᆞ미 비ᄅᆞᆯ 부러 羅<50a>刹鬼國에 불여 가 ᄠᅥ디여도 그 中에 ᄒᆞ다가 ᄒᆞᆫ 사ᄅᆞ미나 觀世音菩薩 일훔 일ᄏᆞ로매 니를면 이 사ᄅᆞᆷ돌히 다 羅刹難ᄋᆞᆯ 버수믈 得ᄒᆞ리니 <법화 7:50b>

[원문] 假使黑風이 吹其船舫ᄒᆞ야(甫安) 漂墮羅刹鬼國ᄒᆞ야도 其中에 若有乃至一人이나 稱觀世音菩薩名者ㅣ면 是諸人等이 皆得解脫羅刹之難ᄒᆞ리니 <법화 7:49a>

(나)

[월석] 商人ᄃᆞᆯ ᄃᆞ려 重ᄒᆞᆫ 보비 가져 險ᄒᆞᆫ 길흘 디낧 제 그 中에 ᄒᆞᆫ 사ᄅᆞ미나 닐오ᄃᆡ <월석 19:25b>

[법화] 여러 商人 ᄃᆞ려 重寶 가져 嶮ᄒᆞᆫ 길헤 디날 쩨 그 中에 ᄒᆞᆫ 사ᄅᆞ미 이 말 호ᄃᆡ <법화 7:58b>

[원문] 將諸商人ᄒᆞ야 齎持重寶ᄒᆞ야 經過嶮路홀제 其中一人이 作是唱言호ᄃᆡ <법화 7:57a>

(다)

[월석] 부톄 니ᄅᆞ샤ᄃᆡ ᄯᅩ 아모 사ᄅᆞ미나 觀世音菩薩ㅅ 일후믈 受持호ᄃᆡ ᄒᆞᆫ ᄢᅵ나 절ᄒᆞ야 供養ᄒᆞ면 이 두 사ᄅᆞᄆᆡ 福이 正히 ᄀᆞᆮᄒᆞ야 달오미 업서 百千萬億劫에 다ᄋᆞ디 아니ᄒᆞ리라 <월석 19:30b>

[법화] 부톄 니ᄅᆞ샤ᄃᆡ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觀世音菩薩ㅅ 일후믈 受持호ᄃᆡ ᄒᆞᆫ ᄢᅵ나 禮拜 供養호매 니를면 이 두 사ᄅᆞᄆᆡ 福이 正히 ᄀᆞᆮᄒᆞ야 달옴 업서 百千萬億劫에 다ᄋᆞ디 아니ᄒᆞ리라 <법화 7:68b>

[원문] 佛言ᄒᆞ샤ᄃᆡ 若復有人이 受持觀世音菩薩名號호ᄃᆡ 乃至一時나 禮拜供養ᄒᆞ면 是二人의 福이 正等無異ᄒᆞ야 於百千萬億劫에 不可窮盡ᄒᆞ리라 <법화 7:68a>

(라)

[월석] 普賢아 ᄒᆞ다가 如來 滅後 後五百歲예 아모 사ᄅᆞ미나 法華經 受持 讀誦ᄒᆞ릴 보아든 이 念을 호ᄃᆡ <월석 19:118b>

[법화] 普賢아 ᄒᆞ다가 如來 滅後 後五百歲예 ᄒᆞ다가 사ᄅᆞ미 法華經 受持 讀誦ᄒᆞ리 보아든 반ᄃᆞ기 이 念을 호ᄃᆡ <법화 7:183a>

[원문] 普賢아 若如來滅後後五百歲예 若有人이 見受持讀誦法華經者ᄒᆞ야든 應作是念호ᄃᆡ <법화 7:182b>

(1) 가. 이리곰 火災ᄒᆞ몰 여듧 번 ᄒᆞ면 二禪天에셔 ᄆᆞ리 나아 〈월석 1:49b〉
아ᄃᆞ리 아비 나해셔 곱기곰 사라 八萬히 ᄃᆞ욇 ᄀᆞ장 더우믈 增이라 〈월석 1:47b〉
이런 이본 길헤 눌 보리라 ᄒᆞ야 우러곰 온다 〈월석 8:101a〉
나. 버거 두가지옴 가진 蒲萄ㅣ 나니 마시 ᄯᅩ ᄃᆞ더니 〈월석 1:43b〉
摩訶栴檀 우믌 므를 ᄒᆞᄅᆞ 五百 디위옴 길이더시니 〈월석 8:91b〉
四王天 목수미 人間앳 쉰 히롤 ᄒᆞᄅᆞ옴 혜여 五百 히니 〈월석 1:37b-38a〉

(1-가)는 {-곰₁}이 모음 '이'와 활음 'ㅣ', 그리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음 뒤에서 실현된 예들인데, 그 이형태가 모두 【-곰】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나)는 (1-가)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곰₂}의 이형태가 모두 【-옴₁】로 나타나고 있는데,[53] 이러한 사실은 (1-가)와 (1-나)에 사용된 두 형태소 {-곰₁}과 {-곰₂}가 서로 다른 형태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은 의미적으로도 다르지만 이와 같이 음운론적 현현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독》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유형의 보조사로 {-뭇/-ᄫᅳᆺ}이 있는데, 이것의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王ᄫᅳᆺ 너를 ᄉᆞ랑티 아니ᄒᆞ시린댄커니와 王이 너를 禮로 待接ᄒᆞᅀᆞᆸ던댄 〈석상 11:30a〉
오ᄂᆞᆯ 여희ᅀᆞᄫᆞᆫ 後에 ᄭᅮᆷᄫᅳᆺ 아니면 서르 보ᅀᆞᄫᆞᆯ 길히 업건마ᄅᆞᆫ 〈월석 8:95a〉
나. 夫人이 ᄉᆞᆲᄫᆞ샤ᄃᆡ ᄭᅮᆷ뭇 아니면 어느 길헤 다시 보ᅀᆞᄫᆞ리 〈월석 8:82b〉
太子ㅣ 니ᄅᆞ샤ᄃᆡ 몸뭇 이시면 受苦ᄅᆞ왼 이리 잇ᄂᆞ니 나도 ᄃᆞ려ᄒᆞ리로다 〈석상 3:17b〉
醫藥 飮食 臥具를 布施ᄒᆞ야 安樂게 ᄒᆞ면 이 ᄀᆞᄐᆞᆫ 福利뭇 不思議라 〈월석 21:143a〉
다. ᄒᆞ다가 ᄆᆞᅀᆞ맷 벋봇 아니면 엇뎨 가비야이 觸ᄒᆞ리오 〈선영 하:128a〉

安秉禧(1967:192-193)에서는 (2-나)의 'ᄭᅮᆷ뭇'의 예를 들어 【-뭇】을 【-ᄫᅳᆺ】의 오각(誤刻)으로 보았으나 '몸뭇', '福利뭇'과 같은 예도 존재함을 볼 때 이들을 모두 【-ᄫᅳᆺ】의 오각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54] 【-뭇】을 이형태로 인정할 때 생기는 문제는 【-뭇

53) {-곰₂}의 이형태 중 【-옴₁】은 선행 요소가 활음 'ㅣ(j)'를 포함해 모음으로 끝날 때 실현되는 이형태이고 【-옴₂】는 선행 요소가 'ㄹ'인 경우에 1차적으로 선택된 【-곰】에서 'ㄱ'가 탈락된 이형태이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격조사 {-과}의 두 이형태 【-와₁】, 【-와₂】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이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54) 한편, 허웅(1975:392)와 한글학회에서 간행된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에서는 다음 예문 (가)의

】과 【-봇】의 분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봇】은 '王봇', '숨봇' 외에 '因봇', '눈봇'과 같은 예들도 찾아볼 수 있어 선행음절의 마지막 분절음이 'ㅇ, ㅁ, ㄴ'와 같은 비음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뭇】은 '숨뭇', '몸뭇', '福利뭇'과 같이 비음 'ㅁ' 외에 모음 '이' 뒤에서도 사용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교체 환경을 분명히 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되며 일단 교체의 수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2-다)의 【-봇】은 『禪宗永嘉集諺解』의 하권에서만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에서 'ㆍ'의 원순모음이 'ㅗ'였다는 관점에서 볼 때55) 【-봇】과 【-봇】의 관계는 순음 'ㅂ'에 의한 'ㆍ>ㅗ'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사 {-ㄱ}, {-ㅁ}, {-ㅇ}은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는 경우로 이들은 주로 연결어미들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 가. 너희 出家ᄒᆞ거든 날 ᄇᆞ리곡 머리 가디 말라 〈석상 11:37a〉
　　　ᄒᆞᆰ과 나모와로 天像佛像ᄋᆞᆯ 뮝ᄀᆞᄉᆞᆸ곡 天佛을 恭敬ᄒᆞᅀᆞᄫᅡ 저를 ᄒᆞᄂᆞ니 〈월석 4:36a-b〉
　나. 因果ㅣ 서르 처섬 乃終이 ᄃᆞ외야 올맘 이 道애 여희디 아니호ᄆᆞᆫ 니ᅀᅥ 긋디 아니케 코져 ᄒᆞ실씨 〈월석 12:13b〉
　다. 더으명 더러 머그라(加減服之) 〈구급 상:70b〉56)

실제로 이들 보조사들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安秉禧·李珖鎬(1990)에 의하면 이들 보조사들은 대체로 '강세'의 기능을 갖거나 더불어 '행위의 반복'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되고 있다.57)

'뭇'을 보조사 {-뭇/-봇}으로 보았으나, 이 때의 '뭇'은 보조사가 아닌 《가장》의 의미를 갖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래 (나)에서와 같이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부사로 쓰인 '뭇'을 꽤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ᄀᆞ장 ᄀᆞᄂᆞᆫ 그림제 뭇 後ㅅ 無明을 ᄒᆞ야ᄇᆞ려 죠고맛 드틀도 업게 ᄒᆞ야ᅀᅡ <월석 2:62a>
(나) 니르시논 法이 初中後善이러시니 뭇 後ㅅ 부톄 出家 아니ᄒᆞ야 겨싫 저긔 <월석 11:44b-45a>
　다 佛道ᄅᆞᆯ 일우시니 뭇 後에 成佛ᄒᆞ시니 일후미 然燈이시니라 <월석 11:91a>
　法華 뭇 後ㅅ 마리 ᄯᅩ 엇데 ᄒᆞᆫ갓ᄒᆞ시리오 <월석 11:94b>

55) 이에 대해서는 金完鎭(1978)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w+ᄋᆞ→오', 'w+으→우'의 설명을 볼 수 있다.

56) 이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16세기 문헌자료인 『野雲自警』의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ᄌᆞ조 오명 가명 호미 다 부모ᄅᆞᆯ브터 나ᄃᆞᄂᆞ니라 <야운 80a>

57)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예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강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들이 왜 서로 다른 {-ㄱ}, {-ㅁ}, {-ㆁ}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에서 '-곡'과 '-명'은 각각 연결어미 {-고}와 {-며}에 보조사 {-ㄱ}와 {-ㆁ}이 통합된 것이고 '-맘'의 경우는 어간 {옮-}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어 형성된 '올마'의 두 번째 음절에 보조사 {-ㅁ}가 통합된 것이다. '-곡', '-맘', '-명'을 통해 볼 때 혹 각 보조사의 선택이 그들이 포함된 음절의 초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58)

{-마론}은 '오도다마론'이나 '업스리오마론'에서와 같이 평서형의 종결문이나 의문형의 종결문 뒤에만 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보조사로, 15세기 공시적으로 연결어미 '-건마론'이나 또다른 보조사로 설정된 '-컨마론'의 '마론'과는 구별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셔}의 경우는 기원적으로 존재를 뜻하는 '이시-'의 활용형에서 온 형태소로 다른 형태소들과 매우 다양한 통합 양상을 보여준다.59) 예를 들어 일반처격조사 {-에}, 특

卽時예 如來ㅣ 大衆中에 다ᄉᆞᆺ 輪指ᄅᆞᆯ 구피샤 구피시곡 ᄯᅩ 펴시며 펴시곡 ᄯᅩ 구피시고 <능엄 1:108b>

이ᄀᆞ티 十生익 무레 니르리 죽곡 주그며 나곡 나 서르 와 서르 머거 惡業이 ᄒᆞᆫ티 나딗 <능엄 4:30a>

그러나 실제로 이 예들에 보이는 {-ㄱ}가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문 자체가 연결어미 {-고}와 {-며}가 사용된 것이므로 반복의 의미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58) 이 때 '-곡', '-맘'의 경우에는 초성과 종성이 동일한 분절음을 보이지만 '-명'의 경우는 [+비음성]이라는 조음방식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아래 예문의 '일록'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의 선택이 음절의 초성과 무관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ㄱ}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기타의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즁싱도 孝道ᄒᆞᆯ써 일록 後에 疑心 마오 <월석 2:13a>

일록 後에 比丘의게 어즈리디 말라 <월석 4:31b>

일록 우흔 無明이 緣이 ᄃᆞ외야 三細 내요미오 일록 아랜 境界緣이 ᄃᆞ외야 六麤 내요미니 <월석 11:79b>

이와 같이 보조사 {-ㄱ}, {-ㅁ}, {-ㆁ}을 음절의 초성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들을 하나의 형태소로부터 실현되는 세 이형태들이라고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59) {-셔}에 대해서는 李崇寧(1976)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李崇寧(1961)에서는 {-에}에 {-셔}가 통합된 '-에셔, -애셔'가 다음의 예들에서처럼 비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가) 사ᄅᆞᆷ 害ᄒᆞᄂᆞᆫ 鬼ㅣ 羅刹女鬼子母에셔 甚ᄒᆞ니 업스니(害人之鬼ㅣ 無甚於羅刹女鬼子母ᄒᆞ니) <법화 7:117a>

(나) 그 ᄂᆞᄎᆞᆫ 一定히 아ᄒᆡ 나힌 제셔 ᄉᆞᆲ지거니와(其面은 必定皺於童年커니와) <능엄 2:9b>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시간성 의존명사 '제'에 {-셔}만이 통합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제셔'의 성조가 [LH]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제셔'가 '제[L]+-에[H]+-셔[H]'의 통합 내용을 가진 것이라면

이처격조사 {-의}, 그리고 여격조사 {-의그에/-ㅅ그에}와 통합해 각각 '-에셔, -애셔'와 '-의셔, -인셔', 그리고 '-ㅣ게셔, -ㅅ긔셔'를 형성하기도 하고[60] 구격조사 {-로}와 결합해 '-(으/ᄋ)로셔'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연결어미 {-고}, {-며}, {-어} 등과 결합한 '-고셔', '-(으/ᄋ)며셔', '-어셔/-라셔' 등도 찾아볼 수 있고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부사에도 통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61]

보조사 {-잇ᄃᆞᆫ}은 15세기 자료 중 『月印千江之曲』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62] 주로 명사나 명사형에 통합되어 그 의미를 강조한다. 보조사 {-잇ᄃᆞᆫ}과 함께 이것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이ᄯᆞ녀', '-이ᄯᆞ니잇가'와 같은 일련의 형태들을 安秉禧(1967:220)에서는 의문법인 반어법을 형성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이들을 후치사 '-잇ᄃᆞᆫ'에 서술격 어미와 의문법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63]

실제로 '-이ᄯᆞ녀', '-이ᄯᆞ니잇가' 형태가 통합되는 요소는 (4)에서와 같이 일반명사 및 의존명사 '이' 등을 포함한 체언과 명사형어미 {-옴} 등에 의해 형성되는 명사구(NP)임을 알 수 있다.

(4) 가. ㉠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내 이거스로 ᄒᆞᆫ 나라ᄒᆞᆯ 다 주어도 오히려 모ᄌᆞ라ᄃᆡ 아니ᄒᆞ리어니 ᄒᆞ물며 아ᄃᆞᆯ ᄯᆞᆯ히ᄯᆞ녀 〈월석 12:32b-33a〉

'제셔'의 성조는 [RH]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60) 보조사 {-셔}가 여격조사 {-의그에/-ㅅ그에}와 통합되어 '-ㅣ게셔'와 '-ㅅ긔셔'를 형성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味ᄂᆞᆫ 마시니 華嚴時ᄂᆞᆫ **쇼게셔** 졋 나미 ᄀᆞᄐᆞ야 부**텻긔셔** 十二部經이 나고 <월석 14:64b>

61) 이들의 실제 용례는 허웅(1975:376-378)을 참조할 수 있다.

62) 짭ᄌᆞᆸ 춍ᄌᆞᆼ목ᄆᆞᆨ 것거다가 ᄂᆞ출 거우ᅀᆞᄫᆞᆫᄃᆞᆯ ᄆᆞᅀᆞᆷ잇ᄃᆞᆫ 뮈우시리여 <월곡 상:23a(기62)>
ᄒᆞᆫ낟 ᄡᆞᆯ올 좌샤 ᄉᆞᆯ히 여위신ᄃᆞᆯ 금금 식ᄉᆡᆨ잇ᄃᆞᆫ 가ᄉᆡ시리여 <월곡 상:23a(기62)>
한편, 고려가요 등에서도 {-잇ᄃᆞᆫ}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긴힛ᄃᆞᆫ/긴히ᄯᆞᆫ'(鄭石歌/西京別曲), '信잇ᄃᆞᆫ'(西京別曲 · 鄭石歌), '丹心잇ᄃᆞᆫ'(感君恩), '山川잇ᄃᆞᆫ'(雙岩歌) 등의 예가 있다(李崇寧 1985 참조).

63) 후치사(後置詞 postposition)라는 용어는 일찍이 람스테트(Ramstedt)를 비롯한 초기의 연구자들로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인구어(印歐語)의 전치사(前置詞 preposition)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도입되었다(蔡琬 1990). 실제로 조사 전체를 포괄하는 입장에서부터 어원을 밝힐 수 있는 것만을 후치사로 보는 입장 등 후치사의 개념은 매우 혼동되어 있어서 이를 격조사, 보조사(특수조사) 등과 명확히 구별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류구상 1983).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후치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형태소에 따라 격조사나 보조사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ㄴ 이러ᄐᆞᆺᄒᆞᆫ 不可說 佛世尊이 겨시더니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이 天이어나 人이어나 男이어나 女ㅣ어나 오직 ᄒᆞᆫ 부텻 일후믈 念ᄒᆞᅀᆞᄫᅡ도 功德이 그지업스리니 <u>ᄒᆞᄆᆞᆯ며</u> 한 **일후미ᄯᆞ니ᅌᅵᆺ가** 〈월석 21:136a-b〉

나. ㄱ ᄯᅩ 如來滅後에 ᄒᆞ다가 이 經 듣고 허디 아니 ᄒᆞ야 隨喜心 니ᄅᆞ와ᄃᆞ면 반ᄃᆞ기 알라 ᄒᆞ마 기피 信解ᄒᆞᆫ 相이니 <u>ᄒᆞᄆᆞᆯ며</u> 讀誦受持**ᄒᆞ리ᄯᆞ녀** 〈월석 17:36b〉

ㄴ ᄯᅩ 閻浮提옛 ᄒᆞ마 命終ᄒᆞᇙ 사ᄅᆞᄆᆞᆯ 善惡 묻디 말오 내 이 사ᄅᆞᄆᆞᆯ 惡道애 ᄠᅥ러디디 아니케 코져 ᄒᆞ노니 <u>ᄒᆞᄆᆞᆯ며</u> 제 善根 닷가 내 힘 더**으리ᄯᆞ니ᅌᅵᆺ가** 〈월석 21:125b〉

ㄷ 阿逸多야 이 第五十人의 올ᄆᆞ며 올마 法華經 듣고 隨喜ᄒᆞᆫ 功德도 오히려 無量無邊 阿僧祇어니 <u>ᄒᆞᄆᆞᆯ며</u> ᄆᆞᆺ 처ᅀᅥ메 會中에 듣고 隨喜ᄒᆞ**니ᄯᆞ녀** 〈월석 17:50a〉

ㄹ 이 閻浮提ㅅ 善行ᄒᆞ던 사ᄅᆞ미 ᄒᆞ마 命終ᄒᆞᇙ 제도 百千惡道鬼神이 시혹 變ᄒᆞ야 父母ㅣ며 眷屬ᄃᆞᆯ히 ᄃᆞ외야 亡人을 引接ᄒᆞ야 惡道애 ᄠᅥ러디게 ᄒᆞᄂᆞ니 <u>ᄒᆞᄆᆞᆯ며</u> 本來 모딘 일 짓**더니ᄯᆞ니ᅌᅵᆺ가** 〈월석 21:125b-126a〉

다. ㄱ 觀世音菩薩ㅅ 일훔 일ᄏᆞᆮ거든 드르면 이 惡鬼ᄃᆞᆯ히 오히려 能히 모딘 누느로 보디 몯ᄒᆞ리어니 <u>ᄒᆞᄆᆞᆯ며</u> **害호미ᄯᆞ녀** 〈월석 19:24b〉

ㄴ 엇뎨어뇨 ᄒᆞᆫ단ᄃᆡ 몸 목수믈 올오면 곧 ᄒᆞ마 玩好앳 거슬 得ᄒᆞᆫ 디니 <u>ᄒᆞᄆᆞᆯ며</u> ᄯᅩ 方便으로 뎌 火宅애 ᄲᅡ혀 **濟度호미ᄯᆞ니ᅌᅵᆺ가** 〈월석 12:33b-34a〉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ᄯᆞ녀', '-이ᄯᆞ니ᅌᅵᆺ가'는 항상 'ᄒᆞᄆᆞᆯ며'를 앞세우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호응 관계는 'ᄒᆞᄆᆞᆯ며~-이ᄯᆞ녀/-이ᄯᆞ니ᅌᅵᆺ가'의 의미를 수사의문문과 같이 만들어 준다.[64] '-이ᄯᆞ녀', '-이ᄯᆞ니ᅌᅵᆺ가'의 차이는 청자에 대한 대우에 있는데, '-이ᄯᆞ니ᅌᅵᆺ가'의 경우에는 청자(상대) 높임법과 관련된다.

---

64) 『楞嚴經諺解』의 다음 용례들은 '-이ᄯᆞ녀'가 사용된 보통의 구문들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가) 匿王이 代 ᄇᆞ료미 어루 아ᄎᆞᆷ **나죄ᄯᆞᄅᆞ미어니ᄯᆞ녀** 楞嚴法會 녀름브터 겨스레 가니 이 王 달오ᄆᆞᆯ 자바 會 다ᄅᆞᆫ가 疑心호미 올티 몯ᄒᆞ니라 <능엄 1:16b-17a>

(나) ᄯᅩ 니ᄅᆞ샤ᄃᆡ 神呪ㅅ 히ᄆᆞᆯ 브트니라 ᄒᆞ시니 번ᄃᆞ기 法華ㅣ 아니어늘ᅀᅡ <u>ᄒᆞᄆᆞᆯ며</u> 道記와 果記와 달오미 **잇거니ᄯᆞ녀** 疑心호ᄃᆡ 이 經에· 니ᄅᆞ샨 道記라 法華앳 果記 아닌가 ᄒᆞ노라 <능엄 1:17a-b>

(다) ᄒᆞ마 色과 空괏 안해 求ᄒᆞ야 나ᄆᆞᇙ 고디 업고 色과 空괏 밧긔 이슗디 아니어늘ᅀᅡ <u>ᄒᆞᄆᆞᆯ며</u> 空이 ᄯᅩ 밧기 잇디 **아니커니ᄯᆞ녀** ᄆᆞᅀᆞᄆᆡ 緣ᄒᆞᄂᆞᆫ 法處ㅣ ᄆᆞᄎᆞ매 實 업도다 <능엄 3:34a>

이들은 모두 선어말어미 {-거-}를 동반하고 있어 '-거니ᄯᆞᆫ', '-어니ᄯᆞᆫ'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ᄒᆞ다가'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거니ᄯᆞᆫ', '-어니ᄯᆞᆫ' 구문과는 그 구문상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ᄒᆞᄆᆞᆯ며'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구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에 나타나는 '-거니ᄯᆞ녀'는 '-거- + -ㄴ # 이(의존명사) + -잇ᄃᆞᆫ + -이여'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ᄯᆞ녀'는 강세보조사 {-잇ᄃᆞᆫ}과 감탄조사 {-이여}의 통합체로, '-이ᄯᆞ니잇가'는 강세보조사 {-잇ᄃᆞᆫ}에 계사 {(-)이-}와 종결어미 {-잇가}가 연결된 통합체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장윤희 1996), 이러한 입장에서 (4-나)의 어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5) 가. 讀誦受持ᄒᆞ리ᄯᆞ녀: 讀誦受持ᄒᆞ- + -ㄹ # 이(의존명사) + -잇ᄃᆞᆫ + -이여
나. 더으리ᄯᆞ니잇가: 더으- + -ㄹ # 이(의존명사) + -잇ᄃᆞᆫ + -이- + -잇가
다. 隨喜ᄒᆞ니ᄯᆞ녀: 隨喜ᄒᆞ- + -ㄴ # 이(의존명사) + -잇ᄃᆞᆫ + -이여
라. 짓더니ᄯᆞ니잇가: 짓- + -더- + -ㄴ # 이(의존명사) + -잇ᄃᆞᆫ + -이- + -잇가

이 때 의존명사 '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종속절에서 제시된 대상과 대비를 이루는 존재가 된다.

한편, 주로 『楞嚴經諺解』의 권1에서 권3까지에 'ᄒᆞ다가'를 앞세우고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니ᄯᆞᆫ', '-어니ᄯᆞᆫ'은 장윤희(1996)의 지적대로 그 자체가 종결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 {-거-}와 연결어미 {-니}, 그리고 여기에 보조사 {-잇ᄃᆞᆫ}이 통합된 형태로, 이 때 {-잇ᄃᆞᆫ}은 연결어미 {-니}가 사용된 구문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65) 즉, '-거니ᄯᆞᆫ', '-어니ᄯᆞᆫ'이 사용된 문장은 수사적 종결형이 아니라 강조적 연결형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ᄯᆞ녀', '-이ᄯᆞ니잇가', '-거니ᄯᆞᆫ', '-어니ᄯᆞᆫ' 등은 하나의 어미라기보다는 보조사 {-잇ᄃᆞᆫ}이 참여한 문법 요소들의 통합체로 파악될 수 있다.

기존에 15세기 국어의 보조사들로 간주해 왔던 몇몇 형태소들은 사실상 보조사가 아닌 의존명사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것으로 '만', 'ᄭᆞ장/ᄀᆞ장',

---

65) 참고로 13세기 후반 음독구결 자료인 안동본 『楞嚴經』에는 『楞嚴經諺解』에서 'ᄒᆞ리어니ᄯᆞᆫ'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ㄴ禾ㅅ七入ㆍ(ᄒᆞ리어ᄯᆞ녀)' 또는 'ㄴ禾ㅅㄷ七入ㆍ(ᄒᆞ리어니ᄯᆞ녀)'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장윤희(1998:172)에서 『楞嚴經諺解』의 예들과 함께 제시된 『月印釋譜』의 예((62-ㄹ))는 좀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提婆達多ㅣ 阿闍世王과 사괴더니 닐오ᄃᆡ 네 새 王 ᄃᆞ외아라 나도 새 부텨 ᄃᆞ외오져 ᄒᆞ노라 阿闍世 닐오ᄃᆡ 父王이 겨시거닛ᄃᆞᆫ 提婆達多ㅣ 닐오ᄃᆡ 더러 ᄇᆞ리려도 부텨를 게코져 ᄒᆞ노라 <월석 22:69b-70a>
이곳의 '겨시거닛ᄃᆞᆫ'은 '阿闍世'의 말이 끝나고 뒤에 '提婆達多'의 말이 시작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종결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6세기 자료인 '飜譯朴通事'와 '飜譯老乞大'에 등장하는 '-거니ᄯᆞ나', '-어니ᄯᆞ나'에 대해서도 그 기능과 형태론적 구성이 면밀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다비/다히/다이' 등을 들 수 있는데,66) 다음의 용례들은 이들을 보조사로 처리할 수 없게 한다.

(6) 가. 다ᄆᆞᆫ 부텻 像ᄋᆞᆯ 想ᄒᆞᆯ 만 ᄒᆞ야도 無量福ᄋᆞᆯ 어드리어니 〈월석 8:44b-45a〉67)
東山 남기 自然히 여르미 열며 무틔 술윗 바회 만 靑蓮花ㅣ 나며 〈월석 2:31a〉
人生ᄋᆞᆯ 잇비 ᄃᆞᆫ뇨ᄆᆞᆫ 다ᄆᆞᆺ 언마 만고(勞生共幾何) 〈두시-초 22:26b〉
나. 더으며 더러ᄇᆞ리며 ᄠᅳ디 ᄆᆞᅀᆞᆷ다ᄫᆞᆯ 넘윓 ᄀᆞ장 그지ᄒᆞ야 〈월석 序:20a〉
굼벙의 부리 ᄆᆞᄅᆞᆯ ᄭᆞ장 ᄡᅮ미 됴ᄒᆞ니라(虫口內乾爲效) 〈구간 6:80b〉
ᄯᆞᆷ곳 아니 나거든 다시 ᄆᆡᇰᄀᆞ라 머거 ᄯᆞᆷ 날 ᄀᆞ장 ᄒᆞ라 〈구급 상:88b〉
다. ᄒᆞᆫᄢᅴ 소리 내야 ᄉᆞᆯᄫᅩᄃᆡ 世尊 勅ᄒᆞ샨 다비 다 奉行ᄒᆞᅀᆞᄫᅩ리니 〈월석 18:19a〉
ᄠᅳ들 아라 닐온 다히 修行ᄒᆞ면 이 사ᄅᆞ미 普賢 ᄒᆡᇰ뎌글 行ᄒᆞ야 〈석상 21:57a〉
願호ᄃᆡ 우릴 세 가짓 보ᄇᆡ 술윌 주샤ᄃᆡ 알ᄑᆡ 許ᄒᆞ샨 다이 ᄒᆞ쇼셔 〈법화 2:138b〉

(6-가)의 '만'은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사이시옷을 취한다거나 체언 뒤에만 통합되는 보조사 {-고/-가}가 '만'에 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6-나)의 'ᄭᆞ장/ᄀᆞ장'과 (6-다)의 '다비/다히/다이'는 모두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렇듯 (6)의 예들은 모두 '만', 'ᄭᆞ장/ᄀᆞ장', '다비/다히/다이'가 보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임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들이 15세기 자료에서 대개 명사 뒤에 나타나는 것은 '명사'와 '명사'의 배치라는 정상적인 통사적 양상에 의한 것으로 결코 특수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형태소를 15세기 국어에서 보조사가 아닌 의존명사로 처리하기로 한다.68)

한편, 이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ᄲᅮᆫ'을 거론할 수 있다. 'ᄲᅮᆫ'의 경우에도 관형사형 뒤에서 수식을 받거나, 대격조사와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의존명사의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69) 그러므로 이 역시 의존명사로 처리될 수 있는데, 'ᄲᅮᆫ'의 의존명사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예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66) 이들 형태소들을 보조사로 처리한 대표적인 경우로 安秉禧·李珖鎬(1990)을 들 수 있다.

67) 15세기에 관형사형어미의 수식을 받는 '만'은 '-ㄹ 만 ᄒᆞ-'의 형태로만 나타나는데, 박진호(1995)에서 지적된 바처럼 이 때 '-ㄹ 만 ᄒᆞ-'는 현대국어의 '-ㄹ 만하-'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기만 하-'의 의미를 갖는다.

68) 허웅(1975)에서는 '다비/다히/다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과 'ᄭᆞ장'을 의존명사로 보았다.

69) 'ᄲᅮᆫ'의 의존명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박진호(1995)를 참조를 할 수 있다.

(7) 가. 처ᅀᅥᆷ 地예 네 보라ᄲᅮᆫ 니ᄅᆞ시고(初於地예 獨言汝觀ᄒᆞ시고) 〈능엄 3:96b〉
나. 엇뎨 오직 사호매ᄲᅮᆫ 주거 울리오(豈唯干戈哭) 〈두시-초 25:3a〉

(7)에서 'ᄲᅮᆫ'은 종결어미나 격조사 뒤에 통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 때의 'ᄲᅮᆫ'이 의존명사인가를 고민하게 된다.70) 이 예들에 사용된 'ᄲᅮᆫ'은 이를 'ㅅ'와 '분'으로 나누어서 볼 때 그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7-가)는 '世尊ᄋᆞᆫ 世界예 ᄆᆞᆺ 尊ᄒᆞ시닷 ᄠᅳ디라<월석 서1:5a>'에서와 같이 종결어미 '-라'와 'ㅅ', 그리고 의존명사 '분'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7-나) 역시 처격조사 '-애'에 'ㅅ'가 붙고 의존명사 '분'이 연결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의존명사 'ᄲᅮᆫ'의 'ㅅ'는 의존명사 'ᄯᆞᄅᆞᆷ, ᄭᆞ장' 등의 'ㅅ'와 더불어 본래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사용된 사이시옷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7)의 두 예문은 'ᄲᅮᆫ'의 'ㅅ'가 지닌 기원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ㅅ'가 '보랏'이나 '사호맷'과 같이 표기되지 않고 'ᄲᅮᆫ'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점에서 (7)에서 보이는 'ᄲᅮᆫ'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보조사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이를 통해 15세기에 'ᄲᅮᆫ'이 의존명사뿐만 아니라 보조사로의 쓰임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15세기의 'ᄲᅮᆫ'을 의존명사로 처리해 두기로 한다.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맛감'의 경우에도 이를 보조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71) 그것은 이 '맛감'이 《만큼》의 의미를 가지며 명사나 대명사 뒤에 바로 통합되며 서술어의 관형사형 뒤에서 수식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15세기 자료는 아니지만 16세기 전반 자료인 '飜譯老乞大'에 '네 어제 엇디 십리 **맛값** 길히라 ᄒᆞ더니<번노 상:59b>'에서와 같이 '맛감'이 사이시옷을 취했다는 사실은 '맛감'의 형태론적 지위를 보조사보다는 의존명사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함을 알려준다.

70) (7)의 두 예문에서 '네 보라ᄲᅮᆫ'과 '사호매ᄲᅮᆫ'은 각각 현대국어로는 '네가 보라고만'과 '싸움에만'으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즉, 15세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ᄲᅮᆫ'이 오늘날에는 '-만'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71) 허웅(1992:50)에서는 '-맛감'을 '-만', '-마'와 함께 임자씨에만 붙을 수 있는 도움토씨(보조사)로 취급하였다.

또 하나의 예로 '-만뎡'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5세기에 '던 만뎡'과 같이 명사 뒤에 통합된 예만이 나타나므로[72] 보조사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후대의 '~ㄹ만뎡'이나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망정'을 고려한다면 이를 의존명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다음으로 {-사}는 《강조》, 《국한》(허웅 1975), 《특수》(고영근 1987/97) 등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언급되었고, 그 분포는 체언과 조사는 물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에까지도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73] 이러한 모호한 의미 규정과 체계적이지 못해 보이는 분포 기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중세국어는 물론 차자표기 자료들까지 아울러 살펴 '-ᅀᅡ'를 깊이 있게 탐구한 것이 李賢熙(1995b)이다.

李賢熙(1995b)에서는 '-ᅀᅡ'의 의미를 《한정》, 《결과》, 《계기》의 셋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고, '-ᅀᅡ'를 동사나 계사 어간, 선어말어미({-거-}·{-으시-})에 통합되는 연결어미로서의 '-ᅀᅡ'와 부사, 격조사({-ㄹ}·{-에}·{-로}), 어말어미({-어}·{-고}·{-거늘}·{-거든}·{-면})에 통합되는 보조사로서의 '-ᅀᅡ'로 분류하였다. 이 때 세 가지 의미는 연결어미 '-ᅀᅡ'와 보조사 '-ᅀᅡ'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하였다.

한편, 고영근(1997:108)에서는 'ᅀᅡ'가 자음 아래서는 '이ᅀᅡ'로 형태를 바꾼다고 설명했으나, '오ᄂᆞᆯᅀᅡ', '둘흘ᅀᅡ', 'ᄌᆞ라거든ᅀᅡ'에서와 같이 선행 요소가 'ㄹ'나 'ㄴ'을 말음으로 가질 때도 그대로 'ᅀᅡ'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ᅀᅡ'가 나타나는 자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인데, 이에 대해 李賢熙(1995b)에서는 '-이ᅀᅡ'의 '이'를 주격조사가 아닌 계사의 어간으로 파악하여 이 때의 '-ᅀᅡ'가 연결어미임을 주장하였다.[74]

李賢熙(1995b)의 논의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에 직접 통합되는 '-ᅀᅡ'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명사 '오ᄂᆞᆯ'과 '來日'이 처격조사에 통합되는 예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오ᄂᆞᆯᅀᅡ'나 '來日ᅀᅡ'와 같은 경우 두 명사에 통합되는 처격조사가 저지되거나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는 등 독특한 설명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발표된 '-ᅀᅡ'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李賢熙(1995b)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

---

72) 누늘 ᄠᅳ거나 ᄀᆞᆷ거나 ᄒᆞ야도 일ᄅᆞᆯ 마라 밥 머긇 던 만뎡 長常이 이ᄅᆞᆯ ᄉᆡᇰ각ᄒᆞ라 <월석 8:8b>

73) '-ᅀᅡ'를 보조사로 취급하며 그 분포를 이와 같이 기술한 대표적 논의로 安秉禧·李珖鎬(1990)을 들 수 있다.

74) 이 때 '-이ᅀᅡ'의 '이'를 계사로 보는 근거는 구결문에서 'ㅣᅀᅡ'에 대응되는 부분이 언해문에서 '-이라ᅀᅡ'로 나타난다는 점과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인 『舊譯仁王經』에 보이는 'ㅣ=ᅀᅡ'(이시사)의 존재에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李賢熙(1995b:545-546) 참조.

{-이어나}에 대해 허웅(1975), 고영근(1987), 安秉禧 · 李珖鎬(1990) 등에서는 이를 보조사(도움토씨)로 다루었으나, 李賢熙(1991, 1994a)에서는 계사 구문이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75] '-이며'에 대한 '-이시며'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어든', '-이어늘' 등과 같이 '-이며'와 함께 '-이어나'도 계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고려해 볼 때 15세기 문헌자료들에 나타나는 '-이어나'를 모두 계사의 활용형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人間애 나고도 쇠어나 ᄆᆞ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ᄃᆞ외야 〈석상 9:15b〉

이 때 '-이어나'는 체언 '쇼', 'ᄆᆞᆯ', '약대', '라귀'를 접속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접속된 체언들은 이 문장에서 서술어 'ᄃᆞ외야'의 보어가 되어야 하나 '-이어나'를 계사의 활용형으로 파악할 때는 이러한 문장 성분상의 호응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때의 '-이어나'가 계사의 활용형이 아닌 보조사로 파악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컨마ᄅᆞᆫ}은 『金剛經三家解』와 『南明泉繼頌諺解』에만 나오는 특이한 형태소로 용언 어간 'ᄒᆞ-'에 연결어미 {-건마ᄅᆞᆫ}이 통합된 'ᄒᆞ건마ᄅᆞᆫ'의 축약형 '컨마ᄅᆞᆫ'과는 그 성격이 다른 존재이다. 이것은 반드시 한문 원문의 '爭乃'나 '爭奈'에 대응되며 연결형 '-나', '-ㄹ딘댄', '-거니와', '-거늘', '-어도', '-니' 뒤에 통합되거나 『金剛經三家解』에서는 접속부사나 주격조사 {-이}를 취한 명사구 뒤에서도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76] 그러므로 이는 보조사로 처리되는 것이 15세기 공시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75) 李賢熙(1991)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었다.
나지어든 ᄒᆞᆰ 메여다가 무덤 우희 였고 바미어든 大乘經典을 닐구ᄃᆡ 소리ᄅᆞᆯ 그치디 아니ᄒᆞ더니 <월석 23:76a>

76) 『金剛經三家解』에서 {-컨마ᄅᆞᆫ}이 접속부사나 주격조사 {-이}를 취한 명사구 뒤에 통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그러나컨마ᄅᆞᆫ 눈 알피어니 엇뎨ᄒᆞ료(雖然恁麽ㅣ나 爭奈目前이어니 何오) <금삼 2:62b-63a>
(나) 비록 色聲에 住호미 올티 몯다 ᄒᆞ나 色聲이컨마ᄅᆞᆫ 目前이어니 엇뎨ᄒᆞ료(雖然不應住於色聲이라 ᄒᆞ나 色聲이 爭奈目前이어니 何오) <금삼 2:63a>
ᄒᆞᆫ 河ㅣ 비록 ᄂᆞᆫ호디 몯ᄒᆞ나 象과 ᄆᆞᆯ와 톳기와 세히컨마ᄅᆞᆫ 다ᄅᆞ니(一河ㅣ 雖然不可分이나 象馬兎三이 爭奈異ᄒᆞ니) <금삼 5:19b>

{-ㄹ쎄라} : -ㄹ쎄라[88], (-올쎄라), (-울쎄라)
{-라} : -라, -으라, -ᄋᆞ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마} : -마[89]
{-사이다} : -사이다
{-아져} : -아져[90]
{-어쎠} : -어쎠, -아쎠
{-에라} : -에라, -애라, -얘라[91]
{-에이다} :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92]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
{-이} : (-이), -ㅣ,[93] ϕ
{-잇고/-잇가} : -잇고, -잇가[94]

---

88) 15세기 문헌자료에서 매우 드물게 쓰인 종결어미로 『三綱行實圖』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提上이) 닐오ᄃᆡ ᄒᆞᆫᄢᅴ 가면 ᄒᆞ다가 몯 일올쎄라(提上曰 俱去 則恐謀不成) <삼강-초 충신:30a>

89) {-마}는 '호마', '주마[RL]' 등과 같이 항상 선어말어미 {-오-}를 동반해 '-오마'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15세기 문헌자료에 그 용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90) 종결어미 {-아져}에 대해서는 李賢熙(1995a)에서 다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아져}를 소망을 표현하는 어미구조체로 파악하고 기원적으로 '아+ㅈ+이+어'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15세기에 {-아져}는 그 용례를 다음과 같이 『釋譜詳節』에서 찾아볼 수 있다.
婆羅門이 닐오ᄃᆡ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 ᄉᆞᆯ바쎠 <석상 6:14b>
참고로 李賢熙(1995a:414)는 이 문장을 "'내가 보고 싶다' (하고) (바라문이) 원한다(고) (그대가) (아버님께) 말씀해 주시오"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91) 이형태 [-얘라]는 'ᄒᆞ-'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ᄒᆞ-'의 'ㆍ'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선택된 이형태로 이해된다. 한편,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일 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음성모음계 이형태 '*-예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문헌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92) {-에라}와는 달리 {-에이다}는 다음과 같이 'ᄒᆞ-' 뒤에서 음성모음계 이형태 [-예이다]가 나타난다.
내 이제 내 智예 疑惑ᄒᆞ야 아디 몯ᄒᆞ예이다(我今自於智예 疑惑ᄒᆞ야 不能了ᄒᆞ예이다) <법화 1:164b>
이것은{-에라}나 {-에이다}의 '-에-'를 선어말어미 {-거-}와 관련시키려는 논의(이승희 1996)가 타당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근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ᄒᆞ-'는 선어말어미 {-거-}와 통합되면 주로 [-야-]를 이형태로 취하므로 음성형인 '-예-'는 이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에이다}는 '이'모음역행동화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에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에-'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한편, '*-얘이다'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93) 이형태 [-ㅣ]는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가 합쳐진 '-노-'에 종결어미 {-이}가 통합된 '-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十方世界 불ᄀᆞ샤 ᄢᅡ히 破壞ㅅ 비치오 諸佛莊嚴을 몯내 ᄉᆞᆲᄉᆞᆸ뇌 <월석 15:61a>

94) {-잇고/-잇가}는 계사와 선어말어미 {-니-}, {-리-} 뒤에만 통합되는 특징이 있다.

{-이어나}에 대해 허웅(1975), 고영근(1987), 安秉禧·李珖鎬(1990) 등에서는 이를 보조사(도움토씨)로 다루었으나, 李賢熙(1991, 1994a)에서는 계사 구문이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75] '-이며'에 대한 '-이시며'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어든', '-이어늘' 등과 같이 '-이며'와 함께 '-이어나'도 계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고려해 볼 때 15세기 문헌자료들에 나타나는 '-이어나'를 모두 계사의 활용형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人間애 나고도 쇼이어나 ᄆᆞ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ᄃᆞ외야 〈석상 9:15b〉

이 때 '-이어나'는 체언 '쇼', 'ᄆᆞᆯ', '약대', '라귀'를 접속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접속된 체언들은 이 문장에서 서술어 'ᄃᆞ외야'의 보어가 되어야 하나 '-이어나'를 계사의 활용형으로 파악할 때는 이러한 문장 성분상의 호응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때의 '-이어나'가 계사의 활용형이 아닌 보조사로 파악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컨마ᄅᆞᆫ}은 『金剛經三家解』와 『南明泉繼頌諺解』에만 나오는 특이한 형태소로 용언 어간 'ᄒᆞ-'에 연결어미 {-건마ᄅᆞᆫ}이 통합된 'ᄒᆞ건마ᄅᆞᆫ'의 축약형 '컨마ᄅᆞᆫ'과는 그 성격이 다른 존재이다. 이것은 반드시 한문 원문의 '爭乃'나 '爭奈'에 대응되며 연결형 '-나', '-ㄹ딘댄', '-거니와', '-거늘', '-어도', '-니' 뒤에 통합되거나 『金剛經三家解』에서는 접속부사나 주격조사 {-이}를 취한 명사구 뒤에서도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76] 그러므로 이는 보조사로 처리되는 것이 .15세기 공시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75) 李賢熙(1991)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었다.
나지어든 ᄒᆞᆰ 메여다가 무덤 우희 엱고 바미어든 大乘經典을 닐구ᄃᆡ 소리ᄅᆞᆯ 그치디 아니ᄒᆞ더니 <월석 23:76a>

76) 『金剛經三家解』에서 {-컨마ᄅᆞᆫ}이 접속부사나 주격조사 {-이}를 취한 명사구 뒤에 통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그러나컨마ᄅᆞᆫ 눈 알피어니 엇데ᄒᆞ료(雖然恁麽ㅣ나 爭奈目前이어니 何오) <금삼 2:62b-63a>
(나) 비록 色聲에 住호미 올티 몯다 ᄒᆞ나 色聲이컨마ᄅᆞᆫ 目前이어니 엇데ᄒᆞ료(雖然不應住於色聲이라 ᄒᆞ나 色聲이 爭奈目前이어니 何오) <금삼 2:63a>
ᄒᆞᆫ 河ㅣ 비록 ᄂᆞᆫ호ᄃᆡ 몯ᄒᆞ나 象과 ᄆᆞᆯ와 톳기와 세히컨마ᄅᆞᆫ 다ᄅᆞ니(一河ㅣ 雖然不可分이나 象馬兎三이 爭奈異ᄒᆞ니) <금삼 5:19b>

1.2. 어미

1.2.1. 종결어미

15세기 국어에도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목록은 이들 종결어미들이 각각 어떠한 이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종결어미 이형태 목록】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_1$, -어지라$_2$,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_1$, -아지라$_2$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_1$, (-어지이다$_2$),[77]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_1$, -아지이다$_2$
{-게라} : -게라,[78] (-에라)
{-게이다} : -게이다,[79] (-에이다)
{-고라} : -고라, -오라[80]
{-고려} : -고려,[81] (-오려)
{-ㄴ고/-ㄴ가} : -ㄴ고, (-은고), (-ᄋᆞᆫ고), -ㄴ가, -은가, (-ᄋᆞᆫ가)
{-ㄴ다} : -ㄴ다, -은다, -ᄋᆞᆫ다[82]

---

77) 【-거지이다】에 'ㄱ'탈락현상이 일어난 【-어지이다$_2$】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으로 생각된다.

78) 15세기에 {-게라}는 '몯게라'에서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뭀 興에 아디 **몯게라** 믈읫 몃 마릿 그를 지ᅀᅳ니오 <두시-초 22:16b>

種種苦ᄅᆞᆯ 受호미 ᄯᅩ 아디 **못게라** 언마오 <목우 43a>

한편, 장윤희(1998)에서는 '-게라/-에라/-애라'를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거-'와 관련된 통합체가 굳어진 것으로 보아 함께 다루었는데, 15세기 공시적으로 모음조화에 의해 교체를 보이는 '-에라'와 '-애라'와는 달리 '-게라'는 매우 한정된 특수한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거:어'의 교체를 보이는 다른 형태소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공시적으로 {-게라}와 {-에라}를 각각 별개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79) 아디 **몯게이다** 和尙은 므슷 이ᄅᆞᆯ ᄒᆞ라 ᄒᆞ시ᄂᆞ니잇고 <육법 상:8a>

80) 高永根(1991)에서는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고시라', '-오시라'의 용례를 통해 {-고라}를 '고(…)라'의 불연속형태로 처리하였다.

81) 허웅(1975:518)에서 지적했듯이 {-고려}는 『釋譜詳節』의 다음과 같은 용례 정도를 찾을 수 있을 뿐, 15세기 문헌자료에 그 용례가 너무 드물게 나타난다.

내 아기 위ᄒᆞ야 어더 **보고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ᄫᆞᆫ ᄯᆞᆯ 얻니노라 ᄒᆞ야 <석상 6:13b-14a>

이는 오히려 16세기의 '飜譯朴通事'와 같은 자료에서 많이 나타남을 볼 때 상당히 구어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한편, {-고려}는 【-고려】 외에도 【-오려】와 같은 이형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飜譯朴通事'에 나타나는 '마오려', '내오려', '밍ᄀᆞ오려'와 같은 예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ㄴ뎌| : -ㄴ뎌,[83] (-은뎌), (-ᄋᆞᆫ뎌)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84]
|-닛가| : -닛가[85]
|-다| : -다, -라
|-ㄹ고/-ㄹ가| : -ㄹ꼬, (-을꼬), (-ᄋᆞᆯ꼬), -ㄹ까, -을까, -ᄋᆞᆯ까[86]
|-ㄹ다| : -ㄹ따, -을따, -ᄋᆞᆯ따[87]
|-ㄹ쎠| : -ㄹ쎠, -을쎠, -ᄋᆞᆯ쎠

---

82) 【-ᄋᆞᆫ다】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ᄂᆞᄉᆞᆫ다'는 '보- + -ᄂᆞ- + -ㅅ- + -ᄋᆞᆫ다'로 형태분석해 볼 수 있다.
　爲頭 도ᄌᆞ기 무로ᄃᆡ 너희ᄃᆞᆯ히 므스글 보ᄂᆞ**ᄉᆞᆫ다** <월석 10:28a>
83) 이는 감탄형종결어미로 다음과 같은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釋迦牟尼佛ㅅ 弟子ㅅ ᄂᆞ출 보ᅀᆞ**반뎌** ᄒᆞ고 무로ᄃᆡ <월석 23:82b>
　嫩鷲엣 英을 ᄒᆞ오ᅀᅡ 드르시며 成麟홀 業을 ᄒᆞ오ᅀᅡ 맛ᄃᆞ시닌 오직 大師ㅣ **신뎌** <선영 서:6a>
　어긔요ᄃᆡ 다ᄅᆞ디 아니ᄒᆞ닌 오직 聖人ㅅ 마리**신뎌** <선영 하:36b>
　슬프다 녯 사ᄅᆞᄆᆡ 마ᄅᆞᆯ 아디 몯ᄒᆞ**논뎌** <남명 하:30b>
　壇經이 後人의 節略이 너무 하 六祖ㅅ 큰 오ᄋᆞᆫ ᄠᅳ들 보디 몯ᄒᆞ**ᄂᆞᆫ뎌** <육법 서:7a>
84) 【-오뇨, -오녀, -오니여, -오니야】와 같은 이형태들은 매개모음 부분이 '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 뒤에서 각각 '-로소뇨', '-로소녀', '-로소니여', '-로소니야'와 같은 어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돗-}의 '오' 모음에 의해 후행하는 매개모음이 순행적 원순동화를 입은 것으로 이해된다.
85) 한편, 15세기 문헌자료에서는 '-닛고'를 찾아볼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이 '-닛고'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서도 '-닛가'가 사용되었다.
　須達이 ᄯᅩ 무로ᄃᆡ 엇뎨 쥬이라 ᄒᆞᄂᆞ**닛가** <석상 6:18a>
　그 ᄯᆞ리 닐오ᄃᆡ 엇더닛가 그듸 나ᄅᆞᆯ 미드시ᄂᆞ니 몯미드시ᄂᆞ니 <월석22:57b>
　장윤희(1998:100 각주2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6세기 문헌자료인 『禪家龜鑑』에 '-닛고'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有僧ㅣ 趙州和尙의 問ᄒᆞᅀᆞ오ᄃᆡ 어늬 이 祖師 西來ᄒᆞ샨 ᄠᅳ디닛고 <선가 상:12a>
　안병희(1965), 장윤희(1998) 등에서는 '*-닛고'와 '*-릿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닛가'와 '-릿가'가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로 '-릿가'는 문헌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86)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ㄹ고/-ㄹ가}는 실제로 '-ㄹ고, -을고, -ㄹ꼬, -ㅭ고, -ㄹ가, -을가, -ㄹ까, -을까, -ᄋᆞᆯ까, -ㅭ가, -읋가, -ᄋᆞᇙ가, -ㄺ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의 '-ㄺ가'는 허웅(1975:504)에서 언급된 것으로 『圓覺經諺解』에만 나타나는 매우 특수한 표기이다.
　엇뎨 修行이 이시리오 **ᄒᆞᇙ가** 저ᄒᆞ샤(何有修行이리오 **ᄒᆞᇙ가** ᄒᆞ샤) <원각 상2-1:10b>
87)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ㄹ다}는 실제로 '-ㄹ다, -ᄋᆞᆯ다, -ㄹ따, -을따, -ᄋᆞᆯ따, -ㅭ다, -읋다'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ㄹ쎄라} : -ㄹ쎄라[88], (-을쎄라), (-올쎄라)
{-라} : -라, -으라, -ᄋᆞ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마} : -마[89]
{-사이다} : -사이다
{-아져} : -아져[90]
{-어써} : -어써, -아써
{-에라} : -에라, -애라, -얘라[91]
{-에이다} :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92]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
{-이} : (-이), -ㅣ,[93] ϕ
{-잇고/-잇가} : -잇고, -잇가[94]

---

88) 15세기 문헌자료에서 매우 드물게 쓰인 종결어미로 『三綱行實圖』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提上이) 닐오ᄃᆡ ᄒᆞᆫᄢᅴ 가면 ᄒᆞ다가 몯 일울**쎄라**(提上日 俱去 則恐謀不成) <삼강-초 충신:30a>

89) {-마}는 '호마', '주마[RL]' 등과 같이 항상 선어말어미 {-오-}를 동반해 '-오마'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15세기 문헌자료에 그 용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90) 종결어미 {-아져}에 대해서는 李賢熙(1995a)에서 다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아져}를 소망을 표현하는 어미구조체로 파악하고 기원적으로 '아+ㅈ+이+어'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15세기에 {-아져}는 그 용례를 다음과 같이 『釋譜詳節』에서 찾아볼 수 있다.
婆羅門이 닐오ᄃᆡ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 ᄉᆞᆯᄫᅡ써 <석상 6:14b>
참고로 李賢熙(1995a:414)는 이 문장을 "'내가 보고 싶다' (하고) (바라문이) 원한다(고) (그대가) (아버님께) 말씀해 주시오"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91) 이형태 【-얘라】는 'ᄒᆞ-'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ᄒᆞ-'의 'ㆍ'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선택된 이형태로 이해된다. 한편,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일 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음성모음계 이형태 '*-예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문헌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92) {-에라}와는 달리 {-에이다}는 다음과 같이 'ᄒᆞ-' 뒤에서 음성모음계 이형태 【-예이다】가 나타난다.
내 이제 내 智에 疑惑ᄒᆞ야 아디 몯ᄒᆞ**예이다**(我今自於智에 疑惑ᄒᆞ야 不能了ᄒᆞ**예이다**) <법화 1:164b>
이것은{-에라}나 {-에이다}의 '-에-'를 선어말어미 {-거-}와 관련시키려는 논의(이승희 1996)가 타당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근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ᄒᆞ-'는 선어말어미 {-거-}와 통합되면 주로 【-야-】를 이형태로 취하므로 음성형인 '-에-'는 이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에이다}는 '이'모음역행동화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에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에-'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한편, '*-애이다'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93) 이형태 【-ㅣ】는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가 합쳐진 '-노-'에 종결어미 {-이}가 통합된 '-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十方世界 볼ᄀᆞ샤 ᄡᅡ히 玻瓈ㅅ 비치오 諸佛莊嚴을 몯내 ᄉᆞᆲ**뇌** <월석 15:61a>

94) {-잇고/-잇가}는 계사와 선어말어미 {-니-}, {-리-} 뒤에만 통합되는 특징이 있다.

{-져} : -져
{-져라} : -져라

위에서 살펴본 형태소 목록에서 먼저 {-거지라}, {-거지이다}의 이형태와 관련해 이들의 이형태교체가 인칭 제약을 받는가 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서술어의 주어가 화자 자신, 곧 1인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항상 선어말어미 {-오-}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형태는 【-가지라】, 【-아지라】 등과 같이 모두 '아' 모음을 갖는 형태들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이형태들은 【-거지라】, 【-어지라】 등과 같이 '어' 모음을 갖는 형태들도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李賢熙(1995a)에서 지적된 바처럼 종결어미 {-거지라}와 {-거지이다}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여부에 따른 교체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95] 그러므로 지금으로서 【-가지라】와 【-거지라】, 【-아지라】와 【-어지라】는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결어미 {-니오/-니아}와 {-리오/-리아}의 경우에는 각각 다양한 이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문장에서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오'계열과 '아'계열로 나뉠 수 있는데, 보조사 {-고/-가}와는 달리 '아'계열에 속하는 이형태 중 '어' 모음을 가진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뇨】, 【-냐】, 【-료】, 【-려】와 같은 이형태들은 각각 【-니오】, 【-니아】, 【-리오】, 【-리어】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형태들이다. 그런데 【-니오】, 【-니아】, 【-리오】, 【-리어】는 '-오'와 '-아/-어'의 분석이 용이치 않으므로 15세기 공시적으로 단일한 종결어미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오'와 '-아/-어'를 보조사 {-고/-가}로

(가) 두 쥬이 ᄉᆞᆯᄫᆞᄃᆡ 뎘 東녀긔 엇던 지**비잇고** <월석 2:67b>
그 ᄯᆞ리 무로ᄃᆡ 이 엇던 **ᄯᅡ히잇가** <월석 21:24b>
(나) 王ᄋᆞᆫ ᄂᆞᆺ가비 안ᄌᆞ샤 무르샤ᄃᆡ 어드러셔 므슷 일로 오시**니잇고** <월석 8:92b>
世尊하 내 어미 五百僧齋호ᄃᆡ 化樂天에 엇더 업스**니잇가** <월석 23:68b>
(다) 부텨 涅槃ᄒᆞ신 後에 므슴 法을 브터 如來ᄅᆞᆯ ᄉᆞᄉᆞ**ᄫᆞ리잇고** <석상 23:6b>
이 命終ᄒᆞᆫ 사ᄅᆞ미 큰 利益과 解脫ᄋᆞᆯ 得ᄒᆞ**리잇가** 몯ᄒᆞ**리잇가** <월석 21:107b>

95) 李賢熙(1995a:417)에서는 'ᄃᆞ외아지라'와 'ᄃᆞ외어지라', '들아지이다'와 '들어지이다'의 공존을 들어 소망 표현에 쓰이는 '가'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보기에는 그 통합 환경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이들을 선어말어미 {-니-}와 {-리-} 뒤에 만 제한되어 통합되는 별도의 종결어미로 취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高永根(1981)에서는 이른바 둘째설명법어미라 하여 '-니라' 전체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첫째설명법어미라 명명한 종결어미 '-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영욱(1989b · 1995 · 1997b)는 이러한 高永根(1981)의 견해를 계승하여 '-니라'의 '니'는 15세기 공시적 관점에서 선어말어미 '-니-'와는 음상만 같을 뿐이지 문법기능은 다른 것으로, 이 때 '니'를 형태만 있고 기능은 없는 이른바 공형태(空形態)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지 않고 선어말어미 {-니-}와 종결어미 {-다}의 통합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윤희(1998)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96)

존칭의 명령형 종결어미 {-으쇼셔}는 매개모음과 관련해 매우 특수한 존재로 생각된다. 그것은 다른 형태소들의 경우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일 때 매개모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으쇼셔}의 경우에는 '마ᄅ쇼셔'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ㄹ'를 마지막 분절음으로 갖는 선행 요소 뒤에서도 [-ᄋ쇼셔], [-으쇼셔]와 같이 매개모음이 들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으쇼셔}는 매개모음의 첨가를 요구하는 [-쇼셔]가 아닌 이미 처음부터 이를 가지고 있는 [-으쇼셔] 형태를 형태소의 본래 모습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으쇼셔}의 이러한 특성은 선어말어미 {-으시-}와 공통되는 것으로 {-으쇼셔}가 역사적으로 {-으시-}로부터 발달해 왔음을 암시한다.97)

한편, 종결어미 {-이}는 문장이 '-리', '-니', '-뇌' 등으로 끝난 경우에 그 쓰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상대높임법과 관련이 있는 형태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高永根(1981)에서

96) 장윤희(1998)에서는 종결어미 '-다'와 '-니라'의 차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하여 15세기의 평서법 종결어미로 '-다'만을 인정하고 '-니라'는 의미 · 구조적 측면에서 이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가 불변의 진리에 가까운 글자의 개념적 의미를 설명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말을 제시하는 등의 의미해석구문과 간접 인용문 등의 관념적 문장의 서술에 사용된 종결어미임에 비해, '-니라'는 화자가 구체적인 청자를 상대로 하거나 적어도 의식의 전면에 청자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표시되는데, '-다'와 구별되는 '-니라'의 이러한 의미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 형태소 '-니-'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97) {-으쇼셔}에 대해 그 동안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소개는 김영욱(1989a · 1997a)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김영욱(1997a)에서는 '-쇼셔' 속에 '-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증거로 ⅰ)존귀한 인물과 일치하는 '-시-'를 대신해 '-쇼셔'가 나타나는 점, ⅱ)'겨시-'가 ᄒ쇼셔체 명령문에서 평서문과는 달리 '겨쇼셔'로 나타나는 점, ⅲ)'-시-'와 같이 '-쇼셔'도 분간성을 지닌 형태라는 점을 들었다.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장윤희(1997 · 1998)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들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 뒤에 '이다'가 생략되었다고 보거나 '-리', '-니'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종결어미로 파악하려는 관점들이 있었다. 이 역시 15세기에 종결어미 {-고려}와 같이 구어적인 특성이 강한 요소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15세기에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이며 16세기 이후의 구어 자료들에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러한 특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결어미 {-이}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윤희(1997 · 1998)을 참조할 수 있다.[98]

1.2.2.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 또는 서술어와 서술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들이 15세기 국어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15세기 문헌자료들에 나타나는 연결어미들의 이형태 목록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어미 이형태 목록】

{-거나} : -거나, -어나,[99] -거…나,[100] (-어…나)

{-거늘} : -거늘, -거놀, -어늘$_1$, -어놀$_1$, (-아늘), -아놀, -어늘$_2$, -어놀$_2$, (-야늘), -야놀, -여늘, -여놀, (-나늘), -나놀, -거…늘, -거…놀, -어…늘$_1$, -어…놀$_1$, (-아…늘), -아…놀, -어…늘$_2$, -어…놀$_2$, -야…늘, -야…놀, (-여…늘), -여…놀, (-나…늘), -나…놀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101]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건뎡} : -건뎡, -언뎡,[102] (-거…ㄴ뎡), -어…ㄴ뎡

98) '-식이다'와 같은 어형을 근거로 '-식'가 '-식이다'에서 '-이다'가 생략된 어형으로 보고 '-뇌' 역시 '-뇌이다'에서 온 생략형이라는 주장(허웅 1975, 김영욱 1995)에 대해 장윤희(1997 · 1998)에서는 '-이다'의 생략이 '-노이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동화형 '-뇌이다'에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종결어미 {-이} 설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종결어미 {-이}가 평서문과 의문문에 모두 사용되었던 사실에 대해 장윤희(1998:141 각주68)에서는 구어성이 강한 어미 형태소 중 동일한 음상을 가진 형태소가 다양한 문장 종결에 사용되는 현상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 예로서 현대국어의 '-아', '-지'를 들었다.

99) 【-어나】는 【-거나】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100) 이는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이형태로서 '보거시나', '듣거시나', '니ᄅ거시나' 등에서와 같이 선어말어미 {-으시-}가 중간에 개입된 예들이 나타난다.

101) 【-야니와】와 뒤의 【-야…니와】는 어간 'ᄒ-'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이형태들이다.

|-거든| : -거든, -거돈, -어든$_1$, -어돈$_1$, (-아든), -아돈, -어든$_2$, (-어돈$_2$), (-야든), -야돈, -여든, -여돈,[103] (-나든), -나돈, -거…든, -거…돈,[104] -어…든$_1$, -어…돈$_1$,[105] -아…든, -아…돈,[106] -어…든$_2$,[107] (-어…돈$_2$), -야…든,[108] -야…돈,[109] (-여…든), (-여…돈), -나…든, (-나…돈)

|-건마론| : -건마론, -언마론$_1$, -안마론, -언마론$_2$, -얀마론, (-연마론), -난마론, -거…ㄴ마론, -어…ㄴ마론$_1$, (-아…ㄴ마론), -어…ㄴ마론$_2$, -야…ㄴ마론, (-여…ㄴ마론), (-나…ㄴ마론)

|-게| : -게, -거,[110] -긔, -기, -에, (-어), -의, -ᄋᆡ

|-겟고| : (-겟고), -엣고[111]

---

102) 【-언뎡】은 【-건뎡】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한편, '-ㄹ션뎡'과 같은 경우는 '-ㄹ # ᄉᆞ + -이- + -언뎡'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 때 '-언뎡'은 본래 '-건뎡'이 계사 뒤에서 'ㄱ'이 탈락되어 만들어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사와 축약을 일으켜 '-션뎡'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이하다.

103) 사ᄅᆞ미 소ᄂᆞ로 ᄃᆞᄅᆞᆯ ᄀᆞᄅᆞ쳐 사ᄅᆞᆷ 뵈여돈 뎌 사ᄅᆞ미 숪가라ᄀᆞᆯ 因ᄒᆞ야 <능엄 2:23a>

明月珠ㅣ 그 고ᄃᆞᆯ 비취여돈 이 모돈 드르리 아뎌 잇디 아니호ᄆᆞᆯ 得호라 ᄒᆞ며 <능엄 9:106a>

104) 그 ᄯᅡ리 닐오ᄃᆡ 고디옷 아니 듣거시돈 ᄒᆞᆫ번 가 보쇼셔 <월석 22:59b>

105) 世尊하 우리ᄅᆞᆯ ᄒᆞᆫ 거슬 주어시돈 本鄕애 가아 塔 일어 죽ᄃᆞ록 供養ᄒᆞᅀᆞᄫᅡ지이다 <월석 4:59b-60a>

106) 龍王이 닐오ᄃᆡ 닐웨ᄅᆞᆯ 내 사오나ᄫᆞᆫ 供養 바다시돈 받ᄌᆞᄫᆞ리이다 <월석 22:46b>

107) 佛數ㅣ 無量劫이어시든 正像法이 ᄯᅩ 倍倍호ᄆᆞᆫ 法藏 펴 傳持ᄒᆞ야 因力이 니ᅀᅥ 먼 다시라 <법화 4:53a>

108) 어느 저긔 이어긔 金錢會ᄅᆞᆯ 詔命ᄒᆞ야시든 잢간 고온 사ᄅᆞᄆᆡ 錦瑟ㅅ ᄀᆞᅀᅵ 醉ᄒᆞ려뇨 <두시-초 11:21b>

109) 阿浮達摩는 아뎌 잇디 아니타 ᄒᆞᆫ 마리니 如來種種神力을 뵈야시돈 衆生이 아뎌 잇디 아니타 ᄒᆞᆯ씨라 <월석 8:43b>

ᄒᆞ다가 男子女人이 이 부텻 일훔 듣ᄌᆞᄫᆞᆫ 사ᄅᆞᄆᆞᆫ 恒河沙佛을 맛나ᅀᆞᄫᅡ 너비 爲ᄒᆞ야 說法ᄒᆞ야시돈 반ᄃᆞ기 菩提ᄅᆞᆯ 일우리이다 <월석 21:135b>

110) 다음과 같이 '-거' 형태가 보이기도 하는데, 허웅(1975:604)에서는 이에 대해 우발적 오용이거나 인쇄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 '-게 ᄒᆞ-' 구성이 '-ㅊ ソ-'로 나타나고 있는데(鄭在永 1996a), 이 때의 '-ㅊ'를 이 '-거'와 관련짓는다면 이것을 결코 우발적 오용이거나 인쇄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티며 羊이며 거유 올히며 ᄃᆞᆰ 가히ᄅᆞᆯ 만히 사오라 ᄒᆞ야 됴히 쳐 ᄉᆞᆯ찌거 ᄒᆞ야 두고 <월석 23:73a>

111) |-겟고|는 한문 원문의 '欲'이나 '要'에 대응되는 것으로 뒤에 바로 동사 'ᄒᆞ-'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고져'와 같이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웅(1975:597)에서는 '-긧고'와 '-겟고'를 임의변동형으로 보았으나 '-긧고'에는 소망 동사 'ᄇᆞ라-'가 연결되는 것을 볼 때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엣고'는 '-겟고'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일 것이나, 15세기 문헌자료에서 실제로 '-겟고'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迷惑ᄒᆞᆫ 고대 나ᅀᅡ가 알엣고 ᄒᆞ시니라(欲其卽迷處而悟也ㅣ시니라) <능엄 1:113a>

이 늘그늬 이 마ᄅᆞᆫ 사ᄅᆞ미 劫外ᄅᆞᆯ 向ᄒᆞ야 알엣고 ᄒᆞ니(此老의 此說ᄋᆞᆫ 只要敎人이 向劫外承當케ᄒᆞ니) <금삼 2:1b>

{-고} : -고, -구,[112] -오[113], (-우)
{-고져} : -고져, -오져[114]
{-곤} : -곤, -온[115]
{-곰} : -곰,[116] (-옴)
{-곳} : -곳, -옷[117]
{-과뎌} : -과뎌, -와뎌[118]
{-과뎌여} : -과뎌여, -와뎌여[119]
{-관뎌} : -관뎌, -완뎌[120]
{-곤대} : -곤대,[121] (-온대)

---

112) 허웅(1975)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王獻之ㅣ 盜賊 더브러 닐오ᄃᆡ 靑氈은 我家舊物이니 두구 가라 ᄒᆞ니라 <두시-초 15:28a>

113) [-오]는 [-고]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114) [-오져]는 [-고져]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115) [-온]은 [-곤]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연결어미 {-곤} 뒤에는 보통 'ᄒᆞ물며~이ᄯᆞᆫ/이ᄯᆞ녀' 구성이 오는데(허웅 1975), 실제로 연결어미 {-곤}의 자리에 연결어미 {-니}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때 이 두 연결어미의 의미가 서로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는 동일한 원문에 대한 언해에서 연결어미 {-곤}과 {-니}가 대응하고 있다.
(가) 法 듣게 ᄒᆞᆫ 功德도 <u>이러ᄒᆞ곤</u> ᄒᆞ물며 一心ᄋᆞ로 니ᄅᆞ거든 드러 讀誦ᄒᆞ야 大衆의게 ᄂᆞᆷ 爲ᄒᆞ야 ᄀᆞᆯᄒᆡ야 니ᄅᆞ며 말다ᄫᅵ 修行호미ᄯᆞ녀 <월석 17:54a>
(나) 法을 듣긔 ᄒᆞ야도 功德이 <u>이러커니</u> ᄒᆞ물며 一心ᄋᆞ로 드러 닐그며 외와 大衆의거긔 ᄂᆞᆷ 위ᄒᆞ야 ᄀᆞᆯᄒᆡ내 니르며 말다히 修行ᄒᆞᄂᆞ니ᄯᆞ녀 <석상 19:8a>
(다) 法 듣게 ᄒᆞᆫ 功德도 이 <u>ᄀᆞᄐᆞᆫ</u> 엇뎨 ᄒᆞ물며 一心으로 드러 니ᄅᆞ며 닐그며 외와 大衆의게 ᄂᆞᆷ 爲ᄒᆞ야 ᄀᆞᆯᄒᆡ야 니ᄅᆞ며 말다이 修行ᄒᆞ리ᄯᆞ녀 <법화 6:15b>

116) ᄆᆞᄅᆞᆯ 기르니 ᄒᆞᆫ 甁의 ᄀᆞᄃᆞᆨ거든 ᄒᆞᆫ 甁이 ᄢᅵ곰 ᄒᆞ야 ᄒᆞᆫ ᄢᅢ 계도록 긷다가 <월석 7:9b>

117) [-옷] 역시 [-곳]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연결어미 {-곳}은 다음과 같이 『內訓』(봉좌문고본)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는 어미로 허웅(1975)에서는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李賢熙(1995a)에서는 소망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이 16세기 말 간본인 『內訓』(봉좌문고본)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의 요소인가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어미가 다른 16세기 자료들에서는 보이지 않고(허웅 1992:113) 'ㄱ'탈락이 교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15세기 국어의 요소로 생각하기로 한다. 한편, 백두현(1999)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인 『金光明經』에 나타나는 '-ㅁㅁㅌ'의 'ㅁㅌ'이 바로 이 형태소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이를 욕망 표현의 어말어미로 파악하였다.
(가) 너희돌ᄒᆞᆫ 吉ᄒᆞᆫ 사ᄅᆞ미 ᄃᆞ외옷 ᄒᆞ녀 凶ᄒᆞᆫ 사ᄅᆞ미 ᄃᆞ외옷 ᄒᆞ녀(汝等은 欲爲吉人乎아 欲爲凶人乎아) <내훈-봉 1:25b>
(나) 오ᄉᆞᆯ 주거시든 비록 닙곳 디 아니ᄒᆞ나 모로매 니버 기드리며(加之衣服이어시든 雖不欲이나 必服而待ᄒᆞ며 <내훈-봉 1:51a-b>

118) [-와뎌]는 [-과뎌]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들이다.

119) [-와뎌여]는 [-과뎌여]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120) [-완뎌]는 [-관뎌]에서 'ㄱ'탈락이 일어나 만들어진 2차적 이형태이다.

|-괫고| : -괫고,[122] (-왯고)
|-귓고| : -귓고,[123] (-윗고)
|-ㄴ다마다| : -ㄴ다마다, -은다마다, (-ᄋᆞᆫ다마다)
|-ㄴ대| : -ㄴ대, -은대, -ᄋᆞᆫ대
|-ㄴ댄| : -ㄴ댄, (-은댄), (-ᄋᆞᆫ댄), -ㄴ덴,[124] (-은덴), (-ᄋᆞᆫ덴)
|-ㄴ돈| : -ㄴ돈, (-은돈), (-ᄋᆞᆫ돈)
|-ㄴ돌| : -ㄴ돌, -은돌,[125] -ᄋᆞᆫ돌
|-ㄴ뒤| : -ㄴ뒤, -은뒤, (-ᄋᆞᆫ뒤)
|-ㄴ뒨| : -ㄴ뒨, (-은뒨), (-ᄋᆞᆫ뒨), -ㄴ든[126]
|-나$_1$| : -나, -으나,[127] -ᄋᆞ나
|-나$_2$| : -나,[128] (-으나), (-ᄋᆞ나)
|-나$_3$| : -나,[129] (-으나), (-ᄋᆞ나)
|-니$_1$| : -니, -으니, -ᄋᆞ니, -오니[130]
|-니$_2$| : -니, (-으니), (-ᄋᆞ니)
|-노니| : -노니[131]

---

121) 阿難이 ᄉᆞᆲ보ᄃᆡ 世尊하 摩耶夫人이 엇던 業을 지ᅀᆞ시관ᄃᆡ 畜生 中에 나시니잇고 <석상 11:40a>

122) 허웅(1975)에서는 이를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李賢熙(1995a)에서는 소망 표현과 관련된 어미로 파악하였다.

長史ᄂᆞᆫ 이리 ᄒᆞᆫ 집 ᄀᆞᄐᆞ니 ᄃᆞᆯ이 너기디 아니괫고 ᄇᆞ라노라(長史ᄂᆞᆫ 事同一家ᄒᆞ니 望不爲異ᄒᆞ노라) < 내훈-봉 1:67a>

123) 이 역시 허웅(1975)에서는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李賢熙(1995a)에서는 소망 표현과 관련된 어미로 파악하였다.

庶幾ᄂᆞᆫ 그러ᄒᆞ귓고 ᄇᆞ라노라 ᄒᆞᄂᆞᆫ ᄠᅳ디라 <월석 서1:6a>
三寶애 나ᅀᅡ가 븓귓고 ᄇᆞ라노라(而歸依三寶焉이니라) <월석 서1:6b>

124) 허웅(1975:543)에서는 '-ㄴ덴'의 경우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와 '-더-'를 앞세워 나타남을 지적하고 이를 '-ㄴ댄'과는 별개의 형태소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ㄴ댄'과 '-ㄴ덴'의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없고 'ᄉᆞ랑ᄒᆞ건댄', '잇던댄'과 같이 '-ㄴ댄'에도 선어말어미 '-거-'와 '-더-'가 통합될 수 있었으므로, '-ㄴ덴'의 경우 우연하게 선어말어미 '-거-'와 '-더-'가 통합된 경우만이 실제의 용례로 남아 있다고 본다면 이 둘을 굳이 별개의 형태소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125) 누늘 ᄀᆞ장 ᄇᆞ라며 精神을 슬흔돌 뉘 爲ᄒᆞ야 가져오리오(極目傷神誰爲攜) <두시-초 14:31b>

126) 허웅(1975:544)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의 '-ㄴ든'을 '-ㄴ뒨'의 변이형태로 처리하였다.

巖頭옷 아니런든 德山ㅅ 喝올 몯 알리랏다 ᄒᆞ야ᄂᆞᆯ <몽법 32b>

127) ᄒᆞᆫ 願을 일우면 져그나 기튼 즐거부미 이시려니와 <월석 2:5b>

128) |-나|는 다음과 같이 '-나~-나'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오나 가나 다 새 지비 兼ᄒᆞ얫도소니(來往兼茅屋) <두시-초 7:16b>

129) 하나 한 외다 ᄒᆞᄂᆞᆫ 病을 다 거더ᄇᆞ려니(許多弊病을 都拈去也ᄒᆞ야니) <몽법 58a>

130) 이것은 'ᄒᆞ(시)도소니'와 같이 선어말어미 |-돗-| 뒤에 연결어미 |-니|가 통합될 때 첨가되는 매개모음이 선행 요소인 '-돗-'에 의해 원순동화를 입어 나타나게 된 형태이다.

|-다가| : -다가, -라가
|-다가며| : -다가며[132]
|-더든| : -더든, -러든
|-도| : -도[133]
|-디| : -디
|-디빙| : -디빙, -디위, -디외, -디웨
|-디옷| : -디옷
|-ᄃᆞ록| : -ᄃᆞ록, -도록[134]
|-ᄃᆞᆯ| : -ᄃᆞᆯ, -들, -드란[135]
|-ᄃᆞ시| : -ᄃᆞ시, -드시, -더시,[136] -디시,[137] -ᄃᆞᆺ, -듯, -덧[138]
|-ㄹᄉᆞ록| : (-ㄹᄉᆞ록), -을ᄉᆞ록, (-ᄋᆞᆯᄉᆞ록)

---

131) '-노니'는 현대국어의 '-느니'에 대응되는 것으로 앞의 행동보다 차라리 뒤의 행동을 취함이 마땅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이다.
겨지비 보고 어버의게 請호ᄃᆡ ᄂᆞᄆᆡ 겨집 ᄃᆞ외노니 출히 뎌 고마 ᄃᆞ외아 지라 ᄒᆞ리 열히로ᄃᆡ <법화 2:28a-b>
솩졀 업시 죽노니 北녀ᄀᆞ로 가아 富貴ᄒᆞ니 만 몯ᄒᆞ니라 <삼강-초 충신:19a>

132) '-다가며'는 '~면서'나 '~자마자'의 뜻을 갖는 연결어미로 허웅(1975)에서는 이를 '동시법'이라 칭하였다.
나시다가며 東西로 닐굽 거름 녀시니(生下東西七步行ᄒᆞ시니) <금삼 4:54a>

133) (가) 이 法이 뵈도 몯ᄒᆞ며 니르도 몯ᄒᆞ리니 <석상 13:41a>
(나) 안ᄌᆞ시며 누ᄫᅳ샤매 夫人이 아ᄆᆞ라토 아니ᄒᆞ더시니 <월석 2:26a>
李賢熙(1995b)에서는 (가)의 '-도'는 《亦同》의 의미를, (나)의 '-도'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34) 허웅(1975:6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에 나타나는 '-ᄃᆞ로개'를 '-ᄃᆞ록'의 확대형으로 해석했다.
이 菩薩이 說法을 잘 ᄒᆞᆯᄊᆡ 婆羅門과 居士와 나랏 百姓돌히 죽ᄃᆞ로개 조차 ᄃᆞᆫ녀 供養ᄒᆞ며 <석상 19:21b-22a>

135) '드란'은 연결어미 '-들'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허웅(1975)에서는 이것이 기원적으로 의존명사 '드'에 보조사 '-란'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현재로서는 그 용례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일단 15세기 공시적으로는 '드란'을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치마옛 아기를 ᄲᅡ디오 소ᄂᆞ로 얻다가 얻드란 몯고 어분 아기를 조쳐디오 <월석 10:24b>

136) 매 새 ᄯᅩ더시 흗ᄃᆞ니 <삼강-초 충신:12>

137) 허웅(1975:618)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 등장하는 '디시'가 '-덧'과 관련된 형태인 '-더시'의 잘못 새김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오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일 수 있으므로 일단 '-디시'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다.
주근 벌에 ᄃᆞ외야놀 보시고사 :안디·시 ᄒᆞ시니 <월곡 상:16a(기43)>
거우루에 ᄂᆞᆾ 보·디·시 흗ᄃᆞ니 이 想이 일면 <월석 8:20b>

138) 渴ᄒᆞᆫ 제 ᄲᅮᆷ 믈 먹덧 ᄒᆞ야 <월석 7:18a>

|-ㄹ쎤뎡| : -ㄹ쎤뎡, -을쎤뎡, -ᄋᆞᆯ쎤뎡
|-ㄹ씨| : -ㄹ씨, -을씨, -ᄋᆞᆯ씨[139]
|-라₁| : -라, -으라, -ᄋᆞ라
|-라₂| : -라, (-으라), -ᄋᆞ라[140]
|-란ᄃᆡ| : -란ᄃᆡ, -으란ᄃᆡ, -ᄋᆞ란ᄃᆡ[141]
|-란ᄃᆡ만뎡| : -란ᄃᆡ만뎡, (-으란ᄃᆡ만뎡), (-ᄋᆞ란ᄃᆡ만뎡)
|-며| : -며, -으며, -ᄋᆞ며
|-면| : -면, -으면, -ᄋᆞ면
|-사| : -사[142], -ᅀᅡ[143]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144]
|-엄직| : -엄직, -암직, (-염직), -얌직,[145] (-웜직), -왐직[146]

---

139)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ㄹ씨|는 실제로 '-ㄹ시, -을시, -ㄹ씨, -을씨, -ᄋᆞᆯ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140) ᄒᆞ오ᅀᅡ 볼 구피라 펼 ᄊᆞᅀᅵ예 忉利天에 가샤 <월석 21:4a>
잢간 안ᄌᆞ라 ᄂᆞᆫ 가마괴ᄂᆞᆫ 두서 삿기ᄅᆞᆯ 더브렛고(暫止飛鳥將數子) <두시-초 7:1b>

141) '-란ᄃᆡ'의 의미는 기존에 '조건'이나 '가정'으로 생각되었었는데, 鄭在永(1996c)와 이용(2000)에서는 이를 '원인'이나 '이유'로 파악하였다. 한편, 최동주(1996)에서는 '-란ᄃᆡ'가 '-ㄹ씨', '-ㄴ대'와 함께 뒷절 상황의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42)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셔 드사 ᄒᆞ리로다 <석상 13:58a>
아니옷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사 ᄒᆞ리로다 <삼강-초 열녀:5a>

143) (가) 別室이ᅀᅡ 一千二百이오 쇠붑 ᄃᆞᆫ 지비ᅀᅡ 一百 ᄉᆞ믈 고ᄃᆡ러라 <석상 6:38a>
(나) 안답ᄭᅴ샤 낫ᄃᆞ라 아ᄂᆞ샤 것ᄆᆞᄅᆞ죽거시ᄂᆞᆯ ᄎᆞᆫ 믈 ᄲᅳ려 오라거ᅀᅡ ᄭᅢ시니라 <월석 21:217a>
(다) 父母 얻거시ᅀᅡ 부텻긔 가ᅀᆞᄫᅡ 出家ᄒᆞ니 부톄 일훔 ᄀᆞᄅᆞ샤 大目揵連이라 ᄒᆞ시니라 <월석 23:85b>
(가)는 계사 뒤에 연결어미 '-ᅀᅡ'가 쓰인 경우이고, (나)와 (다)는 각각 선어말어미 '-거-'와 '-시-' 뒤에 연결어미 '-ᅀᅡ'가 쓰인 경우이다.

144) 李賢熙(1995b:565-566)에서는 다음과 같이 15세기 후반 이후의 문헌자료에서 '-어ᅀᅡ'가 '-에ᅀᅡ'로 표기되는 예를 들고 이것이 '-ᅀᅡ'가 '-ᅀᅣ'나 '-야'로 인식되어 이 '-ᅀᅣ'나 '-야'의 'j'의 영향으로 선행 음절의 '어'에 'j' 개재현상이 일어나 '에'로 표기되어 나올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인정한다면 15세기에 연결어미 |-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이형태로 '-에'(더불어 '-애')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용례가 대부분 16세기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16세기에 '-어셔'가 '-에셔'로, '-거ᅀᅡ'가 '-게ᅀᅡ'로 변동되고 있는 현상을 참조해 볼 때 이를 16세기 국어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貴戚과 權門괘 筆迹을 어뎨ᅀᅡ 屛風 障子애 비치 나ᄆᆞᆯ 비르수 아ᄂᆞ니라 <두시-초 16:38b>

145) |-얌직|은 주로 동사 'ᄒᆞ-' 뒤에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활음 'ㅣ'인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15세기에 또 하나의 이형태로 '-염직'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곧마다 파란 버드리 ᄆᆞᆯ ᄆᆡ얌직 ᄒᆞ고 집마다 길히 長安애 ᄉᆞᄆᆞᆺ도다 <금삼 4:47b>

146) 사ᄅᆞ미 禮ᄅᆞᆯ 알면 곧 나ᅀᅡ며 믈로미 보왐직 ᄒᆞ며(人이 知禮ᄒᆞ면 則進退可觀이며) <금삼 2:17b>
이것은 허웅(1975)에서 지적한 대로 어간 '보-'의 '오'모음에 의해 '-암직'에 활음 'w'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오ᄃᆞᆫ} : -오ᄃᆞᆫ, (-우ᄃᆞᆫ), (-요ᄃᆞᆫ), (-유ᄃᆞᆫ), (-아ᄃᆞᆫ), (-로ᄃᆞᆫ), -Vᄃᆞᆫ(H)147)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148) (-로려), -V려(H)
{-올뗜} : -올뗜, (-울뗜), (-욜뗜), (-율뗜), (-롤뗜), -알뗜, -올뗜149)

먼저 {-거나}는 그 형태론적 구성을 고려해 볼 때 두 개의 형태소, 즉 선어말어미 {-거-}와 연결어미 {-나$_2$}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50) 그러나 '-거나'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용언 어간의 자동성 여부에 따른 선어말어미 {-거-}의 '거~어'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51) 즉, '쓰거나', '(淫欲ᄋᆞᆯ) 行커나', '주기거나' 등과 같이 타동사에도 '-거-'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거나'의 '거'를 명백히 독립된 선어말어미 {-거-}로 분리해내기 어렵게 한다.152)

---

147) {-오ᄃᆞᆫ}은 허웅(1975:545)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제시되었다.
다ᄆᆞᆯ ᄀᆞ려셔 音響 드로ᄃᆞᆫ 멀며 갓가오ᄆᆞᆯ 다 드르리니 <능엄 6:67b-68a>
사ᄅᆞ미 먼 길 :가ᄃᆞᆫ 모로매 목숨 도올 糧食 이슈미 ᄀᆞᆮᄒᆞ니라 <법화 2:205a>

148) 허웅(1975:599)에서는 아래 예의 '뵈샤려'를 '뵈시려'로 보아 다른 '오'계 어미들처럼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는 '-으샤려'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의 용례는 분명히 '-샤려'를 보여주고 있다.
쟝ᄎᆞ 펴 뵈샤려 ᄒᆞ샤 몬져 精進鎧 니브라 ᄒᆞ샴ᄃᆞᆯᄒᆞᆫ 警戒ᄒᆞ샤 勇猛히 놀카이 술펴 듣ᄌᆞ와 ᄠᅳᆮ 기푸ᄆᆞ로 疑心ᄒᆞ야 <법화 5:104b>

149) [-올면]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올뗜'의 표기만을 보여주지만 [-올뗜], [-알뗜]의 존재나 '-ㄹX'형 어미들의 이형태들이 당시에 이미 경음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경음화된 [-올면]을 이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作法홀뗜 네 이리 ᄀᆞ자ᅀᅡ ᄒᆞ리니 <육법 서:12b>

150) 허웅(1975)에서는 '-으나'를 가림법(선택법) 연결어미로 보고 '-거나'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거-'가 이 '-으나' 앞에 통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문은 '-나'와 '-거나'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거나'를 '-거-'와 '-나'로 분석해 볼 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뮈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於動靜中에) <몽법 18b>
그러나 이 예문은 '-나~-나', '-거나~-거나'의 일반적인 용법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흔히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용례이다.

151) 劉昌惇(1963 · 1964)에서는 '-거나'와 '-거니'의 경우 '-거-'만 연결되고 '-어-', '-나-'가 연결되지 않음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때의 '-어-'는 타동사에 통합되는 [-어$_1$-]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52) 하지만 '-거나'가 선어말어미 {-으시-}와 통합되면 '-거시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므로 '-거나'에서 '거'와 '나'가 완전히 하나로 굳어져 있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참고로 장윤희(1991)에서는 '-거든'과 같은 연결어미에서 '거'가 여전히 선어말어미 {-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든'의 '거'를 '과도적 형태'라고 불렀다.

{-거늘}과 {-거든}은 상당히 많은 이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형태소의 교체에 다양한 교체 조건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어X_1'형의 이형태와 '-아X'형의 이형태는 모음조화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이 된다.[153] 그리고 '-어X_1'형의 이형태들과 '-어X_2'형의 이형태들을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타동사 뒤에 통합될 때 나타나는 이형태들이고 후자는 '-거X'형의 이형태에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조건에 의해 'ㄱ'가 탈락되어 만들어진 이형태들이다. 또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모음성을 지닌 경우에는 '-어X_1'형에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나 만들어진 '-여/야X' 유형의 이형태들이 나타나고, 동사 '오다'의 경우에 한해 '-나X'형 이형태들이 나타난다.

연결어미 {-거나}, {-거늘}, {-거니와}, {-거든}, {-건마른}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들의 각 이형태들 중 일부가 불연속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154] 이것은 이들 연결어미들이 선어말어미 {-으시-}와 통합될 경우 {-으시-}가 '거'와 후속 요소 'X' 사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원인은 이들 연결어미의 형성에 선어말어미 {-거-}가 참여했다는 통시적인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선어말어미 {-거-}가 선어말어미 {-으시-}에 선행하는 통합상의 순서가 이들 연결어미에서도 적용되어 '-거시나', '-거시늘', '-거시니와', '-거시든', '-거신마른'과 같은 통합체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들 연결어미에서 보이는 이러한 불연속적인 특징을 인정하여 '-거…X'형의 이형태들을 상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ㄴ다마다}는 이 때의 '-ㄴ'이 과거나 완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동사의 관형사형 '-(으)ㄴ'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高永根 1982), 그리고 이 '다'를 오직 {-ㄴ다마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15세기 공시적으로 단일한 어미로 처리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ㄴ다마다}는 그 의미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자마자', '~하는 데마다', '~할 때마다' 등 다양한 의미 해석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자마자'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ㄴ다마다}가 사용된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ㄴ다마다}의 의미가 '~할 때마다'로 파악되는데, 특히 이에 대응되는 형태가 상백문고본 『三綱行實

---

153) 이와는 달리 '-거X'형과 '-가X'형은 모음조화에 의한 이형태 관계에 있지 않다. '-가X'형에서 '가'는 선어말어미 {-거-}와 {-오-}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형태로 {-거X}형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볼 수 없다.
154) 高永根(1991)에서는 이들을 '불연속형태'라고 명명하고 그 특징을 논한 바 있다.

圖』에 '-ㄴ 적마다'와 '-ㄴ 제마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ㄴ다마다}의 의미와 형태론적 구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155)

한편,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ㄱ ㅣ+ㄱ'(-ㄴ다힌)의 'ㅣ'(다)가 『華嚴經』 원문의 '時'와 대응된다는 사실은 {-ㄴ다마다}의 '다'가 시간성 의존명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시간성 의존명사 '다'의 존재는 <廣修供養歌>의 '-良焉多衣'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156)

{-나$_1$}과 {-나$_2$}는 그것이 《역접》이나 《양보》의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나열적 선택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소로 구분된 것이다. {-나$_2$}는 '-나~-나'의 모습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던가, 뒤에 바ᄅᆞ 다른 절이 연결되지 않고 동사 'ᄒᆞ-'를 취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구문상의 차이로부터 {-나$_2$}가 {-나$_1$}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_3$}은 현대국어의 '크나 큰', '기나 긴' 등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 '-나'와 같은 요소로 '-나 ~ㄴ'과 같은 유형으로 형용사 어간에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결어미 {-니$_1$}과 {-니$_2$}가 있는데, 전자가 《원인》이나 《이유》, 《조건》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후자는 이런 저런 사실을 나열하는 기능을 한다. {-니$_2$}는 항상 '-니~-니'의 모습으로 두 번 이상 반복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결어미로 설정된 {-ᄃᆞᆯ}과 {-디}는 15세기 공시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전성어미로도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ᄃᆞᆯ'과 '-디'가 각각 대격과 주격이라는 격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반면,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주로 격과 상관없이 각각 '~ᄃᆞᆯ 아니ᄒᆞ-/몯ᄒᆞ-'와 '~디 아니ᄒᆞ-/몯ᄒᆞ-'와 같은 부정 구성에서 나타난다. 연결어미 {-디}는 현대국어의 '-지'로 계승되었고 {-ᄃᆞᆯ}의 경우에는 '보들 못하고', '먹들 않고' 등과 같은 구어에 그 모습을 남겨 놓았다.

---

155) (가) 《원문》 每一悲號 鳥獸翔集 <삼강-孝 18b>
[성암본] 슬피 운다마다 鳥獸ㅣ 모다 오더라 <삼강-孝 18a>
[상백본] 슬피 운 적마다 새즘승이 모다 오더라 <삼강-孝 18a>
(나) 《원문》 易泄痢 黔婁輒取嘗之 味轉甛滑 <삼강-孝 21b>
[성암본] 제 아비 똥 즈츼더니 눈다마다 머거보니 漸漸 돌오 뭇뭇ᄒᆞ야 가거늘 <삼강-孝 21a>
[상백본] 제 아비 똥 즈츼더니 눈 제마다 머거보니 졈졈 돌오 뭇뭇ᄒᆞ야 가거늘 <삼강-孝 21a>

156) {-ㄴ다마다}와 관련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유범(2001)을 참조할 수 있다.

연결어미 {-디옷}은 하나의 형태만이 존재하는 유형으로 어간에 직접 통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허웅 1975:615). 현재까지 남아 있는 15세기 자료들에는 계사 뒤에서 통합된 예를 찾아볼 수 없어 이것이 '-리옷'과 같은 이형태를 가질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_1$}과 {-라$_2$}는 각각 《의도》와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별개의 형태소이다. {-라$_2$}의 경우에는 15세기에 '라' 유형보다는 종성에 'ㄱ'를 가진 '-락' 유형의 형태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데, 허웅(1975)에서는 이를 '-라'의 강세형이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락'은 연결어미 '-라'와 강세의 보조사 '-ㄱ'로 공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라$_2$}는 주로 '-락~-락'의 모습으로 반복되어 사용되는데,[157] 이 경우 바로 뒤에 동사 'ᄒᆞ-'가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란ᄃᆡ만뎡}은 『杜詩諺解』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연결어미로 허웅(1975)에서는 '-란ᄃᆡ만뎡'의 의미를 《양보》의 의미로 파악하였다.[158] 이는 형태상으로는 '-란ᄃᆡ'와 '만뎡'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159]

현대국어에서 '~기에', '~니', '~니까', '~아(서)' 등의 다음에 '망정이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의존명사 '망정'을 고려하면, 15세기의 '-란ᄃᆡ만뎡'이 《양보》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로 파악되는 소이(所以)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란ᄃᆡ만뎡'에서 연결어미 '-란ᄃᆡ'의 의미를 《원인》이나 《이유》로 파악하고 여기에 의존명사 '만뎡'이 통합되어 '-란ᄃᆡ만뎡' 전체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의 '-란ᄃᆡ만뎡'의 의미가 '-란ᄃᆡ'와 '만뎡'의 두 의미를 결합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만뎡'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연결어미 '-란ᄃᆡ'에 바로 통합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

15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은 '-락'이 반드시 '-락~-락'의 모습으로만 사용되지 않았고 '-라'처럼 하나의 '-락'만 사용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빗난 구루미 어드우락 도로 히 ᄂᆞ니 어르누근 남ᄀᆞᆫ 새배 프르도다 <두시-초 7:14b>
십 소리ᄅᆞᆯ 드르락 ᄯᅩ 긋ᄂᆞ니 뮈며 괴외호미 다ᄃᆡᄅᆞᄂᆞᆫ 바ᄅᆞᆯ 좃놋다 <두시-초 7:23b-24a>
亂離ᄒᆞᆫ 저긔 ᄯᅩ 모ᄃᆞ락 흗노니 녯 슬후미 믈 흐르ᄃᆞᆺ ᄒᆞ놋다 <두시-초 8:57a-b>
나리 ᄆᆞᆺᄃᆞ록 주류믈 ᄎᆞ마 西로 가락 ᄯᅩ 東으로 오놋다 <두시-초 17:19a>

158) 특히 다음과 같은 예문과 관련해 이에 대한 협주가 '-디웨' 구문을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도토랏 막대 디퍼 ᄃᆞᆫ뇨미 ᄆᆞᆯᄐᆞ기예 妨害ᄒᆞ란ᄃᆡ만뎡 이 부러 무를 여희유미 아니니라(杖藜妨躍馬不是故離群) cf.(言老衰ᄒᆞ야 버데 가디 몯ᄒᆞ디웨 非故意離群也ㅣ니라 <두시-중 13:49a>

159) 鄭在永(1996c)에서는 '-란ᄃᆡ만뎡'을 통합형 접속어미 '-란ᄃᆡ'에 후치사 '만뎡'이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만뎡'을 15세기 공시적으로 보조사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으나 앞의 1.1.2.에서 언급했었듯이 후대의 '~ㄹ만뎡'이나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망정'을 고려할 때, 이는 의존명사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법화의 일반적 경향이 의존명사가 보조사로 변화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대국어에 보조사 '망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15세기 국어의 '-란더만뎡'의 '만뎡'이 보조사로 처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5세기 공시적으로는 '-란더만뎡'을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어미 {-사}는 동사나 계사 어간, 선어말어미({-거-}·{-으시-})에 통합되어 나타나는데, 李賢熙(1995b)에서는 보조사 {-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사} 역시 《한정》, 《결과》, 《계기》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고도, -오도'와 '-어도, -아도, -야도, -라도'로 나타나는 형태들에 대해 이들을 각각 {-고도}와 {-어도}라는 하나의 연결어미 형태소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李賢熙(1995b)에서는 보조사 '-도'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연결어미 '-도'를 인정하고 두 경우 모두 《역동》과 《양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60] 이와 같이 보조사 '-도'가 《양보》의 의미를 지닌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고도, -오도'와 '-어도, -아도, -야도, -라도'를 각각 연결어미 {-고}/{-어}와 보조사 {-도}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끝으로 15세기 국어의 '-암직ᄒᆞ/-엄직ᄒᆞ-'를 어떻게 분석하여 처리할 것인가가 연결어미와 관련해 논의될 수 있다. 최근 15세기 국어의 '-암/엄직ᄒᆞ-'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장윤희(2001)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ᅙ 應ㅌㅅ-, -ᅙ 可ㅌㅅ-'가 15세기의 '-암/엄 직ᄒᆞ-'로 이어지고 16세기초에 '-암/엄 즉ᄒᆞ-' 형태로 변화하여 19세기말까지 이어졌으며 현대국어의 '-음직하'는 18세기말부터 간헐적으로 보이는 '-음 즉ᄒᆞ-'의 변화형임을 언급하였다.

이 논의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보이는 '應ㅌㅅㄱ'을 근거로 '짓ᄒᆞ-'라는 형용사를 설정하고 이것이 '-ᅙ 應ㅌㅅ-'에서는 보조형용사로 쓰이게 되었다고 본 것인데, 이를 통해 15세기 국어의 '-암직ᄒᆞ/-엄직ᄒᆞ-'를 '-암/엄 직ᄒᆞ-'의 구성으로 파악해 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때 '-암/엄'이 명사형어미로 파악한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160) 이러한 기술 방법은 '-ᅀᅡ'를 보조사 외에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ㆆ'(음)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15세기 국어의 명사형어미 '-옴/움'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得度ᄒᆞ얌직 아니ᄒᆞᆯ씨<법화 7:79b>'나 '得度ᄒᆞ얌직 몯ᄒᆞ야도<법화 7:93a>'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암/엄직' 뒤에 '아니ᄒᆞ-'나 '몯ᄒᆞ-'가 연결된 경우는 '직ᄒᆞ-'를 하나의 보조형용사로 설정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자는 '-암/엄직ᄒᆞ-'를 '-암/엄직 ᄒᆞ-'로 분석하여 허웅(1975)에서처럼 '-암직/엄직'을 15세기 공시적으로 단일한 연결어미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 밖에 허웅(1975)에서는 강세를 나타낸다고 본 '-도'와 그럴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 '-어만' 등도 15세기 국어의 연결어미로 제시하였다.[161] 그런데 이들의 경우 실제의 용례를 하나 정도씩만 찾아볼 수 있어 그 정확한 의미 및 이형태들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2.3. 전성어미

15세기 국어에서 명사형어미나 관형사형어미처럼 문장을 전성형(轉成形)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전성어미들의 이형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성어미 이형태 목록】

|-기| : -기,[162] -이[163]

|-ㄴ| : -ㄴ, -은, -ᄋᆞᆫ

|-디| : -디

|-돌| : -ᄃᆞᆯ

|-ㄹ| : -ㄹ, -을, -ᄋᆞᆯ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이| : -이[164]

---

161) 比丘ㅣ 보고 너교ᄃᆡ 苦ᄅᆞᄫᆡ도 苦ᄅᆞᄫᆡᆯ쎠 내 몸도 ᄃᆞ려ᄒᆞ리로다 ᄒᆞ고 <석상 24:15b>
소리와 빗나미 眞實로 可히 드러만 ᄒᆞ도다(聲華眞可聽) <두시-초 6:19a>

162) 부톄 니ᄅᆞ샤ᄃᆡ 말라 겨집 出家ᄒᆞ기ᄅᆞᆯ 즐기디 말라 <월석 10:18b>

163) 집 지ᅀᅵᄅᆞᆯ 처ᅀᅥᆷ ᄒᆞ니 그제ᅀᅡ 아기 나히ᄅᆞᆯ 始作ᄒᆞ니라 <월석 1:44b>

164) 구본관(1998:315)에서는 다음과 예문들에 나타나는 '-이'를 파생접미사가 아닌 통사구성요소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부사형어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히} : -히[165]

먼저 명사형어미 {-기}는 15세기에 그 용례가 흔하지 않은 편이다. 15세기에 명사형어미 {-기}는 선어말어미를 앞세우지 않고 어간에 직접 통합되는 특징을 보이는데(허웅 1975:635),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기]가 쓰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166] 또한 어간이 'ㄹ'나 활음 'ㅣ'로 끝나는 경우에는 'ㄱ'탈락에 의해 형성되는 이형태 [*-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자료들에는 실제로 이러한 조건의 어간 뒤에서 {-기}가 통합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또다른 유형의 명사형어미 {-돌}과 {-디}는 각각 대격과 주격이라는 격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돌}은 '먹돌 슬히 너기니<월석 17:20a>'에서처럼 동사 '먹-'을 '슬히 너기니'의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반면, {-디}는 '거스디 어려부미<월석 10:29b>'에서처럼 동사 '거슬-'을 '어려부미'의 주어로 만들어 준다. 15세기 문헌자료에서 두 명사형어미 {-돌}과 {-디}는 모

玉盞애 수를 몰가 맛 업시 너기ᄂᆞ니 <두시-초 7:25a>
菩薩이 法에 반ᄃᆞ기 住혼 곧 업시 ᄒᆞ야 <금강 22a>
能히 큰 慈悲 ᄀᆞ자 ᄆᆞᅀᆞᄆᆞᆯ 노ᄌᆞ기 ᄒᆞ야 <월석 21:139b>
눉므를 手巾에 ᄀᆞᄃᆞ기 흘리노라 <두시-초 7:22b>
귓돌아미 中堂애 갓가이 와 <두시-초 7:36a>

이들은 비록 몇몇 형용사에 한정되어 통합되는 통합상의 제약을 보이고는 있지만,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과 통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머리', '어려비', '해' 등에서 보이는 부사파생접미사 {-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이다.

165) 이 역시 구본관(1998:307, 317)에서는 파생접미사가 아닌 통사구성요소로 파악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된 어간에만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과 통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파생접미사가 아닌 어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넷 病에 예 와쇼ᄆᆞᆯ 둗히 너기노니 <두시-초 6:51a>
거믄고 노로ᄆᆞᆯ 이제 니르히 帝子ᄅᆞᆯ 슬노니 <두시-초 11:7a>
고ᄒᆞᆯ 싀히 ᄒᆞ노라 <두시-초 16:20a>

또한 구본관(1998:317)에서는 '-이'와 '-히'의 분포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한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가 아닌 일종의 쌍형어 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이'와 '-히'를 각각 개별 형태소로 처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166) 이러한 사실은 16세기 자료인 '飜譯老乞大'에 보다 더 잘 나타난다. 金完鎭(1976)에서는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를 통해 16세기에 명사형어미 '-이'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는데, 16세기에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되는 명사형어미이고 '-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통합되는 명사형어미라고 보아 이 둘이 이형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두 어간에 직접 통합된다는 특징과 함께 그 용례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디}의 경우에는 형용사 '어렵-'의 주어로 사용된 예만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5세기 문헌자료에는 관형사형어미 {-ㄹ}의 표기로 '-ㅭ, -을ㆆ, -ᄋᆞᇙ, -ᆳ'과 같은 표기도 나타난다. '-ㅭ, -을ㆆ, -ᄋᆞᇙ'에서 사용된 'ㅭ'의 경우는 t-입성 한자음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東國正韻』의 '以影補來'에서[167]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ㄹ' 뒤에 후두폐쇄음 'ㆆ'[ʔ]을 덧붙여 관형사형어미 '-ㄹ'가 후행 요소와 결합시 갖게 되는 음절 말음 'ㄹ'의 촉급하고 완전한 폐쇄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완전한 폐쇄는 후두의 긴장을 동반하게 되므로 그 뒤에 평음 장애음이 올 경우 이 긴장성은 자연히 평음을 경음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이들 표기는 형태와 실제의 발음 모두를 충족시킨 절충적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ᆳ'은 '諸佛 供養이 그읈 슷 업스니<월석 7:58b>'와 '各各 서되 드ᄅᆞᆳ 華甁을 노코<월석 10:119a>'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ㆆ' 대신 'ㅅ'을 표기에 사용했을 뿐 그 가치는 '-ㅭ'과 동등하다고 하겠다.[168]

명사형어미 {-옴}은 꽤 다양한 이형태를 갖는다. 모음조화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지의 조건 외에도 계사 {(-)이-}와 선어말어미 {-리-}, 선어말어미 {-으시-}, 그리고 개별 어휘에 따른 이형태교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특히 [-Vㅁ[H]]는 어간이 '가-, 나-, 자-, 하-, 녀-'와 '오-, 보-, 두-, 주-' 등인 경우에 나타나는 이형태로 꽤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V'는 모음 형판(template)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절음의 자리만 있고 실제 분절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표시한다. 형판 'V'에는 거성의 성조(H)가 연결되어 있어 평성을 가진 위의 어간들과 통합되어 상성의 복합성조를 이루게 된다.[169]

167) 중국 36자모표의 '影母'에 해당하는 음이 'ㆆ', '來母'에 해당하는 음이 'ㄹ'이어서 '以影補來'는 'ㅭ'을 가지고 한자음의 t-입성음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속음(俗音)은 '-ㄹ'로 발음하고 규범음은 '-ㄷ[t]'음인 것을 절충하여 'ㆆ[ʔ]'음으로써 'ㄹ'음의 이완성을 보충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東國正韻』 서문에서는 '因俗歸正'이라고 표현했다(姜信沆 1987:180 각주23).

168) 관형사형어미 {-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경음화 현상과 관련해 이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金裕範(1999a)를 참조할 수 있다.

169) 허웅(1975:630)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오/-우'가 줄면서 줄기 끝음절의 성조가 상성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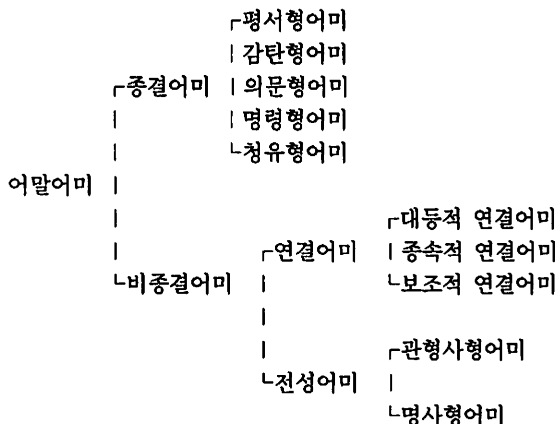
끝으로 부사형어미 {-이}와 {-히}는 15세기 국어의 형태론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말어미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구본관(1998)의 논의를 참조하면 15세기 국어에는 접미사와 구별되는 어말어미 {-이}와 {-히}가 존재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 이들을 연결어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것인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연결어미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어말어미 {-이}와 {-히}가 사용된 용례들에서 이 두 어말어미가 통합된 성분들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 차원이 아니라 문장의 서술어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어미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용언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170)

1.2.4. 선어말어미

15세기 국어에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위치하며 어말어미와 함께 어미구조체를 형성하는 선어말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이형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70) 학교문법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 즉 부사형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하고 있지만, 15세기 국어의 어말어미 {-이}와 {-히}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대국어에서 흔히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어, -고 -게, -지'에 의해 연결되는 두 요소는 보통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파악되는데, 15세기 국어의 어말어미 {-이}와 {-히}에 의해 연결된 두 요소가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말어미를 하위분류하고 있다(남기심 · 고영근 1993:159).



없다. 감동법 선어말어미라는 이름 아래 묶어 볼 수 있는 이들 형태들의 분포 환경과 실제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돗-｜: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뒤
ᄒᆞ(시)도소이다, ᄒᆞ(시)도소니, ᄒᆞ시돗더이다, ᄒᆞ돗다, ᄒᆞ돗더라, ᄒᆞ도소뇨/녀/니야
나. ｜-롯-｜: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
이로소이다, 이로소니, ᄒᆞ(ᄉᆞᄫᆞ/시)리로소이다, ᄒᆞ(시)리로소니, ᄒᆞ리로소녀/니여/니잇가
다. ｜-옷-｜: 선어말어미 ｜-ᄂᆞ-｜, ｜-더-｜, ｜-거-｜ 뒤
ᄒᆞ노소라, ᄒᆞ노소이다, ᄒᆞ(시)노소니,[182] ᄒᆞ(ᄉᆞᆸ/시)놋다, ᄒᆞ다소라(ᄒᆞ+더+옷+오+다),
ᄒᆞ(시)다ᄉᆞ이다, ᄒᆞ(시)닷다, ᄒᆞ(ᄉᆞᆸ)다소니, ᄒᆞ(시)리라ᄉᆞ이다, ᄒᆞ(ᄉᆞᄫᆞ/시)리랏다, ᄒᆞ과소라
라. ｜-ㅅ-｜: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ᄉᆞᆸ-｜, ｜-ᄂᆞ-｜, ｜-거-｜ 뒤
ᄒᆞ소라, ᄒᆞ소이다, ᄒᆞ(ᄉᆞᆸ)소니, ᄒᆞ(ᄂᆞ)ᄉᆞᆫ다, ᄒᆞ것다, ᄒᆞ야ᄉᆞ라
마. ｜-앗-｜: 선어말어미 ｜-으시-｜ 뒤
ᄒᆞ(ᄉᆞᄫᆞ/리)샷다, 이(르)샷다, ᄒᆞ(시리)샤ᄉᆞ이다[183], ᄒᆞ샤ᄉᆡ이다
바. ｜-도/두-｜: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ᄉᆞᆸ-｜ 뒤[184]
ᄒᆞ도다, ᄒᆞ두다, ᄒᆞ시도다, ᄒᆞᄉᆞᆸ도다
사. ｜-로-｜: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
이로다, ᄒᆞ(ᄉᆞᄫᆞ/시)리로다

이들을 분포 환경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동사·형용사 어간에 직접 통합된 형태: ｜-돗-｜, ｜-ㅅ-｜, ｜-도/두-｜
나.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 통합되는 형태: ｜-롯-｜, ｜-로-｜
다. 선어말어미 ｜-ᄉᆞᆸ-｜ 뒤에 통합되는 형태: ｜-ㅅ-｜, ｜-도/두-｜

---

182) 'ᄒᆞ노소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첫째는 'ᄒᆞ- + -ᄂᆞ- + -옷- + -니'이고 둘째는 'ᄒᆞ- + -ᄂᆞ- + -옷- + -오- + -니'인데, 첫째 경우에는 '-옷-'과 '-니' 사이에 첨가된 매개모음 'ᄋᆞ'가 '-옷-'의 '오' 모음에 의해 원순동화를 입어 동일한 '오'로 변동되었다.

183) ㅣ·方 如來도 後에 반ᄃᆞ기 煩惱ᄒᆞ**시리샤ᄉᆞ이다**(十方如來도 後應煩惱ㅣ 샤ᄉᆞ이다) <원각 상1-1:10b>.

184) 한편, 다음과 같이 'ᄒᆞ놋도다'와 같은 형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중복된 경우로 이승희(1996:78~79)에서는 '놋'에 포함된 고형(古形)의 감동법 선어말어미 '-옷-'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서 새로운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를 필요로 하게 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샷-(시+옷)'과 '-시도-(시+돗)'의 과도적인 공존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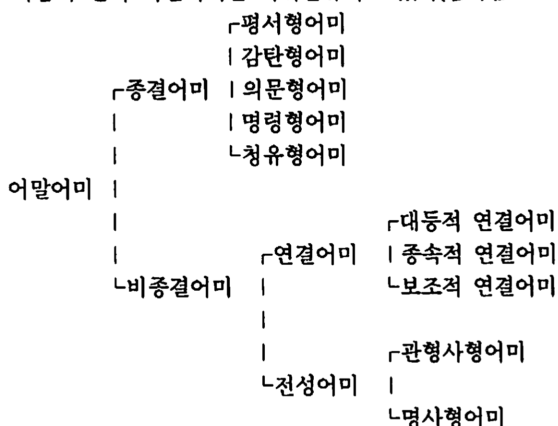
구룸 ᄢᅵᆫ ᄀᆞᄅᆞ매ᄂᆞᆫ ᄃᆞᆯ 비치 軒檻애 오ᄅᆞ**놋도다** <두시-초 8:25b>

끝으로 부사형어미 {-이}와 {-히}는 15세기 국어의 형태론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말어미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구본관(1998)의 논의를 참조하면 15세기 국어에는 접미사와 구별되는 어말어미 {-이}와 {-히}가 존재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 이들을 연결어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것인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연결어미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어말어미 {-이}와 {-히}가 사용된 용례들에서 이 두 어말어미가 통합된 성분들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 차원이 아니라 문장의 서술어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어미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용언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170]

1.2.4. 선어말어미

15세기 국어에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위치하며 어말어미와 함께 어미구조체를 형성하는 선어말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이형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70) 학교문법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 즉 부사형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하고 있지만, 15세기 국어의 어말어미 {-이}와 {-히}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대국어에서 흔히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어, -고 -게, -지'에 의해 연결되는 두 요소는 보통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파악되는데, 15세기 국어의 어말어미 {-이}와 {-히}에 의해 연결된 두 요소가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말어미를 하위분류하고 있다(남기심 · 고영근 1993:159).



【선어말어미 이형태 목록】
{-거-}: -거-, -어-₁, -어-₂, -나-
{-니-}: -니-, -으니-, -ᄋᆞ니-, -오니-[171)]
{-ᄂᆞ-}: -ᄂᆞ-, -ㄴ-[172)], -ᄂᆡ-[173)]
{-더-}: -더-, -러-
{-돗-}: -돗-, -롯-, -도-, -두-,[174)] -로-, -옷-, -ㅅ-, -앗-
{-리-}: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175)]
{-ᄉᆞᆸ-}: -ᄉᆞᇦ-/-ᄉᆞ오-, -ᄉᆞᆸ-, -ᄌᆞᇦ-/-ᄌᆞ오-, -ᄌᆞᆸ-, -ᅀᆞᇦ-/-ᅀᆞ오-, -ᅀᆞᆸ-, -ᄶᆞᇦ-/-ᄶᆞ오-, -ᄶ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176)]
{-오-}: -오-, -우-, -요-, -유-, -외-,[177)] -아-, -로-, -V[H]-

171) 【-오니】는 'ᄒᆞ리로소니잇가'와 같이 선어말어미 {-돗-}과 {-니-}가 통합될 때 {-돗-}의 '오' 모음에 의해 {-니-}의 앞에 나타나는 매개모음 'ᄋᆞ/으'가 원순동화를 입은 형태이다.

172) 이형태 【-ㄴ-】은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노-'와 선어말어미 {-ᄂᆞ-}와 {-옷-}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놋-'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173) 【-ᄂᆡ-】는 선어말어미 {-ᄂᆞ-}와 {-이-}가 통합될 때 나타나는 이형태로 {-이-}의 '이'모음에 의한 역행동화의 결과로 활음 'ㅣ'가 {-ᄂᆞ-}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15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 정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대부분 '-ᄂᆞ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환경에서의 '이'모음역행동화가 15세기 당시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阿難大衆이 다 숣오ᄃᆡ 소리 잇ᄂᆡ이다 <능엄 4:126b> cf.阿難大衆이 다 숣오ᄃᆡ 소리 잇ᄂᆞ이다

15세기 국어의 동사 활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음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고영근(1995)를 참조할 수 있다.

174) 애와텨 앗겨ᄋᆞᆷ직 ᄒᆞ두다(爲可歎惜矣로다) <능엄 3:116b>

175) 다음은 각각 【-ㄹj-】, 【-으ㄹj-】, 【-ᄋᆞㄹj-】의 용례를 보여준다.

城 밧긔 브리 비취여 ㅣ八子ㅣ 救ᄒᆞ시려니 가라 ᄒᆞᆫ돌 가시리잇가 <용가 8:19b(69장)>
내 이제 므스그로 바다 머그려뇨 ᄒᆞ더시니 <월석 4:56a>
엇뎨 ᄒᆞ야ᅀᅡ 無量諸佛와 두 菩薩ᄋᆞᆯ 보ᅀᆞᄫᆞ려뇨 <월석 8:17b>

176) '-ᄉᆞᇦ-/-ᄉᆞ오-', '-ᄌᆞᇦ-/-ᄌᆞ오-', '-ᅀᆞᇦ-/-ᅀᆞ오-', '-ᄊᆞᇦ-/(-ᄊᆞ오-)', '-ᄶᆞᇦ-/-ᄶᆞ오-'와 같이 동시에 두 가지 형태를 표시한 것은 'β>w'의 변화 반영 여부에 따른 두 유형의 형태를 보인 것이다. 15세기에 /β/를 표기한 'ᄫ'은 『訓民正音』(解例本)과 『龍飛御天歌』에 주로 그 모습을 나타내다가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불경언해들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 실제 문헌에 등장한 것은 겨우 15년 정도에 불과하다.

177) 護彌 닐오ᄃᆡ 그리 아니라 부텨와 즁과ᄅᆞᆯ 請ᄒᆞᅀᆞᄫᆞ려 ᄒᆞ뇌다 <석상 6:16b>

이 예문의 'ᄒᆞ뇌다'는 'ᄒᆞ+ᄂᆞ+오+이+다'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뇌'은 세 개의 형태소가 통합되어 나타난 형태가 된다.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이-'에 의해 '-오-'가 '이'모음역행동화를 입어 '-외-' 형태가 되고 다시 동화주인 '-이-'의 모음이 탈락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동화주인 '-이-'의 모음이 왜 탈락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가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중 세 번째 원리인 '타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Ⅱ-2.참조)에 의해 만들어진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ᄒᆞ노이다'가 보편적인 형태이고 중간 단계의 형태라고 생각되는 '*ᄒᆞ뇌이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참고할 때 'ᄒᆞ뇌다'는 'ᄒᆞ노이다'와 수의적인 교체 관계에 있는 매우

{-으시-} : -으시-, -ᄋᆞ시-, -시-, -으샤-, -ᄋᆞ샤-, -샤-[178)]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179)] -오이-[180)], -ᄋᆡ이-[181)]

먼저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의 이형태 중 【-어-₁】과 【-어-₂】는 외형은 같지만 그 성격이 서로 달라 번호를 붙여서 둘을 구분한 것이다. 【-어-₁】은 타동사 어간에 통합되는 이형태로 '일허다'(잃+어+다)와 같은 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인데, 어간의 말음이 이 【-어-₁】의 초성으로 연철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₂】는 자동사 어간에 통합되는 【-거-】에서 'ㄱ'가 탈락된 형태인데, '뷔어다'(뷔+거+다)와 같은 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ㄱ'탈락은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으로서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인 경우 【-거-】의 'ㄱ'가 탈락되는데, 이 때 어간과 분철되거나 '이'모음순행동화를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₁】과 구별된다.

선어말어미 {-돗-}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의 형태소로 묶일 수 있는 요소들인지도 단정지을 수

특이한 형태로 파악된다.

178) 다음은 각각 【-으샤-】, 【-ᄋᆞ샤-】, 【-샤-】의 용례를 보여준다.
일후믈 드르샤도 일후메 跳디 아니ᄒᆞ시며 <월석 8:16b>
俱夷 ᄯᅩ 묻ᄌᆞᄫᆞ샤ᄃᆡ 부텻긔 받ᄌᆞᄫᆞᆯ 므슴호려 ᄒᆞ시ᄂᆞ니 <월석 1:10b>
셔봀 使者ᄅᆞᆯ ᄢᅥ리샤 바ᄅᆞᄅᆞᆯ 건너싫 제 二百戶ᄅᆞᆯ 어느 뉘 請ᄒᆞ니 <용가 4:1a(18장)>

179) 護彌 닐오ᄃᆡ 그리 아니라 부텨와 즁과ᄅᆞᆯ 請ᄒᆞᅀᆞᄫᆞ려 ᄒᆞᇰ다 <석상 6:16b>
光明이 世界ᄅᆞᆯ ᄉᆞᄆᆞᆺ 비취샤 三世옛 이ᄅᆞᆯ 아ᄅᆞ실ᄊᆡ 부톄시다 ᄒᆞᄂᆞᇰ다 <석상 6:18a>

180) 【-오이-】는 'ᄒᆞ(시)도소이다'에서와 같이 '오' 모음을 갖는 선행 형태소 {-돗-}에 의해 매개모음이 동일한 '오'로 원순모음화된 결과로 나타난 이형태인데, 여기에는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중 '타 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Ⅱ-2.참조)가 적용되었다.

181) 【-ᄋᆡ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의 'ᄒᆞ샤ᄉᆡ이다'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첨가된 매개모음이 후행하는 선어말어미 {-이-}에 의해 '이'모음역행동화를 입은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ᄒᆞ샤ᄉᆡ이다'와 더불어 'ᄒᆞ샤ᄉᆞ이다'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때 【-ᄋᆞ-】와 【-ᄋᆡ이-】는 수의적인 교체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ᄅᆞ샤ᄉᆡ이다 <월석 12:3b>
金ㅅ 비치러시니 陛下 ᄀᆞᄅᆞ샤미 당다이 그ᄅᆞ샤ᄉᆡ이다 <월석 2:65a-b>
乘法을 여러 뵈기샤 諸衆生ᄋᆞᆯ 너비 引導ᄒᆞ샤 菩提ᄅᆞᆯ ᄲᆞᆯ리 일우게 ᄒᆞ샤ᄉᆡ이다 <법화 4:169b>
입시울 비치 븕고 됴ᄒᆞ샤미 頻婆果ㅣ ᄀᆞᄐᆞ샤ᄉᆡ이다 <법화 7:148a>

없다. 감동법 선어말어미라는 이름 아래 묶어 볼 수 있는 이들 형태들의 분포 환경과 실제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돗-】: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뒤
ᄒᆞ(시)도소이다, ᄒᆞ(시)도소니, ᄒᆞ시돗더이다, ᄒᆞ돗다, ᄒᆞ돗더라, ᄒᆞ도소뇨/녀/니야

나. 【-롯-】: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
이로소이다, 이로소니, ᄒᆞ(ᄉᆞᄫᆞ/시)리로소이다, ᄒᆞ(시)리로소니, ᄒᆞ리로소녀/니여/니잇가

다. 【-옷-】: 선어말어미 {-ᄂᆞ-}, {-더-}, {-거-} 뒤
ᄒᆞ노소라, ᄒᆞ노소이다, ᄒᆞ(시)노소니,[182] ᄒᆞ(ᄉᆞᆸ/시)놋다, ᄒᆞ다소라(ᄒᆞ+더+옷+오+다), ᄒᆞ(시)다ᄉᆞ이다, ᄒᆞ(시)닷다, ᄒᆞ(ᄉᆞᆸ)다소니, ᄒᆞ(시)리라ᄉᆞ이다, ᄒᆞ(ᄉᆞᄫᆞ/시)리랏다, ᄒᆞ과소라

라. 【-ㅅ-】: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ᄉᆞᆸ-}, {-ᄂᆞ-}, {-거-} 뒤
ᄒᆞ소라, ᄒᆞ소이다, ᄒᆞ(ᄉᆞᆸ)소니, ᄒᆞ(ᄂᆞ)ᄉᆞᆫ다, ᄒᆞ갓다, ᄒᆞ야ᄉᆞ라

마. 【-앗-】: 선어말어미 {-으시-} 뒤
ᄒᆞ(ᄉᆞᄫᆞ/리)샷다, 이(르)샷다, ᄒᆞ(시리)샤ᄉᆞ이다[183], ᄒᆞ샤시이다

바. 【-도/두-】: 동사·형용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ᄉᆞᆸ-} 뒤[184]
ᄒᆞ도다, ᄒᆞ두다, ᄒᆞ시도다, ᄒᆞᄉᆞᆸ도다

사. 【-로-】: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
이로다, ᄒᆞ(ᄉᆞᄫᆞ/시)리로다

이들을 분포 환경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동사·형용사 어간에 직접 통합된 형태: 【-돗-】, 【-ㅅ-】, 【-도/두-】
나. 계사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 통합되는 형태: 【-롯-】, 【-로-】
다. 선어말어미 {-ᄉᆞᆸ-} 뒤에 통합되는 형태: 【-ㅅ-】, 【-도/두-】

182) 'ᄒᆞ노소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첫째는 'ᄒᆞ- + -ᄂᆞ- + -옷- + -니'이고 둘째는 'ᄒᆞ- + -ᄂᆞ- + -옷- + -오- + -니'인데, 첫째 경우에는 '-옷-'과 '-니' 사이에 첨가된 매개모음 'ᄋᆞ'가 '-옷-'의 '오' 모음에 의해 원순동화를 입어 동일한 '오'로 변동되었다.

183) 十方 如來도 後에 반ᄃᆞ기 **煩惱ᄒᆞ시리샤ᄉᆞ이다**(十方如來도 後應煩惱ㅣ샤ᄉᆞ이다) <원각 상1-1:10b>.

184) 한편, 다음과 같이 'ᄒᆞ놋도다'와 같은 형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중복된 경우로 이승희(1996:78~79)에서는 '놋'에 포함된 고형(古形)의 감동법 선어말어미 '-옷-'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서 새로운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를 필요로 하게 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샷-(시+옷)'과 '-시도-(시+돗)'의 과도적인 공존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구룸 낀 ᄀᆞᄅᆞ매ᄂᆞᆫ ᄃᆞᆯ 비치 軒檻애 오ᄅᆞ놋도다 <두시-초 8:25b>

라.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통합되는 형태: {-돗-}, {-앗-}, {-도/두-}
마. 선어말어미 {-ᄂᆞ-} 뒤에 통합되는 형태: {-옷-}, {-ㅅ-}
바. 선어말어미 {-더-} 뒤에 통합되는 형태: {-옷-}
사. 선어말어미 {-거-} 뒤에 통합되는 형태: {-옷-}, {-ㅅ-}

이로부터 우리는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다양한 형태들이 서로 중복된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이에 있어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특성인 상보적 분포의 형성은 {-돗-}과 {-롯-}, {-도/두-}와 {-로-} 정도에서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옷-}과 {-도/두-}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 분포가 상보적으로 보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는 {-도/두-}가 {-옷-}의 부류에 속하는 {-앗-}과 중복되므로 완전하게 상보적인 분포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 형태들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복잡한 분포에는 형태소의 통시적 변화 과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옷-}이 다른 감동법 선어말어미보다 더 고형(古形)이고 이러한 보수적인 {-옷-}을 개신형(改新形)인 {-돗-}이 대신하게 되는 변화 과정이 존재했었다고 본다면[185]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이 보이는 복잡한 분포 양상의 원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듯 그 분포에 있어 상보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들 형태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공통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서로 간의 형태적 관련성이 포착되므로 이들을 일단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로 처리해 두고자 한다.

한편,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는 바로 앞의 1.2.3에서 살펴보았던 명사형어미 {-옴}의 이형태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명사형어미 {-옴}의 '오'가 기원적으로는 선어말어미 {-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두 형태소의 특이한 이형태들인 {-Vㅁ[H]}과 {-V[H]}, {-암}과 {-아}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으시-}의 경우에는 모음 '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소들의 이형태에서 보이는 매개모음 '으/ᄋᆞ'와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ᄂᆞᄅᆞ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ㄹ'로 끝나는 어간과의 통합에서도 '으/ᄋᆞ'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으시-}는 [LH] 또

185) 이러한 생각은 고영근(1981)과 이승희(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는 [HH]의 성조를 갖는데,[186] 첫 음절의 성조가 선행 요소의 성조에 따라 [L]이나 [H]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거성([H])을 보이는 일반적인 매개모음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은 {-으시-}의 '으'를 형태소 결합에서 첨가되는 매개모음이 아닌 선어말어미 {-으시-}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게 한다.

이제까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목록을 각 형태소들이 지닌 형태론적인 문제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동안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태소 설정과 분석의 문제, 이형태 결정의 문제 등과 관련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목록도 아직 완전한 것일 수 없다. 완전한 목록의 작성은 15세기 국어의 연구가 더욱 심화될 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미흡하긴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었던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목록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한다.

186) 이에 대해서는 鄭然粲(1963), 金完鎭(1973/77), 金星奎(1994) 등을 참조할 수 있는데, 金完鎭(1973/77)에서는 {-으시-}의 성조를 두 개의 전의적(前倚的) 성조가 결합된 $/\alpha^1\alpha^2/$로 파악한 반면, 金星奎(1994)에서는 '시'를 고정적 거성으로, '으'는 전의적 성조로 파악하였다.

2. 이형태교체의 조건

2.1.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

우리는 먼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이 지니는 이형태들이 어떠한 교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체의 조건은 크게 음운론적인 조건과 형태론적인 조건, 그리고 통사론적인 조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조건들은 다시 내부적으로 세분될 수 있다.

2.1.1.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 또는 후행 요소의 음운론적 특성이 인접한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를 결정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조건, 후행 요소의 첫 번째 분절음 조건, 선행 요소가 지닌 모음의 음양적 조건, 그리고 비인접 환경에서의 원순모음화 조건이 있다.

[1]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먼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어떠한 음인가에 따라 이형태가 선택되는 경우로 이러한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문법형태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가. 격 조 사: {-이}, {-ㄹ}, {-로}, {-론}, {-롯}, {-라와}, {-이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
보 조 사: {-ㄴ}, {-란}
종결어미: {-라}, {-ㄴX}, {-ㄹX},[187] {-으쇼셔}
연결어미: {-ㄴX}, {-나$_1$}, {-나$_2$}, {-나$_3$}, {-니$_1$}, {-니$_2$}, {-ㄹX}, {-라$_1$}, {-라$_2$}, {-란디}, {-란디만뎡}, {-며}, {-면}
전성어미: {-ㄹ}, {-ㄴ}
선어말어미: {-니-}, {-리-}, {-으시-}, {-이-}

187) 여기서 {-ㄴX}와 {-ㄹX}로 표시된 어미들은 각각 'ㄴ'와 'ㄹ'로 시작되는 어미들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때 'ㄴ'와 'ㄹ'는 본래 동명사형어미(또는 관형사형어미)에서 비롯된 요소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들은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에도 존재한다.

나. 격 조 사: {-과}
　　보 조 사: {-곳}, {-곰₂}, {-고/-가}
　　종결어미: {-고라}
　　연결어미: {-거X},[188] {-게}, {-겟고}, {-고}, {-고져}, {-곤}, {-곰}, {-곳},
　　　　　　　{-과뎌}, {-과뎌여}, {-관뎌}
　　선어말어미: {-거-}
다. 격 조 사: {-에}, {-이}, {-이라와}, {-이며}, {-이여₁}, {-이여₂}
　　보 조 사: {-이나}, {-이어나}, {-잇돈}
　　종결어미: {-이}
　　연결어미: {-어}, {-오뎌}, {-오뎐}, {-오려}, {-올뎬}, {-거X}
　　전성어미: {-옴}
　　선어말어미: {-오-}, {-거-}
라. 연결어미: {-어}, {-엄직}
마. 선어말어미: {-숩-}

(1-가)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이형태들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주로 자음형 이형태와 매개모음형 이형태의 교체가 관찰된다. 이에 대해 주격조사 {-이}의 경우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이형태 【-이】와 【-ㅣ】를 갖는데, 이들은 각각 [i]와 [j]의 음가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라와}, {-이며}, {-이여₁}, {-이여₂}의 경우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1-나)는 공통적으로 'ㄱ'를 두음으로 가진 형태소들로 격조사 {-과}와 보조사 {-곳}, {-곰₂}는 1차적으로는 'ㄱ'형 이형태와 모음형 이형태가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선택되고, 'ㄱ'형 이형태 중 일부가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 'ㄱ' 탈락이라는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과정을 거쳐 'ㄱ'탈락형 이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보조사 {-고/-가}나 (1-나)에 제시된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그리고 선어말어미의 경우에는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모음형 이형태가 선택되는 과정 없이 바로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이나 활음 'ㅣ'이면 'ㄱ'탈락이라는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과정을 겪은 'ㄱ'탈락형 이형태로 실현된다.

(1-다)는 통합되는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인 경우 이러한 조건이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부분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 때 격조사 {-이}, {-이

188) {-거X}로 표시된 어미들은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거-}가 그 형성에 참여한 어미들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거늘}, {-거든}, {-건마론}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어미들이다.

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와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든}, 그리고 종결어미 {-이}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소들은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 어간과 통합될 경우 '이'모음순행동화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처격조사 {-에}나 연결어미 {-어}, 그리고 선어말어미 {-오-}의 경우 각각 [-예], [-여], 그리고 [-요]/[-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격조사 {-이}, {-이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와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든}, 그리고 종결어미 {-이}는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일 경우에 첫 음절의 '이'가 탈락되는데, 이들 형태소에서 관찰되는 이형태교체의 양상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격조사 {-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분절음 차원에서는 아무런 형태도 갖지 않으므로 영형태라 불리지만, 초분절음 차원에서는 거성의 성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격조사가 생략된 경우와 구별된다.[189]

(2) 가. 내해 드리(LR) 업도다(川無梁) 〈두시-초 25:7a〉
  나. 城 높고 드리(LL) 업건마른 하늘히 도ᄫᆞ실쌔 ᄆᆞᆯ 톤 자히 ᄂᆞ리시니이다 〈용가 5:30a (34장)〉

(2)의 두 예에 나오는 '드리'는 성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2-가)의 성조가 [LR]인 반면, (2-나)의 성조는 [LL]이다.[190] 이것은 '드리'의 성조가 본래 [LL]임을 볼 때 (2-가)의 '드리'에는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통합되어 두 번째 음절이 상성으로 실현된 반면, (2-나)에서는 아무런 성조의 변화가 없음으로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91]

(1-라)는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원순모음일 때 연결어미 {-어}와 {-엄직}의 경우 이에 동화되어 활음 'w'가 첨가된 형태를 이형태로 갖게 된다. 즉, [-워], [-와]와 [-웜직], [-왐직]이 각각 그러한 이형태들이다. 이에 대해 격조사 {-로}나 종결어미 {-니오

189) 15세기 국어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전형적인 경우로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용가 1:1b(2장)>'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때 주격조사의 생략은 음운론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190) 15세기에 '드리'는 '교량, 사다리, 계단, 등급' 등 다양한 의미를 가졌던 다의어였는데, 성조에 있어서는 모두 [LL]을 보여주고 있다.

191) 고영근(1987:77)에서는 (2-나)에 'ϕ'의 주격 형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성조에 대한 관찰을 놓친 결과라 하겠다.

/-니아}, 선어말어미 {-니-} 등의 경우에도 원순모음화를 입은 [-오로], [-오뇨, -오녀, -오니여, -오니야], [-오니-]와 같은 이형태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관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결어미 {-어}, {-엄직}과 구별된다.

마지막 (1-마)의 선어말어미 {-ᄉᆞᇦ-}의 경우에는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뿐만 아니라 자음일 경우에는 그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형태가 선택된다.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이나 유성 자음인 경우에는 [-ᅀᆞᇦ-/-ᅀᆞ오-], [-ᅀᆞᆸ-]이 선택되고 무성 자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교체 양상을 보여준다.

(3) 가. 마지막 분절음이 /ㄷ, ㅈ, ㅊ/인 경우: [-ᄌᆞᇦ-/-ᄌᆞ오-], [-ᄌᆞᆸ-], [-ᄍᆞᇦ-/-ᄍᆞ오-], [-ᄍᆞᆸ-]
나. 나머지 경우: [-ᄉᆞᇦ-/-ᄉᆞ오-], [-ᄉ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

이들 중 [-ᄍᆞᇦ-/-ᄍᆞ오-], [-ᄍ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불파음화된 무성폐쇄음(특히, [t˺])으로 발음될 경우 나타나는 이형태들로, 이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또 한 번 교체 조건으로 작용한 경우가 된다.

[2]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어떠한 음인가에 따라 그에 선행하는 형태소의 이형태가 선택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문법형태소들이 이러한 이형태교체를 보인다.192)

(4) 가. 선어말어미: {-리-}, {-으시-}

---

192) 언어의 선조성(線條性)을 고려할 때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이형태 결정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쉽게 수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음운과정 중 역행동화나 15세기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특수한 곡용을 하던 체언들의 교체 모습은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의 이형태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언어 실현의 과정이 계기적(繼起的)이고 직렬적(直列的)이라기보다는 동시적(同時的)이고 병렬적(竝列的)임을 말해주고 있다.

(가) 나모~낡(木)
모음 앞 ↙ ↘ 자음(휴지 포함), 활음 'w' 앞
낡 나모

(나) ᄆᆞᄅᆞ~ᄆᆞᆯㄹ(棟)
모음 앞 ↙ ↘ 자음(휴지 포함), 활음 'w' 앞
ᄆᆞᆯㄹ ᄆᆞᄅᆞ

나. 선어말어미: {-ᅀᆞᆸ-}

먼저 선어말어미 {-리-}와 {-으시-}는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모음일 경우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뀐 이형태들로 실현된다. {-리-}의 경우는 이형태 【-ㄹj-】, 【-으ㄹj-】, 【-ᄋᆞㄹj-】가, {-으시-}의 경우는 이형태 【-으ㅅj-】, 【-ᄋᆞㅅj-】, 【-ㅅj-】가 이러한 이형태들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선어말어미 {-ᅀᆞᆸ-}은 다양한 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뿐만 아니라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 조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이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무성 자음인 경우에는 말음이 'ㅂ'인 【-ᄉᆞᆸ-】, 【-ᄊᆞᆸ-】, 【-ᄌᆞᆸ-】, 【-ᄍᆞᆸ-】, 【-ᅀᆞᆸ-】과 같은 이형태들이 나타나고, 모음 또는 유성 자음인 경우에는 【-ᄉᆞᆸ-/-ᄉᆞ오-】, 【-ᄊᆞᆸ-/(-ᄊᆞ오-)】, 【-ᄌᆞᆸ-/-ᄌᆞ오-】, 【-ᄍᆞᆸ-/-ᄍᆞ오-】, 【-ᅀᆞᆸ-/-ᅀᆞ오-】와 같은 이형태들이 나타난다.[193]

한편, 高永根(1981 · 1987)에서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의 경우 매개모음을 취하는 어미 앞에서는 【-돗-】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도-】가 이형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후행 요소의 두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돗다', '-돗더라' 등과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도 【-돗-】이 실현되는 경우가

193) 이 때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동일하게 유성 자음인 'ㄴ'로 시작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이 관찰된다.

(가) 보ᅀᆞᆸᄂᆞ다, 아ᅀᆞᆸ노라, ᄀᆞᆮᄌᆞᆸᄂᆞ니라, 돕ᄉᆞᆸᄂᆞᆫ, 供養ᄒᆞᅀᆞᆸᄂᆞᆫ, 아ᅀᆞᆸᄂᆞ니, 묻ᄌᆞᆸ노니, ᄒᆞᅀᆞᆸᄂᆞ이다, ᄇᆞ라ᅀᆞᆸ노이다, 절ᄒᆞᅀᆞᆸ놋다, 돕ᄉᆞᆸ노소이다

(나) 일ᄏᆞᆮᄌᆞᄫᆞ니라, 받ᄌᆞᄫᆞ니이다, 돕ᄉᆞᄫᆞ니, 몯ᄌᆞᄫᆞ나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선어말어미 {-ᄂᆞ-}가 {-ᅀᆞᆸ-}에 통합된 것이 (가)의 경우라면 (나)는 선어말어미 {-ᄂᆞ-} 이외의 'ㄴ'로 시작되는 문법형태소들이 통합된 경우이다.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선행 음절 종성(여기에서는 유성마찰음 'ㅸ[β]')의 강도가 후행 음절 초성(여기에서는 비음 'ㄴ[n]')의 강도보다 클 경우 (나)와 같이 매개모음을 첨가해 강도 제약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자음 간의 강도 조절에 따른 매개모음 첨가에 대해서는 Ⅳ-1. 참조). (가)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ᄂᆞ-}의 개별적인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방안은 선어말어미 {-ᄂᆞ-}가 선어말어미 {-ᅀᆞᆸ-}과 같이 어휘형태소에서 발달해 온 요소라고 가정해 보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선어말어미 {-ᄂᆞ-}의 남다른 음운론적 행동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게 한다. 선어말어미 {-ᄂᆞ-}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이동석(2000)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선어말어미 {-ᄂᆞ-}와 관련된 (가)는 선어말어미 {-ᅀᆞᆸ-}의 이형태교체 환경에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있으므로[194] 선어말어미 {-돗-}의 이형태교체는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샤-'로 교체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역시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나,[195] '-샤-'를 {-으시-}의 이형태로 보지 않는다면 교체 조건은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문제에 대해서는 Ⅳ-3.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모음조화가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다음으로 선행 요소가 지닌 모음의 특성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모음의 특성이란 동양의 음양론(陰陽論)적 언어관에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모음을 양성(陽性)적인 것과 음성(陰性)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196] 이러한 모음의 음양적 특성은 이른바 '모음조화'라고 하는 모음 상호 간의 어울림 현상으로 실현되는데,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결합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격 조 사: {-ㄹ}, {-라와}, {-로}, {-론}, {-롯}, {-의/-ㅅ}, {-에}, {-의}
보 조 사: {-ㄴ}, {-란}

194) 지븨 겨샤 날마다 五百僧齋ᄒᆞ시돗더이다 <월석 23:74b>
부톄 엇뎨 뎌를 降服히디 아니ᄒᆞ시돗던고 <월석 4:20b>
글워롤 더뎌 鶺鴒을 뵈돗더라 <두시-초 8:39b>
그미 이제 사호미 업스니 書生은 ᄒᆞ마 銘을 사기돗다 <두시-초 24:62b>

195)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 올 때 나타나는 이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은 安秉禧(1963)을 필두로 허웅(1963), 安秉禧(1967), 고영근(1987), 安秉禧·李珖鎬(1990) 등으로 이어져 왔다.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문제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고영근(1997)을 참조할 수 있다.

196) 국어의 모음에 대해 이를 음과 양으로 이분법적 분류를 시도한 것을 『訓民正音』 해례의 <制字解>에서 찾을 수 있다.

ㅗ ㅏ ㅛ ㅑ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ㅜ ㅓ ㅠ ㅕ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
·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 <훈해-제자해>

이로부터 우리는 'ㅗ, ㅏ, ㅛ, ㅑ'는 양성모음이고 'ㅜ, ㅓ, ㅠ, ㅕ'는 음성모음인데, 이 8가지 모음에 모두 들어가 있는 'ㆍ'의 경우는 음(陰)을 통솔하여 만물에 두루 흐르는 양(陽)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ㅗ, ㅜ'에서 'ㆍ'의 통솔을 받는 'ㅡ'는 상대적으로 음이 됨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구분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부류는 각각 '舌縮'과 '舌小縮'의 부류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와 모음체계의 관련성을 '縮'이라는 자질에 의해 설명해 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된다.

종결어미: {-에라}, {-ㄴX}, {-ㄹX}, {-라} (명령), {-어쎠}, {-으쇼셔}
연결어미: {-ㄴX}, {-나$_1$}, {-나$_2$}, {-나$_3$}, {-니$_1$}, {-니$_2$}, {-ㄹX}, {-라$_1$}, {-라$_2$},
{-란디}, {-란디만뎡}, {-며}, {-면}
전성어미: {-ㄹ}, {-ㄴ}
선어말어미: {-으시-}, {-이-}, {-리-}, {-니-}, {-거-}

(5)는 모음조화가 이형태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법형태소들이다. 이들 문법형태소들은 대부분 매개모음에 의해 모음조화 현상에 참여하게 된다. 매개모음에 의해 모음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에 있어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교체가 1차적으로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조건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고, 모음조화는 2차적인 교체 조건으로 작용함을 말한다.

한편, (5) 중에서 격조사 {-의/-ㅅ}, {-에}, {-의}와 종결어미 {-에라}, {-어쎠}, 선어말어미 {-거-}와 연결어미 {-거X}와 같은 경우는 매개모음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가 아닌, 형태소 자체의 모음이 양성모음인 이형태와 음성모음인 이형태가 모두 존재하는 문법형태소들이다. 이들은 선행 요소가 지닌 마지막 분절음의 유형과 상관없이 1차적으로 모음조화가 이형태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된다.

[4] 비인접 환경에서의 원순모음화 조건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기서 비인접 환경이란 분절음의 접촉적 변동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변화에 관여하는 두 분절음 사이에 다른 분절음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러한 비인접 환경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비인접 환경에서의 원순모음화 조건에 의한 이형태교체는 (1-라)에서 선행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이 원순모음일 때 연결어미 {-어}와 {-엄직}의 경우 이에 동화되어 활음 'w'가 첨가된 형태를 이형태로 갖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6) 가. 종결어미: {-니오/-니아}
나. 선어말어미: {-니-}, {-이-}

이들은 각각 원순모음화를 입은 【-오뇨, -오녀, -오니여, -오니야】, 【-오니-】, 【-오이-】를 이형태로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로소뇨, -로소녀, -로소니여, -로소니야', '-로소니잇가', '-도소이다'에서와 같이 첨가된 매개모음이 모두 선어말어미 {-돗-}의 원순모음 '오'에 의해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입은 경우이다.

특히 【-오니-】와 【-오이-】의 '오'가 매개모음에서 온 것임은 '煩惱ᄒᆞ시리샤ᄉᆞ이다<원각 상1-1:10b>'와 같은 용례와 함께 고려시대 구결 자료들에 나타나는 'ソ刀土丶丨(ᄒᆞ도ᄉᆞ이다), ソ斗罒己丨(ᄒᆞ두ᄉᆞ이다), 丶又土丶丨(이로ᄉᆞ이다), ソ斗土ヒ午(ᄒᆞ두ᄉᆞ니오), ソ刀土ヒ午(ᄒᆞ도ᄉᆞ니오)' 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197]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원순모음화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6)의 문법형태소들이 갖는 '오'형 이형태들이 비인접 환경에서의 원순모음화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해 둔다.

2.1.2. 형태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형태론적 특성, 특히 어휘적 특성이 후행하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어휘적 특성은 유·무정성이나 존칭·비존칭성과 같은 체언의 의미 범주, 자·타동성과 같은 용언의 문법 범주, 그리고 특정 형태소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에 의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 체언의 의미 범주가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선행하는 체언이 유정 체언인지 무정 체언인지, 존칭 체언인지 비존칭 체언인지에 따라 통합되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가 달라지는 양상을 다음과 같은 문법형태소에서 관찰할 수 있다.

(1) 속격조사 {-의/-ㅅ}

197)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될 수 있음은 이승희(1996)에서 지적되었다.

속격조사의 경우는 【-의】, 【-ᄋᆡ】, 【-ㅣ】, 【-ㅅ】라는 이형태를 갖는데, 먼저 형태상 이질적인 【-의, -ᄋᆡ, -ㅣ】와 【-ㅅ】 두 유형이 존재했던 것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전자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 후자는 무정 체언 및 존칭의 유정 체언에 통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安秉禧 1968)이다.[198] 말하자면 이 두 유형의 이형태들은 통합되는 체언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다.[199]

무정 체언과 존칭의 유정 체언이 함께 범주화되어 속격조사로서 【-ㅅ】 형태를 취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체언의 의미 범주에 대한 인식 양상과 관련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ㅅ】의 경우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문헌들에서는 'ㅂ, ㅸ, ㄷ, ㅿ, ㆆ, ㄱ' 등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성에 입각한 표기상의 문제로 실제로 이형태의 범주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들이 곧 '-ㅅ'로 통일된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증언하고 있다.

【-의, -ᄋᆡ, -ㅣ】에서 【-의, -ᄋᆡ】는 선행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의해 두 이형태 중 하나가 선택되고 【-ㅣ】의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몇몇 체언들, 특히 1음절 대명사들과 주로 통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가. 臣下ㅣ 말 아ᄂᆡ 드러 〈용가 10:1a(98장)〉
당長자者ㅣ ᄯᆞᆯ이 죽粥을 받ᄌᆞᄫᆞ니 〈월곡 상:23b(기63)〉
空生ᄋᆞᆫ 本來 이 獅子ㅣ 삿길ᄉᆡ 〈금삼 2:21b〉
〔牛+去+示〕[200]은 쇠 일후미오 〈월석 10:117b〉
나. 내 願을 아ᄂᆡ 從ᄒᆞ면 고ᄌᆞᆯ 몯 어드리라 〈월석 1:12b〉
네 願을 從호리니 〈월석 1:12b〉
그듸 뉘 짓 ᄯᆞ리완ᄃᆡ 내 겨지비 ᄃᆞ외요려 ᄒᆞᄂᆞ다 〈월석 22:56a〉

---

198) 물론 이러한 견해와 부합되지 않는 예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숭녕(1981)은 『月印釋譜』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짙지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에서는 그런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는 사용 빈도가 높은 어사에는 '-ㅅ'이, 빈도가 낮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철학적 용어에는 '-ᄋᆡ, -의'가 붙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속격조사의 이형태는 통사론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교체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속격조사의 교체조건이 단일하지 않음은 물론 조건의 층위도 복합적임을 말하는 것이다.

200) 이 한자는 '牛'변에 '秦'(실제로는 '禾'가 아닌 '示')이 합쳐진 모양인데, 이것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쪈'으로 되어 있다.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노미 하니라 〈훈언 어제서〉

[-ㅣ]는 그 음가가 [j]로 주격조사의 한 이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보여준다. 실제로 문헌에서는 이들 대명사들에 주격조사가 통합된 경우와 속격조사가 통합된 경우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분절음상으로 이들이 변별되지 않는다.[201]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성조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변별이 가능하다.

(3) 〈단독형〉	〈주격〉	〈속격〉
나(L)	내(H)	내(L)
너(L)	네(R)	네(L)
누(H)	뉘(H)	뉘(R)
저(L)	제(R)	제(L)
쇼(H)	쇠(H)	쇠(R)

한편, 호격조사 {-아}의 경우는 그 이형태가 [-아], [-야], [-하] 등으로 다양한데, 주로 [-아]와 [-야]가 비존칭 체언에 통합되어 쓰이는 반면, [-하]의 경우는 존칭 체언에 통합된다는 점에서 이들 이형태들의 교체 조건을 선행 체언의 의미 범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가. ㄱ 彌勒아 〈월석 11:86b〉, 光目아 〈월석 21:58b〉, 大德아 〈월석 9:52b〉, 羅ㅏ아 〈월석 23:76b〉, 華德아 〈월석 18:83b〉, 阿難아 〈월석 9:47b〉, 目連아 〈월석 23:68b〉, 王舍城中靑提夫人아 〈월석 23:85a〉, 常精進아 〈월석 17:62a〉, 普賢아 〈월석 19:114b〉, 波旬아 〈월석 4:28b〉, 舍利弗아 〈월석 7:63a〉, 普廣菩薩아 〈월석 21:87a〉, 觀世音아 〈월석 21:160a〉, 迦葉아 〈월석 13:38b〉, 大龍王아 〈월석 10:68a〉, 普廣아 〈월석 21:85a〉, 地藏아 〈월석 21:140b〉

ㄴ 法子아 〈월석 8:53b〉, 善男子아 〈월석 8:57b〉, 比丘아 〈월석 14:74a〉

201) 인칭대명사 '나'와 '너'의 경우에는 속격조사와의 통합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ㅣ]뿐만 아니라 [-익, -의]와 통합된 예도 있고 [-ㅣ]가 통합된 속격형에 다시 [-익, -의]가 통합된 중가형(重加形)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인칭 대명사 '나'의 경우 '내[L] / 나익[LH]·나의[LH] / 내익[LH]·내의[LH]'와 같은 속격형이 존재하고 2인칭 대명사 '너'의 경우에는 '네[L] / 너의[LH] / 네의[LH]'의 속격형이 존재한다.

나. ㉠ 堅牢야 〈월석 21:151b〉, 得大勢야 〈월석 17:79a〉, 憍曇彌야 〈법화 4:187b〉, 須菩提야 〈금삼 2:6b〉
㉡ 長者야 〈월석 21:107b〉, 宿王華야 〈월석 18:44b〉
다. 부톄 니ᄅ샤ᄃᆡ 阿逸多아 〈석보 19:1a〉
부톄 彌勒菩薩摩訶薩ᄃᆞ려 니ᄅ샤ᄃᆡ 阿逸多야 〈월석 17:31b〉
라. 님금하 〈용가 10:52a(125장)〉, 大王하 〈월석 21:192a〉, 世尊하 〈능엄 2:10a〉, 부텨하 〈월석 7:24a〉, 父母하〈석보 21:39b〉

음운론적 시각에서 【-아】는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나 모음 어느 경우에나 통합이 가능한 데 비해, 【-야】는 모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두 이형태의 교체 조건을 분명히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4-다)의 두 예가 주목된다. 동일한 대상인 '阿逸多'(미륵보살)에 대해 호격조사로 『釋譜詳節』에서는 【-아】가, 『月印釋譜』에서는 【-야】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두 문헌 사이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특징이다. 실제로 【-야】는 주로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 경우에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4-나-㉠)), 이것은 【-야】가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아】에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나 형성된 이형태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형태 분포는 근대국어 이후 자음 뒤에서는 【-아】가, 모음 뒤에서는 【-야】가 사용되는 새로운 이형태 분포의 질서로 개편되었다.

이들 이형태들과는 달리 (4-라)의 【-하】는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조건과 관계없이 선행 체언이 존칭 체언인 경우에 사용된 호격조사의 이형태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의 두 예에서 사용된 '大王하'와 '大王아'를 통해 보면 【-하】의 쓰임이 선행 체언의 존칭성 여부보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청자가 화자보다 존귀한 인물인 경우에 화자가 청자를 존대하여 부를 때 호격조사의 형태는 【-하】로 나타나게 된다.

(5) 가. 阿難이 ᄉᆞᆲ보ᄃᆡ 大王하 나도 如來 겨신 ᄃᆡᄅᆞᆯ 모ᄅᆞᅀᆞᄫᆡ이다 優塡王이 世尊 그리ᅀᆞᄫᅡ 病을 ᄒᆞ야 나라해 어딘 匠人 뫼호아 牛頭栴檀香ᄋᆞ로 世尊ㅅ 像ᄋᆞᆯ ᄆᆡᇰᄀᆞᅀᆞᄫᅡ 供養ᄒᆞᅀᆞᆸ더니 波斯匿王도 그 말 듣고 紫磨金으로 如來ㅅ 像ᄋᆞᆯ ᄆᆡᇰᄀᆞᅀᆞᄫᆞ니 閻浮提ㅅ 內예 ᄆᆡᇰᄀᆞᅀᆞᄫᆞᆫ 부텻 像이 이 둘히 始作이시니라 〈월석 21:192a-193a〉

나. 부텨 니ᄅᆞ샤ᄃᆡ **大王아** 네 일즉 업디 아니 ᄒᆞ야셔 엇뎨 업수믈 아ᄂᆞᆫ다 世尊하 내 이 無常ᄒᆞᆫ 變ᄒᆞ야 ᄒᆞ야ᄃᆡᄂᆞᆫ 모미 비록 일즉 업디 아니ᄒᆞ나 내 보니 現前에 念念이 올마가 새와 새왜 머므디 아니호미 브리 ᄌᆡ ᄃᆞ외ᄃᆞᆺ ᄒᆞ야 漸漸 스러 주거 주구미 긋디 아니ᄒᆞ니 決定히 이 모미 반ᄃᆞ기 업서 다오ᄆᆞᆯ 조ᄎᆞᆯ ᄃᆞᆯ 아노이다 〈능엄 2:4b〉

이와 같은 사실은 호격조사 {-아}의 이형태 【-하】가 선행 체언의 의미 범주에 의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체언이라도 문맥에서 어떠한 화용론적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 호격조사의 이형태도 달라지므로 호격조사 {-아}의 이형태교체는 형태론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화용론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02]

[2] 용언의 문법 범주가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용언의 문법 범주, 즉 용언 어간이 어떠한 하위범주화틀(subcategorization frame)을 갖는가에 따라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위범주화틀은 용언이 갖는 어휘적 정보 중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특히 타동사, 자동사 등의 개념이 이 틀에 의해 표현된다.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 중 선어말어미 {-거-}, 그리고 통시적으로 이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되어 발달한 일련의 어말어미들 {-거X}의 경우에는 자동성(自動性)과 비자동성(非自動性)이라는 용언의 문법 범주가 이형태교체의 주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된 조건'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교체 조건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6) 가. 깁거다, 다ᄋᆞ거다, 뷔어다, 니거지라, 니거지이다, 소사나거늘, 머믈어늘, 잇거늘, 적거니와, 나거니와, ᄃᆞ외어니와, 잇거니와, ᄀᆞᆯ거든, 이울어든, 잇거든, 하건마ᄅᆞᆫ, 모딜언마ᄅᆞᆫ, 잇건마ᄅᆞᆫ

나. 일허다, 니버지라, 머거지이다, 무러늘, 널어니와,[203] 머거든, 술편마ᄅᆞᆫ

다. 어우러ᅀᅡ(어울어ᅀᅡ), ᄃᆞ외얀, 니ᄅᆞ거늘,[204] 너기거니와, 심거든, 너기건마ᄅᆞᆫ

---

202)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 화용론적인 조건까지 언급하게 되면 유용한 점도 있으나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화용론적인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고민도 함께 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적인 조건을 따로 설정하는 입장을 지양한다.

203) 이는 타동사 {니ᄅᆞ-}에 연결어미 {-거니와}가 통합된 것이다.

(6-가)는 선어말어미 {-거-}와 어말어미 {-거X}가 자동성을 가진 형용사, 자동사에 통합되었을 때 【-거-】, 【-어₂-】와 【-거X】, 【-어X₂】 유형의 이형태로 실현된 경우이다. (6-나)는 이들 형태소가 타동사에 통합되었을 때 【-어₁-】과 【-어X₁】 유형의 이형태로 실현된 경우이다.

반면, (6-다)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다. 자동성과 비자동성을 선어말어미 {-거-}와 어말어미 {-거X}의 이형태교체 조건으로 처음 언급한 高永根(1980)은 (6-다)와 같은 예외들에 대해 15세기 이후에 {-거X}형 어미들이 어느 형태 쪽으로 변화하는가를 고려하는 교체 양상의 동적(動的)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거ᅀᅡ'와 '-어ᅀᅡ'는 '-어ᅀᅡ' 쪽으로 합류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자동사류에도 '-어ᅀᅡ'가 결합된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인 반면,[205] '-거늘'과 '-어늘'의 경우에는 '-거늘' 쪽으로 합류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타동사류에도 '-거늘'이 결합된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어말어미 {-거-}와 어말어미 {-거X}의 이형태교체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그것이 통합되는 용언 어간의 문법 범주, 즉 자동성과 비자동성이라는 조건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206]

[3] 특정 형태소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

204) 타동사 '니ᄅᆞ(謂)-'에 본래대로 【-어늘】이 통합되어 '닐어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때의 '닐어늘'은 그 성조가 [LHH]로 [RLH]의 성조를 보이는 자동사 '닐(起)-'의 활용형 '닐어늘'과 구별된다.

205) 본 연구에서는 高永根(1980)과는 달리 15세기에 '-ᅀᅡ'를 독립된 연결어미로 인정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거ᅀᅡ'를 선어말어미 '-거-'와 어말어미 '-ᅀᅡ'가 통합된 구성으로 파악한다.

206) 한편, 高永根(1980:97)에서는 이러한 [±자동성](또는 [±타동성])이라는 문법 범주가 작용하는 또 하나의 예로 관형구문의 타동사 표지로 볼 수 있는 선어말어미 '-오/우-'를 들었다. 그러나 이 때 선어말어미 '-오/우-'의 개입은 관형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수식어가 관형어의 목적어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가) 지슨 사ᄅᆞᄆᆡ 注解ᄅᆞᆯ <법화 1:10a>

(나) 지순 그리 잇ᄂᆞ니 <두시-초 21:21b>

타동사 '짓-'이 두 예문에서 동일하게 관형어로 사용되었지만 피수식어 '사ᄅᆞᆷ'과 '글'이 각각 '짓-'의 주어와 목적어로 그 통사적 지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 여부가 '짓-'의 타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수식어의 통사적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형태교체의 형태론적 조건 중 그 형태론적 제약이 매우 특수하여 일정하게 범주화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체의 환경이 되는 개별 형태소 자체에 그 교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먼저 특정한 용언 어간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들이 있다.

(7) 계사 '(-)이-'
가. 연결어미: |-어|→[-라], |-오뎌|→[-로뎌], |-다가|→[-라가], |-더든|→[-러든]
나. 전성어미: |-옴|→[-롬]
다. 선어말어미: |-오-|→[-로-], |-돗-|→[-롯-/-로-], |-더-|→[-러-]
라. 종결어미: |-다|→[-라]

(8) 동사 'ᄒᆞ-'
ᄒᆞ야, ᄒᆞ야셔, ᄒᆞ욤, ᄒᆞ요ᄃᆡ, ᄒᆞ야놀, ᄒᆞ요니, … cf. 爲ᄒᆞ여, ᄒᆞ여도, ᄒᆞ여사, 홈

(9) 동사 '오-'
오나다, 오나ᄂᆞ, 오나도(나+아도), 오나든, 오나놀, … cf. 오거든, 오거늘/놀

(7)의 계사 '(-)이-'는 'ㄹ' 두음을 갖는 형태들을 이형태들로 갖는 것이 특징인데, 그것이 'ㄷ>ㄹ'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ϕ→ㄹ'이 되는 경우들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Ⅳ-4.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8)의 동사 'ᄒᆞ-'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들과 통합될 때 항상 활음 'ㅣ'를 동반함이 특징이다. 이 때 활음 'ㅣ'가 동사 'ᄒᆞ-'의 고유 요소인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동사 'ᄒᆞ-'의 고유 요소라면 '타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Ⅱ-2.참조)에 의해 활음 'ㅣ'가 참여한 형태들은 어미의 이형태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사 'ᄒᆞ-'의 이러한 특성은 이로부터 발달된 용언형성접미사 '-ᄒᆞ-'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ᄒᆞ-'에 대해 李賢熙(1985)에서는 이것의 기저형을 /*히-/로 제시하고 이것의 활용을 '골히야', '골히욤' 등과 동궤(同軌)의 것으로 보아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자동적 교체라고 설명하였다.[207] 이것은 'ᄒᆞ-'가 보이는 특수한 활용의 근원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

207) 한편, 鄭光(1986)에서도 15세기 'ᄒᆞ-'의 기저형을 /*히-/로 상정하는 견해를 보였는데, 李賢熙(1985)와는 달리 'ᄒᆞ-'에 '-아/-어'가 연결될 때 삽입된 [j]가 15세기 'ᄒᆞ-'의 기저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즉, 15세기 이전 시대(구체적으로 전기중세국어 시대)의 모음체계에서 항구대립(恒久對立)을 이루었던 /ᆞ/와 /ㅏ/가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j]를 삽입시켰으며 이것이 15세기 국어에서 'ᄒᆞ

는 것이긴 하나 그 자체가 15세기의 공시적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먼저 'ᄒᆞ-'가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전혀 기저형 /*히-/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연결어미 {-고}가 통합된 경우 활용형은 결코 '*ᄒᆡ오'와 같은 어형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활음 'ㅣ' 뒤에서 일어나는 'ㄱ'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기저형 /*히-/가 자음 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히야', '*히욤'에서 소위 '/j/ interlude'에 의해 활음 'ㅣ'가 둘이 되고 그 중 앞의 것이 빠져 'ᄒᆞ야', 'ᄒᆞ욤'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시했던 'ᄀᆞ히야', 'ᄀᆞ히욤'과 같은 어형들만 보더라도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ᄀᆞ히-'와는 달리 '*히-'의 경우에는 왜 어간의 'ㅣ'가 탈락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15세기 공시적으로 기저형 /*히-/를 설정해 이로부터 다양한 활용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무리가 따름을 보여준다. 이것은 'ᄒᆞ-'의 경우 15세기 공시적으로는 어간이 'ᄒᆞ-'의 형태였으며 여기에 통합되는 활용어미들은 자음 어미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간 형태에 따른 활용 양상을 보였으나[208] 모음 어미의 경우에는 어간 형태가 '*히-'였던 시기의 활용 양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때 이해될 수 있다. 즉, 모음 어미의 경우에는 15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이형태들을 그 계열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5세기 공시적으로는 (8)에서와 같이 'ᄒᆞ-'와 통합되는 활용어미들의 특수한 이형태교체가 'ᄒᆞ-'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때 어미들에 나타나는 활음 'ㅣ'는 'ᄒᆞ-'의 고유 요소가 아닌 '*히-'에 의한 '이'모음순행동화의 결과로 얻어진 제3의 요소가 된다.

(9)의 동사 '오-'는 선어말어미 {-거-}와 이것이 참여한 어미 {-거X}와 통합될 때 이들 어미들의 이형태가 [-나-]와 [-나X]로도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동사 '오-'에는 [-거-]와 [-거X]의 이형태들이 통합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이것은 유추에 의한 평준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동사 '오-'가 본래 취했던 이형태 유형은 [-나-]와 [-

-'의 어간 모음으로 기저형에 정착된 것으로 논술하였다. 이 견해는 기저형 /*히-/의 형성에 대해 논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다만 [j]의 삽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08) 실제로 15세기에 'ᄒᆞ-'는 자음 어미 앞에서 [ᄒᆞ-], [ㅎ-], ϕ의 형태로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논의와는 별도로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李賢熙(1986)을 참조할 수 있다.

나X}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형태들이 동사 '오-'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었음은 이형태교체의 매우 특수한 형태론적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특정한 선어말어미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들을 찾아볼 수 있다.

(10) 가. 선어말어미 {-으시-} : ᄒᆞ샴(ᄒᆞ- + -시- + -암), ᄒᆞ샤ᄃᆡ(ᄒᆞ + -시- + -아ᄃᆡ), …
　　나. 선어말어미 {-더-} :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로 [-라]를 가짐.
　　다. 선어말어미 {-오-} :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로 [-라]를 가짐.
　　라. 선어말어미 {-니-} :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로 [-라]를 가짐.
　　마. 선어말어미 {-리-} :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로 [-라]를 가짐.
　　　　선어말어미 {-더-}의 이형태로 [-러-]를 가짐.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로 [-로-]를 가짐.

(10)의 선어말어미들은 그 뒤에 통합되는 형태소들이 특별한 이형태를 갖도록 하는데, 그 교체 조건의 일반성이 포착되지 않는 예들이다. 즉 개별 선어말어미 자체에 교체 조건이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10-라)와 (10-마)는 선어말어미 {-니-}와 {-리-}의 기원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두 형태소는 모두 동명사형어미에 계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선어말어미 뒤에서 보이는 이형태교체 양상이 계사 뒤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참조).

한편, (10-가)의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 보이는 어미들의 이형태교체는 15세기 국어 형태론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이에 대해서는 Ⅳ-3.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2.1.3. 통사론적 조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조건 중에는 문장 안에서 주어지는 통사론적 제약이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법형태소와 결합되는 선행 요소가 서술어에 대해 의미적으로 주어가 되는가 목적어가 되는가의 여부, 또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의문사의 유무 여부 등이 바로 그러한 통사론적 제약에 해당한다.

[1] 문장 성분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른바 주어적 속격과 목적어적 속격이라는 것은 속격 표지를 취한 선행 체언이 내포문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대체로 전자에서 속격조사의 형태가 【-의, -ᄋᆡ, -ㅣ】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후자에서는 【-ㅅ】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209)

(1) 가. 世尊하 내 니ᄅᆞ논 이 陀羅尼呪를 드르쇼셔 ᄒᆞ시고 〈석상 21:55b〉
내 너의 깃구믈 돕노니 〈석상 11:9b-10a〉
ᄒᆞᄅᆞ 二十里ᄅᆞᆯ 녀시ᄂᆞ니 轉輪王ᄋᆡ 녀샤미 ᄀᆞᄐᆞ시니라 〈석상 6:23a〉
이 ᄢᅴ 諸子ㅣ 아비 주구믈 듣고 〈법화 5:158a〉
나. 鼠 가로ᄆᆞᆯ 漢水ㅅ 西ㅅ 녀글 허리노라 〈두시-초 7:13a〉

---

209) 최근 황국정(2001)에서는 15세기 이전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속격조사 '-ᅙ'(-의)와 '-ᅩ'(-ㅅ)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체 양상을 살펴 다음과 같은 속격 조사의 교체 원리를 제시하였다.
(가) 1)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지정어로 실현되면 → ᅙ
2)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보충어로 실현되면 → ᅩ
(나) 1)소유-피소유의 의미적 관계가 실현되면 → ᅙ
2)소유-피소유를 제외한 의미로 실현되면 → ᅩ
이러한 원리를 15세기 국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지정어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격조사의 형태가 '-ㅅ'로 나타나 (가-1)의 교체 원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釋迦ㅅ 本來 세샨 誓願에 ᄀᆞᆮᄒᆞ샤미라 <법화 1:225a>
이것은 통사적 관계보다는 통합되는 선행 명사의 어휘적 특성, 즉 '釋迦'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라는 점 때문에 속격조사가 '-ㅅ' 형태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일 원문을 언해한 서로 다른 두 문헌에서 유정의 존칭 체언에 주어적 속격이 통합되었을 때 그 형태가 '-ᄋᆡ'와 '-ㅅ' 둘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 諸佛如來ᄋᆡ 다ᄆᆞᆫ 菩薩ᄲᅮᆫ 敎化ᄒᆞ시논 이ᄅᆞᆯ 모ᄅᆞ면 <석상 13:61a>
(라) 諸佛如來ㅅ 오직 菩薩 敎化ᄒᆞ시논 이ᄅᆞᆯ 듣디 몯ᄒᆞ며 아디 몯ᄒᆞ면(不聞不知諸佛如來ㅅ但敎化菩薩事ᄒᆞ면) <법화 1:190b>
cf. 諸佛如來 다ᄆᆞᆫ 菩薩 敎化ᄒᆞ시논 이ᄅᆞᆯ 듣디 몯ᄒᆞ며 아디 몯ᄒᆞ면 <월석 11:127a>
이 역시 (1-가)의 교체 원리에 따르자면 (다)와 같이 '-ᄋᆡ'만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라)와 같이 '-ㅅ'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15세기에는 속격조사의 교체가 정확히 (가)와 (나)의 교체 원리에 입각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諸佛如來'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ㅅ' 형태의 속격조사로도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의, -ᄋᆡ, -ㅣ】와 【-ㅅ】 두 유형의 속격조사의 교체는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이 함께 관여하는 것으로 이 중 형태론적 조건이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교체와는 달리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교체는 교체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眞實ㅅ 닷고ᄆᆞᆯ 欲 여희요ᄆᆞ로 本 사모ᄆᆞᆯ 爲ᄒᆞ시니 〈능엄 6:88b〉

(1-가)에서는 '나', '너', '轉輪王', '아비'와 같은 체언들이 내포문의 주어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들 뒤에서 속격조사는 각각 【-ㅣ】, 【-의】, 【-ᄋᆡ】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반면, (1-나)에서는 '봄', '眞實'과 같은 체언이 내포문의 목적어가 되는데, 이들 뒤에서는 속격조사의 형태가 【-ㅅ】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형태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속격조사가 통합된 선행 체언이 내포문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느냐에 따라 속격조사의 이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장 성분이라는 통사론적 지위가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된다.

[2] 의문사의 유무 여부가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의문문을 형성하는 보조사 {-고/-가}와 종결어미 {-잇고/-잇가}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와 호응하는 의문사의 유무 여부에 따라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두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고'계와 '-가'계 두 부류로 나뉘는데, 각각 '-고'계에는 【-고, -구, -오】와 【-잇고】의 이형태가, '-가'계에는 【-가, -아】와 【-잇가】의 이형태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이형태들은 그 문장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떤 부류의 이형태가 사용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2-가)와 같이 '-고'계가, 없는 경우에는 (2-나)와 같이 '-가'계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가. 이ᄂᆞᆫ 어ᄢᅥᆫ 사ᄅᆞ미 므슷 일오 〈월석 22:27a〉
어누 나라해 가샤 나시리잇고 〈월석 2:11b〉
나. 이ᄂᆞᆫ 賞가 罰아(是ᄂᆞᆫ 賞耶아 罰耶아) 〈몽법 53b〉
夫人이 ᄯᅩ 무로ᄃᆡ 이어긔 갓가ᄫᆡ 사ᄅᆞᄆᆡ 지비 잇ᄂᆞ니잇가 〈월석 8:93b〉

이것은 다시 말해 주어진 문장이 설명의문문인지 선택의문문인지에 따라 보조사 {-고/-가}와 종결어미 {-잇고/-잇가}의 이형태가 결정되는 것인데, 의문사의 유무라는 문장 안에서의 통사론적 제약이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한 경우가 된다.

2.2. 문법형태소에 따른 이형태교체의 조건

2.2.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조건들 중 음운론적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의 경우에는 몇몇 형태소에 국한되는 특수한 조건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음운론적 조건은 이형태 계열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계열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1. 격조사

격조사들의 이형태들을 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격조사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 ↙ ↘ 모음 :1차 조건①
AM AM´
| | | ↳ AM´① :2차 조건①(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 | |
AM② ↲ | ↳ AM´② :2차 조건②(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
AM③ ↲ :2차 조건③(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 여부)
나.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음성모음 ↙ ↘ 양성모음 :1차 조건②
AM⊖ AM⊕
AM⊖①↲ :2차 조건①(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1-가)에서 이형태교체의 1차 조건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른 것이다. 이 때 선행 요소가 활음 'ㅣ'로 끝나는 하향이중모음일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활음 'ㅣ'는 모음의 부류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210] 우리는 이 1차 조건을 '1차 조건①'로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2차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①)은 선행 요소가 모음 '이'나 활음 'ㅣ'로 끝나는지의 여부, 두 번째 조건(②)은 모음조화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세 번째 조건(③)은 선행 요소가 'ㄹ'로 끝나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들을 각각 '2차 조건①', '2차 조건②', '2차 조건③'으로 부르기로 한다.

(1-나)에서 이형태교체의 1차 조건은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즉 선행 요소가 양성모음을 갖느냐 음성모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선행 요소의 모음이 중성모음 '이'인 경우에는 양성모음형의 이형태가 선택되기도 하고 음성모음형의 이형태가 선택되기도 하는데, 음성모음형의 이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1차 조건을 '1차 조건②'로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2차 조건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지의 여부로 이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2차 조건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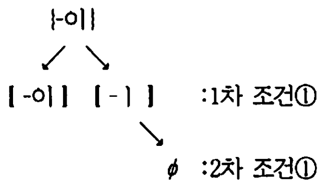
1차 조건과 2차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두 유형의 교체 조건을 가지고 15세기 국어의 격조사가 보이는 이형태교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이형태교체 모습이 포착된다.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①

이 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격조사들로는 {-이}, {-이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이}를 가지고 두 조건에 의해 이형태교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이} : -이, -ㅣ, ϕ

210) 참고로 현대국어의 활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대해 신지영(2000:115)는 '일요일'과 같은 단어에서 첫 음절의 'ㄹ'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서 탄설음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말 화자들에게 활음은 모음류로 인식된다고 설명하였다.



격조사 {-이}의 세 이형태가 1차적 조건과 2차적 조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2)에서와 같이 두 단계의 교체 과정을 상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기존에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활음 'ㅣ'인지 아니면 모음인지, 모음 중에서도 특히 '이' 모음인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하여 이형태교체를 설명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의 이형태교체를 (2)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격조사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교체 환경에 대한 고려, 즉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만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보편성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2차적 조건에 의해 실현되는 영형태(∅)가 활음 'ㅣ'가 쓰일 자리에 나타나게 된 이형태라고 봄으로써 'ㅣ(j)>∅'라는 영형태의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211]

참고로 이러한 제1유형의 교체는 흔히 격조사 {-이}와 동일한 이형태교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는 계사 {(-)이-}의 이형태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212]

211) {-이}의 이형태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 경우에도 영형태가 아닌 활음인 [-ㅣ]로 실현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성규(1996:35)에서는 '이'나 'ㅣ'로 끝나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음절이 평성의 성조를 가진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결합해 상성으로 변화하므로 이 때는 반모음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선행 요소의 마지막 음절이 거성일 경우에는 성조의 변동이 없어 모음 탈락이 일어났는지 반모음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조의 변동을 기준으로 이형태 [-ㅣ]의 존재를 규정한 것으로 분절음과 성조가 서로 독립적인 층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성조의 변동이 이형태 [-ㅣ]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212) 한편, 격조사 {-이}와는 달리 계사 {(-)이-}는 어미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ㄱ'탈락 과정을 겪음으로써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일 경우에 영형태가 아닌 활음을 그 내용으로 갖는 이형태 [(-)ㅣ-]로 실현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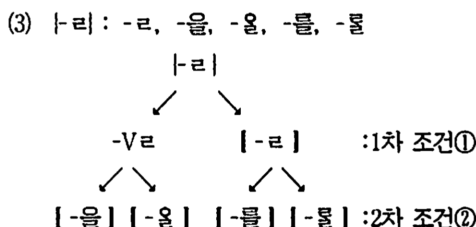
(가) 眞과 俗괘 어울며 智와 悲왜 ᄒᆞᆫ **가지에** ᄒᆞᆯᄊᆡ 이 일후미 廻向이며 <월석 2:61a>
노ᄑᆞᆫ 座ㅅ東녀긔 세 肘 밧맛감 牛糞汁으로 龍王ᄋᆞᆯ ᄒᆞᆫ 모미오 세 **머리에** 그리고 龍王ㅅ 左右에 種種앳 龍ᄃᆞᆯᄒᆞᆯ 圍繞케 그리고 <월석 10:118a-b>

(나) 根은 불휘오 莖ᄋᆞᆫ **줄기오** 枝ᄂᆞᆫ **가지오** 葉은 니피라 <월석 13:46a>

(가)의 '가지에'와 '머리에'는 그 형태론적 구성이 각각 '가지(種類) + -ㅣ-(계사) + -게(어미)'와 '머리(首數) + -ㅣ-(계사) + -게(어미)'로 파악된다. 특히 '머리에'가 이와 같이 파악되어야 함은 '머리에 그리

[2] 제2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이 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격조사들로는 {-ㄹ}, {-라와}, {-로}, {-록}, {-론}, {-롯}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대격조사 {-ㄹ}를 가지고 두 조건에 의해 이형태교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격조사 {-ㄹ}는 1차적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활음 'ㅣ' 포함)인지에 의해 매개모음을 필요로 하는 형태와 필요로 하지 않은 형태로 나뉜다. 이 때 매개모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는 그대로 이형태 [-ㄹ]로 실현되지만 매개모음을 필요로 하는 형태는[213] 음성형의 매개모음을 취할 것인지 양성형의 매개모음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 조건은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에 따른 것이 되는데 이것이 2차적 조건이 된다. 2차적 조건에 의해 매개모음을 필요로 하는 형태는 음성형의 매개모음을 가진 [-을]과 양성형의 매개모음을 가진 [-올]로 실현된다.

고'와 대구(對句)를 이루는 '囫纔게 그리고'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나)의 '즐기오'와 '가지오'는 모두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 모음인 '즐기'와 '가지'에 계사와 연결어미 {-고}가 차례로 통합된 것이다.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계사 뒤에서의 'ㄱ'탈락 현상이 관찰되는데, 'ㄱ'탈락의 환경이 'ㄹ'과 활음 'ㅣ' 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때 계사의 이형태는 [(-)ㅣ-]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계사의 이형태로서 영형태를 상정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격조사 {-이}와 계사 {(-)이-}가 동일한 이형태교체를 보인다고 한다면 비록 격조사 {-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지만 계사 {(-)이-}에서의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격조사 {-이}에서도 영형태가 이형태가 된다는 생각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3) 이 때의 형태는 아직 모음형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중간적 위치의 존재로서 형태소의 미결정체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매개모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형태 【-ㄹ】는 모음조화의 지배를 받은 매개모음형 이형태 【-을】과 【-ᄋᆞᆯ】에 영향을 받아 또다른 유형의 이형태인 【-를】과 【-ᄅᆞᆯ】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14] 즉, '를/ᄅᆞᆯ=ㄹ+(으/ᄋᆞ)ㄹ'이라는 대격조사에서 보이는 중가(重加) 현상은 대격조사의 이형태들이 모음조화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체계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중가형 【-를】과 【-ᄅᆞᆯ】의 형성 역시 모음조화의 적용이라는 2차적 조건②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215]

한편, 대격조사 {-ㄹ}를 제외한 나머지 {-라와}, {-로}, {-록}, {-론}, {-롯} 등은 '블라와', '돌로', '날록' 등의 예에서처럼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 모음의 경우처럼 'V'가 없는 형태를 취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ㄹ-ㄹ' 연쇄의 경우에는 자음 간의 충돌을 보이지 않고 겹자음화되는 음운론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격조사 {-ㄹ}의 경우에는 하나의 분절음만으로 이루어진 '-ㄹ'로는 안정된 음절구조를 이루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Vㄹ'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3] 제3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③

이 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격조사로는 공동격조사 {-과}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 이형태교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과} : -과, -와$_1$, -와$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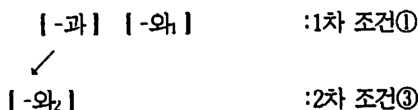
{-과}

↙ ↘

---

214) 사실상 15세기에 【-를】과 【-ᄅᆞᆯ】의 경우 모음조화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조(世祖) 시대, 즉 1455년 이후의 문헌에서부터는 두 이형태 중 주로 【-ᄅᆞᆯ】만이 사용되고 있어 대격조사가 모음조화에 참여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소(1998)에서는 모음조화가 어디까지나 표기법일 뿐 음운현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음조화가 15세기 이전 시기의 국어 모음체계와의 합치(合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15세기에는 이미 와해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초기 문헌들에서 보이는 비교적 철저한 모음조화 반영 표기가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음운현상이 아닌 표기법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15) 이렇게 볼 때 대격조사의 중가 현상은 음운론적 동인에 의한 형태론적 작용이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보조사 {-ㄴ}의 중가 현상에 대해서도 평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격조사 {-과}의 세 이형태 중 【-와$_1$】과 【-와$_2$】를 1차적 조건과 2차적 조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4)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이형태로 상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기존에 이를 하나의 이형태 【-와】로 간주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활음 'ㅣ' 포함)인지를 따지는 1차적 조건에 의해 【-과】와 【-와$_1$】의 두 이형태로 나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 중에서도 'ㄹ'인 경우에는 여기에 'ㄱ'탈락이라는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과정이 적용되어 【-와$_2$】라는 또다른 유형의 이형태가 실현된다.

기존처럼 이형태를 【-와$_1$】과 【-와$_2$】가 아닌 【-와】 하나로만 볼 경우에는 활음 'ㅣ'를 포함한 모든 모음과 자음 'ㄹ'이 함께 교체의 조건으로 묶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15세기 당시 존재했던 'ㄱ'탈락이라는 공시적 음운현상을 고려할 때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ㄱ'탈락의 환경이 형태소 경계를 조건으로 활음 'ㅣ'와 자음 'ㄹ'임을 볼 때, 이 두 분절음으로 끝나는 요소 뒤에 공동격조사 {-과}가 통합되면 'ㄱ'탈락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216) 그러나 실제의 교체에서 'ㄱ'탈락이 일어난 경우는 자음 'ㄹ' 뒤만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1차 조건에 의해 【-과】와 【-와$_1$】이 선택될 때 활음 'ㅣ'를 마지막 분절음으로 갖는 경우에는 모음과 함께 처음부터 【-와$_1$】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15세기에 활음 'ㅣ'와 자음 'ㄹ' 뒤에서 실현된 공동격조사 {-과}의 이형태가 각각 【-와$_1$】, 【-와$_2$】로 달랐다는 사실은 16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ㄱ'탈락 현상의 소멸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ㄱ'탈락 현상의 소멸은 'ㄱ'탈락이 일어나던 환경에서 'ㄱ'를 복구시켜 놓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공동격조사 {-과}의 경우 15세기에는 '실와(絲)', '믈와(水)' 등과 같이 'ㄹ' 뒤에서 '-와'의 형태로 나타났던 어형들이 16세기 후반에는 '실과', '믈과'로

216) 다음의 두 예문은 15세기 국어에서 격조사 {-과}의 이형태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 눈과 귀와 고콰 혀와 몸과 ᄠᅳᆮ과ᄅᆞᆯ 六根이라 ᄒᆞᄂᆞ니 <월석 2:15a>

(나) ᄒᆡ와 ᄃᆞᆯ와 별왜 다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월석 2:15a-b>

나타나고 있어 이형태교체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217] 그러나 15세기에 '벼개와(枕)', '녜와(昔)' 등과 같이 활음 'ㅣ' 뒤에서 '-와'의 형태로 나타났던 어형들은 16세기 후반에도 동일하게 '벼개와', '녜와'로 나타나고 있어 'ㄱ'탈락 현상의 소멸과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218] 이것은 15세기에 'ㄹ' 뒤와 활음 'ㅣ' 뒤에 나타나는 공동격조사 {-과}의 이형태가 서로 달랐으며 활음 'ㅣ' 뒤에 나타나는 이형태는 모음 뒤에 나타나는 이형태와 동일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활음 'ㅣ'를 포함한 모든 모음과 자음 'ㄹ'이 함께 동일한 이형태 【-와】를 취한다고 보는 것은 15세기 당시의 공시적 음운현상이었던 'ㄱ'탈락 현상의 실체를 모호하게 하고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형태교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4] 제4유형: 1차 조건②

이 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격조사로는 특이처격조사 {-의}와 함께 속격조사 {-의/-ㅅ}, 그리고 속격조사가 참여해 형성된 여격조사 {-의그에/-ㅅ그에}, {-의손ᄃᆡ} 중 '-의'계 조사들이 있다. 이 중 특이처격조사 {-의}를 가지고 이것이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에 의해 이형태교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의} : -의, -ᄋᆡ

{-의}
↙ ↘
【-의】 【-ᄋᆡ】 :1차 조건②

217) (가) **실와** 삼괘 기베 섯근 ᄃᆞᆺᄒᆞ도다(絲麻雜羅紈) <두시-초 16:69a>
스승 어믜 ᄀᆞᄅᆞ치믈 유슌히 드러 조ᄎᆞ며 삼과 뚝삼을 잡들며 **실과** 고티를 다ᄉᆞ리며 <소언 1:7a>
(나) 내 衰老ᄒᆞ야 **눉믈와** 춤괘 煩多호라(我衰涕唾煩) <두시-초 8:6b>
祭祀에 보ᅀᆞᆯ펴 술와 **ᄎᆞᆫ믈과** 대그릇과 나모그릇과 팀치와 저술 드려 <소언 1:7a>

218) (가) 빗 가온ᄃᆡ셔 病을 어더 니블와 **벼개와**ᄅᆞᆯ 옮겨 오고 곬 이페셔 보ᄆᆞᆯ 디내요니 <두시-초 3:38a>
옷 닙고 **벼개와** 삳ᄋᆞᆯ 걷으며 방이며 텽이며 믿 ᄠᅳᆯ흘 믈 ᄡᅳ리고 ᄡᅳ러 <소언 2:5a>
(나) 軍容이 **녜와** 다ᄅᆞ샤 아ᅀᆞᆸ고 믈러가니 나ᅀᅡ오던덴 목숨 기트리잇가 <용가 7:14a(51장)>
ᄒᆞᆫ갓 **녜와** 이제와 맛당홈이 달름으로ᄡᅥ 行티 아니ᄒᆞᄂᆞ니 <소언 書題:2b>

여기서 1차 조건②는 선행 요소의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른 것인데, 선행 요소의 모음이 중성모음인 경우에는 두 이형태 중 어떤 이형태로 실현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219)

실제로 15세기 문헌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 특이처격조사 {-의}는 주로 이형태 【-의】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지븨(家)', '미틔(底)', '이싀(苔)'와 같은 예들은 선행 요소의 모음이 중성모음일 때 특이처격조사 {-의}는 선행 요소가 음성모음인 경우처럼 그 이형태가 {-의}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속격조사 {-의/-ㅅ} 중 '-의'계의 경우에도 선행 요소의 모음이 중성모음일 때 어떠한 이형태로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6) 가. ᄆᆞᆯᄀᆞᆫ 서리ᄋᆡ 肅殺ㅅ氣運을 시름ᄒᆞ리아(淸霜殺氣得憂虞) 〈두시-초 15:15a-b〉
枝ᄂᆞᆫ 나못가지ᄋᆡ 어긔여 섯거 ᄒᆞᆫ가지 아뇸 ᄀᆞᆮᄒᆞᆯ씨라(枝ᄂᆞᆫ 如樹枝의 差互不一ᄒᆞᆯ시라) 〈능엄 10:27b〉

나. 고기 싯고 갈ᄒᆞᆯ ᄀᆞ니 고기의 누니 븕도다(洗魚磨刀魚眼紅) 〈두시-초 16:60b〉
甘蔗 蒲萄ㅣ 비의 저쥬매 豐足디 아니ᄒᆞ리 업스며(甘蔗蒲萄ㅣ 雨之所潤에 無不豐足ᄒᆞ며) 〈법화 3:36a〉
ᄡᅡᆺ 그지의 미추미며 方位의 ᄀᆞᆮ호미니(疆畿所及이며 方位所同이니) 〈법화 3:156a-b〉

다. ᄒᆞ나ᄒᆞᆫ 艱難ᄒᆞ니ᄋᆡ 因 심구믈 爲ᄒᆞ니(一은 爲貧者ᄋᆡ 植因이니) 〈능엄 1:34b〉
이 艱難ᄒᆞ니의 福과 智와 어려이 뫼홈 ᄀᆞᆮ호ᄆᆞᆯ 가ᄌᆞᆯ비시니라(猶此貧窮의 難集福智ᄒᆞ시니라) 〈원각 하3-1:43a〉
增上慢ᄋᆞᆯ 머그니ᄃᆞᆯ히 이ᄋᆡ 업시워 보차미 ᄃᆞ외야도(懷於增上慢ᄒᆞ니ᄃᆞᆯ히 爲此所輕惱ᄒᆞ야도) 〈법화 5:190b〉
이 여러 가짓 모딘 이ᄅᆞᆯ 다 ᄎᆞᄆᆞ며 이의 가ᄇᆡ야이 너겨 닐오ᄃᆡ(悉忍是諸惡ᄒᆞ며 爲斯所輕言호ᄃᆡ) 〈법화 4:196b〉

(6-가)는 선행 요소가 중성모음 '이'를 가진 경우 속격조사가 【-ᄋᆡ】로 실현된 경우이고 (6-나)는 【-의】로 실현된 경우이다. 실제의 쓰임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경에서 【-ᄋᆡ】가 이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보다는 【-의】가 이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219) 선행 요소의 모음에 활음 'ㅣ'가 있는 경우에는 음절 주음(主音)의 음양성에 따라 통합되는 형태소의 이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휘의 통합 예를 15세기 문헌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 있다. (6-나)의 예들 외에도 '져비의(燕)', '아비의(父)', '하야로비의(鷺)', '줄기의(莖)', '터리의(毛)' 등과 같은 다양한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6-다)는 중성모음 '이'를 갖는 동일한 요소에 통합된 속격조사가 서로 다른 이형태들로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용례들 외에도 '우리ᄋᆡ : 우리의(我)', '소리ᄋᆡ : 소리의(聲)', '피ᄋᆡ : 피의(血)' 등과 같은 예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중성모음을 가진 선행 요소 뒤에는 양성모음형의 이형태와 음성모음형의 이형태 중 어느 것이라도 올 수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지배하는 어떤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음성모음형 이형태인 【-의】가 보다 보편적이었다는 경향성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6)과는 달리 중성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에 속격조사가 통합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 '이'가 탈락하는 특이한 양상을 볼 수 있다.[220]

(7)

〈단독형〉	〈속격〉
아비(父)	아ᄇᆡ
어미(母)	어ᄆᆡ
곳고리(鶯)	곳고ᄅᆡ
가야미(蟻)	가야ᄆᆡ
져비(燕)	져ᄇᆡ
고기(魚)	고ᄀᆡ
아기(兒)	아ᄀᆡ
가히(犬)	가ᄒᆡ
올히(鴨)	올ᄒᆡ

220) 安秉禧(1967 · 1968)에서는 단순한 속격형의 경우에는 마지막 분절음 '이'가 탈락하지만 주어적 속격형의 경우에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아비(父)'와 '가히(犬)'의 예를 가지고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아ᄇᆡ 지븨 마초아 다ᄃᆞ라(遇到父舍ᄒᆞ야) <법화 2:191a>
窮子ㅣ 아비의 豪貴尊嚴호ᄆᆞᆯ 보고 (窮子ㅣ 見父의 豪貴尊嚴ᄒᆞ고) <법화 2:239a>
(나) ᄃᆞᆯᄀᆡ 戒와 가ᄒᆡ 戒ᄅᆞᆯ 디녀 뎌의 아ᄅᆡ 머군 것 머굼 ᄀᆞ티 ᄒᆞ니라 <능엄 8:91a>
한 가히의 주검 ᄃᆞ톼 자보매 다ᄅᆞ디 아니ᄒᆞ니라(無異群狗의 競摶死屍也ᄒᆞ니라) <법화 2:113b>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용례들을 보면 이것이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미나리 낫ᄂᆞᆫ 덧 흘ᄀᆞᆫ 져비의 부리예 조차 오고(芹泥隨燕觜) <두시-초 3:27b>
이ᄢᅴ 諸子ㅣ 아비 주구믈 듣고(是時諸子ㅣ 聞父의 背喪ᄒᆞ고) <법화 5:158a>

이(人)　　　　　　의/인　cf. 늘그니(老人) → 늘그늬, 病ᄒᆞ니(病者) → 病ᄒᆞ늬

이 때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 '이'가 탈락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15세기 당시 하향이중모음이었을 속격조사 【-의】와 【-ᄋᆡ】는 음절 주음이 각각 [으]와 [ᄋᆞ]로 모음 [이]와 충돌할 경우 무표모음인 [으]와 [ᄋᆞ]가 탈락되고 [이]가 남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음운론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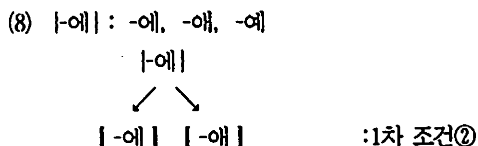
이에 대해 각 어휘들에 '압', '엄', '곳골', '가얌', '곡', '악', '좡', '욿' 등과 같이 모음 '이'가 없는 형태들, 즉 접미사 '-이'가 결합되기 이전의 어근 형태들이 속격조사와 통합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호격조사가 통합된 경우에도 '아바', '아가', '올하'와 같이 모음 '이'가 없는 형태들이 사용되었음을 볼 때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221)]

그러나 곡용이라는 공시적 현상에서 굳이 속격과 호격, 그리고 일부 처격에서만 접미사 '-이'가 결합되기 이전의 어근 형태들이 통합된다는 사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7)의 마지막 예로 제시된 의존명사 '이'의 속격형에서도 '이'가 탈락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라는 관계로 '이'의 탈락이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222)]

[5] 제5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①

이 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격조사로는 일반처격조사 {-에}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 어떠한 양상의 이형태교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에} : -에, -애, -예



---

221) 명사 '가지(枝)'에 처격조사 {-에}가 통합된 '가재'의 경우에도 '갖+-애'의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중성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에 속격·처격·호격조사가 통합될 때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 '이'가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후일 세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
【-예】　　　　　　　　:2차 조건①

선행 요소의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른 1차 조건②에 의해 먼저 음성모음형 이형태 【-에】와 양성모음형 이형태 【-애】가 정해지고 2차적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인 경우에는 【-에】에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난 【-예】라는 또다른 유형의 이형태가 실현된다.

일반처격조사 {-에}의 이형태교체를 이와 같이 2단계로 이해하면 또하나의 가능한 이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의 부재를 이형태교체 과정 속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인 경우에는 일단 음성모음형 이형태 【-에】를 선택하고 여기에 '이'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나 실제로는 【-예】가 이형태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특이처격조사나 속격조사에서 중성모음의 경우 음성모음형의 이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강했던 사실과도 상통한다.

한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중성모음 '이'로 끝나는 명사 '가지(枝)'에 일반처격조사 {-에}가 통합되면 '가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용례는 『龍飛御天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보다 후에 간행된 『杜詩諺解』에서는 '가지예'로 나타남을 볼 때, '가재'의 경우는 고형(古形)의 명사 '갖(枝)'에 일반처격조사 {-에}가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2. 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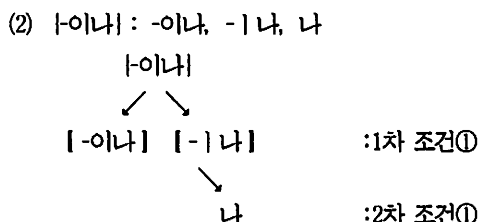
보조사의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

(1) 보조사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 ↙ ↘ 모음　　:1차 조건①
　　　AM　　AM´
　　　｜｜　　｜↳ AM´①　:2차 조건①(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AM② ↲ ｜　　↳ AM´②　:2차 조건②(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AM③ ↲　　　　　:2차 조건③(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 여부)

이는 격조사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가)와 동일한 것으로 이에 의해 15세기 국어 보조사의 이형태교체 조건을 음운론적 관점에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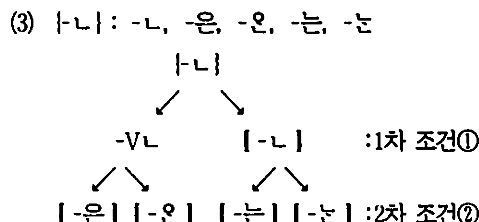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①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돈}의 이형태교체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데, 이것은 격조사 {-이}가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실현 양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제2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이러한 이형태교체의 실현 양상을 보이는 보조사로는 {-ㄴ}과 {-란}이 있는데, 이것은 격조사 {-ㄹ}가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실현 양상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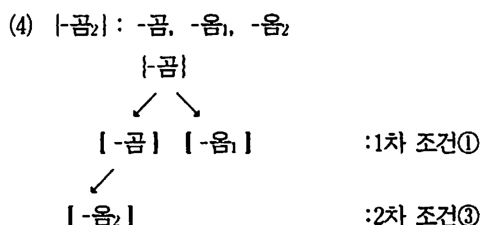


한편, 보조사 {-란}의 경우에는 'ᄲᆞᆯ란'과 같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 모음의 경우처럼 'V'가 없는 형태를 취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격조사 {-라와}, {-로}, {-록}, {-론}, {-롯} 등에서 보이는 양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보조사 {-ㄴ}의 경우에는 대격조사 {-ㄹ}와 동일하게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인 경우 처음부터 '-V

ㄹ'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음절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3] 제3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③

보조사 {-곰₂}, {-곳}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으로 이는 격조사 {-과}의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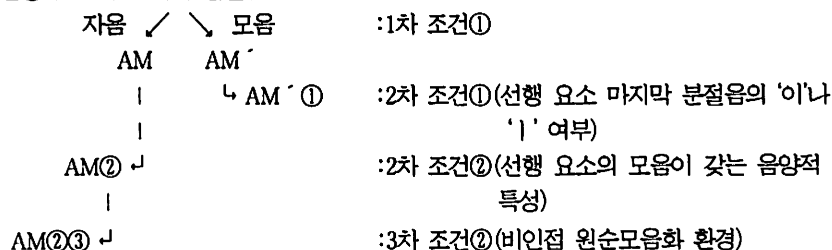


2.2.3. 종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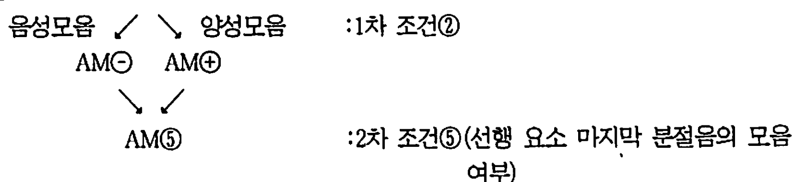
종결어미의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

(1) 종결어미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나.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나머지 ↙ ↘ 'ㄹ'나 'ㅣ' :1차 조건③
ΛM AM´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①

종결어미 {-이}에서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가 1차적 조건이 되고, 모음인 경우 다시 '이'모음인지가 2차적 조건이 된다.

(2) {-이} : (-이), -ㅣ, ϕ
{-이}
↙ ↘
([-이]) [-ㅣ] :1차 조건①
↘
ϕ :2차 조건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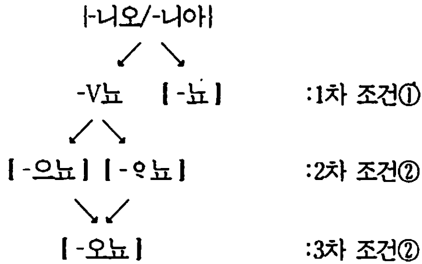
[2] 제2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종결어미 {-ㄴ고/-ㄴ가}, {-ㄴ다}, {-ㄴ뎌}, {-니오/-니아}, {-ㄹ고/-ㄹ가}, {-ㄹ다}, {-ㄹ셔}, {-ㄹ쎼라}, {-라}, {-리오/-리아} 등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의 특성과 선행 요소와의 모음조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개입되어 있다.

(3) {-ㄴ다} : -ㄴ다, -은다, -ᄋᆞᆫ다
{-ㄴ다}
↙ ↘
-Vㄴ [-ㄴ다] :1차 조건①
↙ ↘
[-은다] [-ᄋᆞᆫ다] :2차 조건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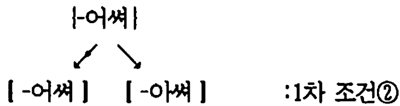
[3] 제3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②

종결어미 {-니오/-니아}의 이형태교체에서 보이는 유형으로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3차 조건②'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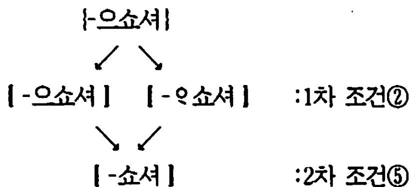
[4] 제4유형: 1차 조건②

모음조화가 이형태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종결어미 {-어쎠}, {-에라}가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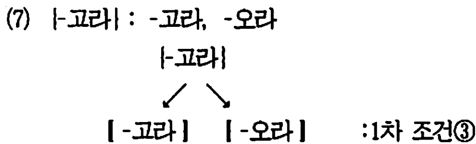
[5] 제5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⑤

종결어미 {-으쇼셔}는 본래부터 첫 음절에 모음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 매개모음이 첨가되는 다른 이형태교체와는 달리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첫 음절의 모음을 탈락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6] 제6유형: 1차 조건③

{-거지라}, {-거지이다}, {-고라}와 같은 종결어미들의 이형태교체에서 관찰되는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으로 이 역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에 의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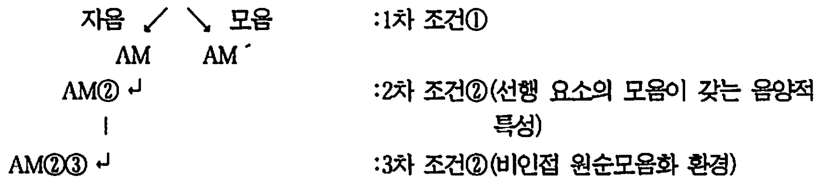

(7) {-고라} : -고라, -오라
{-고라}
↙ ↘
[-고라] [-오라] :1차 조건③

2.2.4. 연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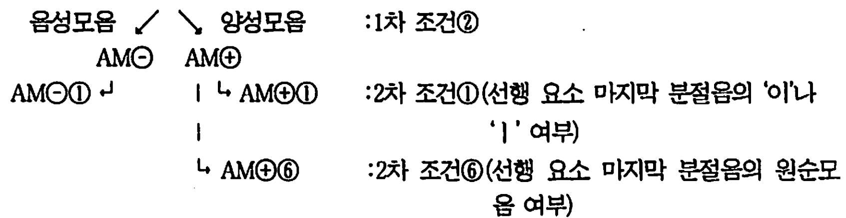
연결어미의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

(1) 연결어미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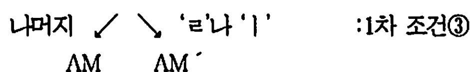
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 ↙ ↘ 모음 :1차 조건①
AM AM´
AM② ↲ :2차 조건②(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AM②③ ↲ :3차 조건②(비인접 원순모음화 환경)

나.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음성모음 ↙ ↘ 양성모음 :1차 조건②
AM⊖ AM⊕
AM⊖① ↲ ↳ AM⊕① :2차 조건①(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 AM⊕⑥ :2차 조건⑥(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원순모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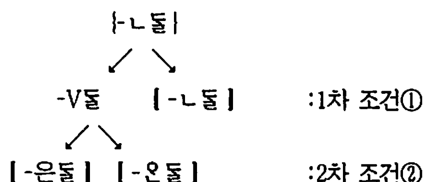
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나머지 ↙ ↘ 'ㄹ'나 'ㅣ' :1차 조건③
AM AM´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대부분의 {-ㄴX}계와 {-ㄹX}계 연결어미들, 그리고 {-나$_1$}, {-나$_2$}, {-나$_3$}, {-니$_2$}, {-라$_1$}, {-라$_2$}, {-란ᄃᆡ}, {-란ᄃᆡ만뎡}, {-며}, {-면} 등과 같은 연결어미들이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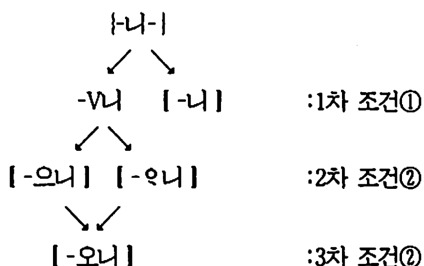
(2) {-ㄴᄃᆞᆯ}: -ㄴᄃᆞᆯ, -은ᄃᆞᆯ, -ᄋᆞᆫᄃᆞᆯ



[2] 제2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②

이러한 유형의 이형태교체는 연결어미 {-니$_1$}의 이형태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니$_1$}: -니, -으니, -ᄋᆞ니, -오니



[3] 제3유형: 1차 조건②

연결어미 {-ᄃᆞ시}와 {-ᄃᆞᆯ}이 본래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에 의해 교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5세기에는 이미 이들 형태소들이 이러한 교체의 엄밀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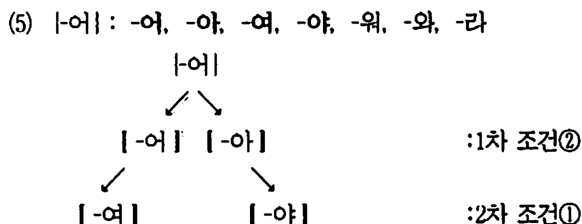
(4) {-ᄃᆞ시}: -ᄃᆞ시, -드시, -더시, -디시, -ᄃᆞᆺ, -듯, -덧



[4] 제4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①

연결어미 {-어}, {-엄직}, {-오려} 등이나 {-거늘}, {-거든} 등과 같이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거-}가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연결어미들의 일부 이형태들이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을 보인다.

(5)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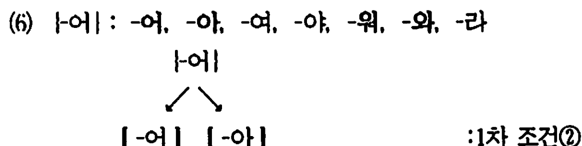


[5] 제5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⑥

연결어미 {-어}와 {-엄직}은 '2차 조건①'이 관여한 제4유형의 이형태교체를 보이지만 동시에 '2차 조건⑥'이 관여한 이형태교체의 양상도 보인다. 두 형태소의 이형태들 중 [-워]/[-와]와 [-왐직]이 '2차 조건⑥'에 의해 나타나는 이형태인데, '두워', 'ᄃᆞ토와', '보왐직'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경우에는 어간 모음이 원순모음일 때 두 형태소의 제1음절 모음 앞에 활음 'w'가 첨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엄직}의 경우 또 하나의 가능한 이형태로서 음성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웜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문헌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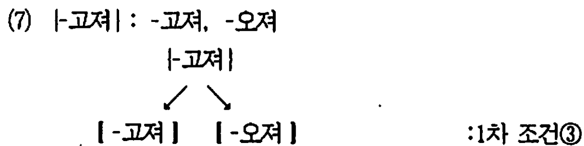
(6)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6] 제6유형: 1차 조건③

분절음 'ㄱ'로 시작되는 대부분의 연결어미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으로 'ㄱ' 탈락이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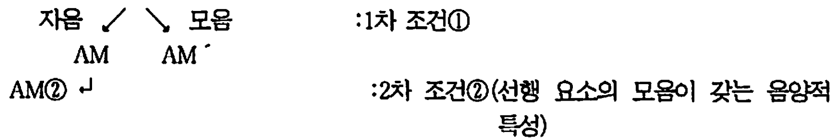


2.2.5. 전성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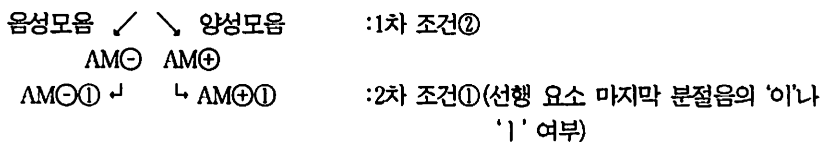
전성어미의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다.

(1) 전성어미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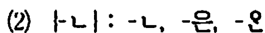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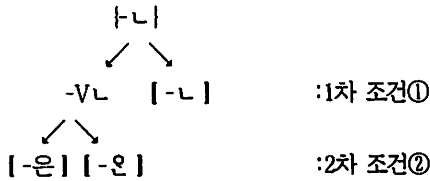
나.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관형사형어미 {-ㄴ}과 {-ㄹ}가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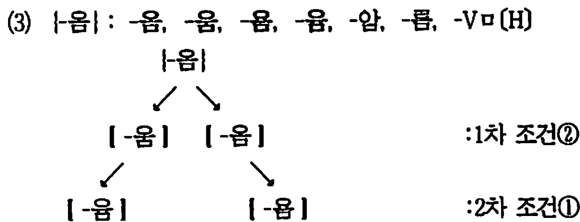




이 두 관형사형어미가 보이는 이러한 이형태교체의 실현 양상은 기본적으로 대격조사 {-ㄹ}나 보조사 {-ㄴ}의 이형태교체 실현 양상과 유사하나 이들과는 달리 두 관형사형어미는 중가형 이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관형사형어미 {-ㄴ}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가형 '-ᄂᆞᆫ' 또는 '-는'이 선어말어미 {-ᄂᆞ-}와 통합된 경우와 구분되지 않으며, {-ㄹ}의 경우에는 'ᄅᆞᆯ'이나 '를' 형태로 나타날 중가형이, 통합된 어간 형태의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형태론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2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①

명사형어미 {-옴}의 이형태들 중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교체되는 네 이형태 [-옴], [-움], [-욤], [-윰]의 이형태교체 실현 양상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2.2.6.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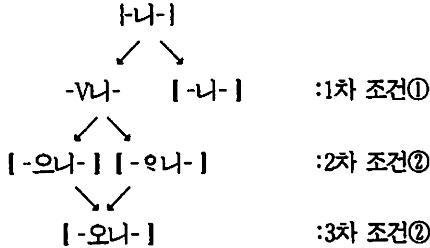
(1) 선어말어미의 이형태교체 조건 유형

```
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 ↙ ↘ 모음              :1차 조건①
            AM    AM´
        AM② ↲      |                :2차 조건②(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 |      |                           특성)
    AM②① ↲ |      ↳AM´①            :3차 조건①/2차 조건④
            |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AM②② ↲                         :3차 조건②(비인접 원순모음화 환경)
나.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
       음성모음 ↙ ↘ 양성모음          :1차 조건②
            AM⊖   AM⊕
    AM⊖① ↲ | |    | | ↳ AM⊕①       :2차 조건①(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 |    | |                          'ㅣ' 여부)
     AM⊖④ ↲ ↘↙ ↳ AM⊕④              :2차 조건④(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AM⑤                  :2차 조건⑤(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모음
                |                               여부)
                ↳ AM⑤①              :3차 조건①(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나머지 ↙ ↘ 'ㄹ'나 'ㅣ'          :1차 조건③
          AM      AM´
라.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과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
    무성-무성/무성-유성 ↙ ↘ 유성-무성/유성-유성        :1차 조건④
              AM1/AM2     AM´1/AM´2
               ↙    ↘
      AM1⑦/AM2⑦  AM1⑦´/AM2⑦´                      :2차 조건⑦
          |           |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           |                            'ㄷ, ㅈ, ㅊ' 여부)
          ↓           ↓
    AM1⑦③/AM2⑦③  AM1⑦③´/AM2⑦③´                   :3차 조건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폐쇄음 여부)
```

[1] 제1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②

선어말어미 {-니-}와 {-이-}의 이형태교체가 이러한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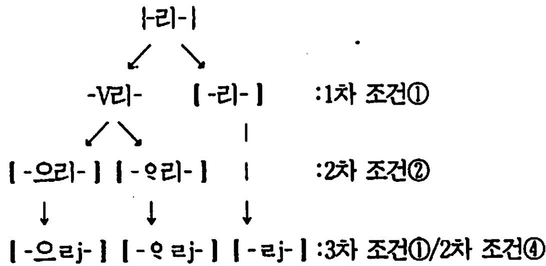
(2) {-니-} : -니, -으니-, -ᄋᆞ니-, -오니-



[2] 제2유형: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①) / (2차 조건④)

이러한 유형의 이형태교체 조건은 선어말어미 |-리-|의 이형태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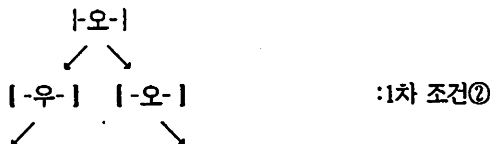


이 유형에서는 후행 요소가 모음인 경우를 나타내는 '3차 조건①'이나 '2차 조건④'에 의해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제3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①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교체에서 보이는 유형으로 명사형어미 |-옴|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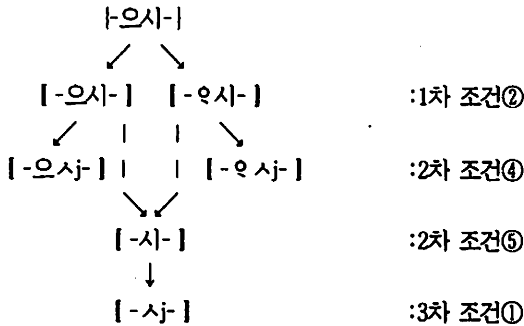
(4)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 -유- |　　| -요- |　　:2차 조건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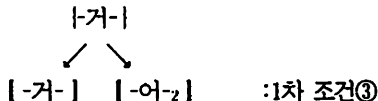
[4] 제4유형: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⑤ → 3차 조건①) / (2차 조건④)

선어말어미 {-으시-}가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으로 종결어미 {-으쇼셔}에서처럼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첫 음절의 모음을 탈락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선어말어미 {-리-}에서와 같이 후행 요소가 모음인 경우를 나타내는 '2차 조건④'나 '3차 조건①'에 의해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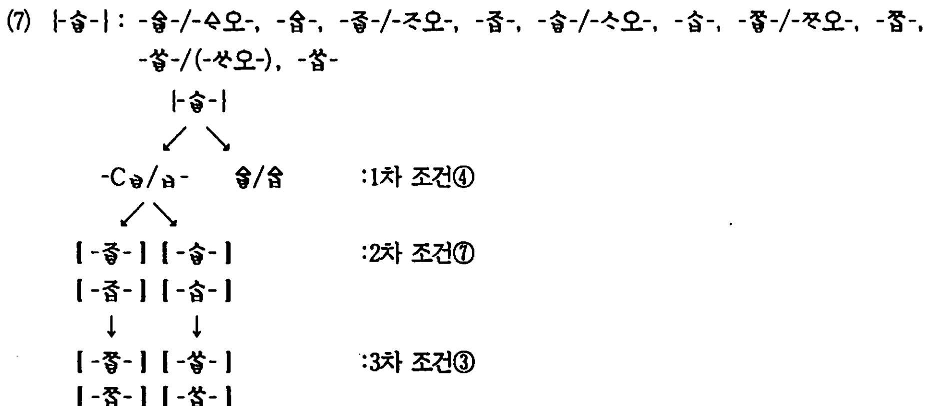
[5] 제5유형: 1차 조건③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 가운데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되는 | -어-1 |과 | -나- |를 제외한 두 이형태 | -거- |와 | -어-2 |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 인지의 조건에 따라 두 이형태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이형태교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6] 제6유형: 1차 조건④ → 2차 조건⑦ → 3차 조건③

선어말어미 {-숩-}의 이형태교체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과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동시에 이형태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법형태소들이 보여주는 이형태교체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ᅌᆞ오-], [-ᄌᆞ오-], [-ᄉᆞ오-], [-ᅏᆞ오-]의 경우는 각각 [-ᅌᆞᄫᆞ-], [-ᄌᆞᄫᆞ-], [-ᄉᆞᄫᆞ-], [-ᅏᆞᄫᆞ-]과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들로 이 두 부류의 이형태들은 'β >w'의 변화 반영 여부에서 차이를 보일 뿐 교체의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ᅏᆞᄫᆞ-/-ᅏᆞ오-], [-쭙-], [-ᄊᆞᄫᆞ-/(-ᄊᆞ오-)], [-쑵-]은 각각 [-ᄌᆞᄫᆞ-/-ᄌᆞ오-], [-줍-], [-ᄉᆞᄫᆞ-/-ᄉᆞ오-], [-숩-]의 초성이 경음화되어 형성된 이형태들로, 이들은 선어말어미 {-숩-}에 선행하는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폐쇄음일 때 나타난다. 즉,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불파음화된 무성폐쇄음으로 발음되면 선어말어미 {-숩-}의 초성 'ㅅ'나 'ㅈ'가 경음화를 입은 'ㅆ'와 'ㅉ'로 바뀌게 된다. 특히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는 '노ᄊᆞᄫᆞ-', '조ᄊᆞᄫᆞ-', '바ᅏᆞᄫᆞ-', '마ᅏᆞᄫᆞ-', '조ᅏᆞᄫᆞ-' 등과 같이 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불파음화된 [t˺]으로 발음될 경우[223] 선어말어미 {-숩-}의 이형태가 [-ᅏᆞᄫᆞ-/-ᅏᆞ오-], [-쭙-], [-ᄊᆞᄫᆞ-/(-ᄊᆞ오-)], [-

223) 이들은 다음과 같이 본래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각각 'ㅎ', 'ㅅ', 'ㄷ', 'ㅈ', 'ㅊ'로 다양한데, 15세기 당시 음절 말에서는 이들이 모두 불파음 [t˺]으로 발음되었다고 생각한다.
(가) 놓(置)- + -ᄉᆞᄫᆞ- → (놋ᄉᆞᄫᆞ-) → 노ᄊᆞᄫᆞ-
(나) 좇(稽)- + -ᄉᆞᄫᆞ- → 좃ᄉᆞᄫᆞ- → 조ᄊᆞᄫᆞ-

ᄊᆞ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경음화가 당시 불파음 [t˺] 뒤에서만 일어났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돕ᄉᆞᆸ-', '먹ᄉᆞᆸ-'과 같은 경우들도 각각 불파음 [p˺]과 [k˺] 뒤에서 이형태 【-ᄊᆞᆸ-】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언어의 공시적 체계성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3. 요약

2.2.에서 우리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이형태교체의 조건을 1차 조건, 2차 조건, 그리고 3차 조건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15세기 국어의 각 문법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조건의 유형들을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형태 계열을 형성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 비교적 규칙적인 교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1) 1차 조건
　①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자음' : '모음' 여부
　②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음성모음' : '양성모음')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나 'ㅣ' 여부
　④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과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무성음' : '유성음' 여부
(2) 2차 조건
　①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②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음성모음' : '양성모음')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 여부

(다) 받(奉)- + -ᄌᆞᆸ- → 받ᄌᆞᆸ- → 바ᄍᆞᆸ-
(라) 맞(迎)- + -ᄌᆞᆸ- → 맞ᄌᆞᆸ- → 마ᄍᆞᆸ-
(마) 좇(隨)- + -ᄌᆞᆸ- → 좇ᄌᆞᆸ- → 조ᄍᆞᆸ- cf.존ᄌᆞ바 <월석 11:107a>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초성이 이와 같이 'ㅆ'나 'ㅉ'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를 음절 말음의 불파음화에 이은 경음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이들을 15세기 당시 경음으로 볼 경우 이들은 이음적(異音的) 경음이 되어 합용병서로 표현되는 음소적(音素的) 경음과 구별된다. 이음적 경음과 음소적 경음에 대해서는 金裕範(1999a)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李翊燮(1992)에서는 '존ᄌᆞᆸ-', '엱ᄌᆞᆸ-'과 더불어 '무ᄍᆞᆸ-', '바ᄍᆞᆸ-'의 표기가 비정상적인, 잘못된 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세기 당시 음절 말에 위치하는 치음이나 설음이 모두 불파음 [t˺]으로 발음되었다고 본다면, 이들은 결코 잘못된 표기가 아니며 실제의 발음이 반영된 가치 있는 표기들로 이해된다.

④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⑤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⑥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원순모음 여부
⑦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ㄷ, ㅈ, ㅊ'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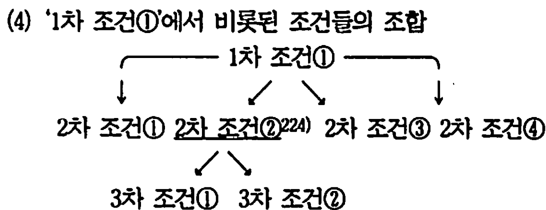
(3) 3차 조건
①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② 비인접 원순모음화 환경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폐쇄음 여부

1·2·3차에 걸친 이러한 조건들에서 동일한 조건이 차수(次數)를 달리하여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형태소에 따라 각 조건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이형태들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조건들의 이러한 가능한 조합들을 1차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리해 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1차 조건에는 4개의 조건이 있으나 '1차 조건③'으로부터 다른 조건들이 조합된 경우는 없으므로 세 개의 유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1차 조건①'로부터 조건의 조합이 형성되는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4) '1차 조건①'에서 비롯된 조건들의 조합



우선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는 '1차 조건①'만에 의한 이형태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차 조건①'은 항상 2차 조건을 동반하며 때에 따라서는 3차 조건까지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

224) 여기서 밑줄은 하위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하위 조건 없이 해당 조건 자체만으로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즉, 2차 조건②는 하위 조건으로 3차 조건①과 3차 조건②를 갖지만 이 두 하위 조건이 없이 2차 조건②만으로도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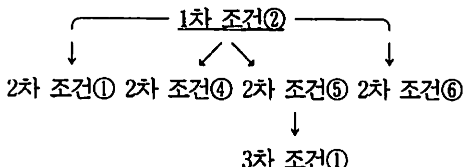
조건들의 첫 번째 조합 유형인 (4)에 의해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을 그 조합 양상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①
  예 격조사: {-이}, {-이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돈}
  종결어미: {-이}
 나.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예 격조사: {-ㄹ}, {-라와}, {-로}, {-록}, {-론}, {-롯}
  보조사: {-ㄴ}, {-란}
  종결어미: {-ㄴ고/-ㄴ가}, {-ㄴ다}, {-ㄴ뎌}, {-니오/-니아}, {-ㄹ고/-ㄹ가}, {-ㄹ다}, {-ㄹ쎠}, {-ㄹ쎄라}, {-라}, {-리오/-리아}
  연결어미: {-ㄴX}, {-ㄹX}, {-나$_1$}, {-나$_2$}, {-나$_3$}, {-니$_2$}, {-라$_1$}, {-라$_2$}, {-란디}, {-란디만뎡}, {-며}, {-면}
  전성어미: {-ㄴ}, {-ㄹ}
 다.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①
  예 선어말어미: {-리-}
 라.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② → 3차 조건②
  예 종결어미: {-니오/-니아}
  연결어미: {-니$_1$}
  선어말어미: {-니-}, {-이-}
 마.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③
  예 격조사: {-과}
  보조사: {-곰$_2$}, {-곳}
 바. 1차 조건① → 2차 조건④
  예 선어말어미: {-리-}

여기에서는 (5-나)에 의한 이형태교체가 가장 많은 수의 문법형태소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차 조건①'로부터 조건의 조합이 형성되는 첫 번째 유형에서는 먼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를 가리고 이어서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교체의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된, 매개모음 첨가에 의한 이형태교체가 첫 번째 유형의 가장 보편적인 이형태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조건②'로부터 조건의 조합이 형성되는 두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6) '1차 조건②'에서 비롯된 조건들의 조합



이러한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을 역시 그 조합 양상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가. 1차 조건②
예 격조사: {-의}, {-의/-ㅅ}, {-의그에/-ㅅ그에}, {-의손ᄃᆡ}
종결어미: {-어쎠}, {-에라}
연결어미: {-ᄃᆞ시}, {-ᄃᆞᆯ}
나.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①
예 격조사: {-에}
연결어미: {-어}, {-엄직}, {-거늘}, {-거든}
전성어미: {-옴}
선어말어미: {-오-}
다.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④
예 종결어미: {-으시-}
라.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⑤
예 종결어미: {-으쇼셔}
마.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⑤ → 3차 조건①
예 선어말어미: {-으시-}
바. 1차 조건② → 2차 조건⑥
예 연결어미: {-어}, {-엄직}

두 번째 유형에서는 '1차 조건②' 또는 '1차 조건②'에 '2차 조건①'이 조합된 (7-가)와 (7-나)가 가장 보편적인 이형태교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에 따라 문법형태소 자체가 본래 지니고 있는 모음의 음양성을 선택하고, 거기에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이'나 'ㅣ'인 경우에는 활음 'ㅣ'를 첨가시킨다는 점에서 자

요소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와 함께 타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된 이형태교체가 된다.

'1차 조건④'로부터 조건의 조합이 형성되는 세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8) '1차 조건④'에서 비롯된 조건들의 조합

1차 조건④
↓
2차 조건⑦
↓
3차 조건③

(8)과 같은 조합 유형에 의해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는 선어말어미 {-숩-}이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과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무성음', '유성음' 여부가 동시에 이형태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이어서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이 어떤 자음인가에 따라 초성의 자음이 결정된다. 또한 그 자음이 폐쇄음인 경우에는 불파음화(不破音化)에 이은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 초성의 자음이 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숩-}의 이러한 이형태교체는 자요소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된 경우가 된다.

한편,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나 'ㅣ' 여부가 조건이 되는 '1차 조건③'에 의해 이형태교체를 보이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9) 종결어미: {-거지라}, {-거지이다}, {-고라}
연결어미: {-거나}, {-거늘}, {-거니와}, {-건뎡}, {-거든}, {-건마른}, {-게}, {-겟고}, {-고}, {-고져}, {-곤}, {-곳}, {-과뎌}, {-과뎌여}, {-관뎌}
선어말어미: {-거-}

이 경우에는 각 문법형태소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ㄱ'가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나 'ㅣ' 뒤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이는 자요소의 상실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된 이형태교체가 된다.

요컨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조건은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이 중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의 경우에는

몇몇 형태소에 국한되는 특수한 조건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음운론적 조건은 이형태 계열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계열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조건은 1차 조건, 2차 조건, 그리고 3차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는 4개, 7개, 3개의 세부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건들은 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며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과 원순모음화 환경 여부, 그리고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조건들의 내용이다. 또한 1·2·3차에 걸친 이러한 조건들에서 동일한 조건이 차수(次數)를 달리하여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형태소에 따라 각 조건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이형태들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관여하고 있는 음운론적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다양한 이형태교체 조건들에 의해 실현되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이 모두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를 따르고 있음과 더불어,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형태 계열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조건 중 이제까지 정리해 본 음운론적 조건을 바탕으로 여기에 형태론적 조건 및 통사론적 조건까지도 함께 고려해, 교체 조건에 의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 전체의 이형태교체 양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해 볼 수 있다.

〈일러두기〉

i) '조건 차수'는 음운론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이 함께 고려된 것이므로 형태론적 조건이나 통사론적 조건이 관여된 교체의 경우에는 이들 조건이 Ⅰ차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Ⅰ차 조건이 형태론적 조건이나 통사론적 조건이고 Ⅱ차 조건부터는 음운론적 조건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건의 차수'가 음운론적 조건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라지게 된다.

㊎ {-거늘}

(1) 음운론적 조건만을 고려한 경우

: '1차 조건③'에 의한 이형태교체

(2) 형태론적 조건도 함께 고려한 경우

: Ⅰ차 조건: 용언의 문법 범주(자동성/비자동성)

Ⅱ차 조건: 양성모음/음성모음

Ⅲ차 조건: 선행 분절음의 '이', 'ㅣ' 여부

ii) 교체 조건 중 '기타'에는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 1차적 이형태 중 단일 이형태인 경우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조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형태들, 그리고 형태소의 결합에 의한 변화가 아닌,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이형태들이 표시된다.

iii) 주어진 조건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과 같이 대립되는 두 요소로 되어 있으나 1차 조건에 의해 한 유형의 이형태만 제시된 경우는 다른 조건이 개입된 2차 조건에서 나머지 유형의 이형태가 제시된다. ㊎ 격조사 {-ㄹ}: '-ㄹ'(1차)와 '-을/-ᄋᆞᆯ, -를/-ᄅᆞᆯ'(2차)

iv)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중 '음성/양성'은 모음의 음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아닌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모음인지 양성모음인지가 조건이 되기도 한다. ㊎ 연결어미 {-란ᄃᆡ}: '-란ᄃᆡ'(Ⅰ차 '자음/모음' 조건)와 '-으란ᄃᆡ/-ᄋᆞ란ᄃᆡ'(Ⅱ차 '음성/양성' 조건)

<표1> 교체 조건에 의한 15세기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양상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ㅣ-돗-ㅣ 다음													
격조사	ㅣ-과ㅣ	I	-과 /-와$_1$																							
		II							-와$_2$																	
	ㅣ-두고ㅣ	I																								-두고
	ㅣ-ᄃᆞ려ㅣ	I																								-ᄃᆞ려
	ㅣ-ㄹㅣ	I	-ㄹ																							
		II		-을/-ᄋᆞᆯ -를/-ᄅᆞᆯ																						
	ㅣ-라와ㅣ	I	-라와																							
		II		(-으라와) /-ᄋᆞ라와																						

교체조건 / 문법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회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둣-} 다음													
격조사	{-로}	I	-로																							오로
		II		-으로/-ᄋᆞ로																						
	{-록}	I	-록																							
		II		(-으록)/(-ᄋᆞ록)																						
	{-론}	I	-론																							
		II		(-으론)/-ᄋᆞ론																						
	{-롯}	I	-롯																							
		II		-으롯/-ᄋᆞ롯																						
	{-아}	I																								-아 야 하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회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여부	원순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여부	무성/유성	ㅣ-둣-ㅣ 다음	ㅎ-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격조사	ㅣ-에ㅣ	I		-에/-애																						
		II						-예																		
	ㅣ-의ㅣ	I		-의/-ᄋᆡ																						
	ㅣ-의/-ㅅㅣ	I																				-의, -ᄋᆡ /-ㅅ			-의, -ᄋᆡ /-ㅅ	-ㅣ
		II		-의/-ᄋᆡ																						
	ㅣ-의그에 /-ㅅ그에ㅣ	I																				-의그에 -ᄋᆡ그에 -의게 -ᄋᆡ게 /-ㅅ그에 -ᄭᅦ -ᄭᅴ -ㅅ거긔				-ㅣ게
		II		-의그에 /-ᄋᆡ그에 -의게 /-ᄋᆡ게																						
	ㅣ-의손ᄃᆡㅣ	I																				cf. -ㄱ손ᄃᆡ				ㅣ손ᄃᆡ
		II		-의손ᄃᆡ /-ᄋᆡ손ᄃᆡ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여부	원순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여부	무성/유성	ㅣ-돗ㅣ 다음													
격조사	{-이}	I	-이/-ㅣ																							
		II						ø																		
	{-이라와}	I	-이라와/-ㅣ라와																							
		II						라와																		
	{-이며}	I	-이며/-ㅣ며																							
		II						-며																		
	{-이여₁}	I	-이여/-ㅣ여																							
		II						-여																		
	{-이여₂}	I	(이여)/ㅣ여																							
		II						-여																		
	{-ᄒᆞ고}	I																								ᄒᆞ고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둣-| 다음													
보조사	|-ㄱ|	I																								-ㄱ
	|-고/-가|	I																								-고 -구 -가
		II							-오 (-우) -아																	
	|-곰$_1$|	I																								-곰
	|-곰$_2$|	I	-곰 /-옴$_1$																							
		II							-옴$_2$																	
	|-곳|	I	-곳 /-옷$_1$																							
		II							-옷$_2$																	
	|-ᄀᆞ티|	I																								-ᄀᆞ티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ㅎ-	오-	계사	-으시-	-더-	-오-	-니-	-리-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ㅣ)	ㄷ,ㅈ,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보조사	{-ㄴ}	Ⅰ	-ㄴ																							
		Ⅱ		-은/-ᄋᆞᆫ -는/-ᄂᆞᆫ																						
	{-나마}	Ⅰ																								-나마
	{-도}	Ⅰ																								-도
	{-란}	Ⅰ	-란																							-런
		Ⅱ		-으란 /-ᄋᆞ란																						
	{-ㅁ}	Ⅰ																								-ㅁ
	{-마다}	Ⅰ																								-마다
	{-마ᄅᆞᆫ}	Ⅰ																								-마ᄅᆞᆫ
	{-브터}	Ⅰ																								-브터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보조사	|-못/-봇|	I																								-못 -봇 -봇
보조사	|-셔|	I																								-셔
보조사	|-사|	I																								-사 -ᅀᅡ
보조사	|-이나|	I	-이나/-ㅣ나																							
보조사	|-이나|	II						-나																		
보조사	|-이어나|	I	-이어나/-ㅣ어나																							
보조사	|-이어나|	II						-어나																		
보조사	|-잇돈|	I	-잇돈/(-ㅅ돈)																							
보조사	|-잇돈|	II						-ㅅ돈																		
보조사	|-ㅇ|	I																								ㅇ
보조사	|-컨마른|	I																								-컨마른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종결어미	|-거지라|	Ⅰ												-야지라	-나지라								-거지라 -가지라 / -어지라$_1$ -아지라$_1$			
		Ⅱ							-어지라$_2$ -아지라$_2$																	
	|-거지이다|	Ⅰ												-야지이다	-나지이다								-거지이다 -가지이다 / -어지이다$_1$ -아지이다$_1$			
		Ⅱ							(-어지이다$_2$) -아지이다$_2$																	
	|-게라|	Ⅰ																								게라
		Ⅱ							(-에라)																	
	|-게이다|	Ⅰ																								-게이다
		Ⅱ							(-에이다)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둣-} 다음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종결어미	{-고라}	I																								-고라
		II							-오라																	
	{-고려}	I																								-고려
		II							(-오려)																	
	{-ㄴ고/-ㄴ가}	I	-ㄴ고 -ㄴ가																							
		II		(-은고) /(ᄋᆞᆫ고) -은가 /(-ᄋᆞᆫ가)																						
	{-ㄴ다}	I	-ㄴ다																							
		II		-은다 /-ᄋᆞᆫ다																						
	{-ㄴ뎌}	I	-ㄴ뎌																							
		II		(-은뎌) /(-ᄋᆞᆫ뎌)																						

교체조건 문법형태소		조건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여부	원순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여부	무성/유성	ㅣ-돗-ㅣ 다음													
종결어미	ㅣ-니오/-니아ㅣ	Ⅰ	-뇨 -니오 -녀 -니여 -니아 -니야																							
		Ⅱ		-으뇨 /-ᄋᆞ뇨 -으니오 /(-ᄋᆞ니오) -으녀 /(-ᄋᆞ녀) (-으니여) /-ᄋᆞ니여 -으니아 /(-ᄋᆞ니아) -으니야 /(-ᄋᆞ니야)									-오뇨 (-오니오) -오녀 -오니여 (-오니아) -오니야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ㅎ-	오-	계사	-으시-	-더-	-오-	-니-	-리-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ㅣ-돗-ㅣ 다음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종결어미	ㅣ-닛가ㅣ	I																								-닛가
	ㅣ-다ㅣ	I														-라		-라	-라	-라	-라					-다
	ㅣ-ㄹ고/-ㄹ가ㅣ	I	-ㄹ꼬 -ㄹ까																							
		II		(-올꼬)/(-울꼬) -올까/-울까																						
	ㅣ-ㄹ다ㅣ	I	-ㄹ따																							
		II		-올따/-울따																						
	ㅣ-ㄹ써ㅣ	I	-ㄹ써																							
		II		-올써/-울써																						
	ㅣ-ㄹ쎄라ㅣ	I	-ㄹ쎄라																							
		II		(-올쎄라)/(-울쎄라)																						
	ㅣ-라ㅣ	I	라																							
		II		으라 ᄋᆞ라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ㅣ-돗-ㅣ 다음													
종결어미	ㅣ-리오 /-리아ㅣ	I	-료 -리오 -려 -리여 -리아 -리야																							
		Ⅱ		으료 / ᄋᆞ료 으리오 / ᄋᆞ리오 으려 / ᄋᆞ려 으리여 /(ᄋᆞ리여) 으리아 /(ᄋᆞ리아) (으리야 /(ᄋᆞ리야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돗-｝ 다음													
종결어미	{-마}	I																								-마
종결어미	{-사이다}	I																								-사이다
종결어미	{-야져}	I																								-야져
종결어미	{-어쎠}	I		-어쎠 /-아쎠																						
종결어미	{-에라}	I		-에라 /-애라										-애라												
종결어미	{-에라}	II																								
종결어미	{-에이다}	I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												
종결어미	{-에이다}	II																								

문법 형태소 (교체 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종결어미	|-으쇼셔|	I		-으쇼셔/-ᄋᆞ쇼셔																						
		II				-쇼셔																				
	|-이|	I	(-이)/-ㅣ																							
		II						∅																		
	|-잇고/-잇가|	I																						-잇고/-잇가		
	|-져|	I																								-져
	|-져라|	I																								-져라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오-	계사	-으시-	-더-	-오-	-니-	-리-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ㅏ-둣-ㅓ 다음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연결어미	{-거나}	I																								-거나 -거…나
		II							-어나 -어…나																	
	{-거늘}	I																								
		II		-어늘1 -어늘1 -어…늘1 -어…늘1 /(-아늘) -아늘 (-아…늘) -아…늘					-어늘2 -어늘2 -어…늘2 -어…늘2					(-아늘) -아늘 -아…늘 -아…늘	(-나늘) (-나늘) (-나…늘) -나…늘								-거늘 -거늘 -거…늘 -거…늘 / -어늘1 -어늘1 (-아늘) -아늘 -어…늘1 -어…늘1 (-아…늘) -아…늘			
		III						(-야늘) -야늘 여늘 -여늘 -야…늘 -야…늘 -여…늘 여…늘																		

문법형태소 (교체 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모음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음성/양성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무성/유성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모음 여부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원순 모음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이, ㅣ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ㄹ, (ㅣ)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ㄷ, ㅈ, ㅊ	음운론적 조건: 후행요소: 모음 여부	음운론적 조건: 후행요소: 무성/유성	음운론적 조건: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ㅏ-돗-ㅓ 다음	형태론적 조건: ᄒᆞ- 뒤	형태론적 조건: 오- 뒤	형태론적 조건: 계사 뒤	형태론적 조건: -으시- 뒤	형태론적 조건: -더- 뒤	형태론적 조건: -오- 뒤	형태론적 조건: -니- 뒤	형태론적 조건: -리- 뒤	형태론적 조건: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형태론적 조건: 자동성/비자동성	통사론적 조건: 의문사 유무	통사론적 조건: 주어/목적어	기타
연결어미	ㅣ-거니와ㅣ	I																					-거니와 -거…니와 / -어니와$_1$ -어…니와$_1$			
		II						(-여니와) (-여…니와)	-어니와$_2$ 어…니와$_2$					-야니와 -야…니와	-나니와 (-나…니와)											
	ㅣ-건뎡ㅣ	I																								
		II							-언뎡 어…ㄴ뎡																	-건뎡 (거…ㄴ뎡)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돗-| 다음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연결어미	|-거든|	I																								
		II		-어든$_1$ -어ᄃᆞᆫ$_1$ -어…든$_1$ -어…ᄃᆞᆫ$_1$ / (-아든) -아ᄃᆞᆫ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야…든 -야…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III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교체조건 / 문법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연결어미	|-건마ᄅᆞᆫ|	Ⅰ																								
		Ⅱ		-언마ᄅᆞᆫ$_1$ -어… ㄴ마ᄅᆞᆫ$_1$ / 안마ᄅᆞᆫ (-아… ㄴ마ᄅᆞᆫ)					-언마ᄅᆞᆫ$_2$ 어… ㄴ마ᄅᆞᆫ$_2$					-얀마ᄅᆞᆫ -야… ㄴ마ᄅᆞᆫ	-난마ᄅᆞᆫ (-나… ㄴ마ᄅᆞᆫ)											-건마ᄅᆞᆫ
		Ⅲ						얀마ᄅᆞᆫ (연마ᄅᆞᆫ) (야… ㄴ마ᄅᆞᆫ) (여… ㄴ마ᄅᆞᆫ)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연결어미	|-게|	I																								-게 -거 -긔 -ᄀᆡ
		II							-에 (-어) -의 -ᄋᆡ																	
	|-겟고|	I																								(-겟고)
		II							-엣고																	
	|-고|	I																								-고 -구
		II							-오 (-우)																	
	|-고져|	I																								-고져
		II							오져																	
	|-곤|	I																								-곤
		II							-온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듯-| 다음													
연결어미	|-곰|	Ⅰ																								-곰
		Ⅱ							(-옴)																	
	|-곳|	Ⅰ																								-곳
		Ⅱ							-옷																	
	|-과뎌|	Ⅰ																								-과뎌
		Ⅱ							-와뎌																	
	|-과ᄃᆡ여|	Ⅰ																								-과ᄃᆡ여
		Ⅱ							와ᄃᆡ여																	
	|-관ᄃᆡ|	Ⅰ																								-관ᄃᆡ
		Ⅱ							-완ᄃᆡ																	
	|-곤대|	Ⅰ																								-곤대
		Ⅱ							(-온대)																	

교체조건 / 문법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ㅣ-돗-ㅣ 다음													
연결어미	ㅣ-괫고ㅣ	I																								-괫고
		II							(-왯고)																	
	ㅣ-귓고ㅣ	I																								-귓고
		II							(-윗고)																	
	ㅣ-ㄴ다마다ㅣ	I	-ㄴ다 나마																							
		II		-은다마다 /(-ᄋᆞᆫ다마다)																						
	ㅣ-ㄴ대ㅣ	I	-ㄴ대																							
		II		-은대 /-ᄋᆞᆫ대																						
	ㅣ-ㄴ댄ㅣ	I	-ㄴ댄 -ㄴ덴																							
		II		(-은댄) /(-ᄋᆞᆫ댄) (-은덴) /(-ᄋᆞᆫ덴)																						

교체조건 / 문법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ㅎ-	오-	계사	-으시-	-더-	-오-	-니-	-리-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돗-| 다음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연결어미	|-ㄴᄃᆞᆫ|	Ⅰ	-ㄴᄃᆞᆫ																							
		Ⅱ		(-은ᄃᆞᆫ) /(-ᄋᆞᆫᄃᆞᆫ)																						
	|-ㄴᄃᆞᆯ|	Ⅰ	-ㄴᄃᆞᆯ																							
		Ⅱ		-은ᄃᆞᆯ /-ᄋᆞᆫᄃᆞᆯ																						
	|-ㄴᄃᆡ|	Ⅰ	-ㄴᄃᆡ																							
		Ⅱ		-은ᄃᆡ /(-ᄋᆞᆫᄃᆡ)																						
	|-ㄴᄃᆡᆫ|	Ⅰ	-ㄴᄃᆡᆫ																							-ㄴ든
		Ⅱ		(-은ᄃᆡᆫ) /(-ᄋᆞᆫᄃᆡᆫ)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둣-} 다음													
연결어미	{-나$_1$}	Ⅰ	-나																							
		Ⅱ		-으나 /-ᄋᆞ나																						
	{-나$_2$}	Ⅰ	-나																							
		Ⅱ		(-으나) /(-ᄋᆞ나)																						
	{-나$_3$}	Ⅰ	-나																							
		Ⅱ		(-으나) /(-ᄋᆞ나)																						
	{-니$_1$}	Ⅰ	-니																							
		Ⅱ		으니 /-ᄋᆞ니																						
		Ⅲ											-오니													
	{-니$_2$}	Ⅰ	-니																							
		Ⅱ		(-으니) /(-ᄋᆞ니)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돗-} 다음													
연결어미	{-노니}	I																								-노니
연결어미	{-다가}	I														-라가										-다가
연결어미	{-다가며}	I																								-다가며
연결어미	{-더든}	I														-러든										-더든
연결어미	{-도}	I																								-도
연결어미	{-디}	I																								-디
연결어미	{-디ᄫᅵ}	I																								-디ᄫᅵ -디위 -디외 -디웨
연결어미	{-디옷}	I																								-디옷
연결어미	{-ᄃᆞ록}	I																								-ᄃᆞ록 -도록
연결어미	{-ᄃᆞᆯ}	I		-들/-ᄃᆞᆯ																						-드란
연결어미	{-ᄃᆞ시}	I		-드시 /-ᄃᆞ시 -듯 /-ᄃᆞᆺ																						-더시 -디시 -덧

문법형태소 \ 교체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후행요소: 모음 여부	무성/유성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듯-} 다음	형태론적 조건: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통사론적 조건: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기타
연결어미	{-ㄹᄉᆞ록}	Ⅰ	(-ㄹᄉᆞ록)																							
		Ⅱ		-을ᄉᆞ록 /(-ᄋᆞᆯᄉᆞ록)																						
	{-ㄹᄲᅳᆫ뎡}	Ⅰ	-ㄹᄲᅳᆫ뎡																							
		Ⅱ		-을ᄲᅳᆫ뎡 /-ᄋᆞᆯᄲᅳᆫ뎡																						
	{-ㄹᄊᆡ}	Ⅰ	-ㄹᄊᆡ																							
		Ⅱ		-을ᄊᆡ /-ᄋᆞᆯᄊᆡ																						
	{-라₁}	Ⅰ	-라																							
		Ⅱ		-으라 /-ᄋᆞ라																						
	{-라₂}	Ⅰ	·라																							
		Ⅱ		(-으라) / ᄋᆞ라																						

교체조건 / 문법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 모음화환경	ᄒ-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	자동성 / 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 /목적어	
			자음 /모음	음성 /양성	무성 /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 /유성	ㅣ-돗-ㅣ 다음													
연결어미	{-란ᄃᆡ}	I	-란ᄃᆡ																							
		II		-으란ᄃᆡ /-ᄋᆞ란ᄃᆡ																						
	{-란ᄃᆡ 만뎡}	I	-란ᄃᆡ 만뎡																							
		II		(-으란ᄃᆡ 만뎡) /(-ᄋᆞ란ᄃᆡ 만뎡)																						
	{-며}	I	-며																							
		II		-으며 /-ᄋᆞ며																						
	{-면}	I	-면																							
		II		-으면 /-ᄋᆞ면																						
	{-사}	I																								·사 ·ᅀᅡ

문법 형태소 \ 교체 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후행요소: 모음 여부	무성/유성	비인접원순모음회환경: |-돗-| 다음	형태론적 조건: ᄒᆞ-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통사론적 조건: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기타
연결어미	|-어|	I		-어/-아												-라										
		II					-워 -와	-여 -야																		
	|-엄직|	I		-엄직 /-암직																						
		II					(-웜직) /-왐직	(-염직) /-얌직																		
	|-오ᄃᆡ|	I		-우ᄃᆡ /-오ᄃᆡ												-로ᄃᆡ	-아ᄃᆡ									-V더 (H)
		II						-유ᄃᆡ /-요ᄃᆡ																		
	|-오ᄃᆞᆫ|	I		(-우ᄃᆞᆫ) /-오ᄃᆞᆫ												(-로ᄃᆞᆫ)	(-아ᄃᆞᆫ)									-V던 (H)
		II						(-유ᄃᆞᆫ) /(-요ᄃᆞᆫ)																		
	|-오려|	I		-우려 /-오려												(-로려)	-아려									-V려 (H)
		II						(-유려) /-요려																		
	|-올면|	I		(-울면) /-올면												(-롤면)	-알면									-올면
		II						(-율면) /(-욜면)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후행요소: 모음 여부	무성/유성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둧-} 다음	형태론적 조건: ㅎ-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통사론적 조건: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기타
전성어미	{-기}																									-기
	{-ㄴ}	Ⅰ	-ㄴ																							
		Ⅱ		-은/-ᄋᆞᆫ																						
	{-디}	Ⅰ																								-디
	{-ᄃᆞᆯ}	Ⅰ																								-ᄃᆞᆯ
	{-ㄹ}	Ⅰ	-ㄹ																							
		Ⅱ		-을/-ᄋᆞᆯ																						
	{-옴}	Ⅰ		-움/-옴												-롬	-암									-ˋㅁ (H)
		Ⅱ						-윰/-욤																		
	{-이}	Ⅰ																								-이
	{-히}	Ⅰ																								-히

문법 형태소 \ 교체 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회환경	ᄒ-	오-	계사	-으시-	-더-	-오-	-나-	-리-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ㅣ-돗-ㅣ 다음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선어말어미	ㅣ-거-ㅣ	Ⅰ													-나-								-거-/-어-₁			
		Ⅱ							-어-₂																	
	ㅣ-니-ㅣ	Ⅰ	-니-																							
		Ⅱ		-으니-/-ᄋᆞ니-																						
		Ⅲ											-오니-													
	ㅣ-ᄂᆞ-ㅣ	Ⅰ																								-ᄂᆞ- -너-
		Ⅱ									-ㄴ-															
	ㅣ-더-ㅣ	Ⅰ														-러-					-러-					-더-
	ㅣ-돗-ㅣ	Ⅰ														-롯- -로-	-앗-				-롯- -로-					-돗- -ᄃᆞᆺ- -도- -옷- -ㅅ-
	ㅣ-리-ㅣ	Ⅰ	-리-																							
		Ⅱ		-으리-/-ᄋᆞ리-																						
		Ⅲ									-ㄹj- -으ㄹj- -ᄋᆞㄹj-															

문법 형태소 (교체 조건)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ㄷ, ㅈ, ㅊ	불파된 폐쇄음	모음 여부	무성/유성	ㅣ-돗-ㅣ 다음	ㅎ-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선어말어미	ㅣ-ᄉᆞᆸ-ㅣ	Ⅰ			-ᄉᆞᆸ- -ᅀᆞᆸ-							-ᄉᆞᆸ-/-ᅀᆞᆸ-														-ᄉᆞ오- -ᅀᆞ오- -ᄌᆞ오- (-ᄊᆞ오-) -ᄍᆞ오-
		Ⅱ							-ᄌᆞᆸ- -ᄌᆞᇦ- / -ᅀᆞᆸ- -ᄉᆞᆸ-																	
		Ⅲ								-ᄍᆞᆸ- -ᄍᆞᇦ- / -ᄊᆞᆸ- -ᄊᆞᇦ-																
	ㅣ-오-ㅣ	Ⅰ		-우/-오												-로-	-아									-외-
		Ⅱ						-유-/-요-																		

교체 조건 / 문법 형태소		조건 차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기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후행요소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자음/모음	음성/양성	무성/유성	모음 여부	원순 모음	이, ㅣ	ㄹ, (ㅣ)	ㄷ, ㅈ ㅊ	모음 여부	무성/유성	ㅏ-돗-ㅓ 다음	ㅎ- 뒤	오- 뒤	계사 뒤	-으시- 뒤	-더- 뒤	-오- 뒤	-니- 뒤	-리- 뒤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자동성/비자동성	의문사 유무	주어/목적어	
선어말어미	ㅏ-으시-ㅓ	I		-으시-/-ᄋᆞ시-																						
		II				-시-																				
		III									-으ㅅj- -ᄋᆞㅅj- -ㅅj-															
	ㅏ-이-ㅓ	I	-이-																							
		II		-으이-/-ᄋᆞ이-									-오이-													-ᄋᆡ이-

<표2>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의 종합

음운론적 조건	선행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자음/모음	예 |-과| : -과, -와$_1$, -와$_2$
		음성/양성	예 |-의| : -의, -ᄋᆡ
		무성/유성	예 |-ᅀ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모음여부	예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
		원순모음	예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이, ㅣ	예 |-에| : -에, -애, -예
		ㄹ, (ㅣ)	예 |-곳| : -곳, -옷$_1$, -옷$_2$
		ㄷ, ㅈ, ㅊ	예 |-ᅀ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불파음화된 폐쇄음	예 |-ᅀ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후행요소	모음여부	예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무성/유성	예 |-ᅀ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	|-돗-| 다음	예 |-니-| : -니-, -으니-, -ᄋᆞ니-, -오니-
형태론적 조건	'ᄒᆞ-' 뒤		예 |-에라| : -에라, -애라, -얘라
	'오-' 뒤		예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계사 뒤		예 |-다가| : -다가, -라가
	|-으시-| 뒤		예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더-| 뒤		예 |-다| : -다, -라
	|-오-| 뒤		예 |-다| : -다, -라
	|-니-| 뒤		예 |-다| : -다, -라
	|-리-| 뒤		예 |-더-| : -더-, -러-
	유정, 비존칭/무정, 존칭		예 |-의/-ㅅ| : -의, -ᄋᆡ, -ㅣ, -ㅅ
	자동성/비자동성		예 |-거-| : -거-, -어-$_1$, -어-$_2$, -나-
통사론적 조건	의문사 유무		예 |-고/-가| : -고, -구, -오, (-우), -가, -아
	주어/목적어		예 |-의/-ㅅ| : -의, -ᄋᆡ, -ㅣ, -ㅅ

3. 이형태교체의 내용

이형태교체에서 교체의 조건과 함께 주목되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교체의 내용은 크게 음운론적인 것과 형태론적인 것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음운론적인 내용이 다양한 공시적·통시적 음운현상의 결과임에 비해, 형태론적인 내용은 특정 형태소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절음 차원이 아닌 형태 차원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1. 이형태교체 내용의 유형

3.1.1.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

[1] 분절음의 첨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 본래 그 형태소의 고유 요소에는 없던 분절음이 첨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개모음과 활음 'ㅣ'의 첨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이 두 현상은 보조사의 경우 활음 'ㅣ'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격조사, 보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리고 선어말어미의 모든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체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현상이 15세기 당시 공시적으로 음운론적인 동기가 가장 강한 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매개모음의 첨가는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의 초성보다 그 강도가 작아야 한다는 '강도 제약'에 입각한 것으로 인접하는 자음들 간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음운론적 기제로 이해된다. 반면 활음 'ㅣ'의 첨가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인 경우, 또는 후행 요소의 모음 '이'인 경우 이에 의해 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른바 '이'모음순행동화와 '이'모음역행동화가 음운론적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이 두 유형의 분절음 첨가 현상은 각각 매개모음과 활음 'ㅣ'이라는 타요소를 문법형태소에 더해 줌으로써 각 문법형태소들이 새로운 이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

므로 이 때의 이형태들은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중 '타요소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2] 분절음의 탈락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모습 중에는 그 형태소가 고유 요소로 지녔던 분절음을 탈락시켜 이형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ㄱ'탈락이나 '이'탈락에 의해 새로운 이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ㄱ'탈락의 경우는 형태소 경계가 포함된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 아래서 문법형태소들의 고유 요소인 첫 분절음 'ㄱ'가 탈락된다는 점에서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과정으로 이해된다. '이'탈락 역시 선어말어미 {-이-}에서 보이는 특별한 '이'탈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분절음의 연쇄를 피하기 위한 음운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경우에는 'ㄱ'탈락과 '이'탈락 외에 모음 'ᄋᆞ/으'의 탈락이 이형태교체의 내용을 이룬다. 이 때 모음 'ᄋᆞ/으'는 종결어미 [-으쇼셔]와 [-ᄋᆞ쇼셔], 선어말어미 [-으시-]와 [-ᄋᆞ시-], 그리고 [-ᄂᆞ-]에서 보이는 모음들인데, 특히 {-으쇼셔}와 {-으시-}의 경우 탈락되는 'ᄋᆞ/으'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다른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에서 보이는 매개모음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이 두 형태소가 고유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모음들이다.

한편, 전성어미 {-옴}에서는 모음 '오/우'가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 어간의 뒤에서만 나타나는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므로 매우 강한 형태론적인 조건을 갖는 경우가 된다. 이 때 분절음 '오/우'가 탈락하게 되는 원인은 결코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절음을 탈락시켜 이형태를 형성하는 것은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중 '자요소의 상실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된 경우가 된다.

[3] 분절음의 대치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가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내용 중에는 그 형태소가 고유 요소로 지녔던 분절음을 다른 분절음으로 대치시켜 이형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15세기 당시 격조사에서부터 선어말어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문법형태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체 내용이 된다.[225] 이러한 사실은 15세기 이전부터 당시까지 모음조화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음운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외에 원순모음화와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등 다양한 분절음의 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형태교체들이 관찰되는데, 이들은 공시적으로 인접 분절음들과의 음운론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다.

반면 'ㄷ>ㄹ'의 변화, 그리고 {-ㄹX} 유형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에 의한 이형태교체는 15세기 공시적인 음운규칙에 의한 분절음의 대치라기보다는 15세기 이전에 형태음운론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 그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이 15세기의 이형태교체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절음의 대치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는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중 '자요소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가 적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유형화된다.

3.1.2.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

[1] 형태의 대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중에는 형태론적인 내용의 교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형태소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절음 차원이 아닌 형태 차원에서 교체의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을 보이는 경우로 먼저 형태가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 '오'계 어미들이 '아'형 이형태들로 실현되는 경우나 계사 뒤에서 연결어미 {-어}와 {-오딕}가 각각 【-라】와 【-로딕】로, 전성어미 {-옴}이 【-롬】으로, 선어말어미 {-오-}가 【-로】로, {-거-}가 【-나-】로 실현되는 예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

225) 이 때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는 둘 중 어느 하나가 본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놓이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두 이형태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또는 음성모음이 양성모음으로 직접 대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유형의 모음이 서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분절음의 대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계사에 의한 이러한 이형태교체는 15세기 국어의 형태론과 음운론에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를 단순히 'ㄹ'의 첨가라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기에는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음운론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계사가 'ㄷ>ㄹ'의 변화와 관련해 'ㄹ'를 초성으로 갖는 어미 형태들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계사의 형태론적인 특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형태의 중가

형태론적인 내용의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교체 중에는 동일한 형태가 중가되어 새로운 이형태를 형성해 낸 경우가 있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 중 격조사 {-ㄹ}의 이형태 【-를】, 【-ᄅᆞᆯ】과 보조사 {-ㄴ}의 이형태 【-는】, 【-ᄂᆞᆫ】이 바로 형태의 중가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이다. 이들은 각각 【-ㄹ】와 【-ㄴ】 형태가 중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서 두 형태 【-ㄹ】와 【-ㄴ】를 질료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金完鎭(1973)은 '나[L]', '날[R]', '나ᄅᆞᆯ[RH]'을 대상으로 한 성조론적 관찰을 근거로 '나ᄅᆞᆯ[RH]'은 '날[R](←나[L]+-ᄋᆞᆯ[H]) + -ᄋᆞᆯ[H]'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평성을 갖는 1인칭 대명사 '나'가 대격조사와 통합된 '나ᄅᆞᆯ'에서 상성으로 실현되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대격조사 【-ㄹ】와 【-ᄅᆞᆯ】, 【-를】에 대한 이러한 중가성(重加性) 차이에 의한 설명은 【-ᄅᆞᆯ】, 【-를】 형태의 형성에 대한 15세기 공시적 설명이 되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수의적으로 대격조사가 한 번 통합되기도 하고 두 번 통합되기도 한다는 것이 공시적인 형태론적 과정으로 이해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형태의 중가를 교체의 내용으로 갖는 경우에 그 이형태들은 통시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그후 이들이 공시적인 이형태교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문법형태소에 따른 이형태교체의 내용

다음으로 3.1.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형태교체의 내용들이 실제로 15세기 국어 각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3.2.1. 격조사

[1] 매개모음 첨가

격조사의 이형태교체에서 매개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때 매개모음의 첨가를 요구하는 격조사들의 첫 분절음이 모두 'ㄹ'임이 주목된다.

(1) |-ㄹ| :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라와| : -라와, (-으라와), -ᄋᆞ라와
|-로| : -로, -으로, -ᄋᆞ로, -오로
|-록| : -록, (-으록), (-ᄋᆞ록)
|-론| : -론, (-으론), -ᄋᆞ론
|-롯| : -롯, -으롯, -ᄋᆞ롯

첨가되는 매개모음은 양성모음 'ㆍ'와 음성모음 'ㅡ' 중에서 체언이 지닌 모음의 음양적(陰陽的) 특성에 따라 선택되는데, 이미 모음조화 준수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15세기 당시에는 곧잘 이러한 원칙이 위배되는 양상을 보인다.

[2] 활음 'ㅣ' 첨가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일 때 이것의 영향을 받아 뒤에 오는 격조사가 활음 'ㅣ'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모음순행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이 때 얻게 된 활음 'ㅣ'는 선행 요소의 고유 요소가 아니라 새로이 첨가된 제3의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후속하는 격조사와 결합해 그 격조사의 이형태를 형성한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

(2) {-아} : -아, **-야**, -하
{-에} : -에, -애, **-예**

(2)의 호격조사 {-아}와 처격조사 {-에}에서 각각의 이형태 [-야]와 [-예]가 주목된다. 이 두 이형태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예]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체의 양상이 잘 준수되는 반면, [-야]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형태교체의 조건 중 형태론적 조건을 다루었던 Ⅲ-2.1.2.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ㄱ'탈락

공동격조사 또는 접속조사로 사용되는 {-과}의 이형태 [-과]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일 때 'ㄱ'가 탈락되어 이형태 [-와₂]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226]

(3) {-과} : -과, -와₁, **-와₂**

[4] '이'탈락

모음 '이'를 첫 구성 요소로 가진 격조사가 모음 '이'나 활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 통합될 경우, 격조사의 첫 구성 요소인 모음 '이'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4) {-이} : -이, -ㅣ, **ϕ**
{-이라와} : -이라와, -ㅣ라와, **-라와**
{-이며} : -이며, -ㅣ며, **-며**
{-이여₁} : -이여, -ㅣ여, **-여**
{-이여₂} : -이여, (-ㅣ여), **-여**

226) 15세기 공시적으로 'ㄱ'탈락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일 때 일어나는데, 조사 {-과}의 경우에는 'ㄱ'탈락의 환경이 'ㄹ'만으로 한정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활음 'ㅣ' 뒤에서는 'ㄱ'탈락이 일어난 [-와₂]가 아니라 모음 뒤에 분포하는 [-와₁]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운론적 측면에서 음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와 '이' 또는 'ㅣ'와 '이' 두 음이 연쇄될 때 그 중 하나를 탈락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한 형태론적인 제약이 동반된다. 즉, 두 음 중 어느 것이 탈락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절음의 강도와 같은 음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언과 조사 중 체언의 형태를 보존하려는 형태론적 전략에 의해 항상 이들 격조사들의 첫 분절음이 탈락하게 되는 형태론적인 문제이다.

한편, 이러한 '이'탈락은 초분절음인 성조의 실현과는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특히 주격조사 {-이}의 경우 '이'탈락에 의해 주격조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ᄃᆞ리[LR]'에서처럼 평성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해 그 성조가 상성이 되는 것은 형태론적으로 주격조사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227)

[5] 원순모음화

구격조사 {-로}의 한 이형태 【-오로】는 첨가된 매개모음이 후행 음절 '로'의 원순모음 '오'에 의해 동화를 입어 동일한 원순모음 '오'로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5) {-로} : -로, -으로, -ᄋᆞ로, -오로

[6]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15세기 국어 격조사의 이형태들 가운데에는 모음조화의 영향 아래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6) {-ㄹ} :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에} : -에, -애, -예
{-의} : -의, -ᄋᆡ
{-의/-ㅅ} : -의, -ᄋᆡ, -ㅣ, -ㅅ

227) {-이라와}, {-이며}, {-이여₁}, {-이여₂}에서도 '이'탈락과 독립된 성조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실제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杜詩諺解』의 '새라와'나 '션비라와' 등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새'와 '션비'가 각각 [R]과 [LH]의 성조를 지니고 있어 성조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의그에/-ㅅ그에} : **-의그에, -ᄋᆡ그에, -의게, -ᄋᆡ게,** -ㅣ게, -ㅅ그에, -ᄭᅦ(-ㅅ게), -ᄭᅴ (-ㅅ긔, -ㅅᄭᅴ), -ㅅ거긔
{-의손ᄃᆡ} : **-의손ᄃᆡ, -ᄋᆡ손ᄃᆡ,** -ㅣ손ᄃᆡ, 손ᄃᆡ cf. -ㄱ손ᄃᆡ

이 중 여격조사 {-의그에/-ㅅ그에}와 {-의손ᄃᆡ}의 이형태들에서 보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는 이들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속격조사 {-의/-ㅅ}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격조사의 경우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를 보이는 이형태는 [-를]과 [-ᄅᆞᆯ]로 이들을 각각 15세기 당시 이미 굳어진 이형태들이었던 것으로 파악하면,[228] 이 두 이형태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에 의해 대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ㅣ'활음화

모음 '이'를 첫 구성 요소로 가진 격조사가 모음 '이'나 활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통합될 때, 그 격조사의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어 체언의 모음과 함께 하향이중모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7) {-이} : -이, -ㅣ, ø
{-이라와} : -이라와, **-ㅣ라와,** -라와
{-이며} : -이며, **-ㅣ며,** -며
{-이여$_1$} : -이여, **-ㅣ여,** -여
{-이여$_2$} : -이여, **(-ㅣ여),** -여

(7)의 격조사들에서 보이는 이러한 'ㅣ'활음화는 하향이중모음의 형성이라는 15세기 당시 국어 음절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한편, 호격조사 {-아}의 이형태 중 [-하]는 이형태 [-아]와 비교해 볼 때 'ㅎ'의 첨가나 '하'형 형태로의 대체라는 교체의 내용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ㅎ'의 첨가로 볼 때는 보편적이지 못한 음운론적 과정이 되며, '하'형 형태로의 대체로 볼 때는 통시적으

---

228) 이형태의 형성 차원에서는 이 두 이형태가 대격조사의 질료적 존재인 [-ㄹ]가 중가(重加)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5세기 공시적으로는 [-ᄅᆞᆯ]과 [-를]로 굳어진 두 이형태가 대격조사의 이형태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로 진행된 형태론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으나 '하' 형 형태로의 대체라는 교체 내용이 여기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수성을 보이게 된다.

3.2.2. 보조사

[1] 매개모음 첨가

보조사 중 이형태교체에서 매개모음의 첨가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ㄴ} :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란} : -란, -으란, -ᄋᆞ란, -런

격조사에서와는 달리 매개모음의 첨가를 요구하는 보조사의 첫 분절음이 'ㄹ'외에 'ㄴ'도 있음이 주목된다.

[2] 'ㄱ'탈락

(2) {-고/-가} : -고, -구, -오, (-우), -가, -아
{-곰$_2$} : -곰, -옴$_1$, -옴$_2$
{-곳} : -곳, -옷$_1$, -옷$_2$

이들 보조사들에서 보이는 'ㄱ'탈락 현상은 15세기 공시적으로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일 때 'ㄱ'가 탈락되는 정연한 음운규칙으로 처리될 수 있다.

[3] '이'탈락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ᄃᆞᆫ}이 모음 '이'나 활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 통합될 경우, 이 보조사들의 첫 구성 요소인 모음 '이'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229]

---

229) 서르 머므로미 어루 半히나 ᄒᆞ도다(相留可判年) <두시-초 15:13a>
人間애 나고도 쇠어나 ᄆᆞ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ᄃᆞ외야 <석상 9:15b>
ᄒᆞ물며 ᄆᆞᆺ 처ᅀᅥᆷ에 會中에 듣고 隨喜ᄒᆞ니ᄯᆞ녀 <월석 17:49b>

(3) {-이나} : -이나, -ㅣ나, -나
{-이어나} : -이어나, -ㅣ어나, -어나
{-잇돈} : -잇돈, (-ㅅ돈), -ㅅ돈

[4]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보조사 중 그 이형태로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로 보조사 {-ㄴ}을 들 수 있다.

(4) {-ㄴ} : -ㄴ, -은, -온, -는, -ᄂᆞᆫ

이 때 보조사 {-ㄴ}의 【-는】, 【-ᄂᆞᆫ】은 대격조사 {-ㄹ}의 【-를】, 【-ᄅᆞᆯ】과 같이 질료적 존재인 【-ㄴ】의 중가(重加)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형태들이다.

한편, 보조사 {-고/-가}의 이형태 【-고】와 【-구】, {-란}의 이형태 【-란】과 【-런】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를 보이는 이형태들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출현을 이형태교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형태 【-구】와 【-런】이 모음조화에 의해 각각 【-고】, 【-란】과 상보성을 보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5] 'ㅣ'활음화

격조사 {-이}, {-이라와}, {-이며}, {-이여$_1$}, {-이여$_2$}와 같이 보조사 {-이나}, {-이어나}, {-잇돈}도 모음 '이'나 활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통합될 때, 이들의 첫 분절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어 체언의 모음과 함께 하향이중모음을 형성하는 【-ㅣ나】, 【-ㅣ어나】, (【-ㅅ돈】)을 각각의 이형태로 갖는다.

(5) {-이나} : -이나, -ㅣ나, -나
{-이어나} : -이어나, -ㅣ어나, -어나
{-잇돈} : -잇돈, (-ㅅ돈), -ㅅ돈

3.2.3. 종결어미

[1] 매개모음 첨가

종결어미 중 이형태교체에서 매개모음의 첨가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ㄴ고/-ㄴ가} : -ㄴ고, (-은고), (-ᄋᆞᆫ고), -ㄴ가, -은가, (-ᄋᆞᆫ가)
{-ㄴ다} : -ㄴ다, -은다, -ᄋᆞᆫ다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
{-ㄹ고/-ㄹ가} : -ㄹ꼬, (-을꼬), (-ᄋᆞᆯ꼬), -ㄹ까, -을까, -ᄋᆞᆯ까
{-ㄹ다} : -ㄹ따, -을따, -ᄋᆞᆯ따
{-ㄹ쎠} : -ㄹ쎠, -을쎠, -ᄋᆞᆯ쎠
{-ㄹ쎠라} : -ㄹ쎠라, (-을쎠라), (-ᄋᆞᆯ쎠라)
{-라} : -라, -으라, -ᄋᆞ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조화에 의해 나타날 법한, 매개모음이 첨가된 이형태들이 실제로는 많은 빈칸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상의 공백일 뿐 특정한 이형태의 결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활음 'ㅣ' 첨가

선행 요소의 어간이 'ᄒᆞ-'일 때 이것이 영향을 끼쳐 후행하는 종결어미가 활음 'ㅣ'를 얻게 되고, 이 활음 'ㅣ'가 결합된 형태가 종결어미의 이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의 이형태교체는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활음 'ㅣ'의 첨가는 동사 'ᄒᆞ-'의 개별적인 특수성(Ⅲ-2.1.2. 참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_1$, -어지라$_2$,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_1$, -아지라$_2$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1, (-어지이다2),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1, -아지이다2
{-에라} : -에라, -애라, **-얘라**
{-에이다} :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

한편, 종결어미 {-니오/-니아}와 {-리오/-리아}에서도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와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와 같이 활음 'ㅣ'가 첨가된 이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활음 'ㅣ'가 첨가된 경우로 이형태교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다.

[3] 'ㄱ'탈락

다음의 종결어미들은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인 'ㄱ'탈락 현상을 이형태교체에서 보여준다.

(3)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1, **-어지라2**,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1, **-아지라2**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1, **(-어지이다2)**,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1, **-아지이다2**
{-게라} : -게라, **(-에라)**
{-게이다} : -게이다, **(-에이다)**
{-고라} : -고라, **-오라**
{-고려} : -고려, **(-오려)**

[4] 모음 'ᄋᆞ/으', '이'탈락

매개모음과 관련해 존칭의 명령형 종결어미 {-으쇼셔}가 특수한 존재임을 지적했었는데, 이 형태소에서는 'ㄹ' 뒤에서의 양상에 근거해 매개모음의 첨가가 아닌 탈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쇼셔]는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날 때 나타나는 이형태로 [-ᄋᆞ쇼셔], [-으쇼셔]에서 모음 'ᄋᆞ/으'가 탈락된 형태이다.

(4)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
{-이} : (-이), -ㅣ, **ϕ**

한편, 종결어미 {-이}는 주격조사 {-이}와 같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 일 때 영형태로 실현된다. 종결어미 {-이}를 상정할 때 우리는 '바ᄅᆞ래 가ᄂᆞ니<용가 1:1b(2장)>'나 '어느 다 ᄉᆞᆲᄫᆞ리<월석 1:11b>' 등과 같이 기존에 '이다'나 '잇고'와 같은 문장의 종결 요소들이 생략되었다고 본 예들에 대해, 생략을 가정하지 않고 선어말어미 '-니-'나 '-리-' 뒤에 영형태의 종결어미 {-이}가 실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원순모음화

종결어미 {-니오/-니아}는 선어말어미 {-돗-}과 통합되며 첨가된 매개모음 'ᄋᆞ/으'가 {-돗-}의 원순모음 '오'에 의해 동일하게 원순모음 '오'로 동화되어 형성된 이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5)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

이 때 원순모음화는 변화에 관여하는 두 분절음 사이에 다른 분절음이 개재되어 있는 비인접 환경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종결어미의 이형태 중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₁**, **-어지라₂**,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₁**, **-아지라₂**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₁**, **(-어지이다₂)**,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₁**, **-아지이다₂**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어쎠} : **-어쎠**, **-아쎠**

{-에라} : **-에라**, **-애라**, -얘라

{-에이다} :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

이 중 {-거지라}, {-거지이다}, {-니오/-니아}, {-리오/-리아}에서 보이는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는 이들과 통합되는 어간이 지닌 모음의 음양성에 따라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인 교체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어쎠}, {-에라}, {-에이다}, {-으쇼셔}는 어간 모음의 음양성에 따라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라고 할 수 있다.

[7] 'ㄷ>ㄹ'의 변화

종결어미 {-다}는 몇몇 특정한 환경 아래서 그 이형태로서 [-라]를 갖는다. 이것은 'ㄷ>ㄹ'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통시적인 형태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교체 문제를 다루는 Ⅳ-4.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7) {-다} : -다, **-라**

[8] '나'형 형태로의 대체

종결어미 {-거지라}나 {-거지이다}의 경우 각각 동사 '오-'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이형태 '-나지라'와 '-나지이다'를 갖는데, 이들은 '나' 형태로의 대체라는 교체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체의 내용은 기원적으로 이 두 종결어미의 형성에 선어말어미 {-거-}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8)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_1$, -어지라$_2$,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_1$, -아지라$_2$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_1$, (-어지이다$_2$),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_1$, -아지이다$_2$

3.2.4. 연결어미

[1] 매개모음 첨가

주로 {-ㄴX}계와 {-ㄹX}계의 연결어미들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일 경우 매개모음이 첨가된 이형태들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ㄴ다마다} : -ㄴ다마다, **-은다마다**, **(-ᄋᆞᆫ다마다)**
{-ㄴ대} : -ㄴ대, **-은대**, **-ᄋᆞᆫ대**
{-ㄴ댄} : -ㄴ댄, **(-은댄)**, **(-ᄋᆞᆫ댄)**, -ㄴ덴, **(-은덴)**, **(-ᄋᆞᆫ덴)**
{-ㄴ돈} : -ㄴ돈, **(-은돈)**, **(-ᄋᆞᆫ돈)**
{-ㄴ돌} : -ㄴ돌, **-은돌**, **-ᄋᆞᆫ돌**
{-ㄴ뎌} : -ㄴ뎌, **-은뎌**, **(-ᄋᆞᆫ뎌)**
{-ㄴ뎐} : -ㄴ뎐, **(-은뎐)**, **(-ᄋᆞᆫ뎐)**, -ㄴ든
{-나$_1$} : -나, **-으나**, **-ᄋᆞ나**
{-나$_2$} : -나, **(-으나)**, **(-ᄋᆞ나)**
{-나$_3$} : -나, **(-으나)**, **(-ᄋᆞ나)**
{-니$_1$} : -니, **-으니**, **-ᄋᆞ니**, **-오니**
{-니$_2$} : -니, **(-으니)**, **(-ᄋᆞ니)**
{-ㄹᄉᆞ록} : (-ㄹᄉᆞ록), **-을ᄉᆞ록**, **(-ᄋᆞᆯᄉᆞ록)**
{-ㄹ쌴뎡} : -ㄹ쌴뎡, **-을쌴뎡**, **-ᄋᆞᆯ쌴뎡**
{-ㄹ써} : -ㄹ써, **-을써**, **-ᄋᆞᆯ써**
{-라$_1$} : -라, **-으라**, **-ᄋᆞ라**
{-라$_2$} : -라, **(-으라)**, **-ᄋᆞ라**
{-란뎌} : -란뎌, **-으란뎌**, **-ᄋᆞ란뎌**
{-란뎌만뎡} : -란뎌만뎡, **(-으란뎌만뎡)**, **(-ᄋᆞ란뎌만뎡)**

{-며} : -며, **-으며**, **-ᄋᆞ며**
{-면} : -면, **-으면**, **-ᄋᆞ면**

이들 형태소들은 첫 분절음이 'ㄴ, ㄹ, ㅁ'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자음들로 시작하고 있음이 공통된 특징이다.

[2] 활음 'ㅣ' 첨가

(2) {-거늘} : -거늘, -거ᄂᆞᆯ, -어늘$_1$, -어ᄂᆞᆯ$_1$, (-아늘), -아ᄂᆞᆯ, -어늘$_2$, -어ᄂᆞᆯ$_2$,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늘, -거…ᄂᆞᆯ, -어…늘$_1$, -어…ᄂᆞᆯ$_1$, (-아…늘), -아…ᄂᆞᆯ, -어…늘$_2$, -어…ᄂᆞᆯ$_2$,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든} :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건마ᄅᆞᆫ} : -건마ᄅᆞᆫ, -언마ᄅᆞᆫ$_1$, -안마ᄅᆞᆫ, -언마ᄅᆞᆫ$_2$, **-얀마ᄅᆞᆫ**, **(-연마ᄅᆞᆫ)**, -난마ᄅᆞᆫ, -거…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_1$, (-아…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_2$, **-야…ㄴ마ᄅᆞᆫ**, **(-여…ㄴ마ᄅᆞᆫ)**, (-나…ㄴ마ᄅᆞᆫ)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엄직} : -엄직, -암직, **(-염직)**, **-얌직**, (-웜직), -왐직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오ᄃᆡᆫ} : -오ᄃᆡᆫ, (-우ᄃᆡᆫ), **(-요ᄃᆡᆫ)**, **(-유ᄃᆡᆫ)**, (-아ᄃᆡᆫ), (-로ᄃᆡᆫ), -Vᄃᆡᆫ(H)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 (-로려), -V려(H)

이렇게 활음 'ㅣ'가 첨가된 이형태들의 존재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인 모음 '이'나 활음 'ㅣ'에 의한 '이'모음순행동화의 결과라 하겠다.

[3] 'ㄱ'탈락

(3) {-거나} : -거나, **-어나**, -거…나, **(-어…나)**

{-거늘} : -거늘, -거놀, -어늘$_1$, -어놀$_1$, (-아늘), -아놀, **-어늘$_2$**, **-어놀$_2$**, (-야늘), -야놀, -여늘, -여놀, (-나늘), -나놀, -거…늘, -거…놀, -어…늘$_1$, -어…놀$_1$, (-아…늘), -아…놀, **-어…늘$_2$**, **-어…놀$_2$**, -야…늘, -야…놀, (-여…늘), -여…놀, (-나…늘), -나…놀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건뎡} : -건뎡, **-언뎡**, (-거…ㄴ뎡), **-어…ㄴ뎡**

{-거든} : -거든, -거돈, -어든$_1$, -어돈$_1$, (-아든), -아돈, **-어든$_2$**, **(-어돈$_2$)**, (-야든), -야돈, -여든, -여돈, (-나든), -나돈, -거…든, -거…돈, -어…든$_1$, -어…돈$_1$, -아…든, -아…돈, **-어…든$_2$**, **(-어…돈$_2$)**, -야…든, -야…돈, (-여…든), (-여…돈), -나…든, (-나…돈)

{-건마론} : -건마론, -언마론$_1$, -안마론, **-언마론$_2$**, -얀마론, (-연마론), -난마론, -거…ㄴ마론, -어…ㄴ마론$_1$, (-아…ㄴ마론), **-어…ㄴ마론$_2$**, -야…ㄴ마론, (-여…ㄴ마론), (-나…ㄴ마론)

{-게} : -게, -거, -긔, -기, **-에**, **(-어)**, **-의**, **-이**

{-겟고} : (-겟고), **-엣고**

{-고} : -고, -구, **-오**, **(-우)**

{-고져} : -고져, **-오져**

{-곤} : -곤, **-온**

{-곰} : -곰, **(-옴)**

{-곳} : -곳, **-옷**

{-과뎌} : -과뎌, **-와뎌**

{-과뎌여} : -과뎌여, **-와뎌여**

{-관뎌} : -관뎌, **-완뎌**

{-곤대} : -곤대, **(-온대)**

{-괫고} : -괫고, **(-왯고)**

{-궷고} : -궷고, **(-웻고)**

연결어미에는 'ㄱ'탈락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 {-곰}, {-곤대}, {-괫고}, {-궷고}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ㄱ'가 탈락된 이형태들이 문증되지는 않지만 다른 어미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동형성에 입각해 이들에 있어서도 'ㄱ'가 탈락된 이형태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4] 모음 '오/우', '이'탈락

어간이 '가-, 나-, 자-, 하-, 녀-, 펴-'와 '오-, 보-, 두-, 주-' 및 '맛나-, ᄃᆞ려가-'와 같이 동사 '가-'와 '나-'가 참여한 합성어에서 뒤에 통합된 '-오X'계 연결어미들은 상성의 성조를 보유한 '-X[H]'형의 이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우X'에서 모음 '오/우'가 탈락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오ᄃᆞᆫ| : -오ᄃᆞᆫ, (-우ᄃᆞᆫ), (-요ᄃᆞᆫ), (-유ᄃᆞᆫ), (-아ᄃᆞᆫ), (-로ᄃᆞᆫ), -Vᄃᆞᆫ[H]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 (-로려), -V려[H]

[5]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5) |-거늘| : -거늘, -거ᄂᆞᆯ, -어늘₁, -어ᄂᆞᆯ₁, (-아늘), -아ᄂᆞᆯ, -어늘₂, -어ᄂᆞᆯ₂,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늘, -거…ᄂᆞᆯ, -어…늘₁, -어…ᄂᆞᆯ₁, (-아…늘), -아…ᄂᆞᆯ, -어…늘₂, -어…ᄂᆞᆯ₂,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₁, -어니와₂,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₁, -어…니와₂,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든| : -거든, -거ᄃᆞᆫ, -어든₁, -어ᄃᆞᆫ₁, (-아든), -아ᄃᆞᆫ, -어든₂, (-어ᄃᆞᆫ₂),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어…든₁, -어…ᄃᆞᆫ₁, -아…든, -아…ᄃᆞᆫ, -어…든₂, (-어…ᄃᆞᆫ₂),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건마ᄅᆞᆫ| : -건마ᄅᆞᆫ, -언마ᄅᆞᆫ₁, -안마ᄅᆞᆫ, -언마ᄅᆞᆫ₂, -얀마ᄅᆞᆫ, (-연마ᄅᆞᆫ), -난마ᄅᆞᆫ, -거…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₁, (-아…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₂, -야…ㄴ마ᄅᆞᆫ, (-여…ㄴ마ᄅᆞᆫ), (-나…ㄴ마ᄅᆞᆫ)
|-게| : -게, -거, -긔, -기, -에, (-어), -의, -이
|-ㄴ댄| : -ㄴ댄, (-은댄), (-ᄋᆞᆫ댄), -ㄴ덴, (-은덴), (-ᄋᆞᆫ덴)
|-ᄃᆞᆯ| : -ᄃᆞᆯ, -들, -드란
|-ᄃᆞ시| : -ᄃᆞ시, -드시, -더시, -디시, -ᄃᆞᆺ, -듯, -덧
|-디비| : -디비, -디위, -디외, -디웨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오ᄃᆞᆫ| : -오ᄃᆞᆫ, (-우ᄃᆞᆫ), (-요ᄃᆞᆫ), (-유ᄃᆞᆫ), (-아ᄃᆞᆫ), (-로ᄃᆞᆫ), -Vᄃᆞᆫ[H]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 (-로려), -V려(H)

이 중 {-돌}의 두 이형태 '-돌'과 '-들'에서 보이는 'ᄋᆞ'와 'ᄋᆞ'의 대치는 기원적으로 이 어미의 형성에 참여한 의존명사 'ᄃᆞ/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거든}에서 보이는 '-든'형 이형태와 '둔'형 이형태의 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거늘}에서 보이는 '-늘'형 이형태와 '-놀'형 이형태의 대치는 이 어미의 형성에서 동명사형어미에 대격조사가 통합될 때 첨가된 매개모음이 양성모음이었는지 음성모음이었는지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결어미 {-고}의 이형태 [-고]와 [-구]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를 보이는 이형태들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출현을 이형태교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형태 [-구]가 모음조화에 의해 [-고]와 상보성을 보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 'ㄷ>ㄹ'의 변화

(6) {-다가} : -다가, **-라가**
{-더든} : -더든, **-러든**

주로 계사 '(-)이-' 뒤에서 연결어미 {-다가}와 {-더든}은 각각 'ㄷ>ㄹ'라는 통시적인 형태음운론적 과정을 겪은 이형태 [-라가]와 [-러든]으로 실현된다.

[7] '아'형 형태로의 대체

(7) {-오디} : -오디, -우디, -요디, -유디, **-아디**, -로디, -V디(H)
{-오딘} : -오딘, (-우딘), (-요딘), (-유딘), **(-아딘)**, (-로딘), -V딘(H)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 (-로려), -V려(H)
{-올면} : -올면, (-울면), (-욜면), (-율면), (-롤면), **-알면**, -올면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 '오'계 연결어미들이 '아'형 이형태들을 취하는 경우로 이는 선어말어미 {-으시-}의 개별적인 형태론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아'형 이형태들은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통합되어 '샤'로 축약되는 음운론적 과정을 보인다.

[8] 'ㄹ'형 형태로의 대체

(8)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이 밖에 {-오딘}, {-오려}, {-올뎐} 등에서도 'ㄹ'형 이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들이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 통합된 예를 찾아볼 수 없어 실제로 'ㄹ'형 이형태들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거X'형의 연결어미들 중에는 동사 '오-'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나X'형 이형태나 불연속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어/나…X'형의 이형태들은 '나' 형태로의 대체와 구성 요소들의 불연속적 배열이라는 교체의 내용을 갖는데, 이러한 교체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종결어미의 경우와 같이 기원적으로 이들 연결어미들의 형성에 선어말어미 {-거-}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9] '나'형 형태로의 대체

(9) {-거늘} : -거늘, -거ᄂᆞᆯ, -어늘$_1$, -어ᄂᆞᆯ$_1$, (-아늘), -아ᄂᆞᆯ, -어늘$_2$, -어ᄂᆞᆯ$_2$,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늘, -거…ᄂᆞᆯ, -어…늘$_1$, -어…ᄂᆞᆯ$_1$, (-아…늘), -아…ᄂᆞᆯ, -어…늘$_2$, -어…ᄂᆞᆯ$_2$, -야…늘, -야…ᄂᆞᆯ, (-여…늘), -여…ᄂᆞᆯ, **(-나…늘)**, **-나…ᄂᆞᆯ**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든} :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건마론} : -건마론, -언마론$_1$, -안마론, -언마론$_2$, -얀마론, (-연마론), -난마론, -거…ㄴ마론, -어…ㄴ마론$_1$, (-아…ㄴ마론), -어…ㄴ마론$_2$, -야…ㄴ마론, (-여…ㄴ마론), (-나…ㄴ마론)

연결어미 {-거늘}, {-거니와}, {-거든}, {-건마론}의 경우 각각 동사 '오-'에 통합될 경우 '나'형의 이형태들로도 실현되는데, 이 역시 이들 연결어미들의 형성에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거-}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2.5. 전성어미

[1] 매개모음 첨가

전성어미 중 관형사형어미 {-ㄴ}, {-ㄹ}의 이형태교체에서 매개모음이 첨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 {-ㄴ} : -ㄴ, -은, -ᄋᆞᆫ
{-ㄹ} : -ㄹ, -을, -ᄋᆞᆯ

이 두 전성어미는 보조사 {-ㄴ}과 대격조사 {-ㄹ}의 이형태교체에서와는 달리 형태론적으로 중가(重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관형사형어미의 경우 문장에서 격을 실현시키거나 의미를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사와는 달리 단지 서술어의 용법을 서술적인 것에서 한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준다는 면에서 형태론적 중가에 의해 강조된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활음 'ㅣ' 첨가

명사형어미 {-옴}의 경우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일 때 이것으로부터 순행동화가 일어나 활음 'ㅣ'가 결합된 형태가 그 이형태로 나타난다.

(2) {-옴} : -옴, -움, -욤, -윰, -암, -룜, -V ㅁ(H)

[3] 모음 '오/우'탈락

15세기 국어에서 명사형어미 {-옴}은 어간이 '가-, 나-, 자-, 하-, 녀-'나 '오-, 보-, 두-, 주-' 등인 경우 모음의 자리에 거성의 성조를 지닌 형판만 있고 분절음은 없는 [-Vㅁ[H]] 형태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형태교체의 내용적 측면에서 '-옴/-움'의 모음 분절음 '오/우'가 탈락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3)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4]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명사형어미 {-옴}은 선행 어간의 모음이 지닌 음양성에 따라 그 이형태가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를 모두 지니고 있다.

(4)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5] '아'형 형태로의 대체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명사형어미 {-옴}이 통합된 경우 그 형태가 '-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명사형어미 {-옴}의 이형태가 '-암'으로 실현되었음을 말한다.

(5)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6] 'ㄹ'형 형태로의 대체

이것은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음운론적 차원에서 분절음의 대치나 첨가로 설명될 수 없고 '형태의 대체'라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명사형어미 {-옴}이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롬'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형태의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6)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3.2.6. 선어말어미

[1] 매개모음 첨가

매개모음 첨가를 이형태교체의 내용으로 가진 선어말어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니-| : -니-, -ᄋᆞ니-, -으니-, -오니-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ᄋᆡ이-

이 중 이형태 【-오니-】와 【-오이-】는 'ᄒᆞ리로소니', 'ᄒᆞ도소이다' 등과 같은 용례에서 나타나는 형태들로 첨가된 매개모음이 선행 요소의 원순모음에 의해 동화를 입은 경우이고 【-ᄋᆡ이-】는 후행 요소의 '이'모음에 의해 역행동화를 입은 경우가 된다.

[2] 활음 'ㅣ' 첨가

명사형어미 |-옴|에서와 같이 선어말어미 |-오-|도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 '이'나 활음 'ㅣ'일 때 이것으로부터 순행동화가 일어나 활음 'ㅣ'가 첨가된 형태가 그 이형태로 나타난다.

(2) |-ᄂᆞ-| : -ᄂᆞ-, -ㄴ-, -ᄂᆡ-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ᄋᆡ이-

반면,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외-】와 더불어 선어말어미 |-ᄂᆞ-|의 이형태인 【-ᄂᆡ-】는 모두 후행 요소가 선어말어미 |-이-|일 때 이것의 '이'모음에 의해 역행동화를 입어 활음 'ㅣ'가 첨가됨으로써 각각 하향이중모음을 형성한 경우이다. 또한 선어말어미 |-이-|의 이형태 중 하나인 【-ᄋᆡ이-】의 경우에는 첨가된 매개모음이 '-이-'의 '이'모음에 의해 역행동화를 입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모음순행동화에 의해 활음 'ㅣ'가 첨가된 경우 그것이 필수적인 현상임에 비해, '이' 모음역행동화에 의해 활음 'ㅣ'가 첨가된 경우는 그와는 달리 활음 'ㅣ'의 첨가가 수의적이라는 점에서 두 경우가 차이를 보인다.

[3] 'ㄱ'탈락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 【-거-】는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일 때 'ㄱ'가 탈락되어 이형태 【-어₂-】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거-} : -거-, -어-₁, -어-₂, -나-

[4] 모음 'ᄋᆞ/으', '오/우', '이'탈락

선어말어미 중 그 고유 요소로 가지고 있던 모음이 실제 이형태로 나타날 때 탈락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4) {-ᄂᆞ-} : -ᄂᆞ-, -ㄴ-, -니-
{-으시-} : -으시-, -ᄋᆞ시-, -시-, -으샤-, -ᄋᆞ샤-, -샤-
{-오-} : -오-, -우-, -요-, -유-, -와-, -아-, -로-, -V(H)-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익이-

이 중 선어말어미 {-ᄂᆞ-}와 {-으시-}의 이형태 【-ㄴ-】, 【-시-】, 【-샤-】는 각각 【-ᄂᆞ-】, 【-으/ᄋᆞ시-】, 【-으/ᄋᆞ샤-】에서 모음 'ᄋᆞ/으'가 탈락되어 만들어진 형태들이다. 반면 선어말어미 {-오-}와 {-이-}의 이형태인 【-V[H]-】와 【-ㆁ-】는 각각 【-오/우-】와 【-이-】에서 모음 '오/우'와 '이'가 탈락되어 만들어진 형태들이다.

【-ㄴ-】와 【-시-】, 【-샤-】의 경우에는 각각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과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모음일 때 무표모음 'ᄋᆞ/으'가 떨어지는 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V[H]-】와 【-ㆁ-】의 경우에는 '오/우'나 '이'의 탈락 원인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5] 원순모음화

선어말어미 {-니-}와 {-이-}는 원순모음을 갖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돗-} 뒤에 통합될 때 각각 [-오니-]와 [-오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때 '오'는 첨가된 매개모음이 선행 요소의 원순모음에 의해 동화를 입어 동일한 원순모음 '오'로 바뀌게 된 것이다.

(5) {-니-} : -니-, -ᄋᆞ니-, -으니-, **-오니-**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ᄋᆡ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니-]와 [-오이-]의 '오'가 매개모음에서 온 것임은 15세기 당시의 '煩惱ᄒᆞ시리샤ᄉᆞ이다'와 같은 용례와 함께 고려시대 구결 자료들에 나타나는 'ソ刀士ヽ丨(ᄒᆞ도ᄉᆞ이다), ソ斗皿巳丨(ᄒᆞ두ᄉᆞ이다), ヽ又士ヽ丨(이로ᄉᆞ이다), ソ斗士匕午(ᄒᆞ두ᄉᆞ니오), ソ刀士匕午(ᄒᆞ도ᄉᆞ니오)' 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6]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선어말어미의 이형태 중 양성모음형 이형태와 음성모음형 이형태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오-} : -오-, -우-, -요-, -유-, -와-, -아-, -로-, -V(H)-

한편, 선어말어미 {-돗-}의 두 이형태 [-도-]와 [-두-]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대치된 이형태들로 보이나 이들은 선행 요소가 지닌 모음의 음양성에 따라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인 교체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들의 출현을 이형태교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7] 'ㅣ'활음화

선어말어미 {-리-}와 {-으시-}는 후행 요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모음 '이'가 활음 'ㅣ'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

(7)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으시-} : -으시-, -ᄋᆞ시-, -시-, -으ᄉᆡ-, -ᄋᆞᄉᆡ-, -ᄉᆡ-

이는 자연스러운 음운론적 과정으로 두 선어말어미 {-리-}와 {-으시-}에서 'ㅣ'활음화가 이형태교체의 내용이 되고 있다.

[8] 'ㄷ>ㄹ'의 변화

통시적인 형태음운론적 과정으로 이해되는 'ㄷ>ㄹ' 변화가 다음과 같은 선어말어미들에서 관찰된다.

(8) {-더-} : -더-, -러-
{-돗-} : -돗-, -롯-, -도-, -두-, -로-, -옷-, -ㅅ-, -앗-

선어말어미 {-더-}와 {-돗-}이 각각 [-러-]와 [-롯-/-로-]로 실현될 때, 공통적으로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가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9] 마찰음의 폐쇄음화

선어말어미 {-ᅀᆞᆸ-}의 종성은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의 유형에 따라 '-Xㅸ-'형과 '-Xㅂ-'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때 종성에 위치한 'ㅸ'는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무성 자음인지 아니면 모음이나 유성 자음인지에 따라 'ㅸ ~ ㅂ'의 변화를 보인다.[230]

(9) {-ᅀᆞᆸ-} : -ᅀᆞᇦ-/-ᅀᆞ오-, -ᅀᆞᆸ-, -ᄌᆞᇦ-/-ᄌᆞ오-, -ᄌᆞᆸ-, -ᄉᆞᇦ-/-ᄉᆞ오-, -ᄉᆞᆸ-, -ᄍᆞᇦ-/-ᄍᆞ오-,
-ᄍ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

15세기 국어에서 'ㅸ'를 음소로서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마찰음이 폐쇄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231] 15세기에 순경음 'ㅸ'와 순중음 'ㅂ'의 대립

230) '듣ᄌᆞᄫᆞ니', '무ᄍᆞᄫᆞᆫ대', '보ᅀᆞᄫᆞ리러니' 등의 예는 각각 어미 {-니}, {-ㄴ대}, {-리-}가 {-ᅀᆞᆸ-}의 후행 요소로 온 것인데, 이 때 {-ᅀᆞᆸ-}과 이들 사이에 매개모음이 첨가되었고 또한 이들의 첫 분절음이 유성 자음 'ㄴ'와 'ㄹ'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개모음의 첨가는 분절음들 사이의 강도 제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Ⅳ-1.에서 매개모음의 문제를 다루며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31) 국어 음운사 기술에서 순경음 'ㅸ'와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것의 음소성 여부라고 하겠다. 그것

은 유·무성에 의한 대립이라기보다는 마찰음과 폐쇄음의 대립으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232) 이러한 입장에서 'ㅸ → ㅂ'의 변화는 무성음화가 아닌 마찰음의 폐쇄음화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0] 'ㅅ', 'ㅈ'의 경음화

선어말어미 {-ᄉᆞᆸ-}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무성 자음인 경우 'ㅅ'계나 'ㅈ'계의 이형태들로 실현되는데, 특히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불파음화된 무성폐쇄음(특히, [t'])으로 발음될 경우 'ㅅ'계와 'ㅈ'계의 이형태는 각각 초성이 경음화된 【-ᄍᆞᄫ-/-ᄍᆞ오-, -ᄍᆞᆸ-】과 【-ᄊᆞᄫ-/(-ᄊᆞ오-), -ᄊᆞᆸ-】의 형태로 나타난다.

(10) {-ᄉᆞᆸ-} : -ᅀᆞᄫ-/-ᅀᆞ오-, -ᅀᆞᆸ-, -ᄌᆞᄫ-/-ᄌᆞ오-, -ᄌᆞᆸ-, -ᄉᆞᄫ-/-ᄉᆞ오-, -ᄉᆞᆸ-, -ᄍᆞᄫ-/-ᄍᆞ오-,
-ᄍᆞᆸ-, -ᄊᆞᄫ-/(-ᄊᆞ오-), -ᄊᆞᆸ-

이것은 불파음화에 이은 경음화 현상이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이형태 형성에 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15세기 국어에서도 공시적 음운현상으로서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11] '아'형 형태로의 대체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면 그 형태가 '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가 【-아-】로 실현되었음을 말한다.

은 'ㅸ'이 어두에 나타나지 못하고 순중음 'ㅂ'와 최소대립쌍을 형성하는 예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 다른 음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분포 특성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ㅸ'를 'ㅂ'의 변이음(朴炳采 1971)이나 이상적·상징적 표기(南廣祐 1959, 劉昌惇 1962, 徐廷範 1982)로 간주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ㅂ'와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지 않으며(cf. 사ᄫᅵ:하나비, 설ᄫᅥ:길버서 등) 『訓民正音』(解例本)의 용자례(用字例)에서 초성의 하나로 그 쓰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국어에서 'ㅸ'의 음소성 여부에 대한 규명은 金錫得(1964)에서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바 있다.

232)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金武林(1992a)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金武林(1992a:188-191)에서는 연서(連書)를 동시적인 문자 복합의 원리로 이해하여 연서 문자들(ㅸ, ㅹ, ㅱ, ㆄ)의 공통 특질이 [+continuant] 자질로 요약되며 이것이 문자 'ㅇ'으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순경음 'ㅸ'와 순중음 'ㅂ'는 15세기 당시에 지속성 자질([continuant])에 의해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1)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도 선어말어미 {-오-}는 본래 '오' 형태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가의 '賜乎', '賜烏'나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ㅎ ㅎ', '= ろ'와 같은 표기가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로부터 우리는 15세기에 '샤'에 들어 있는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가 본래 '오'형의 형태에서 '아'형의 형태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ㄹ'형 형태로의 대체

선어말어미 중 'ㄹ'형 형태로의 대체를 보이는 것은 {-오-}로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로-]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12)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이 때 '-오-'가 '-로-'로 실현되는 것은 'ㄹ'첨가라는 음운론적 과정이 아니라 형태 [-오-]가 형태 [-로-]로 대체된 형태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13] '나'형 형태로의 대체

선어말어미 {-거-}는 동사 '오-' 뒤에서 '-거-'뿐만 아니라 '-나-' 형태로도 실현됨을 볼 수 있다.

(13) {-거-} : -거-, $-어_1-$, $-어_2-$, **-나-**

'-나-' 형태가 동사 '오-'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동사 '오-'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두 이형태 '-거-'와 '-나-' 사이에는 음운론적 내용의 변화를 언급할 수 없으므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형태 전체의 대체로 설명되어야 한다.

한편, 선어말어미 {-ᄉᆞᆸ-}은 어간의 마지막 분절음의 종류에 따라 【-ᅀᆞᇦ-/-ᅀᆞ오-, -ᅀᆞᆸ-】, 【-ᄌᆞᇦ-/-ᄌᆞ오-, -ᄌᆞᆸ-】, 【-ᄍᆞᇦ-/-ᄍᆞ오-, -ᄍᆞᆸ-】, 【-ᄉᆞᇦ-/-ᄉᆞ오-, -ᄉ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 등 다양한 이형태로 실현된다. {-ᄉᆞᆸ-}의 이형태교체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데,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에 의해 초성과 종성이 함께 달라지는, 즉 교체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ᄉᆞᆸ-}의 초성과 종성이 모두 인접 분절음과 결합될 때 변화에 민감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ᄉᆞᆸ-}의 초성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외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음인가에 따라서도 세분된 교체의 내용을 보여준다.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자음이면서 특히 'ㄷ, ㅈ, ㅊ'인 경우에는 【-ᄌᆞᇦ-/-ᄌᆞ오-】, 【-ᄌᆞᆸ-】, 【-ᄍᆞᇦ-/-ᄍᆞ오-】, 【-ᄍᆞᆸ-】으로 실현되고 나머지 자음들의 경우에는 【-ᄉᆞᇦ-/-ᄉᆞ오-】, 【-ᄉᆞᆸ-】, 【-ᄊᆞᇦ-/(-ᄊᆞ오-)】, 【-ᄊᆞᆸ-】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이 조음 위치의 동화에 의한 교체의 내용을 보이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때 15세기 국어에서 설음(舌音)으로 분류된 'ㄷ'와 치음(齒音)으로 분류된 'ㅈ, ㅊ'가 음운과정에서 과연 자연류(natural class)를 형성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당시에 치음 'ㅈ, ㅊ'의 음가가 현대국어와는 달랐다는 점을 상기하면[233] 이 두 음의 조음위치가 같은 치음인 'ㅅ'보다는 조금 뒤쪽인 설음 'ㄷ'와 가까웠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즉, 'ㄷ, ㅈ, ㅊ'의 조음위치가 서로 유사했으므로 이들이 음운과정에서 함께 자연류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이형태교체 중 초성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음들의 환경에서는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에 의해 'ㅅ'를 초성으로 갖는 이형태가 실현되었다고 설명해 볼 수 있어,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초성에서 보이는 변화를 통해 조음위치에 따른 동화 현상을 선어말어미에서 나타나는 이형태교체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234]

---

233)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허웅(1964), 李基文(1969), 이명규(1993)과 姜信沆(1983), 金周源(198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견해는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를 어떤 모음 앞에서나 치경음 [s, ts, ts^h]로 보는데 비해, 후자의 견해는 구개모음 'i, y' 앞에서는 경구개치경음 [ʃ, tʃ, $tʃ^h$]나 치경경구개음 [ɕ, tɕ, $tɕ^h$]로, 비구개모음 앞에서는 치경음 [s, ts, ts^h]로 본다. 중세국어 치음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최근 논의로 임용기(1999)를 참조할 수 있다.

234)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5세기 국어의 치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선어말어미 {-거-}의 경우에는 [-나-]라는 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사 '오-'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이형태이다. 이 이형태의 형성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추정이 어렵고, 또한 이것이 어떤 보편성을 갖는 이형태교체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선어말어미 {-돗-}의 경우에도 이것의 이형태들 사이에 어떠한 교체 내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돗-]과 [-옷-], 그리고 [-ㅅ-]의 세 형태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형태적 연관성만을 고려한다면 '돗 → 옷 → ㅅ'와 같은 변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상으로는 석독구결에 '-ㅋ七(옷)-', '-七(ㅅ)-' 정도가 나타나고[235] '-돗-'의 경우에는 'ソ斗士ヒ午(ᄒᆞ두ᄉᆞ니오)', 'ソ刀士ヒ午(ᄒᆞ도ᄉᆞ니오)'의 예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음독구결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과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236]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선어말어미 {-돗-}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교체의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 중에는 어떤 하나의 이형태에 특정한 음운현상이 적용되어 또다른 이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14) 가. {-ᄆᆞᆺ/-ᄇᆞᆺ} : -ᄆᆞᆺ, -ᄇᆞᆺ, -ᄫᆞᆺ
{-ᄃᆞ록} : -ᄃᆞ록, -도록
나.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

---

데,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235) 이승재(1998)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口七(곳)-', '-ㅣ七(앗)-', '-ㅋ七(옷)-', '-七(ㅅ)-' 등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口七(곳)-'의 경우는 '作ソ口七ノ矛㢱(作ᄒᆞ곳 호리며)<금광 15:6>', '具是ソ [令]刂口口七ノ㐅七丨(具足히고곳 흜다)<금광 15:14>' 등에서와 같이 어말어미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백두현(1999)에서 욕망 표현의 어말어미로 파악된 바 있다. 또한 '-ㅣ七(앗)-'의 경우에는 'ㅣ'를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 분포하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분리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감동법 선어말어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36) 이것은 국어의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은 15세기에 이들이 완전하게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고 복잡한 분포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다. |-ㄹ고/-ㄹ가| : -ㄹ꼬, (-을꼬), (-ᄋᆞᆯ꼬), -ㄹ까, -을까, -ᄋᆞᆯ까
|-ㄹ다| : -ㄹ따, -을따, -ᄋᆞᆯ따
|-ㄹ셔| : -ㄹ쎠, -을쎠, -ᄋᆞᆯ쎠
|-올뎬| : -올뗸, (-울뗸), (-욜뗸), (-율뗸), (-롤뗸), -알뗸, -욀뗸
라. |-디비| : -디비, -디위, -디외, -디웨
마. |-사| : -사, -ᅀᅡ
바. |-ᄃᆞ시| : -ᄃᆞ시, -드시, -더시, -디시, -ᄃᆞᆺ, -듯, -덧

(14-가)의 '-봇'과 '-도록'은 각각 '-ᄇᆞᆺ'과 '-ᄃᆞ록'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경우로, (14-나)의 '-뇨/-녀' 계열과 '-료/-려' 계열의 이형태들은 각각 '-니오/-니어'와 '-리오/-리어'에서 'ㅣ'활음화가 일어난 경우로, (14-다)의 각자병서로 표기된 예들은 경음화가 적용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14-라)의 '-디위, -디외, -디웨'는 '-디비'가 'β>w'의 변화를 입은 경우로,237) (14-마)의 '-ᅀᅡ'는 '-사'가 'ㅅ>ㅿ'의 변화를 입은 경우로 보이며238) (14-바)의 '-ᄃᆞᆺ, -듯, -덧'은 각각 '-ᄃᆞ시, -드시, -더시'에서 끝음절의 모음'이'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

237) 李基文(1969:143)에서는 15세기의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 'ㅟ'는 /uy/(=/uj/)였던 것을 지적하며 '-디위, -디외, -디웨'의 '위, 외, 웨'는 [wi]를 표기하고자 한 노력의 서로 다른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디비'의 /β/가 '-디위, -디외, -디웨'에서처럼 세 가지로 다르게 변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β>w'의 두 가지 변화, 즉 양성형인 '오'와 음성형인 '우'로의 변화가 모두 |-디비|의 이형태 형성에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디웨|의 경우는 'β>w'의 변화 외에 제2음절에서 모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선어말어미 |-ᅀᆞᆸ-|의 이형태들 중 '-ᅀᆞ오-, -ᄌᆞ오-, -ᄉᆞ오-' 또한 각각 '-ᅀᆞᄫᆞ-, -ᄌᆞᄫᆞ-, -ᄉᆞᄫᆞ-'에서 'β>w'의 변화를 입어 형성된 형태들인데, 이는 비록 후행 요소와의 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ᄫ'의 통시적 변화에 의해 '-ᅀᆞ오-, -ᄌᆞ오-, -ᄉᆞ오-' 형태들이 '-ᅀᆞᄫᆞ-, -ᄌᆞᄫᆞ-, -ᄉᆞᄫᆞ-' 형태들을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공시적인 이형태교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38) |-사|는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서 '沙'에 대응되는 형태소로 이것이 15세기에 주로 '-ᅀᅡ'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 > -ᅀᅡ'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李賢熙 1995b, 兪昌均 1996, 金武林 1999 등). 그렇다면 이것은 통시적으로 무성음 'ㅅ'가 유성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에서 유성음화를 겪어 'ㅿ'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의 예들에서 보이는 변화의 내용은 그것이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각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보이는 교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부분 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변화를 입어 형성된 이형태들은 이형태교체에서 다른 이형태들과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포의 중복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한 형태소에 대해 고형(古形)의 이형태와 신형(新形)의 이형태가 공존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3.3. 요약

3.2.에서 우리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나타나는 교체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형태교체 내용은 크게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과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으로 나뉘는데, 다양한 교체의 내용들은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일련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을 보여준다.

(1)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
　가. 분절음의 첨가: 매개모음 첨가, 활음 'ㅣ' 첨가
　나. 분절음의 탈락: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다. 분절음의 대치: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ㅅ', 'ㅈ'의 경음화, 'ㄷ>ㄹ'의 변화
(2)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
　가. 형태의 대체: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나. 형태의 중가: 'ㄹ → 를/ᄅᆞᆯ', 'ㄴ → 는/ᄂᆞᆫ'

이러한 교체의 내용에는 15세기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이미 그 변화가 15세기 이전에 일어난,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함께 존재하는데,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구분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먼저 (1-가)의 활음 'ㅣ'첨가, (1-나)의 'ㄱ'탈락, 'ᄋᆞ/으'탈락, 그리고 (1-다)의 원순모음화,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ㅅ', 'ㅈ'의 경음화 정도가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교체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은 15세기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처리해 볼 수 있다. 특히 활

음 'ㅣ'의 첨가는 '이'모음의 역행동화와 순행동화 모두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15세기 당시 '이'모음에 의한 동화현상이 실재하던 음운현상임을 말해준다.

반면, (1-나)의 '오/우'탈락이나 (1-다)의 'ㄷ>ㄹ'의 변화, 그리고 (2)의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을 보이는 경우들은 모두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교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15세기 이전에 나타난 음운론적, 형태론적 변화가 각 형태소들의 새로운 이형태들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것으로 15세기 공시적 차원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변화의 내용을 보여준다.

한편, 나머지 교체 내용, 즉 (1-가)의 매개모음 첨가나 (1-나)의 '이'탈락, (1-다)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는 이것이 공시적인 성격과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교체 내용 중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매개모음 첨가의 경우 자음들 간의 강도 조절이라는 음운론적인 기제와 어간 형태의 유지라는 형태론적인 요구가 함께 고려되는 형태음운론적 해석이 시도될 수 있으나,[239]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15세기 공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본래 이러한 형태음운론적 배경에 의해 첨가되는 매개모음들이 이미 15세기 이전에 각 문법형태소들이 갖는 매개모음형 이형태들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40]

다음으로 '이'탈락의 경우는 동일한 분절음의 연쇄에서 두 번째 분절음이 탈락되는 현상인데, 공시적으로 동일 분절음의 탈락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15세기 이전에 이러한 환경에서 각 문법형태소들이 영형태의 이형태들을 형성했다고 하는 통시적인 해석을 내려볼 수도 있다. 즉, 주격조사 {-이}가 모음 '이'나 활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영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분절음의 공시적인 탈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던 영형태의 이형태가 실현된 것이라는 통시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는 문법형태소가 지닌 모음의 음양성이 선행 요소의 모음이 지닌 음양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것은 모음조화라는 15세기 공시적인 음운

239) 이에 대해서는 Ⅳ-1.을 참조할 수 있다.

240) 이러한 점에서 'ㄱ'탈락의 경우는 그것이 공시적인 교체의 내용이었음을 보여준다. 매개모음 첨가와는 달리 'ㄱ'탈락의 경우는 이 현상이 16세기 후반에 소멸의 길을 걷게 되자, 각 문법형태소들에서 나타나던 'ㅇ'형 이형태들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ㄱ'가 탈락된 이형태들이 공시적으로 나타나던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과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양성형 이형태와 음성형 이형태의 실현은 어떤 하나의 이형태에 공시적으로 모음조화가 적용되어 다른 이형태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선행 요소의 모음에 따라 두 이형태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된다.[241] 그렇다면 15세기 일부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나는 교체 내용인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는 이미 15세기 이전에 모음조화가 적용되어 나타난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가)의 매개모음 첨가나 (1-나)의 '이'탈락, (1-다)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는 모두 음운과정의 형태론화(morphologization)와 관련된 현상들로서 이전 시대의 공시적 음운과정이 15세기에 이미 형태론화하여 일부 문법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내용을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242]

결국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이 다양한 공시적 · 통시적 음운현상의 결과임에 비해,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은 통시적인 현상으로서 특정 형태소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절음의 대치 차원이 아닌, 형태의 대체나 증가의 차원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각 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 양상을, 교체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해 볼 수 있다.

〈일러두기〉

교체 내용 중 '기타'에는 단일 이형태의 경우나 교체의 기본이 되는 형태, 다른 이형태들의 질료적 존재가 되는 이형태, 그리고 개별적인 형태의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들이 표시된다.

241) 이에 대해서는 Ⅱ-3.의 첫 번째 각주에서 15세기 국어의 특이처격조사 【-의】와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242) 음운과정의 형태론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내용에 대해 그것을 이와 같이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으나, 이에 대한 이론(異論)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 교체 내용에 의한 15세기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양상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중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중가	
격조사	|-과|			-와$_2$													과, -와$_1$
	|-두고|																-두고
	|-ᄃᆞ려|																-ᄃᆞ려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를, -ᄅᆞᆯ	-ㄹ
	|-라와|	(-으라와) -ᄋᆞ라와															-라와
	|-로|	-으로 -ᄋᆞ로						-오로									-로
	|-록|	(-으록) (-ᄋᆞ록)															-록
	|-론|	(-으론) -ᄋᆞ론															-론
	|-롯|	-으롯 -ᄋᆞ롯															-롯
	|-아|		-야														-아, -하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격조사	{-에}		-예						-에/-애								
격조사	{-의}								-의/-ᄋᆡ								
격조사	{-의/-ᄉ}								-의/-ᄋᆡ								-ᄉ, -ㅣ
격조사	{-의그에/-ᄉ그에}								-의그에 /-ᄋᆡ그에 -의게 /-ᄋᆡ게								-ᄉ그에 -ᄭᅦ -ᄭᅴ -ᄉ거긔 -ㅣ게
격조사	{-의손ᄃᆡ}								의손ᄃᆡ / ᄋᆡ손ᄃᆡ								-ㅣ손ᄃᆡ cf. -ㄱ손ᄃᆡ
격조사	{-이}				ϕ					-ㅣ							-이
격조사	{-이라와}				라와					-ㅣ라와							-이라와
격조사	{-이며}				며					-ㅣ며							-이며
격조사	{-이여1}				여					-ㅣ여							-이여
격조사	{-이여2}				여					(-ㅣ여)							-이여
격조사	{-ᄒᆞ고}																ᄒᆞ고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보조사	{-ㄱ}																-ㄱ
	{-고/-가}			-오 (-우) -아													-고 -구 -가
	{-곰$_1$}																-곰
	{-곰$_2$}			-옴$_2$													-곰, -옴$_1$
	{-곳}			-옷$_2$													-곳, -옷$_1$
	{-ᄀᆞ티}																-ᄀᆞ티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는, -ᄂᆞᆫ	-ㄴ
	{-나마}																-나마
	{-도}																-도
	{-란}	-으란 -ᄋᆞ란															-란, -런
	{-ㅁ}																-ㅁ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ㅡ'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보조사	{-마다}																-마다
	{-마ᄅᆞᆫ}																-마ᄅᆞᆫ
	{-브터}																-브터
	{-ᄆᆞᆽ/-ᄇᆞᆽ}																-ᄆᆞᆽ, -ᄇᆞᆽ, -봊
	{-셔}																-셔
	{-사}																-사, -ᅀᅡ
	{-이나}				-나					-ㅣ나							-이나
	{-이어나}				-어나					-ㅣ어나							-이어나
	{-잇ᄃᆞᆫ}				-ㅅᄃᆞᆫ					(-ㅣㅅᄃᆞᆫ)							-잇ᄃᆞᆫ
	{-ㅇ}																-ㅇ
	{-컨마ᄅᆞᆫ}																-컨마ᄅᆞᆫ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중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중가	
종결어미	{-거지라}		-야지라	-어지라$_2$ -아지라$_2$											-나지라		-거지라 -가지라 -어지라$_1$ -아지라$_1$
	{-거지이다}		-야지이다	(-어지이다$_2$) -아지이다$_2$											-나지이다		-거지이다 -가지이다 -어지이다$_1$ -아지이다$_1$
	{-게라}			(-에라)													-게라
	{-게이다}			(-에이다)													-게이다
	{-고라}			-오라													-고라
	{-고려}			(-오려)													-고려

교체 내용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종결어미	{-ㄴ고 /-ㄴ가}	(-은고) (-ᄋᆞᆫ고) /-은가 (-ᄋᆞᆫ가)															-ㄴ고 -ㄴ가
	{-ㄴ다}	-은다 -ᄋᆞᆫ다															-ㄴ다
	{-ㄴ뎌}	(-은뎌) (-ᄋᆞᆫ뎌)															-ㄴ뎌
	{-니오 /-니아}	-으뇨/-ᄋᆞ뇨 -으니오 /(-ᄋᆞ니오) -으녀/(-ᄋᆞ녀) (-으니여) /-ᄋᆞ니여 -으니아 /(-ᄋᆞ니아) -으니야 /(-ᄋᆞ니야)						-오뇨 (-오니오) -오녀 -오니여 (-오니아) -오니야									-뇨 -니오 -녀 -니여 -니아 -니야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ㅡ'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종결어미	{-닛가}																-닛가
	{-다}											-라					-다
	{-ㄹ고 /-ㄹ가}	(-을꼬) (-올꼬) /-을까 -올까															-ㄹ꼬 /-ㄹ까
	{-ㄹ다}	-을따 -올따															-ㄹ따
	{-ㄹ써}	-을써 -올써															-ㄹ써
	{-ㄹ쎼라}	(-을쎄라) (-올쎄라)															-ㄹ쎄라
	{-라}	-으라 -ᄋᆞ라															-라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종결어미	{-리오/-리아}	-으료/-ᄋᆞ료 -으리오 /-ᄋᆞ리오 -으려/-ᄋᆞ려 -으리여 /(-ᄋᆞ리여) -으리아 /(ᄋᆞ리아) (으리야) /(-ᄋᆞ리야)															-료 -리오 -려 -리여 -리아 -리야
	{-마}																-마
	{-사이다}																-사이다
	{-아져}																-아져
	{-어쎠}																
	{-에라}		-얘라						-에라 /-애라								
	{-에이다}		예이다						-에이다 /-애이다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종결어미	|-으쇼셔|					-쇼셔			-으쇼셔 /-ᄋᆞ쇼셔								
	|-이|				∅					-ㅣ							(-이)
	|-잇고 /-잇가|																-잇고 /-잇가
	|-져|																-져
	|-져라|																-져라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중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야'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중가	
연결어미	{-거나}			-어나 -어…나													-어나 -어…나
	{-거늘}		(-야늘) -야놀 -여늘 여놀 (-야…늘) 야…놀 (-여…늘) 여…놀	-어늘$_2$ -어놀$_2$ -어…늘$_2$ 어…놀$_2$					-어늘$_1$ -어놀$_1$ -어…늘$_1$ -어…놀$_1$ / (-아늘) 아놀 (아…늘) 아…놀						(-나늘) (-나놀) (-나…늘) -나…놀		-거늘 -거놀 -거…늘 -거…놀
	{-거니와}		(여니와) (여…니와) 야니와 야…니와	어니와$_2$ 어…니와$_2$											나니와 (나…니와)		거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1$
	{-건뎡}			언뎡 어…ㄴ뎡													건뎡 (거…ㄴ뎡)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거든}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어…든$_2$ (-어…ᄃᆞᆫ$_2$)					-어든$_1$ -어ᄃᆞᆫ$_1$ -어…든$_1$ -어…ᄃᆞᆫ$_1$ / (-아든) -아ᄃᆞᆫ -아…든 -아…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건마ᄅᆞᆫ}		-얀마ᄅᆞᆫ (-연마ᄅᆞᆫ) -야… ㄴ마ᄅᆞᆫ (-여… ㄴ마ᄅᆞᆫ)	언마ᄅᆞᆫ$_2$ -어… ㄴ마ᄅᆞᆫ$_2$					-언마ᄅᆞᆫ$_1$ -어… ㄴ마ᄅᆞᆫ$_1$ / -안마ᄅᆞᆫ (-아…ㄴ마 ᄅᆞᆫ)						-난마ᄅᆞᆫ (-나… ㄴ마ᄅᆞᆫ)		-건마ᄅᆞᆫ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게}			-에 (-어) -의 -ᄋᆡ													-게 -거 -긔 -ᄀᆡ
	{-겟고}			-엣고													(-겟고)
	{-고}			-오 (-우)													-고 -구
	{-고져}			-오져													-고져
	{-곤}			-온													-곤
	{-곰}			(-옴)													-곰
	{-곳}			-옷													-곳
	{-과뎌}			-와뎌													-과뎌
	{-과ᄃᆡ여}			-와ᄃᆡ여													-과ᄃᆡ여
	{-관ᄃᆡ}			-완ᄃᆡ													-관ᄃᆡ
	{-곤대}			(-온대)													곤대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괫고}			(-왯고)													-괫고
연결어미	{-곗고}			(-엣고)													-곗고
연결어미	{-ㄴ다마다}	-은다마다 (-ᄋᆞᆫ다마다)															-ㄴ다마다
연결어미	{-ㄴ대}	-은대 ᄋᆞᆫ대															-ㄴ대
연결어미	{-ㄴ댄}	(-은댄) (-ᄋᆞᆫ댄) (-은덴) (-ᄋᆞᆫ덴)															-ㄴ댄 ㄴ덴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ㄴᄃᆞᆫ}	(-은ᄃᆞᆫ) (-ᄋᆞᆫᄃᆞᆫ)															-ㄴᄃᆞᆫ
	{-ㄴᄃᆞᆯ}	-은ᄃᆞᆯ -ᄋᆞᆫᄃᆞᆯ															-ㄴᄃᆞᆯ
	{-ㄴ뎌}	-은뎌 (-ᄋᆞᆫ뎌)															-ㄴ뎌
	{-ㄴ던}	(-은던) (-ᄋᆞᆫ던)															ㄴ던 ㄴ든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나$_1$}	-으나 -ᄋᆞ나															-나
	{-나$_2$}	(-으나) (-ᄋᆞ나)															-나
	{-나$_3$}	(-으나) (-ᄋᆞ나)															-나
	{-니$_1$}	-으니 -ᄋᆞ니						-오니									-니
	{-니$_2$}	(-으니) (-ᄋᆞ니)															-니
	{-노니}																-노니
	{-다가}											-라가					-다가
	{-다가며}																-다가며
	{-더든}											-러든					-더든
	{-도}																-도
	{-디}																-디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디비}																-디비 -디위 -디외 -디웨
	{-디옷}																-디옷
	{-ᄃᆞ록}																-ᄃᆞ록 -도록
	{-ᄃᆞᆯ}								-ᄃᆞᆯ/-들								-ᄃᆞ란
	{-ᄃᆞ시}								-드시 /-ᄃᆞ시 -듯 /-ᄃᆞᆺ								-더시 -디시 -덧

교체 내용 / 문법 형태소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ㄴ'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ㄹᄉᆞ록}	-을ᄉᆞ록 (-ᄋᆞᆯᄉᆞ록)															-ㄹᄉᆞ록
연결어미	{-ㄹᄲᅳᆫ뎡}	-을ᄲᅳᆫ뎡 -ᄋᆞᆯᄲᅳᆫ뎡															-ㄹᄲᅳᆫ뎡
연결어미	{-ㄹᄊᆡ}	-을ᄊᆡ -ᄋᆞᆯᄊᆡ															-ㄹᄊᆡ
연결어미	{-$라_1$}	-으라 -ᄋᆞ라															-라
연결어미	{-$라_2$}	(-으라) -ᄋᆞ라															-라
연결어미	{-란ᄃᆡ}	-으란ᄃᆡ -ᄋᆞ란ᄃᆡ															-란ᄃᆡ
연결어미	{-란ᄃᆡ만뎡}	(-으란ᄃᆡ만뎡) (-ᄋᆞ란ᄃᆡ만뎡)															-란ᄃᆡ만뎡

문법형태소 \ 교체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ᄋ/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연결어미	|-며|	-으며 -ᄋ며															-며
	|-면|	-으면 -ᄋ면															-면
	|-사|																-사, -ᅀᅡ
	|-어|		-여 -야					-워 -와	-어 -아					-라			
	|-엄직|		(-염직) -얌직					(-웜직) -왐직	-엄직 -암직								
	|-오되|		-유되 -요되						-우되 -오되				-아되	-로되			\'되(H)
	|-오된|		(-유된) (-요된)						(-우된) -오된				(-아된)	(-로된)			\'된(H)
	|-오려|		(-유려) -요려						-우려 -오려				-아려	(-로려)			\려(H)
	|-올뗀|		(-율면) (-욜면)						(-올면) -올뗀				-알뗀	(-롤면)			올면

문법 형태소 \ 교체 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형태의 증가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ᆞ/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전성어미	{-기}																-기
	{-ㄴ}	-은 -ᄋᆞᆫ															-ㄴ
	{-디}																-디
	{-돌}																-돌
	{-ㄹ}	-을 -ᄋᆞᆯ															-ㄹ
	{-옴}		-윰 -욤						-움 -옴				-암	-롬			-V̄ㅁ(H)
	{-이}																-이
	{-히}																-히

문법형태소 \ 교체내용		음운론적 내용												형태론적 내용			기타
		분절음의 첨가		분절음의 탈락				분절음의 대치						형태의 대체			
		매개모음의 첨가	활음 'ㅣ' 첨가	'ㄱ'탈락	'이'탈락	'ㆍ/으'탈락	'오/우'탈락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ㅅ','ㅈ'의 경음화	'ㄷ>ㄹ'의 변화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선어말어미	|-거-|			-어-$_2$												-나-	-거-, -어-$_1$
	|-니-|	-으니- -ᄋᆞ니-						-오니									-니-
	|-ᄂᆞ-|		-니-			-ㄴ-											-ᄂᆞ-
	|-더-|												-러-				-더-
	|-돗-|												-롯- -로-	-앗-			-돗-, -도-, -두-, -옷-, -ㅅ-
	|-리-|	-으리- -ᄋᆞ리-								-rj- -으rj- -ᄋᆞrj-							
	|-ᅀᆞᆸ-|										-ᅀᆞᄫ- -ᅀᆸ- -ᅀᆸ-	-ᄲᆞᆸ- / -ᄲᆞᆸ- -ᄶᆞᆸ- / -ᄶᆞᆸ-					-ᅀᆞᄫ-/-ᅀᆞ오- -ᅀᆸ-/-ᄌᆞ오- -ᅀᆸ-/-ᅀᆞ오- (-ᄊᆞ오-) -ᄶᆞ오-
	|-오-|		-요- -유- -와-						-오- -우-					-아-	-로-		
	|-으시-|					-시-			-으시- /-ᄋᆞ시-	-으시j- -ᄋᆞ시j- -시j-							
	|-이-|	-으이- -ᄋᆞ이-	-의이-					-오이-									-이

<표4>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내용의 종합

음운론적 내용	분절음의 첨가	매개모음 첨가	예 |-ㄴ다| : -ㄴ다, -은다, -ᄋᆞᆫ다
		활음 'ㅣ' 첨가	예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ᄂᆞ-| : -ᄂᆞ-, -ㄴ-, -ᄂᆡ-
	분절음의 탈락	'ㄱ'탈락	예 |-고라| : -고라, -오라
		'이'탈락	예 |-이어나| : -이어나, -ㅣ어나, -어나
		'ᄋᆞ/으'탈락	예 |-으시-| : -으시-, -ᄋᆞ시-, -시-, -으ㅅj-, -ᄋᆞㅅj-, -ㅅj-
		'오/우'탈락	예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분절음의 대치	원순모음화	예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ᄋᆡ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예 |-어쎠| : -어쎠, -아쎠
		'ㅣ'활음화	예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마찰음의 폐쇄음화	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ᄉᆞᆸ-, -ᅐᆞᆸ-/-ᅐ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ㅅ', 'ㅈ'의 경음화	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ᄉᆞᆸ-, -ᅐᆞᆸ-/-ᅐ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ㄷ>ㄹ'의 변화	예 |-더-| : -더-, -러-
형태론적 내용	형태의 대체	'아'형 형태로의 대체	예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ㄹ'형 형태로의 대체	예 |-오-| : -오-, -우-, -요-, -유-, -와, -아, -로, V(H)
		'나'형 형태로의 대체	예 |-거-| : -거-, -어-1, -어-2, -나-
	형태의 증가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예 |-ㄹ| : -ㄹ, -을, ᄋᆞᆯ, -ᄅᆞᆯ, -롤 |-ㄴ| :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Ⅳ. 형태·음운론적 쟁점에 대한 논의

이 장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문제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자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혀보고자 한다.

1. 매개모음 첨가의 형태음운론적 해석

국어에서 활용, 곡용, 파생 등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음운현상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매개모음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으로 우리말이 기록되기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어사 자료에서 이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어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된다.

배주채(1993)은 현대국어의 매개모음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들을 대상으로 개화기 이후 국어의 매개모음과 관련된 그 동안의 성과들을 종합한 연구사로, 이를 통해 전통문법으로부터 생성음운론, 그리고 그 이후 생성음운론에 대한 반성의 기반 위에서 이룩된 매개모음에 관한 연구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활용과 곡용, 그리고 파생에서 매개모음의 성격과 처리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고 특히 활용에서의 양상이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활용에서 나타나는 매개모음의 처리는 ⅰ)어미두음설, ⅱ)제3요소설, ⅲ)어간말음설 셋으로 요약될 수 있고 곡용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매개모음이 조사의 두음으로 처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성음운론의 등장 이후 활용에서 보이는 매개모음과 곡용에서 보이는 매개모음을 함께 기술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것은 이 둘을 하나의 기제로 설명해 볼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매개모음에 대한 최선의 기술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자는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15세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이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음운론적 설명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매개모음 관련 현상에 대한 가능한 해석 방안의 검토

우리는 매개모음이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이거나 첨가된 제3의 요소이며 활용과 곡용에서 보이는 매개모음의 양상들을 함께 기술하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가능한 해석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1.1. 매개모음을 어휘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는 방안

이른바 '어간말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매개모음을 어휘형태소가 지닌 고유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먹으면'과 같은 경우를 어간 '먹으-'와 어미 '-면'으로 분석하는데, 이에 따라 '먹고'와 같은 경우도 어간 '먹으-'와 어미 '-고'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먹고'의 경우에는 왜 '*먹으고'가 되지 않고 '으'가 탈락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체언의 곡용에서 보다 심각해지는데, 과연 '집으로'에서 조사 '-로'를 분리해 내고 체언의 형태를 '집으'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 될 수 있을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1.2. 매개모음을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는 방안

이것은 이른바 '어미두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매개모음이 본래부터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매개모음형 이형태를 가진 형태소와 그렇지 않은 형태소에 대한 차이를 기저표시로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ㄹ'말음 뒤에서 '으'탈락이라는 인위적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243)

1.1.3. 매개모음을 어느 형태소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제3의 요소로 파악하는 방안

이른바 '제3요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개모음을 곡용이나 활용의 과정에서 첨가되는 외부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매개모음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은 'ㄹ'말음 뒤에서 '으'탈락이라는 음운론적인 동기가 없는 인위적인 규칙의 설정이 필요 없게 되고, '노니'(놀-+-니)와 같은 경우에 보이는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의 탈락이나 '서울로'(서울+-로), '놀러'(놀-+-러)와 같이 어휘형태소의 'ㄹ'와 문법형태소의 'ㄹ'가 겹자음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개모음을 제3의 요소로 파악하는 방안은 매개모음이 때로는 모음과 한 부류로, 때로는 자음과 한 부류로 행동한다고 보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을 강구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 한 예로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면서 '어미두음설'을 따르는 논의들(安秉禧 1963, 고영근 1987/97 등)은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샤-'를 이형태로 취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매개모음을 취하는 어미 앞에서는 '出家ᄒᆞ시면', '업스신가', '됴ᄒᆞ실써'와 같이 '-샤-'가 아닌 '-시-'가 실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샤-'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려는 입장과 매개모음을 본래부터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서로 모순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두 입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고영근(1997:73)에서는 매개모음은 일반적인 모음어미에 넣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부류로 인정하여, 때로는 자음어미와 같이, 때로는 모음어미와 같이 다루는 중간적

243) 매개모음을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려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한 대표적 논의로 姜昶錫(1982)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ㄹ' 뒤 '으'탈락 문제 외에도 기저에 어미 두음으로 존재하는 '으'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곧바로 탈락해 버리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음 뒤 '으'탈락규칙을 의심케 하는 사실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존재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244]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매개모음을 매우 특이한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회피해 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매개모음을 제3의 요소로 파악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모순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45]

이러한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 '먹으니'에서의 연결어미 {-니}와 '먹니'에서의 종결어미 {-니}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양상이나,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습-}, {-ᄂᆞ-}의 경우 어간과의 통합에서 결코 매개모음이 첨가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 등은 매개모음의 첨가라는 음운론적 기제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문법 정보와 같은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해명이 필요하다 하겠다.[246]

1.1.4. 매개모음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 모두를 인정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매개모음이 관련된 문법형태소들에 대해 매개모음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를 모두 기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매개모음과 관련된 어미들에 대해 쌍형(다중기저형)을 설정하는 쌍형설(金星奎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도출에 의해 이형태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형의 선택조건을 선택규칙으로 형식화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는데, 쌍형 설정과 선택규칙을 통한 이러한 설명은 매개모음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무리 없이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어디까지나 '記述'(description)의 차원에서 만족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언어 현상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은 아니라는 데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44)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안병희 교수는 매개모음을 취하는 어미를 '수륙양서동물'에 비유한 바 있다고 고영근(1997:73)의 각주 22)에서 적고 있다.

245) 이 문제는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지 않음으로써도 해결할 수 있다. '-샤-' 형태와 관련된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문제는 다음의 Ⅳ-3.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246) 최근 이와 같이 예외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통시적인 문법 정보를 이용해 이를 해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이동석(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5. 음운론적인 동기에 의한 첨가만을 인정하는 방안

다섯 번째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매개모음이 개입된 형태를 기저로 설정하되, 불가능한 자음 연쇄에서는 음운론적인 동기로 인해 매개모음이 개입된다고 보아 이런 경우에는 매개모음이 없는 형태를 기저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먹으면'의 경우 동사 어간 '먹-'의 'ㄱ'와 어미 '-면'의 'ㅁ'가 비음동화에 의한 'ㅇ-ㅁ' 연쇄로의 변화에 의해 두 자음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매개모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음운현상만으로 설명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때의 매개모음을 연결어미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이-}의 경우는 '업스이다', 'ᄀᆞᆮ다ᄉᆞ이다'와 같은 예에서 [-으이-], [-ᄋᆞ이-]의 이형태를 보여주는데, 이 때 매개모음 '으'와 'ᄋᆞ'는 선행 요소가 'ㅅ'로 끝나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ㅅ-ㅇ'의 연쇄를 극복하기 위해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이-}의 이형태들에서 보이는 매개모음은 고유 요소가 아닌 첨가된 제3의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음운론적인 동기가 분명한 경우만 매개모음의 첨가를 인정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음운론적 동기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모두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려는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는 좀 더 탐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자음의 강도를 이용한 매개모음 첨가의 음운론적 해석

자음과 모음이 공명도(sonority)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에 의해 음절을 구분하려 했던 시도(Bloch&Trager 1942) 외에도 자음 간의 강도 차이에 의한 음운현상의 해명이라는 기제를 마련해 주었다.[247] 범어적(汎語的)으로 공명도와 자음의 강도는 서로 역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7) 일찍이 드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강의』(1916)에서 소리들을 열림(aperture)의 등급에 따라 분류했는데, 이것은 내파와 외파의 관점에서 음절 경계를 나누는 데 바탕이 되었다. 이 때 열림의 등급에 의한 소리의 분류는 공명도에 의한 소리의 분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1) 범어적 자음의 강도 체계(Hooper 1976)

glides	liquids	nasals	voiced continuant	voiceless continuant	voiced stop	voiceless stop
1	2	3	4	5		6

자음의 강도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국어에 적용해 본 대표적인 연구로 김차균(1981 · 1990)과 오정란(1993b · 1995a·b · 1997)을 들 수 있다. 국어 자음들 사이에서는 아래 (2)와 같은 강도 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고, 선행 음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 사이에서 (3)과 같은 제약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의 대부분이 이 제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 국어 자음의 강도 체계(오정란 1997)

활음	유음	비음	유성장애음/마찰음	장애음	경음/기음
1	2	3	4	5	6
/y, w/	/l/	/m, n, ŋ/	/g, d, b, j/ /s, h/	/k, t, p, c/	/k', t', p', c', s'/ /k^h, t^h, p^h, c^h/

(3) 국어 자음의 강도 제약
선행 음절 종성의 강도 < 후행 음절 초성의 강도
(단, 'ㄹ-ㄹ'의 연쇄는 동일한 강도 허용)[248]

선후행 음절의 자음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강도 제약은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매개모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력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매개모음을 제3의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 선행 음절과 후행 음절의 강도 조절을 위해 첨가되는 요소라고 파악한다.[249]

248) 이동석(2000:877)에서 지적되었듯이 선행 음절의 종성이 'ㄹ'이고 후행 음절의 초성도 'ㄹ'인 경우에는 이 두 분절음 사이에 겹자음화가 일어나 음운론적으로 마치 하나의 자음처럼 행동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강도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49) 매개모음이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가 아니라 제3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문법형태소에서 관찰되는 모음조화 현상을 들 수 있다. 金完鎭(1971)에서 지적한 바처럼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매개모음이 개입된 형태는 제1음절에서만 모음조화를 준수하고 있는데, 15세기에 형태소 내부에서의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 중 매개모음이 참여해 형성된 이형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ㄹ} :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라와} : -라와, (-으라와), -ᄋᆞ라와

{-로} : -로, -으로, -ᄋᆞ로, -오로

{-록} : -록, (-으록), (-ᄋᆞ록)

{-론} : -론, (-으론), -ᄋᆞ론

{-롯} : -롯, -으롯, -ᄋᆞ롯

나. {-ㄴ} :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란} : -란, -으란, -ᄋᆞ란, -런

다. {-ㄴ고/-ㄴ가} : -ㄴ고, (-은고), (-ᄋᆞᆫ고), -ㄴ가, -은가, (-ᄋᆞᆫ가)

{-ㄴ다} : -ㄴ다, -은다, -ᄋᆞᆫ다

{-니오/-니아} : -뇨, -으뇨, -ᄋᆞ뇨, -오뇨, -니오, -으니오, (-ᄋᆞ니오), (-오니오), -녀, -으녀, (-ᄋᆞ녀), -오녀, -니여, (-으니여), -ᄋᆞ니여, -오니여, -니아, -으니아, (-ᄋᆞ니아), (-오니아), -니야, -으니야, (-ᄋᆞ니야), -오니야

{-ㄹ고/-ㄹ가} : -ㄹ꼬, (-을꼬), (-ᄋᆞᆯ꼬), -ㄹ까, -을까, -ᄋᆞᆯ까

{-ㄹ다} : -ㄹ따, -을따, -ᄋᆞᆯ따

{-ㄹ써} : -ㄹ써, -을써, -ᄋᆞᆯ써

{-ㄹ쎄라} : -ㄹ쎄라, (-을쎄라), (-ᄋᆞᆯ쎄라)

{-라} : -라, -으라, -ᄋᆞ라

{-리오/-리아} : -료, -으료, -ᄋᆞ료, -리오, -으리오, -ᄋᆞ리오, -려, -으려, -ᄋᆞ려, -리여, -으리여, (-ᄋᆞ리여), -리아, -으리아, (-ᄋᆞ리아), -리야, (-으리야), (-ᄋᆞ리야)

라. {-ㄴ다마다} : -ㄴ다마다, -은다마다, (-ᄋᆞᆫ다마다)

{-ㄴ대} : -ㄴ대, -은대, -ᄋᆞᆫ대

{-ㄴ댄} : -ㄴ댄, (-은댄), (-ᄋᆞᆫ댄), -ㄴ덴, (-은덴), (-ᄋᆞᆫ덴)

{-ㄴᄃᆞᆫ} : -ㄴᄃᆞᆫ, (-은ᄃᆞᆫ), (-ᄋᆞᆫᄃᆞᆫ)

{-ㄴᄃᆞᆯ} : -ㄴᄃᆞᆯ, -은ᄃᆞᆯ, -ᄋᆞᆫᄃᆞᆯ

{-ㄴᄃᆡ} : -ㄴᄃᆡ, -은ᄃᆡ, (-ᄋᆞᆫᄃᆡ)

모음조화가 거의 완전하게 지켜졌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개모음이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가 아니라 첨가된 제3의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ㄴ뎐| : -ㄴ뎐, (-은뎐), (-ᄋᆞᆫ뎐), -ㄴ든
|-나₁| : -나, -으나, -ᄋᆞ나
|-나₂| : -나, (-으나), (-ᄋᆞ나)
|-나₃| : -나, (-으나), (-ᄋᆞ나)
|-니₁| : -니, -으니, -ᄋᆞ니, -오니
|-니₂| : -니, (-으니), (-ᄋᆞ니)
|-ㄹᄉᆞ록| : (-ㄹᄉᆞ록), -을ᄉᆞ록, (-ᄋᆞᆯᄉᆞ록)
|-ㄹ쎈뎡| : -ㄹ쎈뎡, -을쎈뎡, -ᄋᆞᆯ쎈뎡
|-ㄹ쎠| : -ㄹ쎠, -을쎠, -ᄋᆞᆯ쎠
|-라₁| : -라, -으라, -ᄋᆞ라
|-라₂| : -라, (-으라), -ᄋᆞ라
|-란ᄃᆡ| : -란ᄃᆡ, -으란ᄃᆡ, -ᄋᆞ란ᄃᆡ
|-란ᄃᆡ만뎡| : -란ᄃᆡ만뎡, (-으란ᄃᆡ만뎡), (-ᄋᆞ란ᄃᆡ만뎡)
|-며| : -며, -으며, -ᄋᆞ며
|-면| : -면, -으면, -ᄋᆞ면

마. |-ㄴ| : -ㄴ, -은, -ᄋᆞᆫ
|-ㄹ| : -ㄹ, -을, -ᄋᆞᆯ

바. |-니-| : -니-, -ᄋᆞ니-, -으니-, -오니-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이-| : -이-, -으이-, -ᄋᆞ이-, -ㆁ-, -오이-, -ᄋᆡ이-

(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매개모음의 첨가는 문법형태소의 초성이 'ㅁ, ㄴ, ㆁ, ㄹ'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매개모음을 문법형태소의 고유 요소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이 현상은 강도가 약한 이들 자음들이 강한 강도를 요구하는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의 초성보다 강도가 강할 경우, 매개모음의 첨가는 그러한 강도상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해된다.

(5) 가. 얻- + -고 → 얻고
얻- + -며 → 어드며
얻- + -란ᄃᆡ → 어드란ᄃᆡ

나. 삼- + -고 → 삼고
삼- + -며 → 사ᄆᆞ며
삼- + -란ᄃᆡ → 사ᄆᆞ란ᄃᆡ
다. 알- + -고 → 알오
알- + -며 → 알며
알- + -란ᄃᆡ → 알란ᄃᆡ

(5)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분절음이 각각 장애음 'ㄷ', 비음 'ㅁ', 유음 'ㄹ'인 동사 어간 '얻-', '삼-', '알-'에 첫 번째 분절음이 각각 장애음 'ㄱ', 비음 'ㅁ', 유음 'ㄹ'인 어미 '-고', '-며', '-란ᄃᆡ'가 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매개모음의 개입 여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에서 제시된 국어 자음의 강도 체계를 따르자면 (5-가)에서 '어드며'에서의 'ㄷ-ㅁ' 연쇄와 '어드란ᄃᆡ'에서의 'ㄷ-ㄹ' 연쇄의 경우에는 선행 음절 종성의 강도가 후행 음절 초성의 강도보다 커서 국어 자음의 강도 제약 (3)을 위반하므로 매개모음이 첨가되어 이를 극복하고 있다.

반면, '얻고'에서의 'ㄷ-ㄱ' 연쇄는 동일한 강도를 가진 두 폐쇄음의 연쇄이므로 이 두 분절음 사이에도 강도의 조절이 필요한데, 이 때는 매개모음의 첨가가 아닌 후행 분절음 'ㄱ'를 그보다 강도가 높은 'ㄲ'로 대치하는 방법에 의해 강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5세기 국어의 '얻고'도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얻꼬]로 발음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5-나)의 예 중 '삼고'에서의 'ㅁ-ㄱ' 연쇄는 국어 자음의 강도 제약 (3)을 준수하고 있고 '사ᄆᆞ란ᄃᆡ'의 'ㅁ-ㄹ' 연쇄는 선행 음절의 종성 'ㅁ'의 강도가 후행 음절의 초성 'ㄹ'보다 강하므로 매개모음 첨가를 통해 강도 제약의 위반을 극복하고 있다. 한편, '사ᄆᆞ며'의 경우에는 'ㅁ-ㅁ'라는 동일 자음의 연쇄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매개모음 첨가를 통해 두 'ㅁ' 사이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끝으로 (5-다)의 예 중 '알오'에서의 'ㄹ-ㄱ'와 '알며'에서의 'ㄹ-ㅁ'는 둘 다 국어 자음의 강도 제약 (3)을 준수하고 있는데, '알오'의 경우는 '알고'에서 'ㄱ'탈락을 겪었을 뿐 본래의 'ㄹ-ㄱ' 연쇄는 강도 제약에 대해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알란ᄃᆡ'의 경우는 (5-나)의 '사ᄆᆞ며'와는 달리 동일 자음의 연쇄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조절을 위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어 자음의 강도 제약 (3)에서 'ㄹ-ㄹ' 연쇄의 경우에는 동일한 강도를 허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것은 'ㄹ-ㄹ'에 있어서는 겹자음화(gemination)라는 음운론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겹자음화된 두 자음은 실제로 하나의 자음과 같이 행동하므로[250] 'ㄹ-ㄹ' 연쇄에서 두 자음의 강도 조절은 이 겹자음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 중 매개모음이 참여해 형성된 이형태들은 선후행 음절의 자음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강도 제약에 의해 그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매개모음을 제3의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 선행 음절과 후행 음절의 강도 조절을 위해 첨가되는 요소라고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매개모음과 관련된 현상은 전적으로 음운론적으로만 해명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용언의 경우 어간 형태의 유지나 어미 형태의 실현이라는 형태론적 요구가 개입되어 이것이 매개모음 첨가와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던 '먹으면'과 같은 경우 자음의 강도 조절이라는 음운론적인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매개모음을 첨가시키지 않고도 [멍면]과 같이 비음 동화를 통해 'ㄱ-ㅁ'의 연쇄에서 발생하는 자음 사이의 강도 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51]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용언 어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형태론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매개모음 첨가라는 기제를 이용해 강도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252]

---

250) 'ㄹ-ㄹ'의 연쇄가 하나의 자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증거는 설측음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설측음은 음절의 초성에 올 수 없다는 분포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달력', '쌀로' 등과 같은 예들에서 'ㄹ-ㄹ'는 긴 설측음으로 발음되어 설측음이 선행 음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에 모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자음 형판(template) 'C'에 한 개의 분절음 'ㄹ'가 연결된 표기(representation)로 나타낼 수 있다.

```
형판 층위:    C  C
               \/
분절음 층위:    ㄹ
```

251) 한편, '먹는'[멍는]과 같은 경우는 강도 조절이 필요한 'ㄱ-ㄴ'의 연쇄임에도 불구하고도 매개모음이 첨가되지 않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의 관형사형어미 '-는'의 경우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ᄂᆞ-}가 참여해 형성되었다는 통시적인 정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ᄂᆞ-}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각주 193)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후고의 몫으로 남겨둔다.

252) 이러한 사실은 체언의 곡용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명사 '떡'에 보조사 '-만'이 통합된 '떡만'과 같은 경우에는 'ㄱ-ㅁ'의 연쇄에서 발생하는 강도 제약의 문제를 [떵만]과 같이 선행 음절의 종성 'ㄱ'를 'ㅇ'으로 비음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이와 같이 매개모음의 첨가는 자음 간의 강도 조절이라는 음운론적인 기제와 어간 형태의 유지라는 형태론적인 요구가 함께 고려되는 형태음운론적 해석이 시도될 때 그 본질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법형태소들에서 나타나는 매개모음을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처리하려는 입장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탈락하거나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5세기에 선어말어미 {-으시-}와 같은 경우에 보이는 매개모음은 분명 다른 매개모음들과는 달리 행동하므로 이를 고유 요소로 파악하듯이, 다른 문법형태소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특성을 탐구해 각각에서 보이는 매개모음의 고유성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ㄱ'탈락과 이형태교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에서 우리는 'ㄱ'탈락이라는 음운현상이 개입된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현상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내용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ㄱ'탈락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일 때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 'ㄱ'가 탈락되는 현상으로 이는 15세기 당시 공시적인 형태음운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절에서는 'ㄱ'탈락 현상에 대해 15세기의 표기법과 당시의 음운 목록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1. 'ㄱ'의 탈락인가, 약화인가?

것은 동일한 음운론적 연쇄라 할지라도 그것이 포함된 단위가 어떠한 형태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음운론적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음운론에서 체언과 용언이 보이는 서로 다른 양상에 대해서는 宋喆義(1991)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ㄱ'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ㄱ'약화 현상으로 보려는 입장도 찾아볼 수 있다. 그 경우에는 'ㄱ'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연구개 폐쇄음 'ㄱ'[g]에서 후두 유성마찰음 [ɦ]로 약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견해를 李基文(1962 · 1969 · 1972a·b)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악된 후두 유성마찰음 [ɦ]는 15세기 당시 국어의 자음체계에도 포함되었다. 이기문 교수는 'ㅇ'(이응)의 음가를 무음가(無音價)와 후두 유성마찰음 [ɦ]의 이원적으로 파악했는데, 'ㄹ'와 활음 'ㅣ' 뒤의 'ㅇ'이 바로 이 후두 유성마찰음 [ɦ]를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이기문 교수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들에서 제기된 몇몇 근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53)

(1) 가. 후음 'ㅇ'에 무음가(無音價)와 유음가(有音價)라는 이중의 음가를 부여하게 된다.
나. 'ㄹ-ㅇ'의 표기가 'ㄹ-ㄱ'에만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ㄹ-ㅂ'에도 소급된다.
다. 'ㄹ-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르/ᄅᆞ' 변칙의 'ㄹ-ㅇ'을 〔ɦ〕로 볼 근거는 없다.
라. '아ᅀᆞ'(弟)의 곡용형 '아ᇫ이, 아ᇫᄋᆞᆯ, 아ᇫᄋᆞᆫ'은 음가 〔ɦ〕를 상정할 어떤 방언형이나 한자차자표기례(漢字借字表記例)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오ᄅᆞ-'(登), 'ᄇᆞᅀᆞ-'(碎), '그ᅀᅳ-'(曳), '비ᅀᅳ-'(扮)의 활용형 '올아, ᄇᆞᇫ아, 그ᇫ어, 비ᇫ어' 등에서 'ㅇ'을 '*ㄱ'로 재구할 수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먼저 (1-가)와 관련해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음가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기문 교수의 견해는 음운론적 변별을 제자 원리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설명임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나)는 '글발>글왈, 말밤>말왐, 발ᄫᅡ>발와'의 경우와 더불어 충청도, 전라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 '다르다(異)'의 방언형이 '달브다/달버/달븐데/달븐디'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제기된 것인데, 여기에는 'ㄹ-ㅂ>ㄹ-ㅸ>ㄹ-ㅇ'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어 'ㅇ'이 반드시 'ㄱ'로부터 발달한 후두 유성마찰음 [ɦ]를 표기한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1-다)와 관련해 '니ᄅᆞ-/니르-(謂)'의 활용형 '닐어, 닐움, 닐오ᄃᆡ' 등의 경우에 어미 '-어, -움, -오ᄃᆡ'가 모두 'ㄱ'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형태들임에도 불구하고 15세기 문헌자료들에서

253) (1-가)와 (1-나)는 金武林(1995)에서, (1-다)는 장향실(1996)에서, (1-라)와 (1-마)는 이광호(1995)에서 제기된 근거들이다.

이들이 항상 분철 표기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ㅇ'이 'ㄱ'가 약화된 후두 유성마찰음을 표기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1-마)에서 '오ᄅ-'의 예는 (1-다)와 중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1-라)와 (1-마)는 방언형이나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에서 'ㄱ'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어휘들의 예를 들어 'ㅇ'이 바로 후두 유성마찰음 [ɦ]를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의 미비성(未備性)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1)의 근거들에 덧붙여 몇몇 특수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ㅇ'을 'ㄱ'가 약화된 후두 유성마찰음으로 보려는 견해가 15세기 국어의 자음체계와 관련해 체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5세기 당시의 자음체계를 고려해 'ㅇ'을 'ㅿ', 'ㅸ'와 함께 유성마찰음 계열을 형성했던 후두 유성마찰음으로 파악하려는 입장(李基文 1969 · 1972a·b)은 구조적으로 균형적인 자음체계에 대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일단 설명적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먼저 'ㅇ'을 후두 유성마찰음 [ɦ]로 파악하면 'ㅂ:ㅅ:ㄱ'와 'ㅸ:ㅿ:ㅇ'이 서로 대칭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ㅂ:ㅅ:ㄱ'의 경우 '순음(脣音):치음(齒音):아음(牙音)'의 체계를 갖는데 비해, 'ㅸ:ㅿ:ㅇ'은 '순음:치음:후음(喉音)'의 체계를 갖게 되어 서로 계열상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ㄱ'탈락의 위치에 나타나는 'ㅇ'의 음가가 아음(牙音), 곧 연구개마찰음 [ɣ]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訓民正音』에서 후음으로 분류된 'ㅇ'을 자의적으로 아음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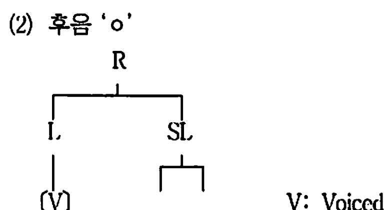
다음으로 'ㅇ'의 경우에는 그 분포 환경이 나머지 두 계열의 유성마찰음들과는 달리 매우 제약되어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즉, 'ㅇ'이 분포하는 환경은 'ㄹ, ㅿ, ㅣ'와 모음 사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ㅸ'와 'ㅿ'가 유성음 사이라는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 환경을 갖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5세기 국어 당시 자음체계의 관점에서 'ㅇ'을 후두 유성마찰음 [ɦ]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두 계열의 마찰음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분포 문제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15세기 당시 'ㅇ'을 'ㄱ'에서 비롯된 후두 유성마찰음 [ɦ]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ㅇ'을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254] 결국 15세기 국어에서 표기상 분철되어 나타나는 몇몇 특수한 위치에서의 'ㅇ'은 'ㄱ'가 탈락한 후 남은 흔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55] 어떤 분절음이 탈락된 자리는 그 흔적으로 인해 일정 기간 공백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것이 다시 다른 분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보면, 우리는 국어사에서 '*몰개(沙)>몰애>모래'와 같은 과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ㅇ'을 [+voiced] 자질로 처리하여 문자적 위상과 음성적 위치를 함께 부여하는 방법을 金武林(1992b)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후음 'ㅇ'



254) 金完鎭(1967)에서는 'ㅇ'을 휴지(休止) 자체만이 그 내용이 되는 연접음소(Juncture Phoneme) /#/으로 이해하였고, 鄭然粲(1987)에서는 이를 공음소(空音素 empty phoneme)라 지칭하고 이것이 분절층렬(分節層列)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을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金武林(1995)에서는 훈민정음의 문자 운용이 '통시적 절차에 대한 공시적 처리'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훈민정음에서 'ㅇ'은 음운론적으로 자음의 역할을 하면서도 음가는 없는 형태적 기능의 문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ㅇ'을 공시적인 시각으로만 처리하게 될 경우 이것은 현대 언어학에서도 논의되는 흔적이론(trace theory)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향실(1996)에서는 복선음운론의 하나인 형판이론(templatic theory)을 이용해 'ㅇ'은 'ㄱ'가 탈락한 후에도 그 형판은 기저적(基底的)으로 남아 있어 연음이 저지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255) 물론 'ㄱ'의 탈락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우의 'ㅇ'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의 이해를 요구한다. 앞에서 예로 든 '닐어, 닐움, 닐오딕' 등과 같이 'ᄅᆞ/르' 변칙 용언들의 활용에서 보이는 'ㅇ'과 관련된 분철 표기는 이들 'ᄅᆞ/르' 변칙 용언들이 'ᄅᆞ/르' 변칙 용언이 아니면서 'ㄹ' 말음을 가진 다른 용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어간 형태를 하나의 음절로 묶어 둠으로써 본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 한 형태론적 노력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金京芽(1991)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후음 'ㅇ'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세 개의 가설로 정리하고 '글왈', '셜워호ᄆᆡ', 'ᄀᆞ리오-', '활와치' 등과 같은 예를 통해 후음 'ㅇ'에 대해서 이를 순경음의 발달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β는 단순한 w로 변한 것이 아니라 'γw' 내지는 'ɦw'로 변화한 것이다'라는 가설이 제안되었는데, 이 역시 'ㅇ'으로 표기된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金武林(1992b)는 『訓民正音』에서 후음의 불청불탁음(不淸不濁音)으로 'ㅇ'을 제정한 것은 중국 성운학에서 유모(喩母)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15세기 국어에서도 후음 'ㅇ'의 표면적 음가는 영(zero)이지만 당시 『訓民正音』 편찬자의 문법 의식을 반영하면서, 아울러 [voiced] 자질이 어떠한 M(조음방식) 자질과 결합해도 단독 음성체가 될 수 없음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포착한 것이 (2)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질계층이론을 배경으로 한 후음 'ㅇ'에 대한 이러한 표기(representation)는 15세기 국어에서 'ㅇ'이 보여주는 특성을 문자적 측면과 음성적 측면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15세기 국어에서 'ㄹ'나 활음 'ㅣ' 뒤에서 본래 'ㄱ'가 있어야 할 자리가 'ㅇ'으로 표기된 것은 'ㄱ'가 약화되어 만들어진 후두 유성마찰음 [ɦ]라는 음성적 내용을 가진 요소가 아니라 'ㄱ'가 탈락된 자리의 흔적을 문자적으로 포착한 결과로 이해된다. 즉, 이러한 'ㅇ'은 'ㄱ'의 약화가 아닌 'ㄱ'의 탈락에 의해 나타나게 된 존재라고 하겠다.

2.2. 형태음운현상으로서의 'ㄱ'탈락

15세기에 'ㄱ'탈락은 '술고'(杏), '즐기-'(樂), '대가리'(殼), '새기-'(刻)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항상 형태소 경계를 전제로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ㄱ'탈락 현상은 일단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256]

(3) ㄱ → ϕ / {ㄹ, ㅣ} + ___V

현재로서는 'ㄹ'와 활음 'ㅣ' 뒤에서 'ㄱ'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음성학적, 음운론적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일단 이를 15세기에 존재했던 국어의 형태음운현상으로 처리해 두고자 한다.

한편, 문법형태소들에서 'ㄱ'탈락 현상에 의해 사라졌던 'ㄱ'가 16세기 후반에 다시 복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3)과 같은 'ㄱ'탈락 규칙의 소멸을 의미하는

256) 이러한 규칙화는 조창규(1994), 이광호(1995) 등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것으로 'ㄱ'탈락 현상이 15세기에 있어서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이었음을 말하는 하나의 근거가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서 보이는 'ㄱ'탈락은 다음과 같은 형태소들의 이형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가. {-과} : -과, -와$_1$, **-와$_2$**
나. {-고/-가} : -고, -구, **-오**, **(-우)**, -가, **-아**
{-곰$_2$} : -곰, -옴$_1$, **-옴$_2$**
{-곳} : -곳, -옷$_1$, **-옷$_2$**
다. {-거지라} : -거지라, -어지라$_1$, **-어지라$_2$**, -야지라, -나지라, -가지라, -아지라$_1$, **-아지라$_2$**
{-거지이다} : -거지이다, -어지이다$_1$, **(-어지이다$_2$)**, -야지이다, -나지이다, -가지이다, -아지이다$_1$, **-아지이다$_2$**
{-고라} : -고라, **-오라**
라.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_1$, **-어…니와$_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건뎡} : -건뎡, **-언뎡**, (-거…ㄴ뎡), **-어…ㄴ뎡**
{-거든} :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거…든, -거…ᄃᆞᆫ, -어…든$_1$, -어…ᄃᆞᆫ$_1$, -아…든, -아…ᄃᆞᆫ, **-어…든$_2$**, **(-어…ᄃᆞᆫ$_2$)**, -야…든,[257] -야…ᄃᆞᆫ, (-여…든), (-여…ᄃᆞᆫ), -나…든, (-나…ᄃᆞᆫ)
{-건마ᄅᆞᆫ} : -건마ᄅᆞᆫ, -언마ᄅᆞᆫ$_1$, -안마ᄅᆞᆫ, **-언마ᄅᆞᆫ$_2$**, -얀마ᄅᆞᆫ, (-연마ᄅᆞᆫ), -난마ᄅᆞᆫ, -거…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_1$, (-아…ㄴ마ᄅᆞᆫ), **-어…ㄴ마ᄅᆞᆫ$_2$**, -야…ㄴ마ᄅᆞᆫ, (-여…ㄴ마ᄅᆞᆫ), (-나…ㄴ마ᄅᆞᆫ)
{-게} : -게, -거, -긔, -ᄀᆡ, -에, **(-어)**, **-의**, **-ᄋᆡ**
{-겟고} : (-겟고), **-엣고**
{-고} : -고, -구, **-오**, **(-우)**
{-고져} : -고져, **-오져**
{-곤} : -곤, **-온**
{-곰} : -곰, **(-옴)**
{-곳} : -곳, **-옷**
{-과뎌} : -과뎌, **-와뎌**
{-과디여} : -과디여, **-와디여**

257) 어느 저긔 이어긔 金錢會ᄅᆞᆯ 詔命ᄒᆞ야시ᄃᆞᆫ 잢간 고온 사ᄅᆞ미 錦瑟ㅅ ᄀᆞᅀᆡ 醉ᄒᆞ려뇨 <두시-초 11:21b>

{-관ᄃᆡ} : -관ᄃᆡ, **-완ᄃᆡ**
{-곤대} : -곤대, **(-온대)**
{-괫고} : -괫고, **(-왯고)**
{-귓고} : -귓고, **(-윗고)**
마. {-거-} : -거-, -어-$_1$, **-어-$_2$**, -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나는 'ㄱ'탈락은 'ㄱ'를 첫 분절음으로 갖는 형태소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 혹 이형태 목록에서 'ㄱ'형과 'ㅇ'형이 함께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는 자료상의 공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보조사 {-곰$_1$}과 {-ᄀᆞ티}의 경우에는 항상 'ㄱ'형 이형태만을 보여주고 있어 'ㄱ'탈락과 관련해 예외적인 존재들로 남게 된다. 이 두 형태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ㄱ'탈락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도 'ㄱ'가 탈락되지 않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가. 아ᄃᆞ리 아비 나해셔 <u>곱기곰</u> 사라 八萬히 ᄃᆞ욇 ᄀᆞ장 더우믈 增이라 〈월석 1:47b〉
나. 머리ᄂᆞᆫ 大山 ᄀᆞᆮ고 비ᄂᆞᆫ 須彌山 ᄀᆞᆮ호ᄃᆡ 모기 <u>바ᄂᆞᆯᄀᆞ티</u> ᄀᆞᄂᆞᆯ오 〈월석 23:79b-80a〉
내 父母ㅅ 두 누니 <u>네ᄀᆞ티</u> 볼ᄀᆞ시리라 ᄒᆞ니 즉재 네 ᄀᆞᆮᄒᆞ야 〈월석 22:66b〉

{-곰$_1$}의 경우는 'ㄹ' 뒤에서 통합된 예를 찾아볼 수 없으나 (5-가)에서처럼 활음 'ㅣ' 뒤에서 사용된 용례가 있어 'ㄱ'탈락이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곰$_1$}이 보조사가 아닌, 선행 요소로부터 자립적인 존재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5-가)의 '곱기곰'을 활용형 '곱기'에 《좀》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파악될 수 있는 '곰'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곱기'와 '곰' 사이에 어절 경계를 둠으로써 'ㄱ'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곰$_1$}이 사용된 '이리곰', '다시곰', '뻐곰', '시러곰', '우러곰', 'ᄒᆡ여곰' 등의 경우에서 '곰'이 모두 이와 같은 부사로 파악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일단 {-곰$_1$}을 보조사로 간주하기로 한다.

반면, {-ᄀᆞ티}는 (5-나)에서처럼 'ㄹ'와 활음 'ㅣ' 뒤에서 통합된 용례가 모두 나타난다. 이를 'ㄱ'탈락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때 'ᄀᆞ티'를 보조사가 아닌 형용사 'ᄀᆞᆮᄒᆞ-'에 부사형어미 '-이'가 붙은 활용형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다음의 용례들은 이러한 분석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 아랫 恩惠를 니저ᄇᆞ리샤 길 녏 사ᄅᆞᆷ과 ᄀᆞ티 너기시니 〈석상 6:4b-5a〉
禮數를 諸父ㅅ 伯長과 ᄀᆞ티 ᄒᆞ노니(禮同諸父長) 〈두시-초 24:10a〉

(6)에서의 'ᄀᆞ티'는 선행 체언에 조사 '-과'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조사가 아니라 형용사 'ᄀᆞᇀᄒᆞ-'의 활용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나)의 'ᄀᆞ티'에 대해서도 조사 '-과'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형용사 'ᄀᆞᇀᄒᆞ-'의 활용형으로 파악하면 선행 체언과 'ᄀᆞ티'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아닌 어절 경계가 놓인 것이 되어 'ㄱ'탈락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ᄀᆞ티'가 'ㄱ'탈락의 예외가 되는 현상이 혹 15세기 당시 'ᄀᆞ티'를 보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자료들에 나타나는 'ᄀᆞ티'는 (5-나)에서처럼 선행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지 않고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6)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5세기 당시 조사 {-과}의 생략 현상이 얼마나 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5-나)와 같은 예들을 모두 조사 {-과}가 생략된 경우로 보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5-나)의 'ᄀᆞ티'를 보조사로 처리해 두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보조사 {-곰$_1$}과 {-ᄀᆞ티}는 'ㄱ'탈락과 관련해 예외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이들이 'ㄱ'탈락의 예외가 되는 것에 대해 {-곰$_1$}의 경우는 그것이 보조사가 아닌 부사일 가능성이나 {-곰$_2$}와의 차별적 행동의 필요성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ᄀᆞ티}의 경우는 이것이 다른 'ㄱ'형 문법형태소들과는 달리 어휘형태소로부터 문법화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개별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 두 형태소가 'ㄱ'탈락의 예외를 이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5세기에 'ㄱ'탈락이 완전히 음운론적 동기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즉, 15세기 국어에서의 'ㄱ'탈락 현상은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하에서 형태소 개별적인 특수성이 규칙 적용 여부에 참여하는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3.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의 이형태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 즉, 선어말어미 {-오-}와 어말어미 {-오디}, {-옴}의 이형태교체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상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들 문법형태소들이 서로 통합되면서 보이는 '샤'라는 형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15세기 국어의 형태론 및 음운론의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3.1. '-샤(-)'는 과연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인가?

'니ᄅᆞ샤디', '아ᄅᆞ샤', 'ᄒᆞ샤미', 'ᄒᆞ샤도' 등에서 나타나는 '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安秉禧(1963)에서 이를 모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시-'의 이형태라고 언급한 이후 이를 추종하는 입장과, 이와는 달리 '샤'를 '시+아'로 분석하여 파악하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서로 다른 이 두 입장의 주장에서 파악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는 입장
　가. 높임의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로 '-시-'와 '-샤-'가 있다.
　나. '-시-'는 자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고 '-샤-'는 모음 어미 앞에서 나타난다.
　다. '-샤-' 뒤의 모음 형태소는 제로화(=영형태화=합음=탈락)된다.
(2)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지 않는 입장
　가. '-샤-'는 '시+아'로 분석 가능하므로 결코 높임의 선어말어미의 이형태가 아니다.
　나. '오'계 어미들은 '아'형의 이형태를 갖는다.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는 (1)과 같은 입장은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를 교체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샤-' 뒤에 통합된 어미가 합음 또는 탈락된다고 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1)과 같은 입장을 취한 그 동안의 논의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이'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부사형이 '버혀, 너겨, 머겨'와 같이 음성모음형 어미를 취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15세기에 '시+아→샤'와 같은 음성연결체가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허웅 1963)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일반화된 견해가 아닌가 한다.

(3) 가. 子息의 일훔을 아비 이시며 어미 이샤 一定ᄒᆞ사이다 〈월석 8:83a〉
나. 白鶴과 孔雀과 鸚鵡와 舍利와 迦陵頻伽共命之鳥ㅣ 이샤 五根과 五力과 七菩提 八聖道分을 밤과 나ᄌᆞ과 演暢ᄒᆞᄂᆞ니이다 〈월석 7:59a-b〉
다. 새소리ᄅᆞᆯ 드러 이샤 念佛 ᄆᆞᅀᆞᆷ과 念法 ᄆᆞᅀᆞᆷ과 念僧 ᄆᆞᅀᆞᄆᆞᆯ 내ᄂᆞ니이다 〈월석 7:60a〉

(3)의 용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샤'는 동사 어간 '이시-'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것으로 '이시-+-아→이샤'의 결합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것은 15세기에 실제로 '시+아→샤'와 같은 음성연결체가 용인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258]

둘째, '샤' 뒤에 통합된 어미들이 영의 이형태로 실현된다고 볼 때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음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가. ᄒᆞ+시→샤+아→sja+ϕ
나. ᄒᆞ+시→샤+옴→sja+ϕm
다. ᄒᆞ+시→샤+오ᄃᆡ→sja+ϕtʌj
라. ᄒᆞ+시→샤+옷다→sja+ϕsta
마. ᄒᆞ+시→샤+아놀→sja+ϕnʌl

(4)는 고영근(1997:84)에서 정리된 사항을 옮겨 본 것으로 '샤' 뒤에 영의 이형태들이 분포한다고 파악한 점이 주목된다. 15세기 국어에서 영형태라고 하면 이형태로 실현되는 형태소의 음상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4-가)와 (4-

258) 실제로 동사 어간 '이시-'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경우 그것이 대개 '이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의 예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이샤'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고영근(1997)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에 보이는 '이샤'나 '뫼샤'가 표기상의 조작이거나 끝 음절의 '시'를 높임으로 잘못 알고 표기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샤'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된 표기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 ᄒᆞᆫ 머리 ᄀᆞ바 이샤 <월곡 기135> cf.두 머리 ᄀᆞ바 이셔
(나) 夫人ᄋᆞᆯ 뫼샤 <월석 8:94b>

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공통적으로 '샤+오'의 분절음 연쇄를 보이고 있어 영형태가 실현될 음운론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즉, '-샴', '-샤딕', '-샷다'에서 어미 '-옴', '-오딕', '-옷-'의 첫 음절 모음들이 모두 영(零) 요소로 바뀐다고 보는 것은 격조사 {-이}나 {-이라와}, {-이며}, {-이여1}, {-이여2} 등에서 보이는 '이'탈락에 의한 영요소화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후자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과 그 음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면, 전자는 '오'계 어미들의 '오'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샤-' 뒤에서 모두 영요소로 바뀌게 되므로 영요소화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형태교체의 내용 면에서 보더라도 '시~샤'의 교체는 다른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립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 우리는 앞의 Ⅲ-3.2.에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이 어떠한 이형태교체의 내용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문법형태소들이 이형태교체에서 음운론적으로 일정한 교체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어떤 이형태교체에서도 '시~샤'와 같이 '아'모음의 첨가 후 음절의 축약이 일어난 교체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1)의 입장은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지 않고 이를 '시+아'로 분석해 보는 (2)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통합되는 어미들이 모두 '아'형의 이형태를 갖는다고 보게 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러한 '오'계 어미의 '아'형 이형태 설정 가능성과 더불어 (2)와 같은 입장을 취한 기존 논의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을 통한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 '오'계 어미의 '아'형 이형태 설정 가능성

'샤'를 '시+아'로 분석하는 (2)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오'계 어미들의 이형태로 '아'형의 형태들을 설정해야 한다.[259]

(5) 가.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오ᄃᆞᆫ} : -오ᄃᆞᆫ, (-우ᄃᆞᆫ), (-요ᄃᆞᆫ), (-유ᄃᆞᆫ), **(-아ᄃᆞᆫ)**, (-로ᄃᆞᆫ), -Vᄃᆞᆫ[H]
{-오려} : -오려, -우려, -요려, (-유려), **-아려**, (-로려), -V려[H]
{-올뎬} : -올뎬, (-울뎬), (-욜뎬), (-율뎬), (-롤뎬), **-알뎬**, -올뎬
나. {-옴} :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260)]
다.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이렇게 설정된 '아'형 이형태들은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만 분포하는 강한 형태론적 제약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선어말어미 {-으시-}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의 입장을 취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오'계 어미들의 '아'형 이형태들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아'형 이형태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261)]

(6) 가. '-과라'의 '과'는 '-고-'와 '-아-'의 결합으로 분석된다(任洪彬 1980, 임동훈 1994).[262)]

259) 한편, '오'계 어미들이 가진 [-V(X)(-)[H]]형 이형태들은 그것이 통합되는 어간이 '가-, 나-, 자-, 하-, 녀-'와 '오-, 보-, 두-, 주-' 및 합성어인 '맛나-, 빛나-' 등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음이 '아, 어'나 '오, 우'인 단음절 어간들이다. 이에 비해 같은 '오'모음을 가졌지만 '-오ᄃᆡ'가 실현된 '모도오ᄃᆡ<석보 6:28a>'의 경우에는 어간이 '모도-'로 여기서 두 번째 음절의 '오'는 본래 사동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V(X)(-)[H]]형 이형태들의 출현 환경을 모음이 '아, 어'나 '오, 우'인 단음절 어간이나 이러한 어간이 마지막 구성 요소로 참여한 합성어 뒤로 규정할 수 있다.

260) 선어말어미 {-으시-}와는 달리 동사 어간 '이시-'는 명사형어미 {-음}과 통합되면 '*이샴'이 아닌 '이슘'이나 '이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듣논 소리 뫼ᅀᆞ리 ᄀᆞᆮᄒᆞ야 **이슘**과 업숨괘 다ᄅᆞ디 아니ᄒᆞᆯᄊᆡ <월석 2:53a>
(나) 寂靜ᄒᆞᆫ 무덤 서리예 **이숌**과 나모 아래 **이숌**과 한ᄃᆡ예 **이숌**과 <월석 7:31b>
이러한 특성은 '이시-'가 연결어미 {-어}와 통합되었을 때 '이셔'와 '이샤'가 모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261) 이 밖에도 任洪彬(1980)에서는 '-샤ᄂᆞᆯ'과 '-샤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토아시ᄂᆞᆯ'에서의 '아'와 같은 경우를 들어 이형태 '아'의 설정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고영근(1997)에서 지적되었듯이 선어말어미 {-거-}를 선어말어미 {-오-}로 잘못 파악하였거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시된 것들로 이를 이형태 '아'의 설정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262) 이 때 '-고-'의 정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연구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任洪彬(1980)에서는 그 형태론적 위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라'의 '고'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임동훈(1994)에서는 이 '-고-'에 대해 15세기의 선어말어미 '-거-'의 기원형이 '-고-'였다는 가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나. '가-'(去)를 ':가-'로 만들어 주는 형태는 고정적 거성을 가진 '-아-'이다(任洪彬 1980).
다. '다'는 '-드-'와 '-아-'의 결합으로 분석된다(임동훈 1994).

'아'형의 이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된 (6)의 예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아'형 이형태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6-가)가 '-과라'의 '과'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처라면, (6-나)는 모음 '아'를 마지막 분절음으로 갖는 어간들이 '오'계 어미와 통합되어 '오' 형태는 사라지고 어간의 성조가 상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다)는 이른바 화합형태라고 하는 '다'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견해라고 하겠다.

(6)과 같은 견해들은 '오'계 어미들의 이형태로 '아'형의 이형태가 존재했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나 제시된 견해에 따라 볼 때 '아'형 이형태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이형태가 일정한 환경 아래에서 나타나는 이형태 분포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6-다)와 관련해 화합형태 '다'를 '드+아'로 분석한다면 동형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화합형태 '가'의 경우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가'의 경우 '-드-'와는 달리 선어말어미 '*-그-'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아'로의 분석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화합형태 '다'를 '드+아'로 분석하여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로 '-아-'를 추출해 내는 것이 잘못된 분석임을 시사한다.

'아'형 이형태는 실제로 'ᄒᆞ샤', 'ᄒᆞ샴', 'ᄒᆞ샤ᄃᆡ' 등과 같은 예에 나타나는 '샤'를 음운론적으로 '시+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려는 (1)의 입장이 타당하지 못함을 보았는데, 이는 결국 '아'형 이형태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귀결된다.

(6)과 같이 '아'형 이형태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은 곤란하며 실제로 '아'형 이형태들의 분포를 선어말어미 {-으시-} 뒤로 한정하여 봄으로써 분포의 정연성(整然性)을 확보하고 '시+아→샤'라는 보편적인 음운과정으로 '샤'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처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샤'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𢆶-/-ニ-'(-시-)와 통합된 문법형태들의 표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7) 가. ㉠ 有ナ𢆶下 〈화소 7:16〉〈화소 7:18〉, 莫七𢆶下ハ 〈화소 10:20〉, 垂リ𢆶下ハ 〈화소 11:10〉〈화소 12:12〉
　　㉡ 有ナハニ下 〈구인 2:3〉, 坐ソニ下 〈구인 2:11〉, 二十九年3十ソニ下 〈구인 2:21〉, 作ソニ下 〈구인 3:5〉, 然七ソニ下 〈구인 3:12〉, 起ソニ下 〈구인 3:13〉, 無相しソニ下 〈구인 11:3〉, 安隱ソニ下 〈구인 11:5〉, 樹リニ下 〈구인 11:9〉, 心智寂滅ソニ下 〈구인 11:10〉, 出現ソニ下 〈구인 14:05〉, 爲若|ソナ|ソニ下 〈구인 14:14〉, 金色晃耀ソニ下 〈금광 6:20〉, 起ニ下 〈금광 13:1〉〈금광 13:18〉〈금광 15:3〉, 無ニ下 〈금광 13:4〉, 一味リニ下 〈금광 13:9〉, 微ソㅎソニ下 〈금광 15:1〉, 示現ソニ下 〈유가 6:4〉
　나. ㉠ 有斗𢆶ᅙㄱ 〈화소 13:2〉, 常住ソ𢆶ᅙㄱ入ㄱ 〈화엄 11:14〉, 不思議リ𢆶ᅙㄱ入し 〈화엄 10:15〉, 暢修行ソ𢆶ᅙㄱヒ七 〈화엄 8:24〉, 有ナハ𢆶ᅙㄱ矢ミ 〈화엄 15:10〉, 待演ソ𢆶ᅙㄱ丁 〈화소 24:7〉, 出家ソ𢆶ᅙㄱラ十 〈화엄 3:13〉, 處ソ𢆶ᅙㄱム 〈화소 11:19〉, 授記ソ𢆶ᅙ尸 〈화엄 12:14〉, 了ソ𢆶ᅙ矛ㅎソナ| 〈화소 24:15〉, 聽𢆶ᅙホ 〈화엄 9:2〉, 盛壯ソ𢆶ᅙ分 〈화소 12:2〉
　　㉡ 善ニろㄱ亻 〈구인 3:20〉, 無七|ソニろ矛尸入ㄱ 〈구인 14:19〉, 居ソニろホ七| 〈구인 11:7〉

먼저 (7-가)의 '-𢆶下'와 '-ニ下'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것으로 15세기 국어의 '-샤'에 대응되며, (7-나)의 '-𢆶ᅙ-'와 '-ニろ-'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것으로 15세기 국어의 '-샤-'에 대응되는 요소가 된다.[263)]

15세기 국어의 '-샤(-)'에 대응되는 요소가 이와 같이 '-𢆶下/-ニ下'나 '-𢆶ᅙ-/-ニろ-'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15세기의 '-샤-'를 단순히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보아서는 안 된

263) 향가에서도 선어말어미 {-으시-}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형태가 '-賜烏-/-賜乎-'로 나타나고 있다.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모죽지랑가 3>
郎也持以支如賜烏隱 <찬기파랑가 7>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혜성가 4>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원가 4>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李丞宰(2000:227)에서는 선어말어미 {-으시-}가 보이는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8) 가. 석독구결 자료(12-13세기)
부동사어미 : ㅋ〔시〕 + ㅏ〔아〕 → ㅋ下〔시하〕 ('ㅎ' 첨가)
동명사어미 : ㅋ〔시〕 + ろ1〔온〕 → ㅋろ1〔시온〕
나. 송독구결 자료(14세기)
부동사어미 : ㅋ〔시〕 + ㅏ〔아〕 → 㑛〔샤〕 (축약)
동명사어미 : ㅋ〔시〕 + 乎1〔온〕 → 㑛1〔샨〕 (특이한 축약)
다. 한글 자료(15세기)
부동사어미 : 시 + 아 → 샤 (축약)
동명사어미 : 시 + 온 → 샨 (특이한 축약)

(8)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기 국어의 '-샤(-)'는 본래 '-ㅋ下/-ㅋ下'나 '-ㅋろ-/-ㅋろ-'였던 것이 14세기 송독구결(즉,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 '㑛'라는 형태로 축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 15세기 국어의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파악하려는 (1)의 입장은 그 입지가 매우 약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ㅋ下/-ㅋ下'에서 나타나는 '下'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8-가)에서 볼 수 있듯이 李丞宰(2000)은 이를 선어말어미 '-시-'와 연결어미 '-아' 사이에 'ㅎ'가 첨가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ㅎ'의 첨가에 대해 李丞宰(2000)은 '-ㅋ下/-ㅋ下'뿐만 아니라 '入ㄴㅋㄴ1 <구인 2:11>'과 '得ㅋㄴ1 <구인 3:13>'에서 보이는 '-ㅋㄴ1'의 경우를 함께 들어 '-ㅋ-/-ㅋ-'와 특정 형태소 사이에서 'ㅎ'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말하고 이 현상이 모든 음운론적 환경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이한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형태론적 특성이 강한 현상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을 고려할 때 과연 '-ㅋ下/-ㅋ下'와 '-ㅋㄴ1'에서 'ㅎ'첨가라는 음운현상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9) 가. 安住亽リ下 〈유가 24:6〉, 善安住ソ(令)リ下 〈유가 25:19〉, 斷滅ソ(令)リ下 〈유가 28:5〉, 令リ下 〈화소 16:15〉 cf. 令リ3尔 〈화소 25:18〉〈화엄 17:23〉, 生リ3 〈화엄 9:11〉, 持リ3尔 〈화엄 15:23〉, 出リ3尔 〈화엄 15:19〉
나. 聞白ロソㄱ 〈구인 11:14〉, 巳氵ソロソㄱ 〈화소 11:4〉, 已氵ソ3ソㄱ 〈화소 25:14〉, 如丨ソケソㄱ : 〈구인 15:7〉, 爲氵ソㄱリ : 〈화엄 15:21〉

먼저 (9-가)는 사동접미사 '-リ-'(-이-) 뒤에서 연결어미로 '-3'(-아)가 아닌 '-下'가 나온 경우인데, 비록 연결어미가 '-3'(-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동접미사 '-リ-'(-이-) 뒤에서도 선어말어미 '-ぁ-/-ニ-'(-시-) 뒤에서와 같이 연결어미가 '-下'로 나타나는 것은 '-下'의 분포가 선어말어미 '-ぁ-/-ニ-'(-시-) 뒤로만 한정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ぁ-/-ニ-'(-시-)를 주체존대의 활용어미로 파악한 백두현(1995)의 견해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李丞宰(2000)에서는 선어말어미 '-ぁ-/-ニ-'(-시-)나 사동접미사 '-リ-'(-이-)가 둘 다 문법형태에 속하고 'ㅣ'모음으로[264]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ㅣ' 모음 다음에서만 'ㅎ'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265] 그러나 문법형태라는 범주적 공통성과 모음 '이'라는 분절음적 공통성만을 들어 두 형태소 '-ぁ-/-ニ-'(-시-)와 '-リ-'(-이-) 다음에서만 'ㅎ'첨가라는 음운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본래 존재하던 'ㅎ'가 모음 사이에서 탈락되는 것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임을 상기할 때, 그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던 'ㅎ'가 첨가되는 것은 너무도 특수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9-나)는 연결어미 '-ロ'(-고), '-3'(-아), '-ケ'(-며), '-氵'(-사) 뒤에 'ソㄱ'이 분포한 경우인데,[266] 이 때 'ソㄱ'은 하나의 단위로서 연결어미와 같이 완결된 문법 요소 뒤에 통

264) 본 연구에서 'ㅣ'는 활음 'j'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ㅣ'라고 한 것은 李丞宰(2000)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사실상 선어말어미 '-시-'와 사동접미사 '-이-'의 모음 '이'를 지칭하고 있다.

265) 혹 '-ぁㆆ-'에서 'ㆆ'를 '호'로 읽어 여기에서도 선어말어미 '-ぁ-'(-시-) 뒤에서 'ㅎ'첨가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ㆆ'는 'ろ'와 함께 '오'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고(백두현 1996), '호'를 적기 위한 적합한 구결자로 'ノ'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향가에서도 '-賜乎-' 등에 쓰인 '乎'는 '오'를 표기한 차자임을 고려할 때 '-ぁㆆ-'에서 'ㆆ'가 '호'로 읽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266) 李丞宰(2000:223)에서는 'ソロソㄱ'과 'ソ3ソㄱ'의 '-ロ'(-고)와 '-3'(-아)를 확인법 어미로 파악했는데,

합되어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67]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ソ1'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入ソニソ1 <구인 2:11>', '得ニソ1 <구인 3:13>' 역시 완결된 문법 요소 뒤에 'ソ1'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 두 경우 모두 '-ニ1 ソ1'에서 동명사형어미 '1'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이때 생략된 동명사형어미 '1'은 『舊譯仁王經』의 두 용례에서 후행하는 '緣ㄴ'을 수식하는 기능과 연결어미 '-니'와 같은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268]

이와 같이 (9-나)의 예들을 통해 'ソ1'이 선어말어미 '-ニ-' 뒤에 동명사형어미 '-1'이 통합될 때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ソ1'에 'ㅎ'가 첨가되어 존재한다고 논의한다면 우리는 선어말어미 '-ニ-'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ロ'(-고), '-3'(-아), '-ケ'(-며), '-シ'(-사) 뒤에서도 'ㅎ'첨가 현상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어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彡下/-ニ下'와 '-ニソ1'에 대해 'ㅎ'첨가라는 음운현상이 관여했다는 논의가 타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彡下/-ニ下'의 '下'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균여(均如)의 향가 <請佛住世歌>의 마지막 구(句)에 보이는 '賜下'에 주목하게 된다.[269]

이들이 사용된 문맥의 검토와 더불어 (8-나)의 '-ケソ1'(-며ᄒᆞᆫ), '-シソ1'(-사ᄒᆞᆫ)의 예를 고려할 때 이들은 선어말어미가 아닌 연결어미로 파악된다. 한편, '上中下ホソ1 <구인 11:25>'과 같은 용례는 보조사 '-ホ'(-곰) 뒤에 'ソ1'이 통합된 경우로 이 역시 어말어미와 같이 완결된 요소 뒤에 'ソ1'이 통합된 예가 된다.

267)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ソ1'은 위의 용법 외에 '爾ミ七ソ1 <화엄 1:4>', '是ミ七ソ1 <화엄 19:13>', '白ノソ1 <화엄 3:14>', '今ソ1 <화소 9:18>', '亦ソ1 <구인 2:13>', '又ソ1 <화소 13:9>', '或ソ1 <화소 12:13>' 등에서와 같이 일련의 부사들이나 '3+ソ1', 'ラ+ソ1'과 같이 처격조사나 여격조사가 붙은 부사어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련의 부사들에서 나타나는 'ソ1'이 접사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태론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268) 이 둘의 실제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大寂室三昧3+ 入ソニソ1 緣ㄴ 思ソ3ホ 大光明ㄴ 放ソ3 三界七 中ㄴ 照ソヒハニケ <구인 2:11-12>
(나) 佛1 卽ろ 時リナろ1入ㄴ 知ニケ 衆生ラ 根ㄴ 得ニソ1 卽ろ 定ㄴ 從七 起ソニ下 <구인 3:13>

269) 본 연구에서 향가의 해독은 金完鎭(1980)을 따랐으나 부분적으로 연구자의 견해가 반영된 것도 있다. 한 예로 <請佛住世歌>의 제9구 '落句 吾里心音水淸等'에 대해 金完鎭(1980)은 이를 '우리 ᄆᆞᅀᆞᆷ믈 말가

(10) 佛影不冬應爲賜下呂(佛影 안돌 應ᄒᆞ샤리) 〈청불주세가 10〉

(10)에 대해서는 金俊榮(1979)의 '佛影 안돌 應ᄒᆞ샤ᄒᆞ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독이 일치를 보이고 있다. <請佛住世歌>의 제9구가 '落句 吾里心音水淸等(우리 ᄆᆞᅀᆞᆷ믈 말ᄀᆞᄃᆞᆫ)'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므로 제9구와 제10구는 '우리 마음의 물이 맑거든 佛影이 아니 應하시겠습니까?' 정도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이 때 金俊榮(1979)는 '應爲賜下呂'의 '下呂'를 'ᄒᆞ려→ᄋᆞ려→려'의 과정을 겪은 감탄형종결어미 '-려'로 파악했는데, '-려'를 감탄형종결어미로 파악한 것은 놓아두더라도 '下'를 'ᄒᆞ'로 읽은 것과 '下呂'가 'ᄒᆞ려→ᄋᆞ려→려'의 과정을 통해 '-려'를 나타낸다고 본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이보다는 金完鎭(1980)에서처럼 '應ᄒᆞ-'에 선어말어미 '-시-'와 어미 '-아리'가 차례로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은 해독이라고 생각된다.[270)]

이렇게 볼 때 (10)에서의 '賜下'는 '시아'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샤'로 해독된 것은 다분히 15세기 국어의 어형에 이끌린 결과라고 하겠다. 이 때 문제는 '下'가 어떻게 '아'를 표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下'에 대한 金完鎭(1980)의 견해에 주목해 볼 수 있다. 金完鎭(1980)은 향가 표기의 기본적 모델이 훈주음종(訓主音從)이기는 하지만 첨기(添記)에 사용되는 것이 반드시 음독자(音讀字)만은 아님을 주장하며 그 예로 '下是'를 들었다.

(11) 訓主音從이라고는 하지만, 종속적인 자리에 오는 것이 반드시 音讀字만은 아니고 訓借에 의한 末音添記의 경우도 적지 않이 발견된다. 가령 慕竹旨郎歌에 보이는 '作乎下是', '有叱下是'에서의 '下是'는 어미 '-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均如의 '下呂'와 같은 것인데, 前

ᄃᆞᆫ'으로 해독하였는데, 연구자는 이 중 '淸等'을 '말가ᄃᆞᆫ'으로 해독하는 것은 15세기 국어에 이끌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15세기 국어에서 '-거든/-어든'은 하나의 연결어미로 기능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선어말어미 '-거-/-어-'가 없는 '-ᄃᆞᆫ/-든'만으로도 독자적인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淸等'은 '말가ᄃᆞᆫ'이 아닌 '말ᄀᆞᄃᆞᆫ'으로 해독될 수 있다. 연결어미 '-ᄃᆞᆫ/-든'에 대해서는 金裕範(1998c)와 이용(1998)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270)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미 '-아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12-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경우에 따라 평서형으로도 해독되고 의문형으로도 해독된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者에서는 두 字 모두를 訓讀한 것이고 後者에서는 '下'字를 訓讀하고 '呂'를 音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金完鎭 1980:20).

이 때 '下是'는 '下'의 훈(訓) '아리/아래'에 '이'(=是)가 대체첨기(代替添記)되어 '아리'가 된 것이다(金完鎭 1980:64). '下'를 훈독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수용한다면 실제로 향가에서 나타나는 '下'는 다음과 같이 훈독자와 음독자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가. 逢烏支惡知作乎<u>下是</u>(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모죽지랑가 6〉
逐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u>下是</u>(다보짓 굴헝히 잘 밤 이샤리) 〈모죽지랑가 8〉
吾衣身不喩仁人音有叱<u>下呂</u>(나의 모마 안디 사룸 이샤리) 〈수희공덕가 4〉
吾衣身伊波人有叱<u>下呂</u>(나의 모마 뎌버 사룸 이샤리) 〈보개회향가 10〉
佛影不冬應爲賜<u>下呂</u>(佛影 안돌 應ᄒᆞ샤리) 〈청불주세가 10〉
然叱皆好尸卜<u>下里</u>(그럿 모든 홀 디녀리) 〈상수불학가 7〉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攴下(힌 구룸 조초 떠간 언저레) 〈찬기파랑가 3〉
月下伊底亦(ᄃᆞ라리 엇뎨역) 〈원왕생가 1〉
나. 二肹隱吾下於叱古(두볼른 내해엇고) 〈처용가 5〉
二肹隱誰支下焉古(두볼른 누기핸고) 〈처용가 6〉
本矣吾下是如馬於隱(본디 내해다마ᄅᆞᄂᆞᆫ) 〈처용가 7〉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攴(ᄒᆞᄃᆞᆫ핫 노하 ᄒᆞᄃᆞᄂᆞᆯ 더럭) 〈도천수관음가 6〉
城上人 佛道向隱心下(아야, 佛道 아온 ᄆᆞᅀᆞᆷ하) 〈상수불학가 9〉

(12-가)는 '下'가 훈독자로 사용된 예들이고[271] (12-나)는 음독자로 사용된 예들이다. 특히 (12-가)에서 '下是', '下呂', '下里'는 모두 '아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下'의 훈을 이용해 '아'를 표기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때 향가에서 '아리'라는 형태는 차자 '阿'와 '理/里/呂/利' 정도의 음독자들의 결합으로 충분히 표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 '-아리'의 경우에는 굳이 '下'를 훈독하여 표기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와 같이 향가에서 '下'가 훈독된 것처럼 석독구결에서의 '丅'도 훈독하되 거기에 약음차(略音借)를 적용해 이것이 '아'를 표기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

271) (12-가)의 마지막 두 용례에서 나타나는 '下'는 각각 '언저레'의 '-어레'와 'ᄃᆞ라리'의 축소사 '-아리'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ᄃᆞ라리'에 대해 金完鎭(1986)에서는 이를 명사 '달'과 축소사 '-아리'의 결합으로 보아 'ᄃᆞᄅᆞᆯ + -이'로 보았던 金完鎭(1980)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나는 '-ゕ下/-ニ下'도 '시하'가 아닌 '시아'로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ㅎ'첨가라는 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 '-ゕ-/-ニ-' 뒤에서는 반드시 '下'만이 사용된 것은 향가에서 '-아리'의 경우 반드시 '下'를 훈독하여 사용했던 사실과 더불어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15세기 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 어미와 만나 '-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선어말어미 {-으시-}와 '오'계 어미들의 '아'형 이형태들이 결합하여 축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샤(-)'를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로 파악하려는 입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에 나타나는 '賜下', '-ゕ下/-ニ下'나 '-賜乎-/-賜烏-', '-ゕ乊-/-ニろ-'는 각각 '시아'와 '시오'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5세기 국어의 '-샴', '-샤-', '-샤딕' 등을 고려할 때 '-賜乎-/-賜烏-', '-ゕ乊-/-ニろ-'의 경우 이것이 13세기말의 음독구결에서 '亽'(샤)라는 형태로 축약되기 이전에 '오'계 어미의 이형태로 '아'형의 이형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형 이형태의 보유는 선어말어미 {-으시-}의 개별적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아'형 이형태의 보유는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들과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아→샤' 변화의 기반이 되었다.272)

(13) 선어말어미 {-으시-}에 통합된 '오'계 어미의 이형태 변천

이 형 태:	【-오(X) (-)】	【-아(X) (-)】	
통합양상:	-시- + -오(X) (-)	-시- + -아(X) (-)	⟶
표기양상:	'-賜乎-/-賜烏-' '-ゕ乊-/-ニろ-'	'-亽-'	'-샤-'
교체시기:	〈12세기〉	〈14세기〉	

272) 참고로 선어말어미 {-으시-}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경우의 변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통합양상:	-시- + -아	⟶	
표기양상:	'-ゕ下/-ニ下'	'-亽'	'-샤'
변화시기:	<12세기>	<14세기>	

요컨대,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모음 어미들과 통합될 때 보이는 '-샤(-)'라는 형태는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가 아니라 모음 어미들이 가진 '아'형 이형태들과의 결합에 의한 '시+아→샤' 변화의 결과이다. 이 때 '아'형 이형태들은 항상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서만 나타나는 분포의 정연성을 보여준다. '-샤(-)'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 즉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본래 '-氵下/-ニ下'나 '-氵乊-/-ニろ-'였던 것이 13세기말 또는 14세기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 '全'(샤)라는 형태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4.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교체

형태소는 그것이 놓이게 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형태들로 실현되는데, 형태소가 보이는 이러한 이형태들의 교체는 공시적 현상이다. 반면에 이형태교체라는 공시적 현상에 참여하는 이형태들은 그것이 한 형태소의 이형태 계열을 형성하게 되기까지 나름대로의 통시적 과정을 겪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형태 형성의 이러한 통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15세기 국어의 몇몇 형태소들이 갖는 이형태들 중 동일한 형태음운론적 과정이나 형태론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이형태들, 즉 'ㄷ>ㄹ' 변화 및 'ㄹ'형 형태로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의 역사

4.1.0. 15세기 국어에서 선어말어미 {-돗-}, {-더-},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 및 형용사파생접미사 {-둡-} 등은 특정한 환경에서 형태의 일부인 'ㄷ'이 'ㄹ'로 변화된 형태로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국어 이전에 'ㄷ>ㄹ'의 변화가 이들 형태소의 실현 과정에서 일어났었음을 암시한다.

먼저 15세기 국어에서 이들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중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었고 그 이전 시기로부터 어떠한 통시적 발달 모습을 보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4.1.1. 먼저 15세기 국어에서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의 이형태교체에서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가. 예 온 이ᄅᆞᆯ 뉘으처 ᄀᆞᄆᆞ니 너교ᄃᆡ 이 王이어나 王 等이로소니 〈월석 13:12b〉
그 어미 對答호ᄃᆡ 羅ᄇᆞᆨ이롫디면 내 빗 소배셔 난 아기로소이다 〈월석 23:86a〉
나. 聖子ㅣ 나샤 輪王이 ᄃᆞ외시리니 出家ᄒᆞ시면 正覺ᄋᆞᆯ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석 2:23b〉
네 이런 왼 일ᄃᆞᆯ히 녀느 일훔 사ᄅᆞᆷ ᄀᆞ호ᄆᆞᆯ 잢간도 몯 보리로소니 〈월석 13:24b-25a〉
다. 네 아ᄃᆞ리 나히 열아홉만 ᄒᆞ면 내 지븨 아니 이슗 相이로다 하더라 〈월석 8:87b〉
下根이 너교ᄃᆡ 乃終 내 몯미츨 거시로다 〈월석 13:73b〉
라. ᄒᆞ나ᄒᆡ ᄆᆞᅀᆞᄆᆞᆫ 수비 고티려니와 모ᄃᆞᆫ ᄆᆞᅀᆞᄆᆞᆫ ᄲᆞᆯ리 몯 고티리로다 〈월석 1:52a〉
우 업슨 道理ᄅᆞᆯ 求ᄒᆞ거든 보리로다 ᄒᆞ시니라 〈월석 11:3a〉

(1)은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그 형태가 '-롯-/-로-'로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273] (1-가 · 나)는 '-롯-'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이고, (1-다 · 라)는 '-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273) 高永根(1981 · 1987)에서는 중세국어의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옷-, -돗-' 계열과 '-ㅅ-' 계열로 大別하였다. 먼저 'ᄒᆞᄂᆞᆺ다', 'ᄒᆞ샷다', 'ᄒᆞ닷다', 'ᄒᆞ과소라' 등을 각각 'ᄒᆞ+ᄂᆞ+옷+다', 'ᄒᆞ+시+옷+다', 'ᄒᆞ+더+옷+다', 'ᄒᆞ+거+옷+오+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감동법 선어말어미 '-옷-'을 석출(析出)하였다. 또한 '-돗-'은 매개모음을 취하는 어미(예-ᄋᆞ니, -ᄋᆞ이-) 앞에서는 '-돗-'으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도-' 형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두 형태의 제약조건을 음운론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ㅅ-' 계열은 '-옷-, -돗-'과 같은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들과 상보적 위치에 나타나는데, 'ᄒᆞ소라(ᄒᆞ+ㅅ+오+라)', 'ᄒᆞ순다(ᄒᆞ+ㅅ+ᄋᆞᆫ다)', 'ᄒᆞ야ᄉᆞ라(ᄒᆞ+야+ㅅ+ᄋᆞ라)' 등의 분석을 통해 석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가)와 같이 'ᄒᆞ돗더-', 'ᄒᆞ돗다' 등에서는 자음 어미 앞에서도 '-돗-'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돗-'과 '-도-'의 이형태교체는 후행 요소의 두음이 교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계열 '-ㅅ-'와 '-옷-, -돗-'이 상보적 위치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가) 지븨 겨샤 날마다 五百僧齋ᄒᆞ시돗더이다 <월석 23:74b>
哲匠은 ᄒᆞ마 銘을 사기돗다 <두시-초 24:62b>
(나) 天女를 보건댄 내 겨지비ᅀᅡ 눈 먼 獼猴 ᄀᆞ도소이다 <월석 7:12b>
塔 일어 供養ᄒᆞᅀᆞ보려 ᄒᆞ야 머리셔 오소이다 <석상 23:53b>

(1-가)는 계사 뒤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롯-' 형태로 실현된 것이고 (1-나)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롯-'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이 때 '일우시리로소이다'와 '보리로소니'는 각각 '일우- + -시- + -리- + -롯- + -ᄋᆞ이- + -다'와 '보- + -리- + -롯- + -ᄋᆞ니'로 분석되는데, 이 중 '-ᄋᆞ이-'와 '-ᄋᆞ니'의 'ᄋᆞ'는 선행하는 '-롯-'의 원순성에 동화되어 '오'로 바뀌게 된 것이다.[274] 한편, 비록 후대 자료이긴 하지만 『老乞大諺解』(1670)의 '이롯더라'와[275] 같은 예는 '-롯-' 뒤에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준다.[276]

(1-다)는 계사 뒤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로-' 형태로 실현된 것이고 (1-라)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로-'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이처럼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롯-/-로-'를 이형태로 가졌던 선어말어미 {-돗-}은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 ㉠ 又都仏体叱事伊置耶(ᄯᅩ 부텻 이리도야) 〈총결무진가 8〉
㉡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녈 뭀겨랏 몰애로다) 〈원가 6〉
皆仏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모ᄃᆞᆫ 부텨도 그럿 ᄒᆞ시니로여) 〈상수불학가 8〉
仏体頓叱喜賜以留也(부텨 ᄇᆞᄅᆞᆺ 깃그시리로여)[277] 〈항순중생가 10〉
나. 此相ㄱ 非是欲愛所生丶又丨(此相은 非是欲愛所生이로다) 〈능엄-안 1:6a〉
我ㄱ 不知誰正誰倒ソ利又所丶丨(我는 不知誰正誰倒ᄒᆞ리로소이다) 〈능엄-안 2:2b〉

274)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 구결 자료들에 나타나는 'ソ刀士丶丨(ᄒᆞ도ᄉᆞ이다), ソ斗罒ㄹ丨(ᄒᆞ두ᄉᆞ이다), 丶又士丶丨(이로ᄉᆞ이다), ソ斗士ヒ午(ᄒᆞ두ᄉᆞ니오), ソ刀士ヒ午(ᄒᆞ도ᄉᆞ니오)' 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이승희 1996a).

275) ᄯᅩ 達達 사ᄅᆞᆷ으로셔 도망ᄒᆞ야 나온 이롯더라(却是達達人家走出來的) <노언 상:45b>.

276) 15세기에 다음과 같이 'ᄒᆞ돗더라'가 가능한 것을 볼 때, 당시 계사 뒤에서 '-롯더라'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글워ᄅᆞᆯ 더뎌 鶺鴒을 뵈돗더라 <두시-초 8:39b>, 山殿ㅅ가온딧 景趣 ᄀᆞ장 議論ᄒᆞ돗더라 <두시-초 9:13b>, 새 그ᄅᆞᆯ 어제 브텨 보내돗더라 <두시-초 23:29a>

277) 여기에서는 '賜'와 '以' 사이에 'ㄹ'를 보충하여 읽는데, 이러한 양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수희공덕가>의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어드시리마락 사ᄅᆞ미 업곤)'에서도 '賜'와 '伊' 사이에 'ㄹ'을 보충하여 읽어야 한다(金完鎭 1980:182).

(2-가)는 향가에서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선어말어미 {-돗-}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2-가-㉠)의 '置'가 '-도-'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면, (2-가-㉡)의 '以'와 '留'는 각각 훈독자(訓讀字)와 음독자(音讀字)로 모두 '-로-'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본래 '-도-' 형태가 쓰였었다는 사실과 함께 향가가 기록될 당시인 13세기 후반에 이미 선어말어미 {-돗-}의 이형태에서 'ㄷ>ㄹ'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나)는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들로 여기에서는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선어말어미 {-돗-}이 '又'(-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丷利又所㇏丨(ᄒᆞ리로소이다)'에서는 그 형태가 '-롯-'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모습은 15세기 국어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安東本楞嚴經』의 구결이 늦어도 13세기 후반에 기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南豊鉉 1995)에서 보면 선어말어미 {-돗-}은 이미 13세기 후반에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15세기와 같은 이형태교체 계열을 형성한 것이 된다.

한편, 대개 사실을 기록하는 문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두 자료에서는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이승재 1998).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는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口七(곳)-, -阝七(앗)-, -乊七(옷)-, -七(ㅅ)-' 등으로 나타나는데(이승재 1998),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阝七(앗)-'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78] 그런데 '-阝七(앗)-'의 '阝'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로 분리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직접 결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ㄷ>ㄹ'의 변화와 관련된 감동법 선어말어미 형태가 결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15세기에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롯-/-로-'를 이형태로 가졌던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은 향가와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를 통해 볼 때, 본래 계사 뒤에서도 '-돗-/-도-'를 이형태로 가졌었으나 13세기 후반에는 15세기와 같이 '-롯-/-로-'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78) 於諦阝十 常刂 白乊罒 二刂1 刂阝七丨丷阝 <구인 15:6>
爲上 爲無上 爲無等 無等等 爲入乙丷𠂇矛阝七口 <화엄 2:9>

4.1.2.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더-}의 이형태교체에서도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다.

(3) 가. 일후미 妙莊嚴이러니 그 세 버디 得道ᄒᆞ야 그 허므를 救코져 호ᄃᆡ 〈월석 19:70b〉
외니 올ᄒᆞ니 決홇 사ᄅᆞ미 업서 모다 平等王ᄋᆞᆯ 세ᅀᆞᄫᆞ니 姓이 瞿曇氏러시니 〈월석 1:45b〉
나. 우리도 沙羅樹大王ㅅ 夫人ᄃᆞᆯ히라니 네 勝熱婆羅門比丘ㅣ 우리 王宮의 가샤 〈월석 8:100a〉
내 지븨 이싫 저긔 舍衛國 사ᄅᆞ미라니 父母ㅣ 나ᄅᆞᆯ 北方 싸ᄅᆞᄆᆞᆯ 얼이시니 〈월석 10:23b〉
다. 이러트시 고텨 ᄃᆞ외샤미 몯 니ᄅᆞ혜리러라 〈월석 1:21a〉
來日은 주그리러니 그 낤 바ᄆᆡ 저ᅀᆞᄫᆞ며 懺悔ᄒᆞ야 비 디ᄃᆺ 울며 ᄉᆞᆯᄫᆞᄃᆡ 〈월석 19:20b〉
라. ᄒᆞ다가 우리 큰 法 즐기ᄂᆞᆫ ᄆᆞᅀᆞ미 잇던댄 부톄 우리 爲ᄒᆞ야 大乘法을 니ᄅᆞ시리라ᄉᆞ이다 〈월석 13:36a〉[279]
ᄒᆞ다가 내 큰 法 즐기던댄 오로 맛디샤미 오라시리랏다(若我ㅣ 樂大ᄒᆞ던댄 則全付ㅣ 久矣시리랏다) 〈법화 2:232a〉[280]

(3-가 · 나)는 계사 뒤에 선어말어미 {-더-}가 '-러-' 형태로 실현된 것이고 (3-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러-' 뒤에 다시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해 그 형태가 '-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 때의 '-라-'는 '-러- + -오- → -라-'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3-다 · 라)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한 예들이다. (3-다)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더-}가 '-러-' 형태로 실현된 것이고, (3-라)는 여기에 다시 감동법 선어말어미 '-옷-'이 결합해 '-랏-'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 '-랏-'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러- + -옷- → -랏-'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이것은 (3-나)에서 나타난 '-러- + -오- → -라-'의 변화와 그 속성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279) 이에 대응되는 『法華經諺解』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ᄒᆞ다가 우리 큰 法 즐길 ᄆᆞᅀᆞᄆᆞᆯ 두던댄 부톄 날 爲ᄒᆞ샤 大乘法을 니ᄅᆞ시리라ᄉᆞ이다(若我等이 有樂大之心ᄒᆞ던댄 佛則爲我ᄒᆞ샤 說大乘法ᄒᆞ시리라ᄉᆞ이다) <법화 2:231b>

280) 이에 대응되는 『月印釋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ᄒᆞ다가 큰 法을 즐기던댄 오로 맛디샤미 오라니라 <월석 13:36b>

이 밖에 통시적으로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해 형성된 통합형어미 '-더든'이나 선어말어미 {-더-}에 연결어미 '-ㄴ댄'이 통합된 '-던댄'과 같은 경우에도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각각 '-러든'과 '-런댄'으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281] 이 역시 선어말어미 {-더-}와 연관된 형태소들의 교체에서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들이 나타난 예가 된다.

한편, 15세기 국어 문헌자료에는 선어말어미 {-리-}와 {-더-}, 그리고 선어말어미 {-오-}가 차례로 결합한, 즉 '-리- + -러- + -오-'의 구성요소를 갖는 '*ᄒᆞ리라-'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러-'를 이형태로 가졌던 선어말어미 {-더-}는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 脚烏伊四是良羅(가로리 네히러라) 〈처용가 4〉
　나.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在而亦(忠臣義士 推心이더견마리여)[282] 〈尙書都官貼 37〉
　　齋僧祝上爲如乎事是如有 等以(齋僧祝上ᄒᆞ더온 일이더이신 ᄃᆞ로) 〈淸州牧官文書 4〉
　　八田處所是如在乙 一間置 遺無亦(八田處所이더견을 一間도 遺 없이)[283] 〈長城監務官貼文 9〉
　다. 皆是無漏大阿羅漢ㄟㄴ令ㅌ(皆是無漏大阿羅漢이러니) 〈능엄-안 1:3b〉

(4-가)는 향가에서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예인데, 이를 표기하는 차자로 '良'이 사용되었다. '良'은 매우 다양한 독법을 보이는 차자인데 음독해서는 '라, 러, 랑, 란' 등으로, 훈독해서는 '아, 어'로 읽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良'이 선어말어미 {-더-}의 이형태인 '-러-'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가에서 선어말어미 '-더-'에

281) 若有我相이러든 應生瞋恨이라 ᄒᆞ시니 <금삼 3:29a>
　若使二人이 如有我ㅣ러든 一在靑山코 一在途ᄒᆞ리라 <금삼 4:17b>
　ᄒᆞ다가 우리 因훌 ᄀᆞ돌 니ᄅᆞ샤ᄆᆞᆯ 기드려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일우리런댄 반ᄃᆞ기 大乘으로 度脫ᄋᆞᆯ 得ᄒᆞ리어늘 <법화 2:6b>

282) 南豐鉉(1992:102)에서는 '忠臣義士가 推心하던 바이었었지만'으로 그 의미가 파악되었다.

283) 이것은 '八田處所이던 것을 一間도 遺失 없이' 정도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해당하는 것이 '如'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때[284] 이곳의 '良'은 분명 '如'와는 다른 형태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나)는 고려시대 이두 자료인 <尙書都官貼>(1262), <淸州牧官文書>(1349), <長城監務官貼文>(1378)에 나타나는 예들로 모두 계사 뒤의 선어말어미 {-더-}에 해당하는 형태가 이두자 '如'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더-'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15세기 이후의 이두 자료들에서도 '-러-' 형태를 표기한 이두자를 찾아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두가 보여주는 강한 보수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두 자료에서 보이는, 계사 뒤의 선어말어미 {-더-}를 위한 '如'의 표기는 본래 계사 뒤에서도 선어말어미 {-더-}는 '-더-' 형태로 실현되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다)는 고려시대 음독구결에서 계사 뒤에서 선어말어미 {-더-}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음독구결에서는 선어말어미 {-더-}를 표기하는 구결자로 '丨'와 '㔽'가 사용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이승재 1998),[285]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사용된 예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예문의 구결토 '㇏乚令ㅂ'의 '乚令'는 계사 뒤에 결합된 선어말어미 {-더-}의 이형태 '-러-'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해당 부분이 간경도감본 『楞嚴經諺解』에서 '이러니'(1:24a)로 현토되어 있음을 볼 때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러-' 형태의 표기를 위해 두 개의 구결자가 사용된 것이 특이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구결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조치이다.

---

284) 郞也持以支如賜烏隱(郞이여 디니더시온) <찬기파랑가 7>
　　懺爲如乎仁惡寸業置(懺ᄒᆞ더온 머즌 業도) <보개회향가 6>

285) 『安東本楞嚴經』에는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하는 구결자로 '㔽', 'ｶ'(加)가 쓰였음을 볼 수 있다.

　　王及大臣長者居士俱來隋佛〃 願聞法要ㅅ㔽ニ丨 <능엄-안 1:5b>
　　退坐默然〃 承受聖旨ㅅｶニ丨 <능엄-안 1:6a>

한편, 南豊鉉(1987)에서 '-드-' 형태의 과거시제어미로 추정했던 'ㅅ'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此身㇏ 死後斷滅ㅅ罒乚 名爲涅槃ㅅㅅㅂ <능엄-안 2:1a>

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이 'ㅅ'의 존재는 15세기 국어의 '느지르샷다<용가 100>'의 '르'와 '아니ᄅᆞ샤시이다<월석 12:3b>'의 'ᄅᆞ'와 관련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계사 뒤에서 'ᄃᆞ/드~ᄅᆞ/르'의 교체 형성은 'ㄷ>ㄹ' 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형태교체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ㅣ'(多)로 표기된 선어말어미 {-더-}는 오직 『舊譯仁王經』에만 나타난다.[286] 그러므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로는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ㄷ>ㄹ'의 변화와 관련된 과거시상 선어말어미의 형태를 관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15세기에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러-'를 이형태로 가졌던 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더-}는 향가와 고려시대의 이두와 음독구결 자료를 통해 볼 때, 본래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더-'를 이형태로 가졌었으나 13세기 후반에는 15세기에서와 같이 '-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두와 석독구결을 통해 볼 때 선어말어미 {-더-}는 그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더-~-러-'의 교체도 13세기 후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4.1.3. 다음으로 15세기 국어의 평서형 종결어미 {-다} 또한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를 가지고 있다.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형태소들 뒤에서 그 형태가 '-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5) 가. 울에 번게 맛가보미 常이오 너무 호미 變이라 〈월석 19:45b〉
처엄브터 다시 始作홀씨 일후미 金剛心中初乾慧地라 〈월석 2:62a-62b〉
나. 다시 使者 브려 닐오더 잠간 서르 보고 다쐇 ᄼᅀᅵ예 도로 보내요리라 〈월석 7:15a〉
또 諸佛法 中에 이 經典을 닐어 功德을 일워 당다이 부텨 ᄃᆞ외리라 〈월석 17:88b〉
다. 부텻 弟子ㅣ 아니며 阿羅漢辟支佛이 아니니라 〈월석 11:127a〉
世尊이 對答ᄒᆞ샤더 아ᄆᆞ란 受苦ㅣ라도 觀世音 일ᄏᆞ라 다 버서나ᄂᆞ니라 〈월석 19:1a-1b〉
라. 내 게으르디 아니호ᄆᆞ로 正覺ᄋᆞᆯ 일우오라 〈월석 23:13b〉
내 지븨 이셔 날마다 五百僧齋 ᄒᆞ다라 〈월석 23:74a〉
마. 쌋숤히 업거늘 쌋기르미 나니 마시 수을 ᄀᆞᆮ더라 〈월석 1:43a〉
自然히 ᄇᆞᄅᆞ미 부러 뭀ᄀᆞ새 건내 부치니 그 梵摩羅國 싸히러라 〈월석 8:99a〉

---

286) 四住七 開士刂尸 爲の丷 ㅣナ7し 我7 八住七 菩薩刂尸 爲のし丷 ㅣハ白ろ7の⺍ <구인 11:21-22>

(5-가)는 계사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실현된 예들이고 (5-나)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의 형태로 실현된 예들이다.

(5-다)는 선어말어미 {-니-}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실현된 예들이다. 15세기 국어 공시적으로 '-니라'의 '니'에 대한 형태론적 처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니라'에서 보이는 종결어미 {-다}의 음운론적 현현 방식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니- + -라'의 구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선어말어미 {-니-}와 종결어미 {-다}의 통합에 의한 '-니라'의 구성이 15세기 국어 이전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어말어미 {-니-}가 종결어미 {-다}를 '-라'로 실현시키는 'ㄷ>ㄹ' 변화의 동인(動因)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5-라)는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실현된 예들인데, 이 때 두 예문들의 주어가 모두 1인칭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 중 'ᄒᆞ다라'의 '다'는 두 선어말어미 {-더-}와 {-오-}가 결합된 것으로 이른바 화합형태라 일컬어지는 형태이다.

(5-마)는 선어말어미 {-더-}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실현된 예들인데, '싸히러라'의 경우에는 계사 뒤에서 '-러-' 형태로 실현된 {-더-}가 평서형 종결어미 {-다}를 '-라'로 실현시켰다.

이처럼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오-}, {-더-} 뒤에서 '-라'를 이형태로 가졌던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가. ㉠ 本矣吾下是如馬於隱(본ᄃᆡ 내해다마ᄅᆞᄂᆞᆫ) 〈처용가 7〉
安支尙宅都乎隱以多(안ᄌᆞᆨ 뎍도 업ᄉᆞ니다) 〈우적가 10〉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비ᄉᆞᆯᄫᆞᆯ 두ᄂᆞ오다) 〈도천수관음가 4〉
㉡ 後句 伊羅擬可行等(뎌라 비겨 녀ᄃᆞᆫ) 〈수희공덕가 9〉
此如趣可伊羅行根(이 ᄀᆞᆮ 너겨 뎌라 녀곤) 〈총결무진가 5〉
此肹喰惡支治良羅(이를 치악 다ᄉᆞ릴러라) 〈안민가 6〉
脚烏伊四是良羅(가로리 네히러라) 〈처용가 4〉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이ᄇᆞᄂᆞᆯ 불휘 사ᄆᆞ시니라) 〈항순중생가 2〉
法性叱宅阿叱寶良(法性 집의 보배라) 〈보개회향가 7〉

나. 向前 寺段 殘爲 甚 接人不得是如 爲去乙(안전 寺산 殘ᄒᆞᆫ 甚 接人不得이다 ᄒᆞ거늘)[287)]
〈長城監務官貼文 21〉

다. ㉠ 見尸 不ハノ禾ナㄱ 刂 丨ソヒハ=丨(안독 호리견이다 ᄒᆞᄂᆞᆨ시다) 〈금광 15:1〉
云何七ソㄱ乚 十地七 行乚 護ノ今七 因緣刂 丨ソ口ろ今ろ(因緣이다 ᄒᆞ고오리로) 〈구인 3:22-23〉
云何ソㄱ乚 修習對治刂 丨ノ今口(修習對治이다 호리고) 〈유가 8:1〉
是乚 以氵㇌ 而⺍ 廣大心乚 生刂ナㄱ 刂 丨(내견이다) 〈화엄 9:11〉
五者 一切 智智乚 願求ソ㢱ソ尸矢ナㄱ 刂 丨(願求ᄒᆞ며 ᄒᆞᆯ 디견이다) 〈금광 2:22-23〉
二乚 求ノㄱ厶 得㇌ろ亡 可七ソㄱ 不矢㢱 謂ノ今 非矢刂 丨(안디이다) 〈구인 15:4-5〉
一十ㄱ 者 異生人 二者 有學人刂 丨(有學과이다) 〈유가 30:5〉
㉡ 故ノ 願ソ㢱 尊ㄱ 涅槃乚 證ソ=口ㄱ 刂 四(證ᄒᆞ시곤이라) 〈금광 13:7〉
佛矢 往㇌十 修㢱ゥㄱヒ七 淸淨行乚 說㇌口乚ゥㄱ 刂 四(니ᄅᆞ골온이라) 〈화엄 8:23〉
得㢱 解脫 未ハソ㢱(㇌?)ノㄱ 刂 四(안독ᄒᆞ며(아?)혼이라) 〈유가 18:15〉
㉢ 故ノ 是乚 名下 智波羅蜜因ㅗノ禾 丨(智波羅蜜因여 호리다) 〈금광 2:18〉
故ノ 亦 名下 慧成熟ㅗノ禾 丨(慧成熟여 호리다) 〈유가 6:16〉
㉣ 果セ尸 不ソ尸丁ノ尸 無刂ソ㇌ナ禾 四(업시 ᄒᆞ야겨리라) 〈화엄 14:9〉
種種七 業行相刂ソトㄱ 力 無明乚 因ノソ禾 四(지즈로 ᄒᆞ리라) 〈금광 7:16-17〉
爲巳氵 淸淨乚 作ソ㇌ㄱ丁ノ禾 四(作ᄒᆞ안뎌 호리라) 〈유가 22:5-6〉

라. 未得二空˙ 卽初心有學㇏亼(未得二空 卽初心有學이라) 〈능엄-안 4:2a〉
行陰乚 當知亦復如是ノ禾亼(行陰을 當知亦復如是이리라) 〈능엄-안 2:17b〉
浮根四塵㇏ 流逸奔法ソヒヒ亼(浮根四塵이 流逸奔法ᄒᆞᄂᆞ니라) 〈능엄-안 4:16b〉
眞非眞乚 恐迷ソ㇌ 我常不開演ソ又亼(眞非眞을 恐迷ᄒᆞ야 我常不開演ᄒᆞ노라) 〈능엄-안 5:2b〉
梵唄詠歌㇏ 自然敷奏ソ加亼(梵唄詠歌이 自然敷奏ᄒᆞ더라) 〈능엄-안 6:7b〉

(6-가)는 향가에서 계사와 선어말어미 {-오-}, {-더-} 뒤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통합되는 예들로 (6-가-㉠)에서는 '如'와 '多'의 '-다' 형태로, (6-가-㉡)에서는 '羅'와 '良'의 '-라'

287) 이것은 '앞의 절은 殘惡함이 심하여 接人不得라 하거늘' 정도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이두에서 계사와 평서형 종결어미가 연결된 '是如' 형태는 주로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음이 특징이다(李丞宰 1992, 朴盛鍾 1996).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향가에서 'ㄷ>ㄹ' 변화의 전후 형태인 '-다'와 '-라'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6-나)는 고려시대 이두에서 계사 뒤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를 나타내는 이두자로 '如'가 쓰였음을 보여준다. '如'는 선어말어미 {-더-}를 나타낼 때는 '-더-'로 읽히지만,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경우에는 '-다'로 읽히는 이두자이다. 계사 뒤에서 '如'가 쓰였음은 15세기 국어의 평서형 종결어미 '-라'가 통시적으로 'ㄷ>ㄹ'의 변화를 겪어 형성된 형태임을 말해준다. 아무튼 (6-나)의 예는 본래 계사 뒤에서도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다' 형태로 실현되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대 이두에서도 계속 이 위치에 '如'가 쓰인 것을 볼 때, 이 역시 이두의 강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다)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6-다-㉠)의 'リ丨'(이다)는 종결어미 {-다}가 아직 'ㄷ>ㄹ'의 변화를 겪지 않은 상태로 서술문과 피인용문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88]

반면 (6-다-㉡)의 'リ罒'(이라)는 종결어미 {-다}가 'ㄷ>ㄹ'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피인용문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リ丨'(이다)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李丞宰(1999)는 내포문이나 피인용문 환경에서의 '-이다>-이라' 교체가 다른 환경에서보다 늦게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

석독구결의 'リ罒'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의 '罒'가 각 문장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연결어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형태소 {-다}의 이형태로서 'ㄷ>ㄹ' 변화를 겪은 형태지만, 연결어미라면 이것은 형태소 {-어}의 이형태로 'ㄷ>ㄹ' 변화와는 상관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リ罒'가 사용된 문장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연결어미의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289] 그렇다고 'リ罒'의 '罒'가 모두 연결어미로만 쓰였다고 단언할 수는

288) 참고로 『華嚴經』에는 피인용문에 사용된 'リ丨'(이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서술문에 사용된 'リ丨'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五者 一切 智智乚 願求丷ケ丷尸矢ナ7リ丨(願求ᄒ며 ᄒᆯ 디견이다) <금광 2:22-23>

二乚 求ノ7ム 得う乃ㅎ 可セ丷7 不矢ケ 謂ノ今 非矢リ丨(안디이다) <구인 15:4-5>

一+7 者 異生人 二者 有學人リ丨(有學과이다) <유가 30:5>

없을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석독구결 자료들에 대한 불교학적 접근과 함께 텍스트 언어학적 탐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때 내실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석독구결의 '刂丨～刂罒'의 교체에 대한 연구자의 잠정적인 생각은 석독구결 자료 『華嚴經疏』로부터 『瑜伽師地論』에 이르는 시기인 12, 13세기에는 'ㄷ>ㄹ' 변화의 전후 형태인 '-다'와 '-라'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계사 뒤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결합은 '矢丨'(디다)와 '矢罒'(디라)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의존명사 'ᄃᆞ'에 계사와 평서형 종결어미가 차례로 결합된 것이 두 개의 구결자로 표기된 것이다. '矢丨'는 『華嚴經疏』에서 '矢丨ノ-'라는 내포문 구성에서 사용되었고 '矢罒'는 『華嚴經』과 『瑜伽師地論』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290] 물론 '矢罒'의 경우는 이것이 종결어미의 자리에서 쓰인 것인지 연결어미의 자리에서 쓰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종결어미에 사용된 것이라면 '矢丨'와 '矢罒' 역시 석독구결에서 '-다'와 '-라'의 교체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6-다-ㄷ)과 (6-다-ㄹ)은 선어말어미 {-리-} 뒤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결합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291] '禾丨'(리다)는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만 나타나는데 비해[292] '禾罒'(리라)는 『舊譯仁王經』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에 나타난다.[293] '禾丨'의 출현으로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의 '-다～-라'의 교체가 12세기에 필수적이었다라는 생각(李丞宰 1994)은 이제 수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석독구결 시기에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의 평

289) 李建植(1996)에서는 '丨'(다)가 '罒'(라)로 교체되는 것은 연결어미의 경우만이라고 주장하였다.

290) 說四諦 外尸 動ソ氵乊尸 所氵 非矢罒 四諦 說 <화엄 20:11>
名下 圓滿ソ氵ホ 淸淨 鮮白ソ去丁丁ノ今 未矢罒 是 如支ソ丁 諸 隨煩惱乙 <유가 16:12-13>
於聖法亠 毘柰耶亠ノ今十 所行處 非矢罒 若於宜ソ丁入乙 <유가 24:17-18>

291) '禾丨'와 '禾罒'는 모두 피인용문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서술문에서만 나타난다. '刂罒'(이라)가 피인용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禾罒'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라'의 교체와 관련해 이해될 수 있으나 '禾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자료상의 공백인 것으로 생각된다.

292) 故ノ 是乙 名下 智波羅蜜因亠ノ禾丨 <금광 2:18>
故ノ 亦 名下 慧成熟亠ノ禾丨 <유가 6:16>

293) 果㫆尸 不ソ尸丁ノ尸 無刂ソ氵ナ禾罒 <화엄 14:9>
種種七 業行相刂ソ卜丁力 無明乙 因ノソ禾罒 <금광 7:16-17>
爲巳氵 淸淨乙 作ソ氵丁丁ノ禾罒 <유가 22:5-6>

서형 종결어미는 계사 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와 '-라'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선어말어미 '-ᄛ/ろ'(오) 뒤의 종결어미 '丨'(다)가 '罒'(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294] 이것은 석독구결이 쓰이던 시기에는 아직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가 '-다~-라'의 교체를 보이지 않았음을 뜻한다.

(6-라)는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서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오-}, {-더-} 뒤에서 종결어미 {-다}가 '-라'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 'ソ又个'(ᄒᆞ노라)에서 '又'(노)는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의 결합이므로 이것은 선어말어미 {-오-} 뒤에 종결어미 {-다}가 결합한 예가 된다. 예문들을 통해 볼 때 『安東本楞嚴經』의 종결어미 {-다}는 15세기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종결어미 {-다}는 13세기 후반에 이미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오-}, {-더-} 뒤에서 '-라'를 이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15세기에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오-}, {-더-} 뒤에서 '-라'를 이형태로 가졌던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향가, 고려시대 이두, 그리고 고려시대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자료를 통해 15세기 이전의 실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향가에서는 'ㄷ>ㄹ' 변화의 전후 형태인 '-다'와 '-라'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 반면, 이두에서는 그 특유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형태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와 '-라' 두 형태가 모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인용문 구성에서 '-라'가 나타나는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환경에서는 '-다~-라'의 교체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향가와 석독구결 자료는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아직 '-다~-라'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 {-니-}, {-더-}에 비해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의 교체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태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던 이러한 교체 양상은 13세기 후반의 음독구결 자료에 오면 모두 15세기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게 된다.

4.1.4. 이 밖에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들을 파생접미사 {-ᄃᆞ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ᄃᆞᆸ-}은 명사 어간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형용사파생접미사인데,

294) 이에 대한 용례는 李丞宰(1999:121) 참조.

선행하는 어간과 후행하는 어미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형태로서 '-ᄃᆞᆸ-', '-ᄅᆞᆸ-', '-ᄃᆞᄫᅵ(>ᄃᆞ외)-', '-ᄅᆞᄫᅵ(>ᄅᆞ외)-', '-ᄃᆞᇦ-', '-ᄅᆞᇦ-'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구본관 1998).[295] 이 중 '-ᄅᆞᆸ-', '-ᄅᆞᄫᅵ(>ᄅᆞ외)-', '-ᄅᆞᇦ-'과 같은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선행 어간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음운론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296] 이것은 특정 형태소의 뒤에서만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형태를 이형태로 취했던 앞의 몇몇 형태소들과는 교체의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ᄃᆞᆸ-}의 이형태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차자표기 자료들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15세기 이전의 상태를 살필 수 없는 형편이다.

4.2. 'ㄷ>ㄹ' 변화의 음운론과 형태론

4.2.0.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이형태교체들은 공통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교체에 있어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들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교체가 자음과 자음이나 모음과 자음, 또는 자음과 모

295) 이들 형태들의 분포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구본관(1998)에서 언급된 이들의 분포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ᄃᆞᄫᅵ(>ᄃᆞ외)-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②-ᄅᆞᄫᅵ(>ᄅᆞ외)- :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③-ᄃᆞᆸ-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④-ᄅᆞᆸ- :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⑤-ᄃᆞᇦ-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부사파생접미사 '-이'

⑥-ᄅᆞᇦ- :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 ___ + 부사파생접미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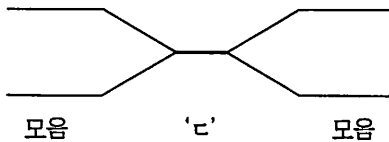
한편, 구본관(1998:190)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ᄃᆞᆸ-', '-ᄅᆞᆸ-'이 나타나지 않고 '-ᄃᆞᄫᅵ(>ᄃᆞ외)-', '-ᄅᆞᄫᅵ(>ᄅᆞ외)-'가 예외적으로 나타나지만,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형용사파생접미사 {-ᄃᆞᆸ-}이 기원적으로 'ᄃᆞᄫᅵ-'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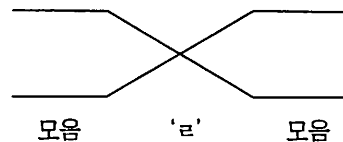
296) 선행 어간이 'ㄹ'로 끝나는 경우는 명사 '조ᅀᆞᆯ'과 '겨를'의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경우도 종성의 'ㄹ'이 떨어진 '조ᅀᆞᄅᆞᆸ-', '겨르ᄅᆞᆸ-'과 같은 형태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때 '겨ᄅᆞᆯ'(또는 '겨를')과 '조ᅀᆞᆯ'의 'ㄹ'이 탈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하나의 가능성은 '寂寞ᄒᆞᆫ 흜 階砌을 스치고 箕頴과 ᄀᆞᆯ와 이ᅌᅳᆯ 겨릐 업더라<두시-초 24:40b>'와 같은 예에 의지해 '겨르'(또는 겨ᄅᆞ) 형태를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 명사 어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조ᅀᆞᆯ'에 대해서도 '*조ᅀᆞ' 형태가 존재했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들에서는 이러한 어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음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교체를 음운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환경이 흥미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4.2.1. 두 모음 사이에서 분절음 'ㄷ'이 'ㄹ'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음 음성학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다.

(7) 가. 모음+'ㄷ'+모음　　　　나. 모음+'ㄹ'+모음





(7)은 발화시에 나타나는 성도(vocal tract) 모양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가)와 (나) 모두 '열림-닫힘-열림'이라는 양상을 보인다. 두 모음 사이에서 'ㄷ'이 발음되는 (7-가)와 'ㄹ'이 발음되는 (7-나)의 차이는 자음이 발음되는 시간의 길이에 있다. 이 때 발음되는 'ㄹ'은 음성적으로는 탄설음(flap) [ɾ]에 해당하는데, 탄설음은 빠른 조음 동작을 특징으로 하며 국어에서 어중에 위치하는 'ㄹ'은 대부분 이 탄설음으로 발음된다. 탄설음 'ㄹ'은 'ㄷ'에 비해 짧은 조음 시간과 함께 상대적으로 공명도(sonority)도 커서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하기에 보다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음성적 특성 때문에 두 모음 사이에서 'ㄷ>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미국 영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탄설음화(flapping)라고 하는 이 현상은 영어의 두 음소 /t/와 /d/가 특정 환경에서 탄설음 [ɾ]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공시적 음운규칙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8) 가. water → wa[ɾ]er
　　나. rider → ri[ɾ]er
　　다. headache → hea[ɾ]ache

라. at eight → a〔ɾ〕 eight
마. Turn up the hea〔ɾ〕(heat). I'm freezing.

(8)은 각각 단어, 파생어, 합성어, 구(phrase),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탄설음화가 나타나는 예들로 문법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규칙이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영어의 탄설음화가 모음과 모음(또는 성절자음) 사이라는 분절음 차원에서의 조건만으로 그 실현 조건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atone, adore, a tissue, I describe' 등과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탄설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 있는 것을 보면 탄설음화의 조건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설음화에 대해 양음절성(ambisyllabicity) 조건을 부여하거나(Kahn 1976), 통사적 단위(X^n)의 최대투사에 대응하는 음운론적 발화(Phonological Utterance)라는 운율 영역에서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Nespor&Vogel 1986)들도 있었다.[297]

이와 같이 미국 영어의 탄설음화는 모음과 모음(또는 성절자음) 사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다른 제약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와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영어의 탄설음화에는 운율적 제약이 관여하는 반면, 'ㄷ>ㄹ'의 변화가 반영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는 특정 형태소의 경우라는 형태론적 제약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가 생산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시적 음운현상이라면 후자는 화석화된 성격을 갖는 통시적 형태음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5세기 국어의 특정한 이형태교체에서 볼 수 있는 'ㄷ>ㄹ'의 변화는 먼저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하기에 보다 용이하도록 'ㄷ'를 'ㄹ'로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조건 아래, 이 현상이 특정한 형태소들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형태론적 제약이 가미된 것으로 15세기 공

---

297) Nespor&Vogel(1986:226)은 다음과 같이 탄설음화를 규칙화하였다.

Flapping

t, d → ɾ / [...[-consonantal] ___ V ...]U
[-tense]

탄설음화에 대한 Nespor&Vogel(1986)의 이러한 설명은 결국 이 현상을 통해 음운론적 발화(Phonological Utterance)라는 운율 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적 음운현상으로는 처리될 수 없고, 그 이전 어느 시기에 형태론과 음운론이 상호작용한 형태음운론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4.2.2. 형태소 {-ᄃᆞᆺ-}, {-더-}, {-다}, {-ᄃᆞᆸ-}의 이형태들 중 'ㄷ>ㄹ'의 변화를 겪은 이형태들인 '-ᄅᆞᆺ-', '-로-', '-러-', '-라', '-ᄅᆞᆸ-', '-롭-', '-ᄅᆞᄫᅵ-'의 경우에는 비록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환경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보다는 교체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그리고 {-니-}, {-오-}, {-더-} 등이 바로 그러한 형태소들로 이들과 'ㄹ'을 초성으로 갖는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찍이 이기문(李基文) 교수는 계사 뒤에서 'ㄷ>ㄹ'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형태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9) 가. 中世國語에서 copula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特徵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上述한 語尾가 '-오'로 나타나는 特徵이 注目된다. 이것은 /iy/로 解釋하는 것을 可能케 한다. 그러나 이 '-이-' 뒤에서는 語尾 '-다'가 '-라'로 되는 特徵이 또한 注目된다(-이라). 이것은 /y/로 끝난 動詞 語幹들에서는 볼 수 없는 特徵이어서 위의 解釋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준다(李基文 1969:144).

나. 'ㄱ'이 'ㅇ'으로 交替된 것은 이것이 y로 끝난 下向 二重母音 iy였을 可能性을 보여 준다. 그러나 'ㄷ'이 'ㄹ'로 交替된 것은 어떤 資質에 말미암은 것인지 확실치 않다(李基文 1972:171).

계사가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음운론적 특성에 주목한 이기문 교수는 계사의 기저를 활음 /y/(=/j/)로 끝나는 하향이중모음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ㄱ'탈락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을 통해 불투명한 음운현상을 해명하고자 했던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ㄱ'탈락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ㄷ>ㄹ'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연구자는 'ㄷ>ㄹ'의 변화와 관련된 계사의 특수성이 어떤 음운론적인 자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사의 형태론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사

가 보이는 이러한 형태론적 특성은 계사 뒤의 선어말어미 {-오-}와 연결어미 {-어}가 각각 '-로-'와 '-라'로 교체되는 모습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10) 가. 나는 빌머긇 盲眼이로라 〈월석 22:52a〉
罪人이 다문 흔 아드리로디 出家 아니흐며 일후미 大目揵連 아니이다 〈월석 23:85b〉
둘콤 둘콤 서르 對흐야 和合흐야 緣起分相이로뫌 자바 니르건댄 네 門이 잇느니 〈월석 11:67b〉[298]
나.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씩 두 줄기롤 조쳐 맛디노니 〈월석 1:13a〉
徧淨은 다 조흘 씨니 몸 뿐 아니라 世界 다 조흘 씨라 〈월석 1:33b〉

(10-가)는 1인칭 주어와 호응해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오-}가 계사 뒤에서 '-로-' 형태로 나타난 것과 어미 {-오디}와 {-옴}이 역시 계사 뒤에서 '-로디'와 '-롬-'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음운론적 현현 방식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어미 {-오디}와 {-옴}의 '오'는 선어말어미 {-오-}와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본래 이들 어미 속의 '오'는 선어말어미 {-오-}와 동일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10-나)의 '-라'는 분명히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 '-라'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때의 '-라'가 문장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가지고 앞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라'는 계사 뒤에 사용된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 '-라'인 것이다.

(10)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사 뒤에서 '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어말어미 {-오-}와 연결어미 {-어}가 각각 '-로-'와 '-라' 형태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계사의 특성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ㄷ>ㄹ'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ㄹ'을 초성으로 갖는 이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계사로부터 교체의 어떤 음운론적 조건을 찾는다는 것이 무의미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논의 가운데 계사의 기저를 /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河野六郎(1948)에서 비롯되어 安秉禧(1987), 柳東碩(1987)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계사 어간

298) 한편, 安秉禧(1967)에서는 15세기에 계사 뒤에서 명사형어미 {-옴}은 '-롬' 형태만 아니라 '-옴'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두 예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丁夫ㅣ 흔가지로뫌 니르니라 <몽법 19a> <對> 感호미 흔가조뫌 니르시니 <능엄 2:79b>

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 '이-'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 '일-'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r>j'의 변화를 가정해 15세기에 계사 '(-)이-'의 음가가 [ij]가 된 과정을 설명한다거나 15세기 계사가 모음 어미들과 결합될 때 'ㄹ'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두나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계사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된 경우 'ㄹ'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두에서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가 'ㄹ'가 없는 '良'(아)로 표기된 것을 볼 때, 이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선어말어미 {-오-}와 연결어미 {-어}가 계사 뒤에서 '-로-'로 교체되는 것이 계사 뒤에서 'ㄷ>ㄹ'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이형태교체와 구분되는 점은 이것이 음운론적 내용의 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ㄹ' 첨가라는 보편적이지 못한 음운현상이라기보다는 '오'에서 '로'로 형태 전체가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어말어미 {-리-}와 {-니-} 뒤에서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계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리-}와 {-니-}는 기원적으로 각각 동명사형어미 '-ㄹ'와 '-ㄴ'에 계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15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이 두 형태소의 특성이 계사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니-} 뒤에서 모두 '-라'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리-}, {-니-} 뒤에서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가 나타나는 현상 역시 이 두 형태소들의 형태론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어말어미 {-오-}와 {-더-} 뒤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교체되는 것도 강한 형태론적 제약이 작용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선어말어미 {-오-}와 {-더-}의 경우에는 이들이 계사와 기원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둘이 음운론적인 공통성을 지녔다거나 특정 범주를 형성해 문법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오-}와 {-더-}에 의한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라'로 실현되는 원인은 두 형태소의 개별적인 형태론적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의 의미

4.3.0. 이번에는 계사의 형태론적 특성에 의한 선어말어미 {-오-}와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교체에 대해서도 15세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것을 'ㄷ>ㄹ' 변화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들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15세기 국어에 존재했던 일군의 이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4.3.1. 우리는 앞에서 'ㄷ>ㄹ' 변화와는 상관없지만 계사의 특수한 형태론적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 계사 뒤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로-'로 실현되는 예를 살펴보았다. 이 현상 역시 15세기 이전 시기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가. 宋良卿矣 結審是乎 導行乙 用良(宋良卿의 結審이온 導行을 쓰아)[299] 〈淨兜寺形止記 21〉
癸卯年 陳省分是乎ホ 用良(癸卯年 陳省이온 둘 쓰아)[300] 〈張戩所志 12〉
나. 二諦理乚 窮3 一切之七 盡3ニ1入亠刂ろ丨(다아신 ᄃ로이오다) 〈구인 11:2〉
世諦 有七丨ㅅ口ろ个3 不矢刂ろ1ㅌ3(안디이온 ᄂ아) 〈구인 14:18〉
다. 終不自言我 眞菩薩 眞阿羅漢乀又个ㅅ3(이로라ᄒ야) 〈능엄-안 6:16b〉

(11-가)의 두 예는 각각 고려시대 이두 자료인 <淨兜寺形止記>(1031)와 <張戩所志>(1387)에서 계사와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된 형태가 '是乎'(이오)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본래 계사 뒤에서도 선어말어미 {-오-}는 그 형태가 '-오-'로 쓰였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두의 보수성은 여기에서도 본래의 형태를 찾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이로ᄃᆡ(-이 + -오ᄃᆡ)'에 대응되는 것이 이두에서 '是乎矣'(이오ᄃᆡ)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301] 이 역시 선어말어미 {-오-}가 본래 계사 뒤에서도 '-오-' 형태로 실현

299) 南豊鉉(1997:42)에서는 '宋良卿이 結審한 導行帳을 근거로'라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300) 張東翼(1985:156)에서는 '癸卯年[恭愍王 12, 1363]에 조사한 것[陳省]뿐인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의 'ホ 用良'는 종결형이 아니라 '~것을 따라' 정도로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301) 一件乙良 藏是乎矣(一件을랑 藏이오ᄃᆡ) <高麗末戶籍文書 둘째폭 2-3>

되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11-나)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 계사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한 예들이다. 구결자 'ㅎ'는 한자 '乎'의 위 부분을 흘려 쓴 것으로 그 독음은 '오'이다. 위 두 용례는 석독구결에서 계사 'ㅣ'(이) 뒤의 선어말어미 {-오-}가 '-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1-다)는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서 계사 뒤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ㄡ'(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결자 'ㄡ'는 본래 '노'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나 여기에서는 '로'의 표기에 전용(轉用)되었다. 계사 뒤의 선어말어미 {-오-}가 이렇게 '-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15세기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13세기 후반에 이러한 교체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계사 뒤에 결합한 선어말어미 {-오-}는 고려시대의 이두와 구결 자료를 통해 볼 때 본래 '-오-' 형태가 계속해 쓰이다가 13세기 후반 이전에 즈음해 15세기와 같이 '-로-' 형태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ㄷ>ㄹ'의 변화를 겪은 다른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늦은 변화를 겪은 것인데, 계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경우 이것이 'ㄹ'형의 이형태를 갖도록 하는 계사의 또다른 형태론적 제약에 의한 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우리는 또한 15세기 이전에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가. 二于萬隱吾羅(두볼 ㄱ만 내라) 〈도천수관음가 7〉
나. 柴地段 山谷是良소 結卜數不(知)審檢 不得(柴地산 山谷이아곰 結卜數不(知)審檢 안 둘) 〈修禪社寺院現況記 15〉
右事叱段 君臣名分亦 如天地設恒 教事是良소 臣無有 作福作威爲將來臥乎 等 用良(右事산 君臣名分이 如天地設恒이샨 일이아곰 臣無有 作福作威ᄒᆞ려누온 돌 쓰아) 〈尙書都官貼 16-17〉
다. 一切之七 幻化ㅣナ7ㅣ罒 是ㄴ 幻諦七 衆生:ノ手ㅣナㅣ(幻化이견이라) 〈구인 14:11〉
盛暑ㅣ罒 炎毒ㅣ厶7ㅣ十7 (盛暑이라) 〈화엄 8:1〉
或ソ7 長者ㅣ罒㢱 邑七 中³七 主ㅣ尸 爲入しソ𠂊(長者이라곰) 〈화엄 19:8〉

譬 師子 刂 臆長毫猷 氵 七 王 刂 罒 大神力 有 斗 ㅎ (王이라) 〈금광 2:2-3〉
七相 乚 以 氵 審正 觀察 ノ 㐃 應 七 丷 7 刂 罒 此 七相 乚 由 氵 丷 尸 入 乚 (觀察홇ㅅ 훈이라) 〈유가 18:8〉
라. 若離外見 口 內對所成 ㇏ 亽 合眼見暗 丷 乚 土… 名爲身中 ㇏ 大 7 (內對所成이라) 〈능엄-안 1:9a〉

(12-가)는 '두 눈을 감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金完鎭 1980)로 풀이되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때 생략된 계사 뒤에 쓰인 '羅'는 연결어미 {-어}의 이형태 '-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2-나)는 고려시대 이두에서 연결어미 {-어}가 이두자 '良'(아)로 표기된 것이데, 이것이 연결어미임은 '良' 뒤에 결합된 '尒'(곰)을 통해 알 수 있다. '尒'은 연결어미에 붙은 보조사로서 종결어미에는 붙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두의 '良'(아)는 계사 뒤에서 사용되었던 연결어미 {-어}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12-다)는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가 모두 '罒'(라)로 표기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華嚴經』의 '長者 刂 罒 ホ'은 이두 '是良尒'과 마찬가지로 첨사 'ホ'에 의해 이 때의 '罒'가 연결어미임을 확실히 해준다. 석독구결에서 '* 刂 氵'와 같은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 '刂 罒'로 표기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12-라)는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서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가 '亽'(라)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예문의 '內對所成 ㇏ 亽 合眼見暗 丷 乚 土…'는 15세기의 『楞嚴經諺解』에서 '안해 對호미 이러 눈 ᄀᆞ마 어드움 보ᄆᆞ로'(1:60b)라고 언해되어 있어 '亽'가 연결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계사 뒤의 연결어미 {-어}는 본래의 형태 '-어/-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라' 형태로 교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선어말어미 {-오-}가 계사 뒤에서 '-로-' 형태로 교체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선어말어미 {-오-}의 교체가 계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경우 이것이 'ㄹ'형의 이형태를 갖도록 하는 또다른 형태론적 제약에 의한 것임에 비해, (12)의 자료들은 연결어미 {-어}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교체를 경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둘의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하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계사 뒤 연결어미 {-어}의 이러한 교체 역시 계사의 특수한 형태론적 특성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4.3.3.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은 선어말어미 {-돗-}과 {-더-}, 평서형 종결어미 {-다}에 있어 15세기에 계사를 비롯한 몇몇 형태소 다음에 나타나는 'ㄹ'형의 이형태들이 본래는 모두 'ㄷ'형의 이형태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어느 시기 동안 'ㄹ'형과 'ㄷ'형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후 15세기와 같이 모두 'ㄹ'형으로 바뀌게 되었음도 알려준다.

이두는 본래의 형태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향가는 'ㄹ'형과 'ㄷ'형 두 형태의 공존 모습을 통해 이형태 교체의 과도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석독구결은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교체의 보다 세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음독구결은 교체가 완성된 13세기 후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선어말어미 {-돗-}은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본래 '-도(돗)-' 형태로 실현되다가 13세기 후반 이전 시기에 '-로(롯)-' 형태로 교체되었다. 선어말어미 {-더-}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본래 '-더-' 형태로 실현되다가 13세기 후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러-' 형태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서형 종결어미 {-다}는 선행하는 형태소에 따라 그 교체 시기를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사 뒤에서는 본래 '-다' 형태로 쓰였던 것이 한동안 '-다'와 '-라' 두 형태가 공존하던 시기를 거쳐 13세기 후반에는 '-라'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다'와 '-라' 두 형태가 공존하다가 이 역시 13세기 후반에는 '-라' 하나로 통일되었다. 선어말어미 {-니-} 뒤의 경우에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계사나 선어말어미 {-리-}와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시 13세기 후반에는 '-라' 하나만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 세 형태소가 기원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부합된다.

이에 비해 선어말어미 {-더-}와 {-오-} 뒤에서 종결어미 {-다}의 교체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두 형태소 뒤에서는 '-다'와 '-라'가 공존했던 예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형태소 뒤에서의 교체가 '-다'와 '-라' 두 형태의 오랜 경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실제로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는 '-다'만이 나타나다가 13세기 후반

에 가서야 '-라' 형태로 바뀌게 된다. 또한 선어말어미 {-더-}의 경우는 선어말어미로 사용되게 된 것이 13세기 후반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다~-라'의 교체 계열 형성에 참여한 것도 오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더-}와 {-오-} 뒤에서 종결어미 {-다}의 교체는 13세기 후반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형태소 뒤에서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돗-}과 {-더-},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이러한 이형태교체는 모두 'ㄷ>ㄹ' 변화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ㄷ>ㄹ' 변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ㄷ>ㄹ' 변화는 15세기 공시적인 음운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15세기에 'ㄷ'형의 형태와 'ㄹ'형의 형태가 교체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형태소를 전제로 한 이형태교체의 문제이다. 15세기에 이들 교체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이며 동시에 비자동적·불규칙적 교체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교체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가 되는 것은 교체의 조건이 특정 형태소에 제약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 교체가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가시적인 음운론적 환경을 갖지만 이것은 이들 교체를 위한 초기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교체를 일으키는 교체조건은 될 수 없다. 또한 음운패턴과는 무관하며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동일한 방식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자동적·불규칙적 교체가 된다.

국어사에서는 어느 특정 시기 동안 'ㄷ>ㄹ'의 음운현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 상관없이 모음과 모음 사이라는 음운론적 환경을 가진 형태소나 단어 중 특정한 요소들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형태음운론적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3세기 후반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13세기 후반 자료인 『安東本楞嚴經』에서 'ㄷ'형과 'ㄹ'형의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들이 15세기에서와 같이 모두 'ㄹ'형으로 통일되게 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13세기 후반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은 '모란(<牡丹), 차례(<次第), 도량(<道場), 보리(<菩提)'와 '바ᄅᆞᆯ(<*바ᄃᆞᆯ(海)), ᄒᆞᄅᆞ(<*ᄒᆞᄃᆞᆯ(一日)), 가ᄅᆞᆯ(<*가ᄃᆞᆯ(脚)), 마리(<*마디(頭))'에서 'ㄷ>ㄹ'의 변화를 일으켰고 'ㄷ'불규칙용언이라

불리는 특정 부류의 용언들이 활용시 'ㄷ>ㄹ'의 변화를 겪도록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계사를 비롯한 몇몇 형태소들 뒤에서 {-돗-}, {-더-}, {-다}, {-돕-}과 같은 형태소들이 'ㄷ>ㄹ'의 변화를 겪은 이형태들을 갖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이 사라지고 이 현상을 겪었던 요소들은 하나의 화석화된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ㄷ>ㄹ'의 변화는 화석화된 형태 안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한 부류가 형태소 {-돗-}, {-더-}, {-다}, {-돕-}의 'ㄹ'형 이형태들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 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에서 'ㄹ'형 이형태의 실현은 15세기 공시적인 음운현상이 아니라 이미 화석화된 이형태가 교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 'ㄷ>ㄹ' 변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5세기 국어에서 계사 뒤에 위치하는 형태소들 중 유독 'ㄹ'형의 이형태를 취하지 않는 어미 형태소 {-디비}, {-ᄃᆞ록}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02]

(13) 가. 부텨는 本來 變化ㅣ **디비** 사ᄅᆞ미 몯ᄒᆞᆯ 이리라 ᄒᆞ야 法 듣ᄃᆞᆯ 아니ᄒᆞ리라 〈월석 2:36b〉
　　나. ᄒᆡᄅᆞᆯ 브터 劫을 ᄆᆞ차 數ㅣ 那由他ㅣ ᄃᆞ록 苦楚ㅣ 서르 니ᅀᅥ 〈월석 21:45b〉
　　　 세 ᄀᆞ술히ᄃᆞ록 고ᄫᆞᆫ 病 알호ᄆᆞᆯ 뉘 可히 ᄎᆞᄆᆞ리오(瘧癘三秋孰可忍) 〈두시-초 3:50a〉
　　　 午時ᄃᆞ록 니러 안자쇼ᄆᆞᆯ 하ᄂᆞᆯ히 ᄇᆞᆯ골 적브더[303] 호라(午時起坐自天明) 〈두시-초 21:22b〉

계사 뒤에서도 'ㄷ'형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 형태소들은 아마도 13세기 후반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참여하지 못한 형태소들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이들 형태소 자체가 13세기 후반 이후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

302) 李基文(1972a:129 각주3)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세 어미 형태소 '-디', '-디비', '-ᄃᆞ록'이 'ㄷ'가 'ㄹ'로 변화하는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연결어미 '-디'는 15세기에 계사 뒤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연결어미 '-ᄃᆞ시/-드시/-ᄃᆞᆺ/-듯', '-다가며', '-디옷' 등의 경우에도 'ㄷ'가 'ㄹ'로 변화하는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15세기에 계사 뒤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의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303) 이는 '적브터'의 잘못인 것으로 보인다.

데 {-ᄃᆞ록}의 경우는 향가와 석독구결, 그리고 이두에서 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이 '巴只'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가.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旀(香ᄋᆞᆫ 法界 업ᄃᆞ록 ᄒᆞ며) 〈광수공양가 5〉
나. 斯毛ソ巴ハ 何セソ1 事し 作ソセイソニトフリ3セロソヒハニか(이모 ᄒᆞᄃᆞ록) 〈구인 2:23〉
佛土3十 至リ 有緣ソ1ラ十1 斯毛ソ巴ハ 現ソヒハニ1 〈구인 3:6〉
다. 限日亦 已過爲巴只 決斷不冬爲在乙良(已過爲ᄃᆞ록) 〈대명률직해 28:18b〉

(14-가)의 '色只'는 '巴只'의 오기로 보고 있으므로(梁柱東. 1965) (14)의 용례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소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巴只'를 {-ᄃᆞ록}에 연결시키는 근거는 후대의 이두 학습서들에서 이것이 '-도로기, -두록, -ᄃᆞ록' 등으로 독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14)의 '巴只'가 당시에도 'ᄃᆞ록'으로 읽혔을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ᄃᆞ록'과는 '只'(ㄱ)만이 공통되어 있을 뿐 '巴'가 어떻게 'ᄃᆞ록'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南豊鉉(1985)에서 차자표기의 '巴'가 '包'에 소급되는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차자표기의 '巴只'가 반드시 {-ᄃᆞ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참여하지 못한 15세기의 {-디ᄫᅵ}와 {-ᄃᆞ록}은 'ㄹ'형의 이형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세기에도 계사 뒤에서 'ㄷ'형의 형태만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4.3.5. 한편, 계사의 형태론적 특성에 의한 형태론적 내용의 교체인 선어말어미 {-오-}와 연결어미 {-어}의 교체는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을 겪어 'ㄹ'형의 이형태를 확보한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특히 계사 뒤에 결합한 선어말어미 {-오-}는 'ㄷ>ㄹ'의 변화를 겪은 다른 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늦은 변화를 겪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사가 갖게 된 또다른 형태론적 제약, 즉 계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경우 이것이 'ㄹ'형의 이형태를 갖도록 하는 제약에 의한 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또다른 제약은 'ㄷ>ㄹ'

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참여했던 계사가 'ㄷ'형의 형태와 관련이 없는 모음형의 형태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ㄹ'형의 이형태를 갖도록 요구하게 된 데에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로-'의 출현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종결어미 {-다}가 '-라' 형태를 취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5세기에 계사와 선어말어미 {-돗-},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결합한 '-이로다'와 계사와 선어말어미 {-오-},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결합한 '-이로라'가 형태적으로 서로 변별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13세기 후반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의해 선어말어미 {-돗-}은 'ㄹ'형 이형태 '-로(롯)-'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후 계사 뒤의 선어말어미 {-오-}가 계사의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로-'라는 이형태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선어말어미 {-돗-}이 결합된 i)'-이로다'와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된 ii)'*-이로다'가 서로 변별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어말어미 {-오-}는 이미 'ㄷ>ㄹ'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의해 확보되어 있던 평서형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 '-라'를 선택하는 이형태교체를 행함으로써 ii)'*-이로다'가 '-이로라'로 바뀌어 이 둘을 변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선어말어미 {-돗-}이 '-로(롯)-'을, 선어말어미 {-오-}가 '-로-'를, 그리고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의 종결어미 {-다}가 '-라'를 각각 이형태로 취하게 된 변화의 시간적 흐름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형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ㄷ>ㄹ' 변화 및 'ㄹ'형 형태로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대해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선어말어미 {-돗-}, {-더-}와 종결어미 {-다}, 그리고 파생접미사 {-돕-} 등이 바로 이러한 형태소들인데, {-돕-}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 'ㄷ'형 이형태들이 'ㄹ'형 이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15세기에 선어말어미 {-오-}나 연결어미 {-어} 등은 계사 뒤에서 'ㄹ'형 이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변화의 양상을 기술하고 그러한 이형태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계사가 지닌 형태론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ㄷ>ㄹ' 변화와 'ㄹ'형 형태로의 변화는 통시적인 형태음운현상 및 형태의 대체로서 15세기 국어의 '-이로다'와 '-이로라'의 변별은 이 두 변화가 언어의 체계성을 전제로 상호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5세기에 {-디ᄫᅵ}, {-ᄃᆞ록}과 같은 형태소는 계사 뒤에서 'ㄹ'형 이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13세기 후반 이전에 존재했을 'ㄷ>ㄹ' 변화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 절의 논의를 통해 공시적 현상인 이형태교체에 대해 그에 참여하는 이형태들이 통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형성에 참여하는 형태소들의 일부가 특정한 형태음운론적 현상에 의해 공통된 특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성들을 귀납함으로써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국어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를 교체의 조건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문법형태소들이 어떠한 조건과 내용을 가지며 이형태교체를 이행하는지 문법형태소의 범주별로 그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이 때 이형태교체의 조건은 음운론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은 음운론적인 조건이 이형태교체 조건의 가장 보편적인 조건으로서 문법형태소 전체의 이형태교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먼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다양한 이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

《이형태 형성의 음운론적 원리》

〔1〕 자요소(自要素)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2〕 자요소(自要素)의 상실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3〕 타요소(他要素)의 선택적 수용 및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 원리

또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은 다음과 같은 이형태교체의 조건을 갖는데, 이 중 형태론적 조건과 통사론적 조건의 경우에는 몇몇 형태소에 국한되는 특수한 조건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음운론적 조건은 이형태 계열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

〔1〕 음운론적 조건

①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

②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
③ 모음조화
④ 비인접 환경에서의 원순모음화 조건
〔2〕 형태론적 조건
① 체언의 의미 범주
② 용언의 문법 범주
③ 특정 형태소가 지닌 개별적인 특수성
〔3〕 통사론적 조건
① 문장 성분
② 의문사의 유무 여부

이 중 음운론적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 계열을 구조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음운론적 조건에는 다음과 같이 1차와 2차, 그리고 3차로 분류될 수 있는 단계적인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건》
①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자음' : '모음' 여부
②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음성모음' : '양성모음')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나 'ㅣ' 여부
④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과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무성음' : '유성음' 여부
《2차 조건》
①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이'나 'ㅣ' 여부
②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음성모음' : '양성모음')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ㄹ' 여부
④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⑤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⑥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원순모음 여부
⑦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ㄷ, ㅈ, ㅊ' 여부
《3차 조건》
① 후행 요소 첫 분절음의 모음 여부
② 비인접 원순모음화 환경
③ 선행 요소 마지막 분절음의 폐쇄음 여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무엇인가 하는 조건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을 구성하는 가장 지배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선행 요소의 모음이 갖는 음양적 특성이나, 후행 요소의 첫 분절음, 그리고 비인접 원순모음화 환경 등이 교체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단독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동일한 조건이 차수(次數)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것은 각 형태소에 따라 여러 조건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조건들의 조합 유형》

```
1차 조건①              1차 조건②   1차 조건③   1차 조건④
  | | | |               | | | |                  |
  | | | └ 2차 조건①  ┘ | | |                  |
  | | └   2차 조건③     | | |                  |
  | └     2차 조건④   ┘ | |                  |
  |  ┌──── 2차 조건⑤     ┘ |                  |
  |  |     2차 조건⑥       ┘                  |
  |  |   ┌ 2차 조건⑦  ← ─ ─ ─ ─ ─ ─ ─ ─ ─ ─ ┘
  └  | ┌┼ 2차 조건② ┐
     | | |             |
     └ └ | 3차 조건①  |
         | 3차 조건②  ┘
         └ 3차 조건③
```

(※여기서 밑줄은 하위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하위 조건 없이 해당 조건 자체만으로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까지 언급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들을 종합하고, 각 조건에 의한 대표적인 이형태교체의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의 종합》

<table>
<tr><td rowspan="14">음운론적 조건</td><td rowspan="9">선행요소의 마지막 분절음</td><td>자음/모음</td><td>예 |-과| : -과, -와1, -와2</td></tr>
<tr><td>음성/양성</td><td>예 |-의| : -의, -ᄋᆡ</td></tr>
<tr><td>무성/유성</td><td>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td></tr>
<tr><td>모음여부</td><td>예 |-으쇼셔| : -으쇼셔, -ᄋᆞ쇼셔, -쇼셔</td></tr>
<tr><td>원순모음</td><td>예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td></tr>
<tr><td>이, ㅣ</td><td>예 |-에| : -에, -애, -예</td></tr>
<tr><td>ㄹ, (ㅣ)</td><td>예 |-곳| : -곳, -옷1, -옷2</td></tr>
<tr><td>ㄷ, ㅈ, ㅊ</td><td>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td></tr>
<tr><td>불파음화된 폐쇄음</td><td>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td></tr>
<tr><td rowspan="2">후행요소</td><td>모음여부</td><td>예 |-리-| :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td></tr>
<tr><td>무성/유성</td><td>예 |-ᄉᆞᆸ-| :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td></tr>
<tr><td>비인접원순모음화환경</td><td>|-ᄃᆞᆺ-| 다음</td><td>예 |-니-| : -니-, -으니-, -ᄋᆞ니-, -오니-</td></tr>
<tr><td rowspan="11">형태론적 조건</td><td colspan="2">'ᄒᆞ-' 뒤</td><td>예 |-에라| : -에라, -애라, -얘라</td></tr>
<tr><td colspan="2">'오-' 뒤</td><td>예 |-거니와| : -거니와, -어니와1, -어니와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 -거…니와, 어…니와1, 어…니와2, 야…니와, (-여…니와), (-나…니와)</td></tr>
<tr><td colspan="2">계사 뒤</td><td>예 |-다가| : -다가, -라가</td></tr>
<tr><td colspan="2">|-으시-| 뒤</td><td>예 |-오ᄃᆡ| :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td></tr>
<tr><td colspan="2">|-더-| 뒤</td><td>예 |-다| : -다, -라</td></tr>
<tr><td colspan="2">|-오-| 뒤</td><td>예 |-다| : -다, -라</td></tr>
<tr><td colspan="2">|-니-| 뒤</td><td>예 |-다| : -다, -라</td></tr>
<tr><td colspan="2">|-리-| 뒤</td><td>예 |-더-| : -더-, -러-</td></tr>
<tr><td colspan="2">유정, 비존칭 /무정, 존칭</td><td>예 |-의/-ㅅ| : -의, -ᄋᆡ, -ㅣ, -ㅅ</td></tr>
<tr><td colspan="2">자동성/비자동성</td><td>예 |-거-| : -거-, -어-1, -어-2, -나-</td></tr>
<tr><td rowspan="2">통사론적 조건</td><td colspan="2">의문사 유무</td><td>예 |-고/-가| : -고, -구, -오, (-우), -가, 아</td></tr>
<tr><td colspan="2">주어/목적어</td><td>예 |-의/-ㅅ| : -의, -ᄋᆡ, -ㅣ, ㅅ</td></tr>
</table>

한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내용에는 크게 음운론적인 것과 형태론적인 것이 있는데, 전자에는 분절음의 첨가와 탈락, 그리고 대치가 있고 후자에는 형태의 대체와 중가(重加)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
〔1〕 분절음의 첨가: 매개모음 첨가, 활음 'ㅣ' 첨가
〔2〕 분절음의 탈락: 'ㄱ'탈락, '이'탈락, 'ᄋᆞ/으'탈락, '오/우'탈락
〔3〕 분절음의 대치: 원순모음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ㅣ'활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ㅅ', 'ㅈ'의 경음화, 'ㄷ>ㄹ'의 변화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
〔1〕 형태의 대체: '아'형 형태로의 대체, 'ㄹ'형 형태로의 대체, '나'형 형태로의 대체
〔2〕 형태의 중가: 'ㄹ → ᄅᆞᆯ/를', 'ㄴ → ᄂᆞᆫ/는'

이러한 교체의 내용에는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략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이 다양한 공시적·통시적 음운현상의 결과임에 비해,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은 통시적인 현상으로서 특정 형태소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절음의 대치 차원이 아닌, 형태의 대체나 중가의 차원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형태론적인 교체의 내용을 보이는 경우들이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음운론적인 교체의 내용 중 활음 'ㅣ'첨가, 'ㄱ'탈락, 'ᄋᆞ/으'탈락, 원순모음화, 'ㅣ'활음화, 'ㅅ', 'ㅈ'의 경음화 정도가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오/우'탈락이나 'ㄷ>ㄹ'의 변화는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매개모음 첨가나 '이'탈락,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지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음운과정의 형태론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통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내용을 대표적인 이형태교체의 예를 들어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내용의 종합》

음운론적 내용	분절음의 첨가	매개모음 첨가	예|-ㄴ다|: -ㄴ다, -은다, -ᄋᆞᆫ다
		활음 'ㅣ' 첨가	예|-어|: -어, -아, -여, -야, -워, -와, -라 |-ᄂᆞ-|: -ᄂᆞ-, -ㄴ-, -ᄂᆡ-
	분절음의 탈락	'ㄱ'탈락	예|-고라|: -고라, -오라
		'이'탈락	예|-이어나|: -이어나, -ㅣ어나, -어나
		'ᄋᆞ/으'탈락	예|-으시-|: -으시-, -ᄋᆞ시-, -시-, -으ㅅj-, -ᄋᆞㅅj-, -ㅅj-
		'오/우'탈락	예|-옴|: -옴, -움, -욤, -윰, -암, -롬, -Vㅁ(H)
	분절음의 대치	원순모음화	예|-이-|: -이-, -으이-, -ᄋᆞ이-, -ㅇ-, -오이-, -ᄋᆡ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치	예|-어쎠|: -어쎠, -아쎠
		'ㅣ'활음화	예|-리-|: -리-, -으리-, -ᄋᆞ리-, -ㄹj-, -으ㄹj-, -ᄋᆞㄹj-
		마찰음의 폐쇄음화	예|-ᅀᆞᆸ-|: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ㅅ', 'ㅈ'의 경음화	예|-ᅀᆞᆸ-|: -ᅀᆞᆸ-/-ᅀᆞ오-, -ᅀᆞᆸ-, -ᄌᆞᆸ/-ᄌᆞ오-, -ᄌᆞᆸ-, -ᄉᆞᆸ/-ᄉᆞ오-, -ᄉᆞᆸ-, -ᄍᆞᆸ-/-ᄍᆞ오-, -ᄍᆞᆸ-, -ᄊᆞᆸ/(-ᄊᆞ오-), -ᄊᆞᆸ
		'ㄷ>ㄹ'의 변화	예|-더-|: -더-, -러-
형태론적 내용	형태의 대체	'아'형 형태로의 대체	예|-오ᄃᆡ|: -오ᄃᆡ, -우ᄃᆡ, -요ᄃᆡ, -유ᄃᆡ, -아ᄃᆡ, -로ᄃᆡ, -Vᄃᆡ(H)
		'ㄹ'형 형태로의 대체	예|-오-|: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나'형 형태로의 대체	예|-거-|: -거-, -어-$_1$, -어-$_2$, -나-
	형태의 증가	질료적 존재의 형태론적 증가	예|-ㄹ|: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ㄴ|: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이제까지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를 교체의 조건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는데, 실제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에서 이 둘이 어떠한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 유형을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과 내용의 결합 양상》

교체 조건 / 교체 내용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음운론적 내용	예 |-에| : -에, -애, -예 |-어| : -어, -아, -여, -야, -워, -와, -라	예 |-다| : -다, -라 |-에이다| : -에이다, -애이다, -예이다	×
형태론적 내용	예 |-ㄹ| : -ㄹ, -을, -ᄋᆞᆯ, -를, -ᄅᆞᆯ |-ㄴ| : -ㄴ, -은, -ᄋᆞᆫ, -는, -ᄂᆞᆫ	예 |-의/-ㅅ| : -의, -ᄋᆡ, ㅣ, -ㅅ |-거-| : -거-, -어-₁, -어-₂, -나- |-오-| : -오-, -우-, -요-, -유-, -외-, -아-, -로-, -V(H)-	예 |-고/-가| : 고, 구, 오, (-우), 가, 아 |-의/-ㅅ| : 의, ᄋᆡ, ㅣ, ㅅ

위의 도표로부터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는 크게 세 가지 교체 조건에 의해 두 가지 교체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통사론적 교체 조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 내용을 갖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교체 조건과 내용의 결합 양상은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일련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들 중 매개모음과 관련된 이형태, 'ㄱ'탈락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및 이와 관련된 '오'계 어미의 이형태, 그리고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는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의 중요한 형태론적, 음운론적 문제들과 관련된 대상들이다.

먼저 매개모음과 관련된 이형태들은 매개모음의 첨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자음 간의 강도 조절이라는 음운론적 기제와 어간 형태의 유지라는 형태론적 요구가 함께 고려되는 형태음운론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ㄱ'탈락에 의한 이형태들은 선행 요소의 마지막 분절음이 'ㄹ'나 활음 'ㅣ'라는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하에서 형태소 개별적인 특수성이 규칙 적용 여부에 참여하는 15세기 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 및 이와 관련된 '오'계 어미의 이형태와 관련해서는 '-샤(-)'라는 형태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가 아니라 모음 어미들이 가진 '아'형 이형태들과의 결합(시+아→샤)에 의해 나타난 형태라고 이해된다. '-샤(-)'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들, 즉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본래 '-彡下/-〻下'나 '-彡ㅁ-/-〻ろ-'였던 것이 13세기말 또는 14세기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 '△'(샤)라는 형태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는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 중 선어말어미 {-돗-}, {-더-}와 종결어미 {-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5세기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이 본래 'ㄷ'형 이형태에서 'ㄹ'형 이형태로 변화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ㄷ>ㄹ' 변화에 의한 이형태는 13세기말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시적인 형태음운현상이 몇몇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를 통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일정한 교체의 조건과 내용들을 공유하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5세기 당시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일련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과정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15세기 국어의 문법형태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동안 15세기 국어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문법형태소의 목록을 결정하는 일부터 형태소의 분석 문제, 더불어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는 않지만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형태들에 대한 처리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 체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개별 형태소들이 보이는 이형태교체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드러내거나, 일반적 교체 양상의 예외가 되는 경우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조망과 더불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에 대한 검토에서 귀납된 개별적인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한 예로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들의 이형태교체 내용 중 원순모음화의 경우는 다양한 조건과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탐구는 15세기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로서 15세기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사의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문법형태소들의 공시적인 이형태 체계를 수립하고 이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을 목록화하고 그들의 교체 조건과 교체 내용을 밝힌 후, 각 문법형태소의 이형태들이 국어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국어의 형태론과 음운론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밖에 조사와 어미 이외의 접사와 같은 문법형태소들, 그리고 개별 어휘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해당 시기 또는 그 이전 시기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특성들을 규명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현란한 변화 속에서 지나간 시간의 언어에 대한 천착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답적 자기만족이 아닌, 앞으로 맞이할 또다른 시대로 향하는 작은 초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姜信沆. 1980.『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首善新書1) 成均館大學校出版部.

姜信沆. 1983. "齒音과 한글表記."『國語學』 12.『訓民正音研究』(姜信沆 · 1987 · 成均館大學校出版部.)에 재록.

姜信沆. 1987.『訓民正音研究』(增補版) 成均館大學校出版部.

姜昶錫. 1982. <現代 國語의 形態素 分析과 音韻 現象>『國語研究』(국어연구회) 50.

고광주. 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검토."『한국어학』 9.

高永根. 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에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國語學』 9.

高永根. 1981.『中世國語의 時相과 敍法』 塔出版社.

高永根. 1982. "中世語의 形式名詞에 대하여."『語學研究』(서울대 어학연구소) 18-1.『단어 · 문장 · 텍스트』(고영근 · 1995 · 한국문화사)에 재록.

고영근. 1987/97.『표준 중세국어문법론』 塔出版社/집문당.

高永根. 1989/99.『國語形態論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高永根. 1989. "國語의 形態的 類型性."『國語國文學論叢Ⅲ』(二靜鄭然粲先生回甲紀念) 탑출판사.『단어 · 문장 · 텍스트』(고영근 · 1995 · 한국문화사)에 재록.

高永根. 1991.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단어 · 문장 · 텍스트』(고영근 · 1995 · 한국문화사)에 재록.

고영근. 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南沙李覲洙博士還曆紀念論叢』.『形態』(李秉根外編 · 1993 · 太學社)에 재록.

高永根. 1993.『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一志社.

고영근. 1995. "중세어의 동사형태부에 나타나는 모음동화."『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太學社.

고영근. 1997. "중세어 높임의 어미 '시'와 '오'계 어미의 형태론."『韓國語文學論考』(崔泰榮 외) 太學社.

고영근. 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口訣研究』(구결학회) 3.

고창수. 1992a. <고대국어의 구조격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고창수. 1992b. "'으란'은 대제격인가?"『語文論集』(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31.

구본관. 1996. "중세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1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구본관. 1998.『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國語學叢書 30) 太學社.

權仁瀚. 1998.『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國語學叢書 29) 太學社.

권재일. 1994.『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金京芽. 1991. "中世國語 喉音에 대한 一考察-脣輕音 ㅸ의 변화와 관련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김경아. 1999. "형태음운론적 교체와 형태음운부." 『형태론』 1-2.

김남경. 2000. < 《구급 간이방(언해)》 의 서지와 어휘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김동소. 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동소. 2000. " 《육조 법보 단경 언해》 하권 연구." 『國語學』 35.

김동언. 1983. "중세어 이중모음 'ij'에 관한 연구." 『韓南語文學』 9 · 10.

金次彦. 1987. "국어 形態音韻論 研究에 대하여-국어 문법서를 중심으로-." 『韓南語文學』 13.

金次彦. 1989. <17世紀 國語의 形態音韻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金武林. 1989. "中期國語 母音體系 一考." 『語文論集』(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8.

金武林. 1992a. 『國語音韻論』 翰信文化社.

金武林. 1992b. "訓民正音의 喉音 考察." 『한국어문교육』(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6.

金武林. 1993. "國語의 音韻部와 語彙部." 『어문논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32.

金武林. 1995. "中世國語 雙形 語幹의 音韻史的 考察." 『어문논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34.

金武林. 1999.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研究." 『口訣研究』(구결학회) 5.

金武植. 1993. <『訓民正音』의 音韻體系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김미령. 2000. "논항구조와 통사론." 『논항구조란 무엇인가』(시정곤·고광주·유혜원·김미령) 月印.

金敏洙. 1962. "國語 音素와 그 配列." 『文理論集』(고려대 문과대학) 6.

金敏洙. 1963. "國語의 形態音素." 『文理論集』(고려대 문과대학) 7.

김민수 · 최호철 · 김무림. 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김방한. 1999. 『언어학논고』(전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석득. 1962a. "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 소고." 『國語學』 1.

김석득. 1962b. "형태소(形態素, Morpheme)의 변이형태소(Allomorph)로의 분석." 『한글』 129.

金錫得. 1964. "中世 脣輕音 ㅸ 音素攷." 「人文科學」(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 12.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金星奎. 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研究』(국어연구회) 77.

金星奎. 1988.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岳語文研究』(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3. 『音韻 I』(李秉根&郭忠求 編 · 1998 · 太學社)에 재록.

金星奎. 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성규. 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 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성규. 2000. "불규칙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형태론』 2-1.

김성화. 1992. "삽입모음 'ㅡ'의 기능." 『國語學』 22.

김송원. 1988. <15세기 중기국어의 접속월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김승곤. 1986. "중세국어의 형태소 「ᄯᆞᆫ」과 「ᄯᆞ녀」의 통어기능 연구." 『조선학보』 119 · 120. 『꼭 읽어야 할 국어학 논문집』(李東林 외 · 1988 · 集文堂)에 재록.

김양진. 1993. "形態音素論 硏究史." 『현대의 국어연구사(1945~1992)』(김민수 편) 서광학술자료사.

金亮鎭. 1999. <국어 형태 정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金亮鎭·金裕範. 2000. "中世國語 '이어긔, 그어긔, 뎌어긔'에 대하여." 제22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문.

金永萬. 1987. <國語 超分節音素의 史的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金永萬. 2000. "國語 超分節素(韻素)의 바른 理解를 위하여."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0.

金永錫·李相億. 1992. 『現代形態論』 學硏社.

김영욱. 1989a. "'-쇼셔'와 形態素 分析." 『이용주박사화갑기념논문집』.

김영욱. 1989b.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空形態의 설정과 非文法化-." 『冠岳語文硏究』(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4.

김영욱. 1990. "중세국어의 관형격조사 '-의/ㅅ'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周時經學報』(주시경연구소) 6.

김영욱.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변화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김영욱. 1996. "14세기 문법 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한글』 233.

김영욱. 1997a. 『문법형태의 연구방법-중세국어를 중심으로-』 박이정.

김영욱. 1997b. "공형태소에 대하여." 『전농어문연구』(서울시립대 국문과) 9.

金完鎭. 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國語音韻體系의 硏究』(金完鎭·1971·一潮閣)에 재록.

金完鎭. 1967. "韓國語發達史 上(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Ⅴ(言語·文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金完鎭. 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 『國語音韻體系의 硏究』(金完鎭·1971·一潮閣)에 재록.

金完鎭. 1972a.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硏究』(서울대 어학연구소) 8-1. 『음운과 문자』(김완진·1996·신구문화사)에 재록.

金完鎭. 1972b.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1. 『음운과 문자』(김완진·1996·신구문화사)에 재록.

金完鎭. 1973. 『中世國語聲調의 硏究』(國語學叢書 4) 塔出版社. 1977년 再版.

金完鎭. 1975.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음운과 문자』(김완진·1996·신구문화사)에 재록.

金完鎭. 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硏究』 韓國硏究院.

金完鎭. 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서울대 어학연구소) 14-2.

金完鎭. 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金完鎭. 1985. "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硏究." 『韓國文化』 6. 『음운과 문자』(김완진·1996·신구문화사)에 재록.

金完鎭. 1986. "新羅 鄕歌의 語學的 分析." 『傳統과 思想(Ⅱ)』(韓國思想史大系 86-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향가와 고려가요』(김완진·2000·서울대출판부)에 재록.

金裕範. 1995. <國語 流音의 音韻史的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유범. 1998a. "근대국어의 선어말어미-형태와 통합순서를 중심으로-."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홍종선 엮음) 박이정.
金裕範. 1998b. "慕竹旨郞歌 '阿冬音'의 解讀 再考." 『한국어학』 7.
金裕範. 1998c. "吏讀 '-是等'攷." 『口訣硏究』(구결학회) 4.
김유범. 1998d. "國語의 子音體系와 音節末 中和에 대한 通時的 照明." 『어문논집』(안암어문학회) 38.
金裕範. 1999a. "관형사형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通時的 고찰." 『한국어학』 10.
金裕範. 1999b. "借字表記의 格과 助詞 -鄕札 · 口訣 · 吏讀의 格助詞에 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月印.
김유범. 2001. "시간성 의존명사 '다'를 찾아서." 『형태론』 3-2.
김정아. 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김종규. 1986. "중세국어 활용에 나타나는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서울대국어국문학과) 11.
김종규. 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國語硏究』(국어연구회) 90.
金周弼. 1985.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硏究> 『國語硏究』(국어연구회) 68.
金周弼. 1988.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過程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서울대국어국문학과) 13.
金俊榮. 1979. 『鄕歌文學』 螢雪出版社.
김진형. 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國語硏究』(국어연구회) 136.
김차균. 1989. "ㅣ · 이-ㅣ와 ㅣ이시-ㅣ의 형태음운론." 『언어연구』(한국현대언어학회) 6.
남경란. 2001. < 《능엄경》 의 음독 입겿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南廣祐. 1959. "ㅸ ㅿ 論攷." 『논문집』(중앙대학교) 4.
南權熙. 1997. " 《大方廣佛華嚴經疏(卷三十五) 高麗 口訣本에 대한 書誌的 硏究." 『韓國傳統文化硏究』(계명대) 12.
남기심. 1986. "'이형태'의 상보적 분포와 통사적 구성." 『한글』 193.
남기심 · 이정민 · 이홍배. 1988. 『언어학 개론』(개정판) 탑출판사.
남기심 ·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南美貞. 1998. <接續語尾 '-거든'의 通時的 硏究>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南星祐. 1986. 『十五世紀國語의 同義語硏究』 塔出版社.
南星祐 · 鄭在永. 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구결학회) 3.
南豐鉉. 1985. "借字表記法의 '巴'字에 대하여." 『歷史言語學』(金芳漢先生回甲紀念論文集) 전예원.
南豐鉉. 1987. "中世國語의 過去時制語尾 '-드-'에 대하여." 『國語學』 16.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南豐鉉 · 1999 · 太學社)에 재록.
南豐鉉. 1992. "古文書의 吏讀 解讀-柳璥功臣錄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1(통권 46).

南豐鉉. 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高麗時代 楞嚴經』(口訣資料叢書一) 太學社.

南豐鉉. 1997. “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高麗時代 吏讀硏究의 一環으로-.”『古文書硏究』(韓國古文書學會) 12.

南豐鉉. 1998. “고대 국어 자료.”『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南豐鉉. 1999.『『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太學社.

류구상. 1983. “국어 후치사에 대한 재론.”『慶熙語文學』 6.

리의도. 1989. “15세기 우리말의 이음씨끝.”『한글』 206.

민현식. 1996. “中世國語의 交替 現象 記述에 대한 재검토.”『李基文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민현식. 1999.『국어 문법 연구』 亦樂.

朴炳采. 1971.『古代國語의 硏究-音韻篇-』 高麗大學校 出版部.

박병채. 1989.『국어발달사』 世英社.

박병채. 1994.『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朴盛鍾. 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朴英燮. 2000.『초간본 두시언해 한자대역어 연구』 박이정.

박영순. 1993.『현대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박영순. 1994.『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영준. 1993. “고려가요의 명령문 종결어미.”『民族文化硏究』(고대민족문화연구소) 26.

박영준. 1999. “호격조사 ‘-이여’와 감탄문 종결어미.”『어문논집』(안암어문학회) 39.

박종희. 1986. “형태음소론의 발달.”『국어국문학연구』(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1.

박진호. 1995. “현대국어 ‘만’, ‘뿐’, ‘따름’과 중세국어 ‘만’, ‘뿐’, ‘ᄯᆞ름’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국어학논집』(서울대국어국문학과 편) 2. 태학사.

박진호. 1998. “고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박창원. 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國語學』 16.

박창원. 1996.『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박형우. 1994. <중세 국어 조사 ‘이/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배주채. 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周時經學報』(주시경연구소) 7.

배주채. 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周時經學報』(주시경연구소) 11.

배주채. 1996.『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백두현. 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어문론총』(경북어문학회) 29.

백두현. 1996. “고려 시대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ろ(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어문론총』(경북어문학회) 30.

白斗鉉. 1997a.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아시아 諸民族의 文字』(口訣學會編) 태학사.

백두현. 1997b. "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口訣研究』(口訣學會) 2.

백두현. 1999. "구결 형태 '-ㅁㅁ七'(-고곳)의 기능에 대한 고찰." 『형태론』 1-2.

서보월. 1996. "국어 'ㄹ-으' 연계에서의 음운현상." 『안동어문학』(안동어문학회) 1.

徐禎穆. 1978. "體言의 統辭特性과 15世紀 國語의 '-ㅅ·-이/의'." 『國語學』 7.

徐廷範. 1982. 『音韻의 國語史的 研究』 集文堂.

서종학. 1983. <십오세기 국어의 후치사 연구> 『國語研究』(국어연구회) 53.

徐鍾學. 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徐泰龍. 1993. "文法形態素의 重加와 基本意味의 重加"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文學과知性社.

서형국. 1999. <어미의 기능 변화와 통합형의 재구조화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석주연. 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國語研究』(국어연구회) 132.

성광수. 1993. "어휘부의 형태/통사론적 접근." 『어문논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32.

成光秀. 1998. "국어 격체계의 변천과 격표지." 『師大論集』(고려대학교 사범대학) 22.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成光秀·1999·月印)에 재록.

성광수. 1999. "격론: 격기능과 격표지."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月印.

蘇斗永. 1984. 『構造主義』 民音社.

손평효. 1999. <중세 국어 대이름씨 '그어긔'의 문법화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宋娜瑙. 1993. <中期國語 母音衝突回避 現象 研究 -母音 形態素의 連結을 中心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宋幸蕙. 1999. <<현풍 곽씨 언간>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宋喆儀. 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考察-訓民正音 創制 初期文獻을 中心으로-." 『국어학』 16.

宋喆儀. 1991. "國語 音韻論에 있어서 體言과 用言."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音韻 I』(李秉根&郭忠求 編·1998·太學社)에 재록.

宋喆儀. 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國語學叢書 18) 太學社.

宋喆儀. 2000. "形態論과 音韻論." 『國語學』 35.

시정곤. 1993.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시정곤. 2000. "공형태소를 다시 생각함." 『한국어학』 12.

申景徹. 1992. "15世紀 國語字釋의 稀貴·難解語 一考." 『國語學研究百年史 II』(若泉金敏洙教授定年紀念論叢) 一潮閣.

신은경. 2000. "현대 국어 시제의 체계와 형태 발달."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2』 박이정.

辛志英. 1990. <국어 자음체계의 기저표시와 음운현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신지영. 1999. "한국어의 운율 단위와 경음화 현상." 『한국어학』 10.

신지영. 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安秉禧. 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硏究> 『國語硏究』(국어연구회) 7.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硏究』(安秉禧 · 1978 · 塔出版社)로 재간.
安秉禧. 1963. "「주가」語攷." 『국어국문학』 26.
安秉禧. 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건국학술연구원) 6.
安秉禧. 1967. "韓國語發達史 中(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Ⅴ(言語·文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安秉禧. 1968.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ㅅ」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安秉禧. 1972. "壬辰亂 直前 國語史 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진단학회) 33. 『國語史 資料 硏究』(安秉禧 · 1992 · 文學과知性社)에 재록.
安秉禧. 1987. "월인석보 권11, 12에 대하여." 『국어생활』(국어연구소) 9. 『國語史 資料 硏究』(安秉禧 · 1992 · 文學과知性社)에 재록.
安秉禧 · 李珖鎬. 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硏社.
安尙俊. 1974. <十五世紀國語의 終結語尾 <-다/라>에 對한 硏究>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梁柱東. 1965. 『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오정란. 1993a. "국어 'ㄹ'음의 양음절성과 겹자음화." 『언어』(한국언어학회) 18-1.
오정란. 1993b.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음운론연구회) 1.
오정란. 1995a. "국어 격어미 변이형들의 음운론적 해석."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음운론연구회) 2.
오정란. 1995b. "비음화와 비음동화." 『國語學』 25.
오정란. 1997. "어미 활용의 음운론적 제약과 대응이론."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음운론연구회) 3.
왕문용. 1991. "中世國語의 助詞 '의'와 '에'."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柳東碩. 1987. "十五世紀 國語繫辭의 形態交替에 대하여." 『于海李炳銑博士回甲記念論叢』.
兪昌均. 1996. 『<補訂> 鄕歌批解』 螢雪出版社.
劉昌惇. 1959. "「ㄷ · ㄹ」 音韻變化의 聯關性." 『人文科學』(연세대 문과대학) 3.
劉昌惇. 1961. 『國語變遷史』 通文館.
劉昌惇. 1962. "15世紀 國語의 音韻體系." 『國語學』 1.
劉昌惇. 1963. "선행어미 -가/거-, -아/어-, -나- 고찰." 『한글』 132.
劉昌惇. 1964. 『李朝 國語史 硏究』 宣明文化社.
이강로. 1961. "國語 形態音韻의 變動에 對하여." 『한글』 128.
李江魯. 1963. "形態音韻의 動搖와 標準音의 設定." 『論文集』(인천교육대학) 1.
李建植. 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이관규. 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이관규. 1999. "대등문 · 종속문 · 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서울대 국어교육과) 27.
李珖鎬. 1976. "中世國語 屬格語尾의 一考察-主語的 · 目的語的 屬格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70.
李珖鎬. 1983.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國語學』 12.

李珖鎬. 1993. "중세 국어의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 방안."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知性社.
이광호. 1995. "喉音 'ㅇ'과 中世國語 分綴表記의 新解釋."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太學社.
李根鏞. 1994. <15세기 국어의 특수어간 교체에 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이금영. 2000.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李氣銅. 1992. "音韻史." 『國語學硏究百年史Ⅱ』(若泉金敏洙敎授定年紀念論叢) - 一潮閣.
李基文.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진단학회) 23.
李基文. 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진단학회) 32.
李基文. 1972a. 『國語音韻史硏究』(國語學叢書 3) 塔出版社.
李基文. 1972b. 『改訂 國語史槪說』 塔出版社.
李基文. 1987. "內訓에 대하여." 『奎章閣』(서울대 도서관) 10.
이동석. 1996. <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동석. 1998. "근대국어의 파생법."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홍종선 엮음) 박이정.
이동석. 1999. "'-와/-과'의 성격과 기능 분화에 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月印.
이동석. 2000. "ㄹ탈락 현상과 '으'계 어미의 기본형." 『21세기 국어학의 과제』(간행위원회) 月印.
이명규. 1993. "中世國語의 齒音의 口蓋音化." 『음성·음운·형태론 연구』(음운론연구회) 1.
李秉根. 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李秉根·1979·塔出版社)에 재록.
이봉원. 1994. <한국어 유음의 변이음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李崇寧. 1961/8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李崇寧. 1976. "15世紀 國語의 雙形語 '잇다, 시다'의 發達에 대하여." 『國語學』 4.
李崇寧. 1980. "中世國語의 特異處格 「-이」, 「-의」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19.
李崇寧. 1985. "「-삳」, 「-삳녀」攷." 『羨烏堂金炯基先生八耋紀念國語學論叢』 創學社.
李承旭. 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硏究』 一潮閣.
李承旭. 1980. "終結形語尾의 統合的 關係-{-다}·{-라}의 素性記述을 위하여-." 『난정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총』.
李丞宰. 1992. 『高麗時代의 吏讀』(國語學叢書 17) 太學社.
李丞宰. 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震檀學報』(진단학회) 78.
李丞宰. 1996. "'ㄱ' 弱化·脫落의 通時的 考察-南權熙本 楞嚴經의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國語學』 28.
이승재. 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李丞宰. 1999. "新譯仁王經 口訣의 音韻史的 意義." 『口訣硏究』(구결학회) 5.
李丞宰. 2000. "尊敬法 先語末語尾 '-ㅎ/=[시]-'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震檀學報』(진단학회) 90.
이승희. 1996a. "고려시대 구결자료에 나타나는 감동법." 제1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문.

이승희. 1996b.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國語硏究』(국어연구회) 139.

이 용. 1998. "연결 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口訣硏究』(구결학회) 4.

이 용. 2000a.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이 용. 2000b. "廣修供養歌 '良焉多依'의 형태론적 고찰." 『형태론』 2-1.

李翊燮 · 任洪彬. 1983. 『國語文法論』 學硏社.

李翊燮. 1992. 『國語表記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섭 ·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硏社.

李仁模. 1975. <中世國語의 敍法과 時制의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李仁模. 1977. "중세국어의 '-쏜'계 어사연구." 『한국학보』 6.

이정복. 1996. "고려가요에 쓰인 형태소 '-시-'의 재해석." 『冠岳語文硏究』(서울대국어국문학과) 21.

이지양. 1998. "문법화."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이진호. 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國語硏究』(국어연구회) 147.

이진호. 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國語學』 31.

이진호. 2000. "중세국어 어간말 유성마찰음의 설정 여부." 『형태론』 1-2.

이필영. 1986. "呼格 및 感嘆助詞의 硏究." 『國語學新硏究』(약천김민수교수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이혁화. 1999. "국어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대하여." 『애산학보』(애산학회) 23.

이혁화. 2001. "교체에 대하여." 2001년도 상반기 형태론 연구회 논문발표회 발표문.

李賢熙. 1985. "'ᄒᆞ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누러ᄒᆞ다類와 엇더ᄒᆞ다類를 中心으로." 『논문집』(한신대) 2.

李賢熙. 1986.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ᄒᆞ-'의 性格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약천김민수교수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李賢熙. 1987. "국어의 어중 · 어말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논문집』(한신대) 4.

李賢熙. 1988. "중세국어의 請願構文과 관련된 몇 문제." 『語學硏究』(서울대 어학연구소) 24-3.

李賢熙. 1991. "中世國語 名詞文의 性格."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李賢熙. 1994a. 『中世國語 構文硏究』 新丘文化社.

李賢熙. 1994b.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周時經學報』(주시경연구소) 13.

李賢熙. 1995a.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太學社.

李賢熙. 1995b. "'-ᅀᅡ'와 '-沙'." 『韓日語學論叢』(南鶴李鍾徹先生回甲紀念論叢) 國學資料院.

이희자 · 이종희. 1998. 『[사전식]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임동훈. 1992.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시-'의 형태론." 『국어학논집』 1.

임동훈. 1994.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시-'의 형태론." 『국어학』 24.

임용기. 1999. "후기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 및 그 변화 추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겨레문화』(한국겨레문화연구원) 13.

任洪彬. 1980. "先語末 {-오/우-}와 確實性." 『韓國學論叢』(국민대 한국학연구소) 3.

張東翼. 1985. "麗末鮮初 田畓·奴婢관계 古文書 硏究." 『嶠南史學』(嶺南大學校 國史學會) 創刊號.

장윤희. 1991.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國語硏究』(국어연구회) 104.

장윤희. 1996. "중세국어 '-이ᄯᆞ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冠嶽語文硏究』(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1.

장윤희. 1997. "중세국어 종결어미 '-(으)이'의 분석과 그 문법사적 의의." 『國語學』 30.

장윤희. 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장윤희. 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장윤희. 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1.

장향실. 1996. "국어 'ㄹ변칙'의 원인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학』 4.

田炳勇. 1995. <中世國語의 語尾 '-니'에 대한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전정례. 1995. 『새로운 '-오-' 연구』 한국문화사.

鄭 光. 1986. "'하-' 動詞活用의 音韻論的 解釋." 『國語學新硏究』(약천김민수교수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鄭 光. 1988. 『司譯院 倭學 硏究』 太學社.

鄭 光. 1990. 『朝鮮朝 譯科 試券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정 광 · 윤세영. 1998a. 『司譯院 譯學書 冊板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정 광. 1998b. "舊蘇聯의 언어학과 初期 북한의 언어 연구." 『언어정보』(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2.

鄭然粲. 1963.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논문집』(충남대) 8.

鄭然粲. 1984. "中世國語의 한 助詞 「-으란」에 對하여-對題格으로 세운다-." 『國語學』 13.

鄭然粲. 1987.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國語學』 16.

鄭在永. 1996a.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口訣硏究』(구결학회) 1.

鄭在永. 1996b. "終結語尾 '-ㅛ에 대하여." 『震檀學報』(진단학회) 81.

鄭在永. 1996c.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國語學叢書 23) 太學社.

조창규. 1994. "15세기 국어의 'ㄱ-탈락, ㄷ→ㄹ 교체, 이-역행동화." 『語學硏究』(서울대 어학연구소) 30-3.

車載銀. 1992. <선어말어미 {-거-}의 변천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차재은. 1997. <15세기 국어의 성조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蔡 琬. 1990. "特殊助詞."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編) 東亞出版社.

최동주. 1996.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1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崔明玉. 1998. 『國語音韻論과 資料』 太學社.

최태영. 1989. "중세국어 ㄱ～ㅇ 교체." 『崇實語文』(숭실어문학회) 6.

최호철. 2000.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고전 범어 문법 용어." 『고려대장경의 고전범어문법 연구』(대장경 파니니연구회)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한영균. 1994. <후기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허 웅. 1958. "插入母音攷." 『논문집』(서울대) 7.

허 웅. 1963. 『中世國語硏究』 正音社.

허 웅. 1964. "齒音攷." 『국어국문학』 27.

허 웅. 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허 웅. 1992.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許興植. 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洪允杓. 1969. <15世紀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국어연구회) 21.

洪允杓. 1976a. "{-에서}와 {-익게}에 대한 考察." 『論文集』(全北大學校 敎養課程部) 3.

洪允杓. 1976b. "比較構文에서의 格語尾와 後置詞." 『學術院論文集』 15.

洪宗善. 1984. "屬格 · 處格의 發達." 『국어국문학』 91.

洪宗善. 1990. 『國語體言化構文의 研究』(민족문화연구총서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홍종선. 1992. "文法史 研究." 『國語學研究百年史Ⅱ』(若泉金敏洙教授定年紀念論叢) 一潮閣.

황국정. 2000a. <음절말 'ㅅ'의 음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황국정. 2000b. "향가의 격조사 '-衣[의/의], -矣[의/의]'에 대해." 『21세기 국어학의 과제』(간행위원회 편) 月印.

황국정. 2001. "속격 조사의 교체 원리에 대한 재검토" 『형태론』 3-1.

황선엽. 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國語研究』(국어연구회) 135.

志部昭平. 1990. 『諺解三綱行實圖研究』(上 · 下) 東京: 汲古書院.

河野六郎. 1948. "韓鮮語の過去 deに就いて." 『東洋語研究』 1. 『河野六郎著作集1』(1979 · 平凡社)에 재록.

Anderson, S. R. 1985. *Phon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changeli, D. 1984a.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Morphology*, Ph.D.Dissertation, MIT.

Archangeli, D. 1984b. "Underspecification in underlying representation." in Yomans G. and D.M.Lance,eds.,In Memory of Roman Jakobson:Papers from the 1984 MALC.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Baudouin de Courtenay, J. 1895. *Versuch einer Theorie phonetischer Alternationen*. Ein Kapitel aus der Psychophonetik. Strasbourg: Trübner.

Bloch, B. & G.L. Trager. 1942.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Waverly Press.

Block, B. 1947. "English verb inflection.". *Language* 23.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Bloomfield, L. 1939. *Menomini Morphophonemics*.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8.

Bybee, J. L. 1985. *Morphology*(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Darden, B. 1979. "On the nature of morphophonemic rules." *PCLS* 15.

Dressler, W. U. 1985. *Morphonology: the dynamics of derivation*. Ann Arbor: Karoma.

Hockett, C. 1950. "Morphophonemics." *Language* 26.

Hockett, C. 1954.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word* 10. Reprinted in Joos, M.(ed) (1958) *Readings in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ckett, C.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Hockett, C. 1970. *A Leonard Bloomfield Anth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Hooper, Joan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Ivic, Milka. 1965. *Trend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言語學史』(金芳漢 譯) 螢雪出版社. 1992.

Jackobson, R. 1971. "The Kazan'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and Its Place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Phonology." *Roman Jackobson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Jensen, J. T. 1990. *Morpholog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Jensen, J. T. 1993. *English Phonolog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Kenstowicz&Kisseberth. 1977. *Topics in Phonologica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Kilbury, J. 1976. *The Development of Morphophonemic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B.V.

Kim, Kee-Ho.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Dissertation, Univ. of Iowa at Iowa, Hanshin.

Kruszewski, Milkołai. 1881. *Über die Lautabwechslung*. Kazan'.

Martin, S.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Waverly Press. 『韓國語形態音素論』(全在昊 · 金泰漢 譯) 宣明文化社. 1969.

Nespor, M. &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Robins, R.H. 1967. *A Shot History of Linguistics*. London: Longman. second edition(1979).

Robins, R.H. 1973. *Ideen-und Problem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translated by Gutknecht & Panther). 『언어학의 사상사』(박수영 옮김) 도서출판 이목. 1992.

Saussure De Ferdinand.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Payot. 『일반언어학 강의』(최승언 옮김) 民音社, 1990.

Stankiewicz, E. 1961. "Opposition and hierarchy in morphophonemic alternations." *In To honor Roman Jakobson III*. The Hague: Mouton.

Stankiewicz, E. 1972. *A Baudouin de Courtenay anth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Stankiewicz, E. 1979. *Studies in Slavic morphophonemics and accentology*.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Sohn, Hyang-Sook. 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Seoul: Hanshin Publishing Co.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형태론』(전상범 · 김영석 · 김진형 共譯) 한신문화사, 1994.

Spencer, A. 1996. *Phonology*. Oxford: Blackwell.

Trubetzkoy, N. 1929. "Zur allegemeinen Theorie des phonologischen Vokalsystems."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1*.

Trubetzkoy, N.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7*. 『音韻論』(李德浩 譯) 汎韓書籍, 1977.

<Abstract>

Morphology and Phonology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in the 15th Century Korean

Kim, Yu-Pu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July, 2001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how how allomorphs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are organized in terms of the synchronic system and to give an account of the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process at that time of or before the 15th century through the allomorphic system.

In Chapter 1, the purpose, the domain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are mentioned and previous studies are criticized as well as summarized.

In Chapter 2, basic concepts on morpheme, morph, and allomorph are introduced. The phonological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allomorphs and the types of allomorphs are also presented.

In Chapter 3, the main Chapter of this thesis, allomorphic alternation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is discussed in two ways, the conditions and the contents of altern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list of allomorphs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is issued in advance.

The conditions of alternation are classified into three, which are the phonological conditions, the morphological conditions, and the syntactic conditions.

[1] Phonological Conditions
① the last segment of the preceding element
② the first segment of the following element
③ vowel harmony
④ non-contiguity environment of labialization of vowel
[2] Morphological Conditions
① the semantic category of the nominal
② the grammatical category of the verbal
③ the individual particularity of the specific morphemes
[3] Syntactic Conditions
① the constituent of sentence
②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interrogative

Among these three conditions, the morphological conditions and the syntactic conditions are characteristic of working on just a small number of morphemes. On the other hand, the phonological conditions work on most morphemes, they show generality of having an influence on the whole allomorphic system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The contents of alternation are classified into two, which are the phonological contents and the morphological contents.

[1] Phonological Contents
① addition of segment: addition of default vowel and glide 'j'
② deletion of segment: deletion of 'k', 'i', 'ʌ/ɨ', 'o/u'
③ replacement of segment: labialization of vowel, replacement of positive vowel and negative vowel, 'j'-gliding, replacement of fricatives with stops, replacement of 's'(ㅅ) and 'ts'(ㅈ) with fortis sounds, change of 't>r'

[2] Morphological Contents

① substitution of morph: substitution of 'a'(아)-type morph, 'r'(ㄹ)-type morph, and 'na' (나)-type morph

② double addition of morph: 'r → ril/rʌl', 'n → nɨn/nʌn'

In the contents of alternation, both synchronic contents and diachronic contents coexist. The phonological contents are mostly the result of synchronic and diachronic phonological process. In contrast, the morphological contents are entirely the result of diachronic morphological process, which are based on the individual particularity of the specific morphemes.

In Chapter 4, some morphophonemic issues concerned with alternation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are discussed.

In Chapter 5,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nd a prospect of developing the study is given.

Through this study we can come to know that allomorphs of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15th century Korean share the same conditions and contents, resulting in forming a system. This system reflects some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process that existed at that time of or before the 15th century.